

국립국어원 2012-01-05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378-01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4

- ▣ 연구책임자: 강 정 희(한남대학교)
연 구 원: 홍 기 옥(경북대학교)
- ▣ 조사 주제: 채늬기, 송어들이
- ▣ 조사 지역: 남해 근해(욕지도, 가덕도)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
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연구 기관: 한남대학교

연구책임자: 강정희

공동연구원: 홍기옥

제 1 부 사업 개요

제1장 연구 개요	3
1. 조사 개요	3
1.1.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_3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_4	
1.3. 조사 방법_5	
1.3.1. 조사의 의의	1.3.2. 조사 과정의 특징
1.3.3. 조사 시 고려 사항	
2. 조사 지침	7
2.1. 현장 조사 지침_8	
2.1.1. 일반 원칙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2.1.3. 제보자 선정 기준	
2.2. 전사 지침_10	
2.3. 올림말 선정 지침_12	
2.3.1. 일반 원칙	2.3.2. 세부기준
2.4. 뜻풀이 지침_15	
2.4.1. 기본 원칙	2.4.2. 뜻풀이 형식
2.4.3. 뜻풀이 용어	
제2장 연구 추진 과정	16
1. 조사 계획	16
1.1. 채낚기_17	
1.2. 송어들이_17	
2. 조사 보고	18
2.1. 제보자_18	
2.2. 조사 기간 및 방법_19	

- 2.3. 조사 지역_20
- 2.4. 조사 장소_24
- 2.5. 조사 내용_24
 - 2.5.1 채낚기
 - 2.5.2 송어들이
- 2.6. 조사 결과물_25

제 2 부 **연구 내용**

제3장 구술 발화 29

- 1. 채낚기 관련 구술 발화 29
 - 1.1. 설래끼꾼의 설래끼 이야기 하나-김홍국 씨_29
 - 1.2. 설래끼꾼들의 설래끼 이야기 둘-김수용, 김홍국 씨_39
 - 1.3. 설래끼꾼의 설래끼 이야기 셋-김삼춘 씨_69
- 2. 송어들이 관련 구술 발화 74
 - 2.1. 어로장의 송어들이 이야기-김관일 씨_74
 - 2.2. 송어들이 배 선원의 송어들이 이야기 둘-김은배 씨_94

제4장 조사된 어휘 129

- 1. 채낚기 129
 - 1.1. 채낚기 관련 명칭_129
 - 1.1.1. 전체 명칭
 - 1.1.2. 부분 명칭
 - 1.1.3. 종사자 명칭
 - 1.1.4. 단위 명칭
 - 1.2. 고기 잡기_134
 - 1.2.1. 준비물
 - 1.2.2. 행위
 - 1.2.3. 어획물
 - 1.2.4. 장소
 - 1.2.5. 시기
 - 1.2.6. 채낚기 방법
 - 1.2.7. 어획물 처리
 - 1.2.8. 기타
 - 1.3. 고사지내기_151
 - 1.3.1. 명칭
 - 1.3.2. 행위
 - 1.3.3. 기타
 - 1.4. 관용표현_152
- 2. 송어들이 153

2.1. 송어들이 관련 명칭_153	
2.1.1. 전체 명칭	2.1.2. 부분 명칭
2.1.3. 종사자 명칭	
2.2. 고기 잡기_164	
2.2.1. 시기	2.2.2. 위치
2.2.3. 작업 과정	2.2.4. 어획물
2.2.5. 단위	2.2.6. 도구
2.2.7. 금기	2.2.8. 기타
2.3. 고사 지내기_178	
2.3.1. 명칭	2.3.2. 대상
2.3.3. 위치	2.3.4. 시기
2.3.5. 차림상	
2.4. 관용 표현_180	

제 3 부 연구 결과

제5장 마무리	183
1. 채낚기	183
2. 송어들이	184
참고 문헌	187
부 록	189
찾 아 보 기	227

제 1 부

사 업 개 요

제 1 장 연구 개요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제 1 장 연구 개요

1. 조사 개요

1.1.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

본 조사는 2010년부터 한반도 남쪽 전 해안에 분포되어있는 어촌을 대상으로 한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사업의 제3차 년도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3차 년도인 2012년의 조사는 1차 ~ 2차 년도인 2010년과 2011년도에 실시한 해안 어촌 생활어를 기초로 한 섬 중심의 어촌 생활어이다.

최근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생태주의 언어학은 언어와 자연생태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생학문이다. 생태주의 언어학자들은 언어가 소멸하는 것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들이 멸종하는 현상을 같은 차원에서 보고 있다. 현대 사회의 산업화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파괴로 인한 많은 생물종들의 멸종은 해당 생물종들과 관련된 어휘, 표현법들의 소멸이 바로 언어와 생태계의 상호 관련성을 말해준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하고 역동적인 생활 모형을 창조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인간 활동의 매개체는 바로 언어이다. 언어를 통해 축적된 문화를 전수하며, 또 언어를 이용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또한 시대, 문화가 변해가면서 언어가 또 다른 모습을 띄기도 한다. 새로운 언어가 생기고, 사용하던 언어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언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특히 언어의 소멸은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그것은 언어의 소멸은 곧 그 언어를 사용하던 지역, 인간들의 정신문화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 인류 언어학자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문화란 주로 말과 글이라는 언어로 전달되고 있고 이 언어의 죽음으로 인해 언어 전달이 무너지면 지식 상속에 심각한 손실이 일어나고 이는 다시 개별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말은 사라져 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은 바다라는 환경에 적응하여 그와 관련된 여러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지역이 많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가 다양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어촌 지역의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말을 어촌 생활어라 한다. 여기에는 어촌 지역의 환경, 전통사회, 경제, 문화 활동과 연계

된 어휘, 표현이 들어 있고, 또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수많은 문법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양 생태계의 변화와 어촌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와 이로 인한 경제 형태의 변화는 이와 관련된 어촌 생활어에도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전통 어촌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는 소멸되었거나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새로운 언어 - 표준어의 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어촌 생활어 소멸과 확산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앞에서 본 조사 사업의 시대적 요청은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어촌 생활어에 대한 수집, 조사는 그동안 정부기관이나 국어학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촌 생활어에 대한 조사, 정리는 현재 절실히 필요한 작업이다. 현장 조사를 통한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기층문화와 관련된 어휘, 어법 등에 대한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문서화란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말처럼 사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언어의 다양한 모습을 연구적으로 그려 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사업의 목적은 한반도 남쪽의 해안 지역에 분포된 섬 중심의 어촌을 대상으로 하여 바다와 관련된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를 조사, 문서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해안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바다와 관련된 기초 어휘와 어촌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기층 생활어를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 작업은 해당 어촌 지역의 정체성을 살피고 그들의 삶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문화는 그 지역의 토속적인 언어와 기층 생활어의 결정체이다. 그러나 최근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의 속도와 함께 해당 지역의 토속 언어와 기층 생활어가 점점 소멸해가고 있다. 또한 섬과의 해양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사람들의 언어, 문화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기관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왔던 지역어 조사는 대부분 농촌 생활 중심이었다. 이러한 조사 지역의 편중성은 곧 해안 지역-어촌 생활에 대한 본격적인 언어학적 조사 사업과 업적의 영세성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 사업은 이와 같은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또한 최근 표준어의 간섭과 기계화로 인하여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의 전통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기층 생활어를 조사하여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오늘날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바다의 온도 상승은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또한 섬사람들의 생활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촌 사회의 환경, 생태계의 변화와 파괴는 어촌 생활과 문화의 변화, 소멸을 의미한

다. 이는 나아가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멸 위기의 개체들에 대한 기록과 보호는 현시점에서 필수적이며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소멸 위기의 언어를 조사하고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하는 일은 언어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문서화는 언어 유산의 상징이 될 몇 가지 어휘만을 수집하는 식의 비교적 단순한 과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서화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전 편찬이라는 전통적인 작업의 수준을 넘어서 구술 발화 등과 같은 담화 자료를 녹음기, 사진, 동영상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조사 대상을 하나의 언어 활동체로서 그려 내는 대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그 모습 그대로를 그려내는 것이다.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구술 발화 자료는 지금까지 각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국어의 어휘, 표현법의 발굴이 기대되며 나아가 국어 어휘장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휘 체계를 정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어촌 지역에 관련된 국어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1.3. 조사 방법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질문지에 의한 현장에서 직접 조사방법을 채택한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며, 개별 주제 조사는 연구원 각자의 간략 질문지를 이용한다. 질문지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명하기 어려운 해당 어휘에 관해서는 사진을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해당 어휘 항목을 조사하고, 나아가 조사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여 해당 어휘의 하위 항목의 어휘까지 수집한다. 질문지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자의 조사 어휘 항목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서 조사 대상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며, 조사 과정에서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요구된다.

1.3.1. 조사의 의의

- 어촌 지역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에 관한 일련의 조사는 사라져 가고 있는 어휘의 보존 작업에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 질문지를 통한 조사는 기본적인 어휘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어촌 생활에 관련된 기초 생활 어휘를 수집하기에는 용이한 방법이다.
- 또한 이 조사 방법을 통해 여러 조사 지점의 해당 어휘를 비교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해당 어휘가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조사 후 해당 어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생활 어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질문지를 통한 해당 어휘의 조사 뿐 아니라 조사자의 심층 밀착 조사는 하위 항목의 어

휘를 수집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어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어촌 생활어의 어휘망 확충, 어휘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해안 어촌과 섬사람들의 어촌 생활어의 실태를 비교 파악할 수 있다.

1.3.2. 조사 과정의 특징

- 조사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1차적 배경인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2차적 배경인 역사적인 조건과 외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조사 어휘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확장 어휘를 수집할 수 있다.
-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기초어휘 항목에 대한 선정과 이와 관련된 질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질문지를 통해 질문하기 어려운 어휘 항목에 대해서는 사진 자료를 준비하여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질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되어야 한다. 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질 높은 어휘 수집을 위해서는 조사 어휘 범주, 어휘 항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수집 어휘가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보자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1.3.3. 조사 시 고려 사항

- 조사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어촌 지역이라는 일반적인 요소 이외에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집할 수 있는 어휘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조사 어휘가 가지는 특수성과 일반성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윤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인, 집단의 행동과 말이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설명을 위해서는 배경과 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 조사 지침

기초 어휘 조사는 소멸해가는 어촌 생활 기초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해당 어휘를 조사하여야 한다. 어촌 생활 기초 어휘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어촌 생활에 관련된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로도와 어로방법, 음식, 민속에 관련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별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행위자
- 환경 : 시간(물때, 미세기, 하루), 날씨(바람, 비, 눈, 해·달·별, 기타), 공간(방위, 바다, 해안가, 지형)
- 어획물 : 물고기(부분 명칭, 종류, 상태), 조개류(부분 명칭, 종류, 상태), 게(부분 명칭, 종류) 해조류(종류, 상태), 기타(종류, 상태)
- 어로도와 어로행위 : 그물류(부분 명칭, 종류), 낚시류(부분 명칭, 종류), 배(부분 명칭, 종류), 어로 도구 기타, 어로 행위(조개류, 해조류, 그물류, 배, 기타)
- 음식 : 젓갈류, 기타
- 민속 : 제의(벉고사), 금기·속설·은어·노래

또한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어촌의 집단별, 직업별, 영역별, 기층 생활어 중 조사 지역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상황에 맞는 범주를 정해 조사한다. 간략 질문지를 작성하고 질문지를 근거로 해당 어휘를 조사하고, 나아가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한다.

조사는 직접 질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행위자(제보자)의 구술발화를 채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어휘를 추출해내고 어휘의 용례를 추출하기 위함이다. 질문지의 범주별 조사 항목에 맞추어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어를 조사한다. 또한 다양한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사 지역의 제보자와 일정 기간 숙식을 함께 하는 심층, 밀착 조사 방법을 채택한다. 조사자와 제보자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조사 어휘 외의 주변 생활어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의 구술발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생활어 어휘, 의미, 용례, 행위, 사회·문화·생태·역사의 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주제와 관련이 없는 개인 생애사는 가급적 채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 밀착 조사를 통해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의 어휘장을 넓히고 어휘체계를 구축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조사의 원칙으로 한다.

2.1. 현장 조사 지침

현장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원들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지리,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조사에 임하여 조사의 질을 높인다. 또한 기초 어휘를 먼저 조사한 후 개별 주제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가능한 기초 어휘의 확장 어휘, 어법을 보완 조사 한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이용하며, 개별 주제 조사는 간략 질문지를 이용한다.

2.1.1. 일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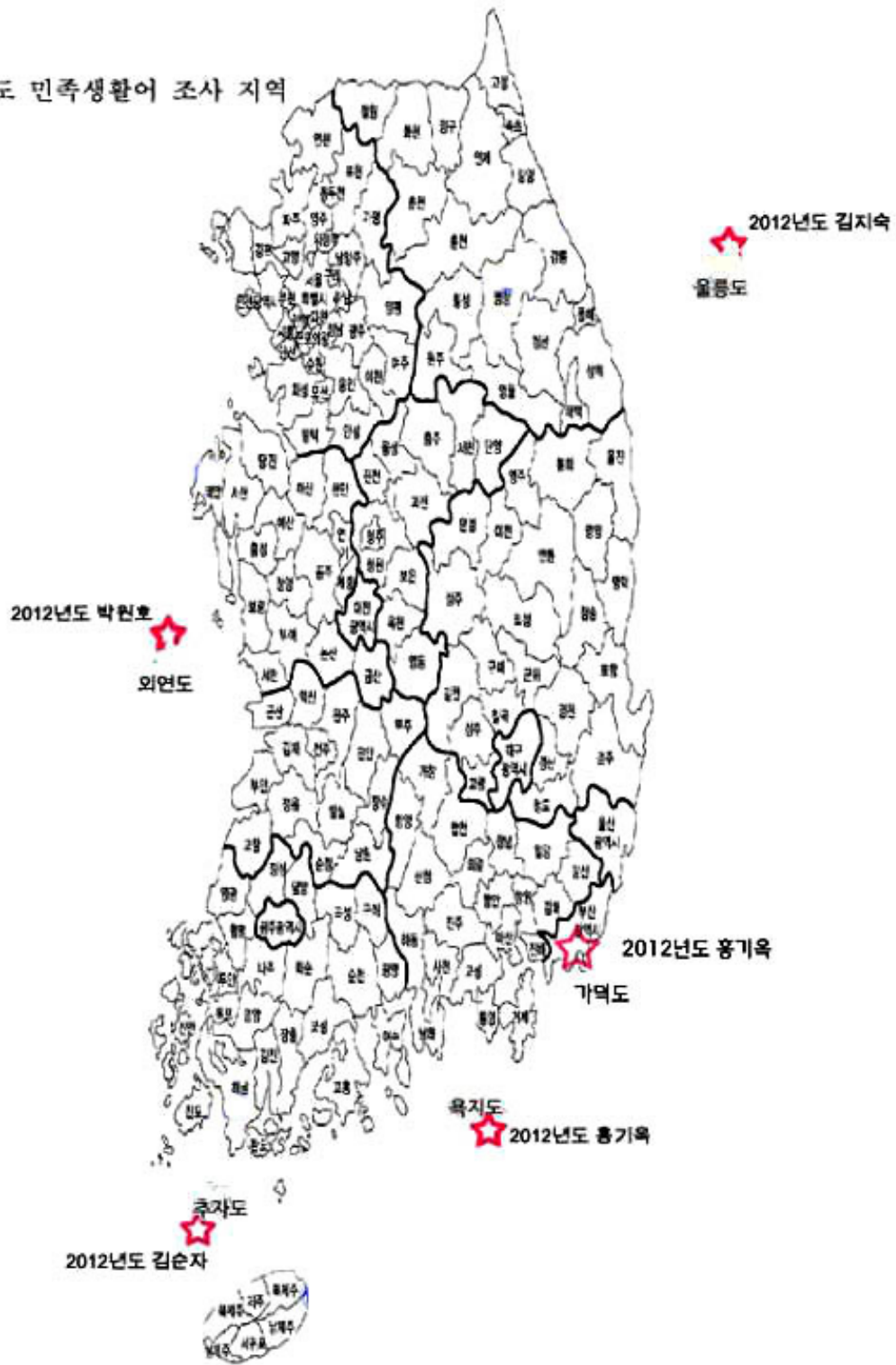
- 각 조사 지역에 해당하는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문법형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 조사 현장에서 채록된 모든 어휘를 수집하여 해당 어휘가 전형적인 의미를 가질 때 올림말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이에 확장된 여러 어휘를 수집하여 관련 어휘 체계망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 어휘론적 변종만을 올림말로 선정하며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상정하지 않는다.
- 조사된 어휘 항목에 대해서 사전 편찬을 위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된 어휘 용례는 대표성과 일반성을 획득하기 위해 2개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
- 모든 사진 자료와 음성자료는 최종 어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에 대한 어휘의 실물이 존재할 경우 모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에 대한 행위와 실물에 연관된 동영상을 촬영하여 영상 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
- 조사 대상자를 통해 관련 그림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올림말 선별 기준에 의해서 올림말로 등록하지 못한 어휘도 조사 자료 정리 방식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어휘 목록은 국어원에서 검토, 올림말로 선정 가능한 어휘는 다시 조사자에게 보내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 조사 지역 선정의 기준은 한반도 남쪽의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의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서 역사적으로 어촌생활을 해온 어촌 섬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동일 해안에 분포한 어촌들에 분포되어있는 어촌 생활어의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어의 다양한 어휘와 어떤 상관성 및 시차성을 보여주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 다음은 2012년도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 조사’ 를 위하여 선정된 각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 근해의 섬들이다.

☆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지역



2.1.3. 제보자 선정 기준

이 사업의 성격상 기존의 방언학에서 적용하여 왔던 제보자 선정 기준(NORMs)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촌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은 조사 상황에 맞게 정하되 될 수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자는 조사 지역에서 3대 이상 거주한 50~60세 이상으로 어업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지역 토박이로 한다.
- 70세 이상의 제보자는 되도록 학력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50대와 60대의 경우는 중학교 정도 졸업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 눈과 귀가 어둡지 않고 치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구술 발화 자료의 채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담이 있는 사람이 제보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전사 지침

※ 어휘 수집을 위한 전사 지침을 따르되, 음운론적인 정밀 전사가 필요한 경우(구술전사 등)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전사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 올림말(표제항) 및 용례
 - 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어간을 밝혀 적는다.
 - ② 유기음화, 경음화, ㄷ-구개음화, 유음화, 자음군단순화, 비음화 등과 같은 공시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한 음운변화나 음성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국또 → 국도, 가치 → 같이, 노코 → 놓고, 실라 → 신라, 감만 → 값만,
 흑또 → 흑도
 - ③ 일반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해서 예상되지 않는 음운변화 혹은 음성변화 또한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어휘들이 올림말로 선정될 경우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예) 김빡 → 김밥, 양념간장 → 양념간장, 서울씨 → 서울서, 돈또 → 돈도
 - ④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는 것도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⑤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e]나 [e]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하되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차똥 → 참똥(참외), 헤이 → 헤이(회의) 등
 - ⑥ 이중모음 ‘니’가 예측가능한 음성환경에서 [e]나 [i]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예) 민주주이 → 민주주의
 나에 → 나의
 이사 → 이사(의사)
 이자 → 이자(의자)
- ⑦ 이중모음 ‘-’가 [-]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의사 → 으사(의사)
 나으 → 나으(나의)
 으자 → 으자(의자)
- ⑧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 ‘-’가 [e]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지혜 → 지혜
 혜성 → 혜성
- ⑨ 단모음 ‘-’나 ‘-’가 [E]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이면 ‘-’, ‘-’
 이면 ‘-’로 전사한다.
 예) 대떡[E-] → 대떡
- ⑩ 단모음 ‘-’나 ‘-’가 [ɛ]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이면 ‘-’, ‘-’
 이면 ‘-’로 전사한다.
- ⑪ 전설 모음 앞에서 ‘-’이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샤람 → 샤람
 세수 → 세수 등
- ⑫ 음장은 별도의 기호를 두어 전사하지 않으며, 다만 올림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 ⑬ 체언 어간말 자음 ‘ㄷ, ㅌ, ㅊ, ㅈ’ 등이 곡용 패러다임에서 마찰음 ‘-’으로 실현된 경
 우에는 소리는 나는 대로 전사하고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둔다.
 예) 바시 → 바(발이)
 저시 → 저(젓이)
 꼬시 → 꼬(꽃이)
- ⑭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변이형들은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보듬기다>보둥기다,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⑮ 변자음화에 의한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익꼬 → 있고, 묵꼬 → 묻고(埋) 등
- ⑯ 표준어에서 ㅅ-불규칙, ㅂ-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이 정칙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한다.
 예) 이서서, 부서라, 지서라 등
 추버서, 매버서, 짜버서 등

2.3. 올림말 선정 지침

2.3.1. 일반 원칙

- ① 모든 어휘론적 변종들은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② 단순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음장, 장단,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자음군단순화, 위치동화, 활음화, ㄷ-구개음화(형태소 경계) 등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기저형의 예측이 가능한 표면형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다음의 올림말 선정 세부기준을 참고하되, 필요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올림말 선정의 예외를 결정한다.

2.3.2. 세부기준

- ① 음라우트 실현형 : 괴기, 핵교, 호랭이, 귀경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게재자음 제약에도 불구하고 음라우트가 실현된 경우에는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매디(마디), 쇠리(소리), 개지다(가지다) 등).
- ② 어두경음화 실현형 : 걱정(걱정), 쏘주(소주), 까지, 깨구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ㄱ-구개음화 실현형 : 질(길), 지동(기동)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④ ㅎ-구개음화 실현형 : 성(형), 소자(효자), 심(힘), 송년(흥년)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⑤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어간재구조화형 : 흑(흙), 닥(닭), 갑(값)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⑥ 체언 어간말 자음 ‘ㄷ’와 ‘ㄱ’의 음운론적 교체형 : 바대(바다), 가매(가마), 감재(감자), 붕에(붕어), 고등에(고등어), 잉에(잉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⑦ 치찰음화(혹은 구개모음화) 실현형 : 벼슬(벼실), 찌나물(쓰나물), 씨다(쓰다, 苦)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⑧ 모음 상승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ㅓ : 자두(자도), 삼촌(삼촌), 사둔(사돈), 가우리(가오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ㅡ : 그지(거지), 은니(언니), 그짓말(거짓말)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ㅞ>ㅣ : 기(蟹), 시상(세상), 히푸다(헤푸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⑨ 유음 아래서 ‘ㄴ’의 전설모음화 : 흐리다(流), 마리다(마르다), 고리다(고르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⑩ 순음 아래서 ‘ㄷ>ㄱ’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 : 몰(馬), 팔(팔), 밍다(밍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⑪ 어두음절에서 ‘ㄷ>ㅌ’의 교체형 : 새다리(사다리), 채곡채곡(차곡차곡), 재갈(자갈)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⑫ 순음 아래서 ‘ㄷ>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체형 : 봉어리(병어리), 볼(벌), 보짐(버짐), 모루(머루)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⑬ 자음첨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ㅁ-첨가 : 모가지>모감지, 호맹이>흙맹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ㄴ-첨가 : 고치다>곤치다, 까치>깐치, 무치다>문치다, 나중>난중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ㄹ-첨가 : 고르다>골르다, 도르다>돌르다(속이다, 흙치다), 지리>질리(길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ㄹ. ㅇ-첨가 : 해구다>행구다, 배우다>방우다(배우다), 베이다>벙이다(배우다)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⑭ 단순 모음 교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ㅑ : 망>명(그물), 쇠망>쇠명, 살강>설경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ㅕ : 구석>구삭, 흘청>홀창, 베개청>베개창, 수령>수랑, 뚜껍>뚜깡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ㅣ>ㅟ : 비늘>베늘, 비누>베누, 함씨>함씨(할머니), 개비>게베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ㄹ. ㅓ>ㅕ : 고자리>괴자리, 도토리>되토리, 코>괴, 꼬랑>피랑(도랑), 고>괴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ㄴ. ㅟ>ㅑ : 괴기>계기, 괴비>게비(식물), 외우다>에우다, 뵈시다>메시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ㅂ. ㅓ>ㅕ : 구저리>귀저리(구더기), 굴뚝>겉뚝, 꾸다>뀌다, 추다>취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ㅅ. ㅐ>ㅑ : 꿩이>꿩이, 왜홀태>외홀태, 산토꿩이>산토꿩이, 꿩>꿩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⑮ 단순 자음 교체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자음교체가 지역적 특성일 경우는 예외)
- ㄱ. ㅂ>ㄱ : 자봉침>자광침, 버마제비>거마제비, 덩석>덕석, 고부리다>고구리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ㅂ>ㅁ : 진눈깨비>진눈깨미, 버버리>버머리, 땅개비>땅개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ㅁ>ㅂ : 나막신>나박신, 대리미>대리비, 입감>입갑, 비점>비점(버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ㄹ. ㄱ>ㅂ : 주걱>주벽, 용구럭대기>용구럽대기(미꾸라지)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ㅁ. ㄱ>ㅇ : 닥성냥>당성냥, 복송씨>봉송씨, 꼭다리>꿩다리(꼬리), 물팍>물팡(무릎),
 어덕>어딩(언덕), 꼭사리>꿩사리(송사리), 등
 ☞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 ㅂ. ㄱ>ㅎ : 아곱>아흡, 뚝>뚛, 숙->송-(雄), 군지>훈지(그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⑯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안기다>양기다, 암개>양개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⑰ ‘ㄹ’ 삽입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형 : 앓다>안즈다, 엮다>여끄다, 양기다>양그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⑱ ‘△’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여수~여시, 가슬~가실, 잇다(이서라~
 잇꼬), 붓다(부서라~붓꼬)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⑲ ‘ㄹ’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술~소풀~소불(부추), 장팡~장꼬방(장
 독대), 마름~말밤, 덩다, 춥다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⑳ ‘ㄱ’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가새~가시개, 몰개~모래, 생강~새양,
 시렁~실경, 개암~깨금, 질구다~지루다(기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㉑ 평음의 유기음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차꼬(자꾸), 혼차(혼자), 펑퐁(병퐁), 팍나
 (밤낮), 풀세(벌써), 탐박질(달음박질), 몬차(먼저), 클씨(글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㉒ 어간말 자음 ‘ㅈ, ㅊ, ㅌ’ 등의 어간재구조화(마찰음화) : 꽃(꽃), 옷(옷), 빛(빛)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㉓ 용언의 어간재구조화형은 한글로 표기할 수 있을 경우 : 꿩다(견다), 꿩다(견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2.4. 뜻풀이 지침

2.4.1. 기본 원칙

- ① 순환적인 뜻풀이를 피해야 하며 뜻풀이에 표제어의 일부나 관련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고리타분하다「형」 고리고 타분하다.
- ② 한 단어로 뜻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뜻풀이는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줄여 뜻풀이한다.
- ④ 가능하면 문학작품이나 입말 자료 등에서 다양한 용례를 찾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2.4.2. 뜻풀이 형식

- ① 정의항은 기본적으로 ‘종차+유개념’의 형식을 따른다. 이때 명사는 명사(형)로, 동사나 형용사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부사와 관형사는 각각 그에 맞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뜻풀이한다.
예) 자배기01 #5 「명」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종차 └>유개념
- ② 올림말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 부가 뜻풀이를 정의항 다음에 제시한다. 이때 ‘짧은 정의+설명’ 형식으로 뜻풀이하고 ‘설명’ 부분은 반드시 종결어미 ‘-다’로 끝나는 형식으로 한다.
예) 간01 #5 「명」 「1」 음식물에 짠맛을 내는 물질. 소금, 간장, 된장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③ 생활어 및 직업어에서 조사된 모든 올림말은 뜻풀이를 한다.

2.4.3. 뜻풀이 용어

- ① 뜻풀이에 사용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표제어로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 단, 해당 표제어가 전문어인 경우에는 표제어가 아닌 단어를 뜻풀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② 뜻을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는 용어를 고르되, 가급적 쉬운 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③ 한자어와 고유어가 비슷한 빈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고유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원칙적으로 준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준말이 사용 빈도가 높거나 문맥상 준말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는 준말을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1. 조사 계획

언어는 참으로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개별이 속한 사회의 특징 뿐 아니라 문화까지 고스란히 언어 속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문화란 주로 말과 글이라는 언어로 전달되고 있고 이 언어의 죽음으로 인해 언어 전달이 무너지면 지식 상속에 심각한 손실이 일어나고 이는 다시 개별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¹⁾. 언어의 역사성에 의해 새로운 언어가 끊임없이 생기고 많은 언어가 사라지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언어의 소멸을 손놓고 바라보고만 있기에는 그것의 가치는 참으로 크다.

많은 언어가 여러 이유로 사라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사라지고 있는 언어에 관한 문서화 작업이 시급하다. 문서화란 그러모으기 식의 단순 과제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하나의 언어를 영구적으로 그려 내는 것을 말한다²⁾.

따라서 사라지고 있는 우리말에 대한 조사와 정리는 시급한 일이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관련 분야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전문가를 위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일반인에게도 분야별 어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남해안 통영시 욕지도의 대표적인 어로 방식인 채낚기와 부산시 가덕도 송어들이에 대한 어휘조사를 통해 관련 생활어휘의 목록을 체계화하려 한다. 이들 어로방식은 우리나라의 전통 어로 방식으로 여전히 지역에서는 주된 어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형태이다. 채낚기, 송어들이에 관련된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1) 데이비드 크리스털, 권루시안 역, '언어의 죽음', 서울: 이론과 실천, 2005, 60쪽.

2) 데이비드 크리스털, 상계서, 218~220쪽.

1.1. 채낚기

육지도에서 고기를 잡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채낚기’ 방식이다. 이는 육지도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1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어업방식으로 낚싯대에 외줄을 걸어 낚시하는 방식이나 여러 개의 바늘이 이 외줄에 달려 있고 잡는 어종에 따라 외줄에 거는 낚시 바늘의 수와 크기, 낚싯줄의 굵기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일반 낚시와 차이가 있다. 또한 육지도의 채낚기는 타 지역에서의 오징어 채낚기와 같은 대량 잡이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데 작은 배를 타고 육지도 주변에 나가 조업을 한다. 예전에는 ‘뗏마’라는 무동력선을 타고 나가 고기를 잡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예민하거나 얇은 물에 사는 어종을 잡을 때 무동력선을 이용한다고 하고 다랑어와 같은 큰 고기를 잡을 때는 동력선을 이용한다. 육지도에서는 채낚기를 ‘설낚기, 설래끼, 슬래끼’라 부르는데 ‘설’은 낚싯대에 거는 낚싯줄과 바늘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채낚기에 관한 조사에서는 ‘명칭(전체, 부분, 종사자, 기타), 고기 잡기(도구, 시기, 장소, 행위, 방법, 어획물, 기타), 고사(대상, 시기, 장소, 음식, 행위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조사하여 채낚기에 관한 어휘 목록을 체계화 하였다.

1.2. 송어들이

가덕도는 전통적인 어업 방식인 육소장망(六艘張網 일명 ‘송어들이’)이 유명하다. 육소장망은 송어가 들만한 물목에 그물을 깔아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망대에서 망수가 물 색깔과 물 속 그림자의 변화로 송어떼를 감지해 지시를 내리면 재빠르게 6척의 목선에 탄 선원이 그물을 끌어올려 송어를 잡는 전통적인 어법이다. 송어는 예민해서 유인하기 위해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 목선을 이용해야 하며 목선의 색깔도 눈에 잘 띄는 흰색을 사용하지 않고 검은색을 사용해야 한다.

‘송어들이’는 약 120년 전 통영군 산양리와 거제도 칠천도에서 처음 고안되어 사용되었고, 가덕도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어법으로서 현재 창원, 통영, 남해에 있는 육소장망을 모두 개량된 것으로 전통적인 어법의 형태를 찾을 수 없고 가덕도의 육소장망만이 유일하게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송어들이에 관해 ‘명칭(전체 명칭, 부분 명칭, 종사자 명칭), 고기 잡기(시기, 위치, 행위, 어획물, 단위, 도구, 금기), 고사 지내기(명칭, 대상, 장소, 행위, 차림상)’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조사하여 ‘송어들이’에 관한 어휘 목록을 체계화 하였다.

2. 조사 보고

2.1. 제보자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의 채낚기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 욕지도 동항리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있으며 채낚기 어업을 포함해 어업을 주요 생계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박이 이수용, 김삼춘, 김임옥 씨를 주제보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욕지면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보조 제보자 김홍국 씨를 통해 주제보자 소개, 마을 소개 등 욕지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부산시 가덕도의 송어들이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 송어들이 어장에서 올해 가덕도 송어들이 어로장을 맡고 있는 김관일 씨와 송어들이 배를 타고 있는 이장 김은배 씨를 주제보자로 하고, 송어들이 배가 욕지로 오면 뒤처리를 하는 서영자, 차선이 씨를 보조 제보자로 하였다.

〈표 1〉 제보자 표

연번	조사 대상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기타
1	채낚기	김임옥	남	78	욕지도 동항리	어업종사, 선주, 노인회장
2		이수용	남	82	욕지도 동항리	14세부터 채낚기 포함 어업종사
3		김삼춘	남	83	욕지도 동항리	20세부터 채낚기 포함 어업종사
4		김순금	여	78	욕지도 동항리	어업종사, 김삼춘 씨 부인
5		김홍국	남	53	욕지도 동항리	욕지면사무소 근무, 홍보담당, 토박이
6	송어들이	김관일	남	68	가덕도 대항동	송어들이 어로장, 숙부도 어로장
7		김은배	남	64	가덕도 대항동	송어들이 어업 종사, 이장
8		서영자	여	64	가덕도 대항동	송어들이 어업 포함 어업종사
9		차선이	여	61	가덕도 대항동	송어들이 어업 포함 어업종사



[사진 1] 김임옥-욕지도



[사진 2] 이수용-욕지도



[사진 3] 김삼춘-욕지도



[사진 4] 김순금-육지도



[사진 5] 김흥국-육지도



[사진 6] 김관욱-가덕도



[사진 7] 김은배-가덕도



[사진 8] 서영자-가덕도



[사진 9] 차선이-가덕도

2.2. 조사 기간 및 방법

2012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민족생활어 조사는 크게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문헌 조사는 3월 초까지 진행하여 참고 문헌을 중심으로 관련 어휘를 조사하고 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였다. 이 자료는 이후 현장 조사를 위한 관련 문항을 정리하는데 참고하였다. 조사 지역과 제보자 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는 2월 말까지 하였으며, 현장 조사는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현장 조사를 병행하였으므로 조사 시 부족한 내용은 바로 보충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2〉 조사 세부 일정

조사 세부 일정		
1	문헌조사: 2월~ 3월 초	
2	사전조사, 조사 준비 1: 2월 4일~5일, 2월 11일~12일	통영시 육지면 동항리
3	사전조사, 조사 준비 2: 3월 5일~6일	부산시 강서구 대항동
4	1차 조사: 3월 12일~13일	부산시 강서구 대항동
5	2차 조사: 3월 19일~20일	부산시 강서구 대항동
6	3차 조사: 3월 23일~27일	통영시 육지면 동항리

조사 세부 일정		
7	4차 조사: 4월 3일	부산시 강서구 대항동
8	5차 조사: 4월 10일	부산시 강서구 대항동
9	조사결과 정리 1 (2월 중순~6월 말)	trs 전사, 어휘 정리
10	보충 조사 1: 6월 23일, 6월 30일	부산시 강서구 대항동
11	보충 조사 2: 7월 7일~8일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12	조사 결과 정리 2 (6월 말~8월 말)	
13	최종 보고: 8월 22일	
14	보고서 작성 및 멀티미디어 자료 정리(8월 23일~9월 10일)	사진, 동영상 정리

욕지도, 가덕도에 관한 어촌 생활어 조사는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으로 해당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할 것이다.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원활한 현장 조사와 다양한 어휘 수집을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사전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이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지역의 어촌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질문지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풀이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해당 어휘에 관해서는 사진을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해당 어휘 항목을 조사하고, 나아가 조사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여 해당 어휘의 하위 항목 어휘까지 수집한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며,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확장 어휘에 관한 조사는 간략 질문지를 이용한다. 또한 자료 수집을 위해 녹음기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였다.

2.3. 조사 지역

경남 통영시 욕지도는 통영항에서 뱃길로 약 32km 정남에 위치한 농·어 복합형태의 도서면으로 행정중심인 큰 섬 욕지도를 중심으로 유인도인 내초도, 봉도, 국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납도, 두미도 등 11개의 섬과 무인도 4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욕지도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에 속하는 39개 섬 연화열도의 본섬으로 통영에서 남서쪽으로 21.4km 떨어져 있다. 동경 128°18', 북위 34°36'에 위치하며, 면적 14.95km², 해안선길이 31km 정도 된다. 욕지도의 최고봉인 천황봉(天皇峰, 392m)은 급경사를 이루면서 해안에 몰입하여 곳곳에 험준한 벼랑을 이루고 있고 해안은 굴곡이 심하며, 북동해안 중앙에는 깊숙한 만이 발달하고 있어 욕지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욕지해역은 여름철 내만 수온이 28°C에 이르고 겨울이라고 해도 13°C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많은 난류성 어족이 이 해역에 와서 산란을 하며, 겨울철에는 동해나 서해에 살던 것들이 이 해역으로 남하하여 월동하는 일이 많으므로 분포하는 수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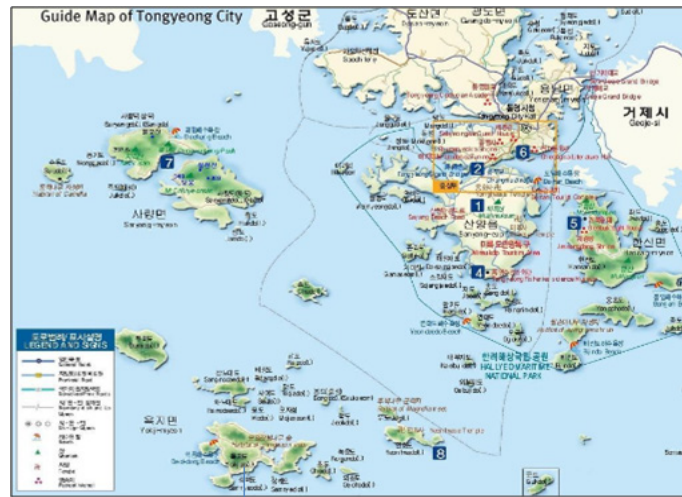
식물의 종류가 많고 한 어족의 분포밀도가 높은 곳이 많다. 이 해역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식물로는 툇, 우뭇가사리, 파래, 김, 미역 등이 있으며, 무척추동물로는 우렁쟁이를 비롯하여 홍합, 피조개, 꼬막, 바지락, 개조개, 새조개 등의 패류, 문어, 오징어 등의 연체동물 등 다양하며, 어류는 멸치, 갈치, 고등어, 전갱이, 조기, 볼락, 송어, 방어, 농어, 게르치 등의 난류성 어족이 많이 난다.³⁾ 어업은 한때 어업전진기지가 될 정도로 활발하였으나, 지금은 연안어업과 주로 전복·미역, 김 등의 양식업에 한정되고 있으며, 최근 장어양식이 대단히 성하여 높은 소득원이 되고 있다.

또한 육지도는 온난한 해양성기후로 식생은 팔손이·동백나무·풍란 등이 자라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로는 쌀·보리·콩·마늘·고추와 밀감이 생산되고, 주민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다. 육지도 주민 30%는 농업에 종사하는데 주요 농사는 고구마, 굴 농사이다. 물 빠짐 좋은 비탈 황토밭에서 해풍 맞으며 자란 육지도 고구마는 유난히 단단하고, 달콤해 명품 고구마로 비싼 값에 팔린다. 얇게 썬 고구마를 말리는 모습은 육지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데 육지도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고구마를 말려서 보관해왔다고 한다. 말린 고구마를 씻어 불리고 여기에 팔, 검은콩 등을 넣어 끓이면 육지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뺨때기죽이 완성된다. 또한 사슴이 많이 살았다고 하여 녹도(鹿島)라고 불리며, 이 섬에서 자생하고 있는 모밀잣밤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43호로 지정되었고, 경상남도기념물 제27호인 조개무지가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가덕도는 면적 20.78km², 해안선길이 36km이다. 부산에서 가장 큰 섬으로, 최고점은 연대봉(煙臺峰:459m)이다.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조선시대까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확인되며, 기록에 의하면 1544년(조선 중종 39) 이 지역에 가덕진(加德鎭)과 천성만호진(天城萬戶鎭)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1914년 창원군 천가면에 속하였고, 1980년 의창군 천가면으로 편입되었다가 1989년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편입되었다.

형태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해안은 동쪽과 남쪽이 단조로운 반면 서쪽은 소규모의 곶(串)과 만(灣)이 연이어져 드나들이 심하고, 북쪽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이 가파른 해식애를 이룬다. 섬 전역이 산지로 이루어졌으나 일부 평지에 마을이 형성되어 보리·양파·마늘 등을 재배하며, 연안에서는 굴 양식이 활발하다. 주로 송어·대구·청어 등이 많이 잡히며, 미역·홍합·바지락·조개류 등도 많이 채취된다.

3) 2008년에 발행된 『육지면지』 참조.



조사지점-욕지도



[사진 10] 욕지도 1



[사진 11] 욕지도 2



[사진 12] 욕지도 3



[사진 13] 욕지도 4



[사진 14] 가덕도 송어들이 어장 지도



[사진 15] 가덕도



[사진 16] 가덕도 대항동 송어상

2.4. 조사 장소

- 조사 장소 1: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동항리 욕지면사무소, 노인회관, 제보자 집
- 조사 장소 2: 경상남도 부산시 가덕도 대항리 송어들이 전시장, 제보자 집

경남 통영시 욕지도의 현장조사는 주로 욕지면사무소와 노인회관에서 주로 하였고, 제보자 김삼춘, 이수용 씨 집에서도 하였다. 김삼춘 씨와 김순금 씨는 부부이므로 함께 집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경남 부산시 가덕도 현장조사는 대항리의 송어들이 전시장과 제보자 이장 김은배 씨 집, 송어들이 어로장 김관일 씨 집에서 진행하였다.



[사진 17] 욕지도 면사무소



[사진 18] 가덕도 송어들이 전시장

2.5. 조사 내용

2.5.1 채낚기

채낚기에 관한 조사는 채낚기 관련 명칭에서부터 채낚기에 관한 전반적인 작업을 범주별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더불어 채낚기에 관련된 관용 표현을 조사에 포함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채낚기 관련 조사 범주

조사 범주	어휘 항목
채낚기 관련 명칭	전체 명칭, 부분 명칭, 종사자 명칭, 단위 명칭
고기 잡기	도구, 행위(준비, 현장), 어획물, 방법, 장소, 시기, 어획물 처리, 기타
고사 지내기	명칭, 대상, 시기, 음식, 행위자, 행위, 기타
관용 표현	범주별 관용 표현

2.5.2 송어들이

송어들이에 관한 조사는 송어들이 과정을 범주별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송어들이에 관해 ‘명칭(전체 명칭, 부분 명칭, 종사자 명칭), 고기 잡기(시기, 위치, 행위, 어획물, 단위, 도구, 금기), 고사 지내기(명칭, 대상, 장소, 시기, 행위, 차림상)’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송어들이 관련 조사 범주

조사 범주	어휘 항목
송어들이 관련 명칭	전체명칭, 부분 명칭(배 이름, 배 부속물, 기타), 종사자 명칭
고기 잡기	시기, 위치, 행위, 어획물, 단위, 도구, 금기, 기타
고사 지내기	명칭, 대상, 장소, 시기, 행위, 차림상
관용 표현	범주별 관용 표현

2.6. 조사 결과물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사 결과는 어휘 엑셀 자료,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구분, 정리하여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였다. 조사 어휘는 채낚기와 송어들이에 관련된 어휘를 위의 범주별로 나누어 해당 어휘의 올림말, 해당 표준어, 발음, 품사, 뜻풀이, 실제 용례, 관련 설명,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여부 등을 기록하였다. 음성 자료는 제보자가 실제 발화한 음성을 저장하고, 이를 transcrib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사하였다. 보충 자료로 어휘 관련 사진을 함께 저장하였다.

경남 육지도의 채낚기, 가덕도의 송어들이에 관한 생활어 조사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조사내역 구분	조사어휘		음성자료		영상자료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전사	분절 음성	사진	동영상
채낚기(육지도)		191	145	10/10	191	23	0
가덕도(송어들이)		169	136	7/7	167	20	0

제 2 부

연 구 내 용

제 3 장 구술 발화

제 4 장 조사된 어휘

제 3 장 구술 발화

1. 채낚기 관련 구술 발화

1.1. 설래끼꾼의 설래끼 이야기 하나-김흥국 씨

어업이 우리 어업이 채낚기가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육지가 이렇게 예로부터 채낚기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또 다른 말로 슬낚기고 하기도 해요. 슬낚기.

@ 그게 그러면 일본에서 들어온 형태인가요? 아까 선생님이 일본 어업 쪽.

그게 그 거기 인제 또 우리나라 말인 것 같아요. 일본조라 그래요. 일본조.

해패라고 해서 채낚기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해패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지금 지금은 인자 거 어업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이렇게 조금 줄어들다보니까.

그 해패가 인제 해산이 됐는데, 한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조라는 어업 해패가 있었어요.

거기 일본어는 아니, 일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일본조라는 뭐 한자음라든지 뜻이라든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채낚기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해패를 구성했었어요. 그때는 수십 명씩 이렇게 거 뭐 거의 인제 우리가 현재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면서 그게 많이 인제 어민들이 종사하는 어민들이 많이 줄었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컸었어요. 이 지역을 대표할 정도로 어업을 대표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조직이 컸어요.

컸고, 뭐 멀리는 저기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가깝게까지 이렇게 나가서 채낚기 어업을 했고.

주로 서해안, 남해안 이쪽으로 가서 서해안은 우럭이 유명하잖아요. 우럭 같은 거, 거 옆에 쪽에 가서, 굉장히 가서 이렇게 육지 사람들은 그게 유명해요. 지금도.

그 어업이 인제 뭐 저기 서해안 일대의 지역, 거 주민들한테 많이 전파를 되어 가지고 요즘에는 그쪽에서 오히려 인제 그 먼 곳까지 낚시 인제 거 깨뜨 신고가서 이렇게 줄낚시해서 이렇게 뭐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많은 가봐.

@ 그러면 이거 채낚기는 어종은 구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잡는 거겠냐. 그죠?

인제, 막 잡는 건 아니고, 계절마다 어종이 있어요. 어종이 있는데, 겨울철에는 우럭이고.

또 이렇게 봄이라든지 가을철 같으면. 뭐 대체로 어종이 겨울철에 좋은 어종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때는 인제 뭐 방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어종. 주로 방어, 우럭. 그 두 종류의 어종. 인제 거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고 전부 낚시로 낚시를 매 달아서 이렇게 해 갖고, 손으로 인제 거 그 인력으로 이렇게 낚는 거예요.

@ 정말 오래된 방식이다. 선생님 그죠?

그렇죠. 다른 건 능률이 떨어져서 안 해요. 다른 지역에서는.

@ 그렇죠. 이 능률적으로 그물보다는 훨씬 더 적죠.

그렇죠. 비능률적이라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육지는 그게 그동안 쪽 고집스럽게 이렇게 해 왔고, 또 그게 이렇게 용이한 게 뭐냐 하면은 그물로 이렇게 잡는 어업보다도 낚시로 잡기 때문에 그물에 이렇게 비늘이라든가 시달려가지고 신선도가 이렇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물로 잡으면은. 그런데 인제 낚시로 잡은 건, 신선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품성이 더 있죠.

@ 가치가 더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연유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인제 우리가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면서 그물을 잡은 거는 기르는 어업,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 정해 놓은 거 그렇게 이렇게 너치로 맞대요.

시달려가지고 피부에 뭐 이렇게 상처 같은 거 있기 때문에. 근데 낚시로 잡은 건 양

식 어민들이 다시 그걸 사 들어요. 사들여서, 인제, 적당한 크기로 기른다든가. 또 어가를 조정해가면서 좀 쌀 때 좀 이렇게 싸서 비쌀 때 낸다든가.

이런 어떤 경우가 있었고. 우리 육지 수협에서도 그걸 이판을 했었어요. 어민들이 이렇게 막 잡아오면은 근데 결국은 거기에 주된 낚시 그 뭐야 이 방법이 낚시예요. 그 물로 잡은 거는 곤란하고, 인제 낚시로 잡은 거.

@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낚시대 재질이 아니잖아요?

낚시대가 아니고 거기에는 인제 순전히 사람 인력으로 낚는 거죠. 손으로 손으로 낚는데, 낚시가 인제 뭐 수 개에서부터 수십 개 달아서 인제.

@ 그러면 선생님이 아는 채낚기 하기 전에 준비물. 준비물이 있으면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게 있으면은 만드는 방법. 아니면은 채낚기 하는 과정. 방법 뭐 요런 거 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채낚기라 하면 인제 우리가 어 지금 뭐 설낚기 채낚기 이렇게 같이 쓰는데. 옛날에 설래끼 이렇게 설래끼. 설이라는 말은 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줄. 줄이라고 우리가 설을 이렇게 좀 뭐 그물 그물에도 보면은 설을 설을 당겨라 설을 뭐 이렇게 그물코 이런 형태를 갖다가 설이라. 그러니까 설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줄이 아니고 우리가 인제 그 이렇게 지금 현재 용어로 바늘도 달고 하는 그 셋팅이 된 걸. 이제 설이라 그래요. 그 그물을 우리 보면 설이 좁다 좀 더 쥐라. 설을 좀 더 쥐라 뭐 그래 가지고 이 설이 너무 좁아서 이게 이렇게 잘 그 뭐 그물이 뒤집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듯이 설이라는 말은 단순한 한 가닥 줄 이게 설이라 하지 않고, 셋팅된 하나의 낚시대.

@ 낚시 그 바늘까지?

요걸 갖다가 꾸며놓은 걸 설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이 설을 가지고 낚시를 한다고 해서 설낚기라. 설낚기. 그래서 설낚기라고 표현 안 하고 설래끼라 해요. 설래끼. 채낚기가 원래 이 지역말로 채낚기라 하지 않고 설래끼라 했어요. 요 근간에 채낚기라는 말은 표준말입니다.

@ 그런 거 같아요.

채낚기는 표준말이고. 여기서서는 설래끼라 그랬거든요. 이 설래끼는 설래끼는 주된 장소가 이렇게 그 깊은 바다예요. 갯바위에서 하는 낚시가 아니고 배를 타고 하는 낚시를 설래끼라고 합니다. 그렇게 줄낚시를 설래끼라 하죠. 그 줄 셋팅된. 그 설 거. 그

걸 갖다가 인제 그걸 뭐라 했냐면은 주지라고 주지. 주지. 하나의 셋팅된 그 설래끼할 수 있는 셋팅된 하나의 낚시 전체를 주지라고 했는데 주지. 주지를 인제 주지. 꾸며진 모양 그니까 낚시를 그 주지를 넣어서 낚시하는 걸 설래끼라 했다 말입니다. 이 설래끼의 주된 장소는 적어도 위에 인제 부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배라든가 또 혹은 뭐 이렇게 물에 떠 있는 어떤 기구에서 낚시를 하는 게 설래끼고 인제 우리가 낚싯대를 갖고 하는 걸 설래끼라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설래끼는 배를 타야된다는 거죠. 배를 타고 깊은 바다나 뭐 얇은 바다나 이렇게 줄을 가지고 주지를 가지고 하는 게 설래끼다. 이해됐습니까?

@ 됐어요. 그러면 그 타고 가는 배를 부르는 이름이 있나요?

배는 배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배는 그냥 어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다 인제 배가 통일이 됐고 옛날에 저희들이 쓰고 있던 무동력선 그거는 이 동네에서는 뗏마라고 불렀는데, 뗏마가 일본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은 전마선입니다. 전마선.

@ 전마?

전. 전마선이고. 그게 전마선이고 인제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그걸 뗏마라고 불렀습니다. 뗏마. 배 이름 선도 안 붙이고 그냥 뗏마. 뗏마라면은 무조건 노를 저어서 가는 배들을 거의 뗏마라고 많이 했습니다.

@ 그러면 돛 같은 게 안 달려져 있고?

돛을 달 수 있는 시설이 있지요. 그건 전부 지칭해서 인제 그걸 갖다가 뗏마라고 했는데, 돛을 달아갖고 갈 수 있는 건 또 풍선이라고 했고. 그 그말이 서로 상통하는 거예요. 같이 쓰여졌다. 어떤 그냥 그 배를 놓고 풍선이라 했다가 뗏마라 했다가 같이 쓰는 거요.

@ 그러면 바다까지 좀 깊은 바다까지 나가려면.

가서 인제 낚시를 하는데, 옛날에는 깊은 바다 위치를 잘 모르잖아요. 인제 바다라고 해서 다 낚시가 되는 게 아니고 밑도 굴곡이 있어요. 이제 굴곡이 있는데 어제 어르신 이 말씀하시듯이 이제 자갈밭에 사는 고기가 있고, 또 이렇게 바다에 어초 어초 있는데 거 이렇게 어초 형태, 덕이라고 해요. 덕. 덕이라고 합니다. 바다 밑이 이렇게 굴곡이 심하다가 이렇게 고기가 살만한 그런 어떤 그렇게 쪽 올라온 그 어떤 형태 바다산이라든가 바다 그 지금은 어초라고 하는데,

인공어초가 있고 자연어초가 있어요. 어초가 지금 인제 어초. 어초라고 합니다. 그거 인제 찾아보시면 뜻이 뭇인지 알텐데. 그 어초가 어초가 보면은 대체로 많이 서식을 해요. 그런 곳에 인제 그런데 그 어초를 바다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쭉욱 찾아가면은, 처음에는 그 어초를 뭐 찾기가 좀 불리했잖아요. 그 많은 어부들이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그 어초 위치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래서 항상 어로장이라고 하고 선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공들이, 어로장 혹은 선장 밑에 있는 분을 전부 사공이라 해요. 사공이라 하는데. 사공들이 인제 그 분이 시키는 대로 옛날에는 배가 작았으니까 몇 명 안 갔겠죠. 뭐 한 대여섯 명대로 이렇게 가서 빠뜨려라 그러면 빠뜨리고 올리라 그러면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인제 처음에 어떻게 발견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 되겠고 또 그 위치를 어떻게 찾아가는가 하는 것도 문제고. 근데 그거를 인제 가늠이라고 합니다. 찾아가는 건 가늠이라고 해요. 가늠 본다.

@ 우리 왜 평소에 가늠하다 이런 말을 쓰기는 쓰잖아요.

가늠이라고 해요. 어초가늠이에요. 덕을, 덕이라고 하지요. 인제. 제대로 가면은 어덕 볼락 덕의 혹은 덕의 가늠을 이렇게 봐가지고 가늠을 봐가지고 거기에다가 낚시를 인제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거기서 한단 말입니다. 그뎨 낚시가 인제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열개 혹은 스물 개 이렇게 또 다섯 개 초보는 또 좀 더 작게. 또 큰 고기는 낚시가 이렇게.

@ 더 굵고 실도.

큰 고기들은 낚시가 이렇게 세네 개 달고, 많이 물면 안 되니까. 또 자잘한 고기는 열개 스무 개 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덕에서. 그러면은 인제 그 가늠, 가늠 데로 이렇게 가서 낚시 이렇게 해서 올리고.

@ 그러면 어제 그 어른신이 보여준 게 채낚기 하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 그게 아까 주지랑. 어제 왜 주지하는 거 나왔잖아요. 그거랑 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다양한 종류대로 그죠?

네.

@ 다른 지역에 가니까 덕이라는 거 보다는 덕굼터, 송어 덕굼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굼터이라는 말은 안 썼고. 그냥.

@ 덕, 덕이라 그러시구나.

그 송어는 어떤 덕하고 상관없고. 굼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덕이라는 건 송어는 덕하고 상관없고 해류성 어류기 때문에 송어는 이레 해안선 따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거는 덕은 필요 없고, 덕이라 하면 인제 거 어류들이 그 뭐야 텃고기.

@ 지역에 있는.

거기에 늘 항상 이렇게. 그 이렇게 뭐야 사는 거라 해야죠. 그 텃고기들의 집이에요. 삶의 터예요. 그게 덕인데. 송어는 그런 곳에 안 살아요.

@ 그렇죠. 요번에 송어들이 가니까 해안선을 따라 지형을 따라서 때로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배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잡는 방법을 설명해주시면 돼요.

거기서 인제 낚시 들어가지고 어떤 낚시는 이렇게 그 뭐야 액션을 취해야 되고 어떤 낚시는 내렸다가 올리면 되고 하는데, 뭐 그 대체로 낚시를 내려가지고 내려서 덕이라고 생각해서 인제 낚시추가 인제 닿아가지고 인제 이렇게 그대로 두면은 막 걸리니까 조금 이렇게 땅에서 일메다나 이삼십센치 들어 올려요. 들어올려가 있으면은 고기들이 막 이렇게 입질하는 게 온다고 느낌이. 그러면 끄집어 올려서 하나하나 고기를 따지요. 따는데, 인제 고기들이 깊은 물에서 올라 오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부레가 인제 거 부레가 입속으로 나와요. 부레가 나오니까 이걸 또 기술적으로 그걸 갖다가 살려야 이렇게 되잖아요. 부레가 나오면 부레가 커졌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물에다 넣으면은 배가 위로 가고 이렇게 떠 버린다고. 그러면 그 부레를.

@ 집어 넣어줘야 되나요?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배에 이렇게 배에 이렇게 보면은 배설하는 배설 항문 쪽으로 인제 조그만한 대롱을 넣으면 공기가 싹 빠져요. 빠져. 고기한테는 상처 안 가고. 싹 빠진다고 그러면 햇바닥을 이렇게 주서 넣으면서 그리고 넣으면은 그렇게 파닥파닥 살아서 또 이렇게 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제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인제 그런 곳을 여러 곳 옮겨 다니면서 하죠. 여러 데 옮겨다니면서 하다가 인제 인제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 그러면 여러 곳 옮겨 다닌다는 건 잡는 고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일대에 고기가 뭐 다른 고기가 물론 올라 올 수도 있는데, 인제 고기 인제 우리가 어부 자체가 낚시 주지 자체가 인제 볼락 낚시가 있고, 뭐 이렇게 그 뭐야 또 돔 낚시가 있고 다 달라요. 단지 이렇게 먹이 끼워서 넣으면은 돔도 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안 넣고. 그 인제 뭐 바다에 뭐야 이렇게 볼락은 볼락대로 뭐 이렇게 그런 개중에 인제 다른 고기가 이렇게 물어 올라 올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올라오는 그거를 잡어라고 하잖아요. 잡어. 내가 원하는 고기 외에는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잡어예요.

@ 잡어예요?

잡어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해 갖고 인제 자기 그날 어가가 어구가 뭐 이렇게 좋은 나쁘든 하루 하는 행위를 이렇게 하고 또 문제는 인제 뭐 한 삼십메다 사십메다 되는 바닷 밑에 지형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걸 많은 정보. 옛날에 정보예요. 정보 알고. 위치 찾아 가고 그래서 그걸 인제 잡아 올리기도 하고 가늠보고 조류에 맞춰서 낚시 드리우고 하는 거예요.

@ 그러면 사용하는 도구는 어제 어르신이 보여준 그 뭐지 주지랑 낚시대랑 그게 그냥 한 세트다 그죠?

그렇죠. 인자, 대신에 인제 어중에 따라서 낚시가 조금 크고, 낚시 줄이 좀 두껍고 또 미끼, 미끼가 인제 그 미끼를 갖다 이깎이라고 하거든요. 이깎.

@ 보니까 어제 방에 들어가서 사진 찍었을 때, 그거는 미끼 필요 없고 은색으로 반짝반짝한 걸 그걸 달아놨더라고요. 그게 미끼인줄 알고 그러면.

그렇죠. 인제 그.

@ 다랑어 잡는 거라 어르신이 그랬어요.

그 미끼를, 삼치 잡는 거. 삼치 잡는 건데. 이게 인제 낚시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인제 그 우리가 덕을 찾아서 낚는 낚시는 우리가 거 인제 그 덕을 가늠을 보고 찾아가야 하는데, 어저께 방안에서 본 큰 컨테이너 뭐야 컨테이너 이렇게 뭐라 끝 쪽에 인제 낚시 큰 거 쫓아서 이렇게 달았잖아요. 그거는 끌고 가요. 끌고. 그거는 인제.

@ 이동을 하는 거구나.

어느 속도는 유지해가지고 그 낚시가 많거든요. 그 백 개씩 이렇게 달고 이렇게 착 던져서 끌고 가면은 이 낚시가 가면서 막 이렇게 움직여 줘요. 움직여 주면은 그 인제 그 뭐야 가짜 미끼지요. 가짜 미끼. 인공적으로 이렇게 은박지해서, 그기 인제 멸치라는 모양으로 하니까 인제 고기들이 와서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 고기예요. 그거는 그건 채낚기 하고는.

@ 조금 거리가 있나요?

것도 채낚기라고 할 수 있겠죠.

@ 하여튼 고정된 형태는 아니고 이동하면서 걸리는.

그거는 동력선이 끌고 가야 돼요.

@ 그래야 되겠다. 그쵸. 그걸 노저어서 가기는 그렇고. 그러면 그 잡을 수 있는 어획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어획물은 여기 뭐 이렇게 바다에서 나는 고기들은 다죠.

@ 이쪽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게.

주된 어종들이 있어요. 우리가 저희들이 인제 거 계절마다 이렇게 낚시를 하면은 인제 거 겨울철에는 겨울철에는 볼락. 볼락 알지요? 그래서 이 볼락을 여기서는 빨래기라 했어요. 빨래기. 빨래이. 그래서 그 빨래이도 그 종류가 그 까만 빨래이가 있고 붉은 빨래이가 있어요. 그 까만 거는 먹빨래이. 먹빨래이 이렇게 했고. 좀 붉은 빨래이는 그냥 열기라고 했죠. 열기.

@ 어제 그 노인회장님은 그냥 까만 빨래이. 빨간 빨래이 그거까지만 말씀해주셨어요.

빨간 빨래이가 아니고 인제 빨간 볼래이라는 말은 안 쓰고 고마 열기라고 했고. 열기라 했고. 인제 붉은, 검은 빨래이는 먹빨래이라 그랬고. 먹볼. 까만빨. 검은빨래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고.

@ 먹빨래이. 겨울에 그럼 볼락이 많이 잡히고요?

볼락이 많이 잡히고 인제, 오월 유월 쯤 되면은 그거예요. 농어 낚시예요. 농어. 농

어 이제 낚시. 그래서 농어 낚시라는 건 농어바리라고 하거든. 농어바리, 불락발이.

@ 그 동해안에서 조사한 선생님은 농어를 잡는 사람을 농어바리 뭐 이렇게 부르대요. 그런데 여기는 잡는 그걸 갖다가.

행위.

@ 그러니까 그죠.

농어바리 안 가나 이런 식으로 모든 행위. 농어바리. 빨락바리. 빨락바리 안 가나? 뭐 빨락바리라고는 잘 하지 않는데.

@ 농어바리.

농어바리 뭐 그런 행위를 농어바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갈치도 낚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제 그때부터 쪽 가서 인제 삼치, 삼치바리를 합니더. 삼치바리. 삼치바리를 쪽 하다가 인제 가면은 그걸 해요. 인제 그 방어 방어는 방어가 아니고 여기서야 야도 야도라 그래요. 야도바리.

@ 야도바리.

야도바리를 하죠.

@ 갈치를 큰 갈치 작은 갈치 부른 게 이게 새끼를 생선도 왜 새끼를 부르는.

갈치를 새끼를 갖다가 부르는 말은 없는 거 갖고 그냥 뭐 이지 삼지 사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불렀고, 갈치는.

@ 그게 크기에 따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 아니면 굵기에 따라서.

크기. 갈치는 길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넓이.

@ 굵기 그죠. 넓이 폭.

네 그래서. 뭐 두 개 정도 되면 이지 뭐 이지라고 했어요. 이지만큼 넓다 뭐 그런 용

어도 안 쓰고. 이지 또 삼지 사지 뭐 이렇게 그렇게 했고 다른 용어는 있어요. 뭐 저기 뭐야뭐야 뿔래이는 뿔래이는 뭐 이렇게 작은 걸 조조라 했어요. 조조. 그 다음에 큰 거는 그냥 이렇게.

@ 뿔래이.

그거는 왕뿔래이 뭐 그렇게 이렇게 불렀다든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농어는 농어는 새끼를 까지메기라 했어요. 까지메기.

@ 아 이걸 까지메기라 그러는 구나.

까지메이. 까지메기.

@ 까지메이 이러더라고요. 남해군에 가니까.

까지메이. 다른 데는 갈따구라 했다는데, 그렇게 안 하고, 까지메이. 그 다음에 뭐 큰 거는 농어라 했고. 그 다음에.

@ 다른 거는 있나요?

방어는 방어는 그냥 그 야도.

@ 아까 아 야도.

야도 뭐. 그 다음에 큰 거를 작은 걸 야도라 했고, 알야도라 알야도. 작은 걸 알야도. 큰 거는 인제 그 중부리. 대부리 뭐 고부리 그렇게 불렀어요.

@ 고부리를 큰 것도 고부리라고도 부르는구나.

고부리는 더 큰 거고.

@ 고등어 같은 건 없나요?

고등어는 인제 계속 고등어라고 했고. 고등어 낚시는 요기 이렇게 뭐 우리 경제적인 낚시가 아니고 인제 레포츠 낚시였었고. 이 지역의.

@ 그냥 고도리 하는 건 그냥 고등어 자체를 고도리?

예, 고도리.

그랬고, 이제 돔 낚시해서 돔. 돔 낚시는 여름철에 해서 여름철 가을철 하죠. 여름 가을철 하는데, 돔은 작은 걸 상사리라 했어요. 상사리. 돔은 작은 걸 상사리라 하고 큰 건 돔이라고 하고. 돔 했어요. 돔. 그 다음에 감성돔. 그거는 인제 감시이라고 했지요. 감시. 감시. 그러면 새끼 감시이는 똥감시이. 똥감시이 뭐 이렇게 구정물에 있다고 해서 똥감시라 하고.

@ 새끼들은 구정물에 살아요?

감성돔이 원래 산란을 혼탁한 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에 갯벌이라든가 아니면 모래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해요. 그 파도가 막 치면은 구정물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거 똥감시이라고 했고. 큰 놈은 그냥 감시이. 감성돔을 감시이라 했어요. 감시이. 감시이. 뭐 감생이, 감승어 그래 안 하고 감시이. 똥감시이.

@ 예쁘네요. 이름이.

이 감시이. 그렇게 했다든가. 뭐 그런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 그런데 아까 전에 채낚기 말씀해 주셨으면 고 내용이 제일 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대충 준비물, 명칭, 장소 뭐 미끼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얘기 맞죠?

예, 대체로 그래요.

@ 그러면 어르신들 한 명 더 이렇게 같이 들어 보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뭐 들어서 자꾸 찾아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도 지금 완전하지는, 찾고 있는 중이니까.

@ 전문가라 그러셔서. 그러면. 고기에 관련된, 그런 일 많이 하시는 어르신 그 어제 그 어르신이 오늘 시간이 괜찮으시면 마침 저녁에.

내 함 찾아볼게요.

1.2. 설래끼꾼들의 설래끼 이야기 둘-김수용, 김흥국 씨

@ 어르신 그 어제 채낚기 해서 고기 잡는 거 많이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거 하는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뭘 준비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잡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것도 뭐서 따라서. 우리가 계절 따라서 마 도다리는 저 양력 삼월 달에. 우리가 보통 익을 때를 말로 하는데, 채납기는 낚고, 익을 때는 도다리가 참 잘 물구만은 그래. 도다리는 낚고. 또 뭐 인자 이 옥지라고 하는 메가리. 거기 말하자면 아진데, 정갱이. 왜놈말로 아지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정갱이고.

#1 우리는 그랑계, 정갱이 밑에 꺼를 갖다가 메가리지. 그러이 저 그라면 인자 다음달 부터 사월 오월 육월 칠월 팔월 구월 시월 십일월, 그 거기 메가라 하는 게 십일월, 십이월까지 나오는데, 그것이 십이일까지 물고 야 그거는 지 계절 따라서 무는 기고. 그 라면 인자 우리가 소래미다 하는 거는 육월 칠월 소래미가 그러는 거는.

@ 소래미?

#1 소래미. 소래미. 저 괴기가 쪼쪼하니 하야니 회 해 놓으면 맛있구만. 인자 그거를 갖다가 인자 사월오월에 인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전부를 대어. 그래갖고 우리가 인자 감성이 같은 건 감성돔이라고 그거는 순전히 인제 대게 되면 낚는데, 물밑에 바위 있는 데 가서 낚는데. 그거는 인자 십일월, 십이월 일월 달까지 삼 개월로 낚구만. 그 라면 인자 우리가 흑돔이라고 우리 김 선생은 알긴데, 모를 기제. 흑돔.

#2 흑돔이라는 건 알고.

#1 가리이라.

#2 가리이. 적은 걸 가리이라 하고.

#1 하모 인자 굵은 건.

#2 흑돔이라고.

#1 흑이 툇 붙은 거는 흑돔이고. 흑이 안 나온 거는 가리이라고.

#2 흑돔 새끼를 가리이.

#1 흑돔 새끼를 참 말을 우습게 말해. 거기 인자 감시이 철에. 감시이 철에 먹을 만한 멍 십일월 십이월 일월까지 그것이 무는구만. 물고 인자 빨라구는 언제 잘 무나 하면은 삼월, 사월.

#2 빨라구.

#1 이제 이 가에서 낚는 거는. 이 사월오월 이 새에서 빨레이가 잘 물고, 가에서 무는 거는. 그라 인자 바다에서 무는 거는 가사말이지. 이제 구월달, 시월, 십이월달까지.

#2 요즘도 쪽.

#1 요 십이월 일월, 이월. 그게 삼월까지 있어. 하여튼 이 빨래이 무는 기간은 사실 멀고 말이죠. 좀 열어들이지 날짜가 많이 가. 시월은 본래 많이 놓고. 그래 이제 괴기 나는 철 따라서 많이 나구만. 거는 인제 뭐 아쿠다, 뭐 해삐는 거. 아쿠.

#2 아귀. 아귀를 아쿠라 그래요.

#1 아귀가. 입이 크다 큰 거.

@ 아쿠?

#1 아쿠.

#2 아쿠, 아쿠.

#1 인자 그거는 인자. 뭐시기로 요새 나가 많아. 요새 자망으로 해가 잡고.

#2 그거는 채낚기가 아니고, 자망 그물.

#1 그물에 잡고, 그는 인자.

#2 옛날에 방으로 이렇게 잡았다 방.

#1 방으로 잡았어.

#2 그물이 방이라 그러더라. 방.

@ 방.

#2 그물을 모든 그물을 방이라 얘기해요.

#1 방, 방.

#2 방배, 그물을 끄는 배를 방배라 그래요.

@ 그러면 이렇게 이런 고기들을 잡잖아요. 어르신. 채낚기 하는 방법, 하는 방법 이렇게 어떻게 바다에 가서 뭐 우에 잡는다.

#1 그런 거 여러 가지지. 그것도요. 이제 빨라구 같은 거는 이자 주로 새우 같은 거 이자 산사비로 사가지고.

#2 빨라구.

#1 뽕라구 물에 넣어 놔다가.

#2 그것이 뽕레이, 뽕레이라 했나. 뽕레이. 뽕레이라 하는데, 뽕라구라는 말도 쓴다.

#1 뽕레이. 고마 보통 우리가 뽕레이. 이자 뽕레이는 인자 새우로 아까 김 선생이 하듯이 이 방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새우를 잡아가지고 물가는 살라가지고 요래가지고 새우는 뽕라구는, 뽕레이를 잡는데. 인자 잡고. 우리가 감성돔을 낚을 때. 감성돔.

#2 감성돔이라 하지 말고, 감시이라.

#1 어, 감성이 낚는 거는 고마. 저, 물에 바다 물에 합자. 흥합. 합자라고 있지요. 우리가 보통 합자라고 그 말 그래요.

#2 합자. 합

#1 인자 그거를 많이 따가지고 도고단 쪼어가지고.

#2 그게 합자라는 오가지라는.

#1 그래 가 인자 이깍은 전부 합자라 하는 기라. 인제 그러면 말이지. 감성이를 낚을 때는 비름은, 우리가 밀밥주고 하는 거는 이자 오가제이도 되고 뭐 저저 우디라고 바다물에 가면 투투불기 있구만 돌에 붙은 기. 자 고거 따서도 하고 인자 이깍은 순전히 합자라 하고.

@ 비름이라 하는 게 밀밥을 얘기하는 거예요?

#1 아, 밀밥을.

#1 인자 비름을 인자 감시이 낚을 때는.

#2 비름, 비름이라 하면 밀밥을 비름이라 하지 않고 밀밥을 치는 행위를 비름이라 합니다.

@ 행동 자체를 이야기하네요.

#2 행동을 비름이라.

#1 맞다. 맞다. 그렇지.

@ 그러면 비름주다 그래요? 아니면 비름한다.

#1 비름을 한다.

#2 비름 한다.

#1 고기를 오게끔 비름을 한다.

#1 마 그 말은 그 말이고.

@ 연결해서 뿌리는 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뭐지 채낚기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1 아니래. 그것도 낚는 질이 여러 가지라. 빨락은, 빨래이는 이갑을 낚시다 끼 매가지고 이 길게 이렇게 이갑을 끼 가지고, 그라 저 덕에 진 데가 가서 인자 이 흘러주기는 기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가에서 낚는 거는 인자 사월, 삼월 사월 오월 달에 낚는 거는 바위틈에 낚는 거는 저 그 익, 공갈낚수라고 낚싯대에다가 낚시에다가 꽃을 달구만은. 이 꼭 저 뭐 달구새끼 닭터래기로 빼든지 인자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있거만은.

@ 꽃을 다는 게 진짜 꽃이 아니고?

#1 아니지.

#2 그러니까 이제 그 인공미끼를 다는데. 인공 미끼는 나는데 또 이렇게 뭐야 닭털이라든가 오리털이라든가 부드러운 털을 기다가 이렇게 묶어서, 이게 새우나 다른 일반 먹이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1 움직이듯이 여 가지고 말이지 이 빨래이를 거.

#2 이 빨래이 볼락 같은 경우에는 인자 이 액션을 취해줘야 무는 고기라. 새우를 다는 이유도 새우가 인제 동적인 행위를 한다고. 그리고 또 낚시를 넣을 때도 낚시도 새우와 같은 형태의 낚시로 꾸며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는데, 바다에 넣어서 액션을 취해줘야 확 무는 거예요.

#1 그래 보통은 우리가 낚싯대가 해갖고 그걸 공갈낚수라 그래. 달팽이나 뭐를 매가지고.

@ 공갈낚수? 공갈낚수.

#1 예, 공갈이라고 괴기한테는 공갈이지. 우리가 왜.

@ 공갈친다 하는.

#1 우리가 말이야 공갈을 치는 기라.

#2 공갈은, 공갈이라는 게 인제, 공갈이 낚수가 공갈이 아니고, 공갈이깁.

#1 공갈이깁이지. 그게 말하자면.

#2 공갈이깁.

#1 그래가지고 가에서 빨래이 낚는 거는 낚싯대다 매가지고 이 유도를 해주구만은.

#2 낚수에 공갈이깁을 달아서 인제 액션을 취해준다.

#1 우리는 말하자면 흘쩍이라. 흘쩍흘쩍 흘쩍이. 보통 우리말은 흘때진다.

#2 흘쩍. 흘쩍 흘쩍.

#1 그거를 넣어가지고 그라면 빨래이 이 놈이 유도를 하는 바람에 탁 덮치거든 와서.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흑돔이라고 흑돔. 가리이. 흑돔 새끼가 가리이거든. 가리이. 흑돔 낚을 때는 우리가 가에서 낚는 거. 인자 비름을 해 놓고, 말하자면 합자나 오하지나 저 런 걸 따 가지고 인자 물에서 넣어 놓고 게로, 바다에 가면 게가 있구만. 게가 딱 벌려 지면서 사람도 물어제면 아프고.

#1 인자 그거를 딱 끼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에다 딱 쳐 놓구만. 쳐놓고 말이지. 저 비름이나 돌에나 이 뭇 데가 있으면 그따 딱 매 놓는 기라. 이제 그래놓고 한숨 자는 기라. 비름을 해놓고, 저 바치서 한숨 자고 내려 오면은 저것이 물고. 돌다가 죽어가 있구만. 흘하이 다 떠가 있구만. 그거이 불거니이고. 그래. 그래가 낚아가 가면 고만 똥구만.

#1 저 우리가 뭐 그물도 괴기를 안 잡아봤고, 순전히 채낚기로 낚았는데, 옛날에는 채낚기로 낚아서.

#2 그 채낚기를 채낚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설래끼라 안 했어요?

#1 설래끼.

#2 그쵸. 설래끼가 맞는 말이지. 우리 지역에 표준말 아닙니까.

#1 거기 표준말 맞아. 설래끼가 맞아.

#2 우리 동네 표준말은 설래끼입니다.

#1 어 그래 설래끼라.

#2 채낚기는 채낚기는 아니고.

#1 채낚기는 아이고, 설래끼. 보통 우리가 마 오늘 어테가요 이랬구면 설래끼 간다. 그 라면 뭐 낚으러 가요 그러면 흑돔 낚으러 간다. 감시이 낚으러 간다.

#2 이제 고기가 인제 좀 다른데,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해 준 액션 취해주고 낚시 많이 달아서 이렇게 넣는 거는, 동적인 먹이를 먹는 고기를 낚을 때는 낚시도 많이 달고 낚 시에 이렇게 치장을 해서 인제 공갈미끼를 달아가지고 낚는 거고. 인제 우리가 인제 바다에 인제 땅에 인제 떨어뜨린 미끼, 그러니까 바닷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다에 기 어 다니는 거라든가 흑은.

#1 어디 가에서 바위틈에 하든지.

#2 또 홍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처난 거를 쪼아 먹는다든가 그런 낚시를 할 때는 땅발이라고 해서 땅에다 가라앉혀줘야 해요.

@ 땅발.

#2 네, 땅발이. 그렇죠? 그래서 인제 감성돔이라든가 감식이라든가 흑돔 낚을 때는 바 닥에다 완전히 가라 앉쳐서, 줄도 느슨하게 이렇게 이렇게 조서 인제 우리가 인제 여 기서 얘기하면은 우리 요즘 낚시 방법으로는 처박기라 합니다. 처박기.

@ 처박기.

#2 원투낚시로 해갓고 원투낚시라 해가지고 처박기라 하거든. 멀리 던져서 처박기라 하는데, 그거는 인자 갯바위에서 하는 거고 배를 타고 할 때도 역시 처박기. 땅발이를 이렇게.

@ 땅발이.

#2 그때는 낚시를 한 개 흑은 두 개를 달아요.

#1 그런데 그는 그 그런 고기를 낚을 때는 시설물 많이 들구만은. 줄로 가지고 닳을 놓 고 배를 닳에다가 줄에다 매가지고 배로 그래놓고. 인제 말하자면 비름을 하는 기라. 이제 뭐 흑돔이다 감싱이다 마 그런 거는 인자 그 방법으로 해갓고 낚고, 인제 빨래이 같은 거는 줄빨래이라고 낚수 많이 달아가지고 저 어초 있는 데 마 그런 데서도 낚고, 또 바위 틈, 바위가 물 밑에 있는 데서도 낚고, 인자 그래하고. 인자.

#1 감시이 같은 거 낚는 거는 인자.

#2 그 인제 땅밭이를 해서 낚는 고기는 인제 뭐 감성돔이나 감시이나 아니면 흑돔이나 혹은 도다리나 이런 것들은 배를 고정시켜야 되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앵커를 놔와 가지고 이렇게 고정시켜야 된다고. 닻을 놔와가지고, 닻을 놓는데 뭐 닻을 한 개만 놓는 게 아니고 조류에 따라 흘러가니까 양 닻을 놓는다든가, 세 개를 놓는다든가 놔와 가지고.

#1 인자 그러면 양닻을 보통 세 개 놓지.

#2 세 개를 놓으면은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1 배가 딱 고정시킨 대로 딱 서가 있는 기라.

#2 거기 인제 비름 행위를 하면은 인제 그 인제 먹이를 주게 되면은 고기가 거기에 몰려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 포인트에다 계속 하루 원 종일 거기서 낚시를 하는 거지.

#1 그래 저 들물이 있고, 썰물이 있거든. 물이 나가는 빠지는 물도 있고, 들면은 올라오고 물이. 그러면 이자 바위에 가사 감시이라 하든지 흑돔이라 그러든지 저런 고기를 낚을 때는 인자 아까만치 닻을 세가닥을 놓고, 턱이 요기 있다카면 턱이, 그러면 들물 같으면 인제 요따가 배로 갖다 놓고, 물이 알로 내려갈 때는 요따가 딱 놓는 기라. 그래 요기 턱을 찍어놔거든. 그래 그런 고기는 항상 턱을 좋아하는 기라. 말하자면.

#2 그 포인트가 있어요.

#1 야, 포인트가 있어. 물밑에 가면 다.

#2 물밑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데. 감성돔 포인트가 여긴 거 같으면은 말 그대로 밀물과 썰물 우리 여기서는.

@ 들물 날물?

#2 들물 날물을 쓰는 게 아니고 용어를 들물 쓰는데, 들물 쓰는데, 날물이라 안 쓰고 썰물이라.

@ 썰물이라고 계속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2 두 개를 그렇게. 똑같은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 두 개를 혼용해서 쓴다는 거지. 들물은 들물 쓰고, 밀물은 안 쓰고.

@ 썰물하고.

#1 아, 썰물.

#2 또 날물은 날물이라 안 쓰고 썰물이라 해요.

#1 썰물이라 하고.

@ 다른 지역에는 왜 비슷한 형태를 이렇게 쓰거든요.

#1 그런데 저 표준말은 김 선생이 말하다시피 그런 말이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는 썰물, 들물.

#2 썰물, 들물. 이 두 개라. 이 두 개를 서로 상반되게끔. 한자도 아니고 우리는 표준말도 아니고 그렇게 쓴다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 지역의 특징이고. 아까 얘기하듯이 조류에 따라서 들물 썰물에 따라서.

@ 배의 위치를 다르게.

#2 이제 이 조류가 흐리니까 여기 포인트에다가 낚시를 엮기 위해서 배 위치를 달리해서 이제 배를 짜세운다. 앵커를 놓는다.

#1 저게 썰물 같으면

#2 배를 짜세운다.

#1 썰물 같으면 우에다 세아고 들물 같으면 밑에서 세아고. 요. 요 포인트 요거를 딱 주전해가.

#2 배를 짜세운다.

#1 배를 짜세운다.

#2 배를, 배를 짜세워 갖고, 그래 가서 이제 비름을 해서 이제 낚시를 흘려서 이제 낚시가 이렇게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낚시가 아무리 무거워도 조금조금 흘러가거든요. 흘러가니까 거기다가 딱 이렇게 포인트까지 가서 딱 기다리면은 고기들이 비름을 했기 때문에 몰려 드는 거예요. 그럼 낚아서. 그러니 감시이 낚는 방법 흑돔 낚는 방법.

#3 이제 감시이나 흑돔 낚는 방법은 그기고. 아까 이제 빨래이 그는 줄 빨래이라고 이 깎을 공갈낚수로 달아가지고 유두리를 하는 기라. 훌작훌작하니.

#2 빨락은 이제 밑에 상황이, 바다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역시 덕이라 덕. 역시 덕인데. 빨락은 때로 다니거든 때로. 그 흘러다니는 게 아니라. 때로 그 지역에 딱.

@ 머물러 있구나.

#2 아, 머물러 있다가 먹이가 오면은 때로 왁 올라와서.

#1 우리가 말하자면 아이고 물 밑에 물밑에 빨라구가 덩거리로 지아가 했다. 요렇게 말하거든. 많이 있다 이말이야.

#2 고기 덩거리.

#1 아 고기 덩거리.

#2 고기 덩거리로 이렇게 지어 있다가 낚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한 놈이 이렇게 그게 먹이라고 이래갖고 막 각 달라든다고. 달라들면은 다른 놈들도 막 동시에 왁 이렇게 덤벼들어서 그 낚시에 인제 그야말로 쥘어 올라오는 거지 뭐.

#1 하모. 쥘어 올라오는 기지.

@ 그래서 그냥 즐뵤.

#2 예, 거기 인제 그게 낚시를 촘촘촘촘 달잖아요. 그게 달면은 그게 내려가서 한 번 액션을 취해주면은 이게 뭐 왁 뭐 움직이면은 이놈들이 막 먹이를 고마 왁 달라 붙는 거예요.

#1 하모. 좋다고 먹는다. 그걸. 그걸 우에 공갈낚수 그놈이 많이 흔들거든 고기가 삭 재아드는구만.

#2 위에서 인제 땅에 닿는 거 보고 액션 한번 탁 취해주면은 이놈들이 마 거기 인제 먹이인양 이렇게 달라 들어서.

#1 내가 예추도 살 때에 우리 내외간에 인제 배를 타고 고기 낚으로 나가는 기라. 그러면 인자 나라건 유승들이 말하는 것 같이 그 공갈낚수로 채 가지고 여면은 말이지 들어서 이 여면은 말이지 마 잠시 고마 많이 낚는 기라. 말하자면 망태를 가가서 한방 지르면 지는 기라 고마. 그러면 그거 뭐 팔 줄도 모르고 섬이 작으니까 먹는 거밖에 안 되거든.

#1 그러면 집에 갖다놓고. 막 그러고 전부 소금을 흘리고 이래가지고 인자 찌도 먹고 꾸도 먹고 회도 해 먹고 옛날에는 우리 사람들 뭐 팔 때도 없으니까, 전부 마 고마 해먹

는데. 그래가 인자 그런 걸로 해서 많이 모다 났다가 고성 같은 데 인제 전데(저런데) 가면은 쌀이 귀하니까 쌀도 그 고기를 주고 바꿔. 바꾼다하지 말하자면 고기주고 쌀 바까 온다. 인제 요래가지고.

#2 물물교환 물물교환요.

@ 그러면 채낚기 하는 방법이 두 개 정도로 나뉘지는 거예요? 줄을.

#2 그렇지요. 한 두어 개. 두어 개 되고, 또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

#1 어 다를 수 있지.

#2 그 정도. 채낚기는 그 정도. 그러니까 설래끼. 슬래끼.

#1 설래끼.

#2 설낚기가 아니고 설래끼.

@ 설래끼.

#2 예, 설래끼는 그렇고 인제 우리가 그 뭐야 도다리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그 모래무지 우리는 소래미라 그래 소래미.

#1 소래미.

#2 소래미라고 하는 모래무지.

@ 모래무지를 소래미?

#2 모래무리가 아니고 이게 그 뭐라? 보리매. 보리맬이거든. 정확하게는 보리밀.

#1 이 보리밀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소래미라 그러지요.

#2 보리맬이 인제 학명이고 요 동네 요 동네 표준말이 소래미 소래미인데 소내미지, 소내미입니까? 소래미? 소래미지.

#1 소래미.

#1 우리가 보통 마 소래미. 그 쎄가 잘 안 돌아가는구만은.

#2 소래미인데 이거는 배가 쪽 흘러가면서 낚시 그냥 이렇게 들이 너면은 그 뭐 밑에서 상황에 따라서 덕하고 관계없이

#1 그는 덕하고 관계없는구만.

#2 덕하고 관계없이. 모래바닥이다. 요 지역이 모래바닥이다. 오랜 경험에 경험에 통해 갖고 모래바닥이나 아니면은 자갈바닥이, 자갈밭이다 아니면 뽕밭이다. 마. 이런 어떤 위치의 아무 곳이나 가서.

@ 배가 쪽 흘러가면서.

#2 흘러가면서 넣어서 이래, 이렇게 낚는 거예요. 고거는 인제 고거는 덕하고 다르고. 그는 뭐 인제.

#1 고기 낚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

#2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돼요. 덕을 찾아서 인제 낚는 거는 우리 뽕락 같은 거.

@ 덕을 찾아서 하는 게 뽕락이고.

#2 또 뽕락이나 아니면은 또 여름철에 하는 거 거 뭐야.

#1 뭐 불이라 갖고. 뭐라 그라나. 야루라 카터나? 뭐. 마 그것도 덕에 전부 덕에 가서 낚는데.

#2 놓어라든가 이런 건 덕에 가서 낚고. 뽕락 놓어 이런 거는 덕에서 낚고. 감성돔은 배를 짜 세워서 인제 그 덕에 얹은, 대체로 좀 깊은 덕은 아니고요. 조금 약 한 십메다 십오메다 범위 내에 얹은 덕. 뽕락은 깊은 덕.

@ 그리고 아까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쏘래미 같은 거는 덕이 아니라 흘러가면서.

#1 그는 주로 모래밭에.

#2 모래밭. 그는 바다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것도 한 수심 이십메다 내에 있는 이 내에 있는 모래밭. 뭐 모래밭이나 작밭이라 그래요. 작밭.

@ 자갈밭?

#2 자잘한 자갈.

#1 밑에 자갈이 있는.

#2 밑에 자잘한 자갈. 자갈도 아니고 모래밭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거를 작밭이라 그래요.

#1 사람 손으로 낚는 거는 그거는 낚는 기 방법이 제일 수월하고 고마 배에 띄어놓고 배야 어디를 가든지 마든가 그야 자갈밭에만 떠가면 되거든.

@ 이게 제일 수월한 거 같네요. 제가 봐도.

#2 고기도 많고 거는.

#1 고기도 많고. 그는 뭐 저 서울에 천치 같은 아가씨들이 와도 한 번도 이거 안 한 사람도 아가씨들은 그 고기는 낚구만.

@ 체험하는 거요?

#2 체험 충분히 가능하지.

@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깊은 덕에서 낚는 뿔락이나 이런 게 어려운 건가요?

#2 그렇죠.

#1 감시이도 그렇고.

#2 뿔락도 그렇고.

#1 그런 건 참 어렵죠. 그렇께, 감시이 듣는 요새는 어탕기라고 있고. 그 뭐꼬 뭐처럼 쓰나. 덕을 찾아가지고 입력을 씨기 가지고 요래가지고 요새는 뿔래기 나오는 곳은.

#2 지피에스.

#1 상당히 기술이 참 좋아야 되구만. 어탕기를 가 땡기면서 전부 덕을 발견해가지고 물 밑에다가 어초로 많이 넣어놨거든 그러면 어초 근데 고기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전부 다 어탕기다 찍는 기라 말하자면,

#2 인공어초.

#1 그래가지고 인자 또 요쪽에다가 이름이 뭐더라 뭐.

#2 요쪽에 지피에스.

#1 덕을, 어탕기 찾아가지고 읊기는 거.

#2 지피에스.

#1 지피에스가 그거 뭐꼬. 요런 거. 그따가 전부 인자 그래가지고 가서 말이지.

@ 보는 걸. 아.

#1 백 개나 이백 개나 마.

#2 집. 지피에스에다 이렇게.

#1 찾아가지고 그래 그걸 전부 시키면 되는 거요.

#2 터치하면은 그거 입력이 되거든요.

#1 일일이 다 시어댕기거나. 그러면 인자 어데 가면은 몇도, 몇 마디 나가면은 이제 거기 덕이 있다. 어초가 있다. 그러면 인자 인증을 해 났으니까 마 그쪽으로 찾아가는 기라, 마.

@ 지피에스가 이렇게 저희들 지리학에 사용하는데, 지형 그런 거 잘 할 수 있는 기계잖아요? 그죠?

#2 위치.

@ 위치

#2 위치만 알려주는 거.

@ 위치정보 기계잖아요.

#2 지형은 아니고. 위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바다에서 쓰는 전용 어선에서 쓰는 지피에스가 있어요. 해도도 다 나와 있고. 그거 지피에스. 그렇고 인제 어탕기는 밑에 지형.

@ 지형을 보는 거고.

#2 지형을 보고.

@ 그러면 어르신하고 쌤이 말씀하신 거 보면 고기를 잡는 장소가 덕에서 얕은 데든 깊은 데서 잡는 채낚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쪽쪽쪽 흘러가면서 하는 채낚기가 있고.

#1 하모요. 예예.

@ 그리고 방법에서는 줄로 그냥 내려서 하는 게 그게 줄뿔레이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아까 배를 고정시켜서 닻을 한 세 개 놔둬서 하는 건?

#1 그건 낚수 한 개 달아가지고 합자를 까가지고 뒤편 부산가면서 탄뻬라 카터라. 그거를

딱 까가지고 그만 여면은 인제.

#2 원래 담치가 표준말이에요.

#1 어, 표준말. 그를 인자 우리가 보통 합자가 하면 따가지고 감시이 이깁을 한다.

#1 가서 막 흑돔을 낚는다. 가리이 낚는다 인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갯지리이라고. 야 그건 우리가 사가지고, 아까 소래미가 그러더나 뭐더노, 인제 고겨 낚는 데. 고계 인제 미끼가 되고. 그거는 마 제일 바다 띄어 놓고 쪽 흘러가면 낚는 기야. 그거는 제일 수월은.

#2 그무리 그무리라요. 그무리.

#1 그무리이라고.

@ 그무리가 갯지렁이.

#1 갯지렁이, 어.

@ 거머리도 아니고.

#2 거무리.

@ 그무리?

#2 거머리가 아니고 거무리.

#1 붙는 기.

#2 그냥 그무리 파러 간다 이래 갖고 그무리.

#1 그기 붙고 사람한테 몸에 붙구만은.

#2 그거는 인제 그 거머리, 거머리고. 우리가 갯가에 나오는 바다에 모래 모래밭이나 돌 뒤져서 파서 이렇게 하는 거 거무리라 그러거든요.

#1 그거는 우리 보통 우리가 숨기 말하면 물그시이.

@ 물시?

#2 물그시이.

#1 니 어데가노 물그시이 파러 간다.

#2 물그시이. 그시이. 물그시이.

#1 예 그시이를 물그시이.

@ 거시?

#1 예, 물거시이.

#2 물거시이. 거무리.

#1 우리 육상에 저 뭐꼬. 안 있나 뭐 디지는 거.

#1 거시이, 거시이. 우리 동상도 여 거시이라고.

#2 응 거시이.

#1 날이 우짜면 똑똑 구부러서 가베, 그라니께 인자 우리는 인제 물그시 파러 간다. 물에.

#2 그시이, 그시이.

@ 거시이는 그냥 지렁이고, 물거시이가 갯지렁이고.

#2 갯지렁이.

#1 갯지렁이지.

@ 그 물거시이를 가지고 소래미를 소래미 이깎을 하고.

#1 소래미 이깎을 하고. 그것도 요새 이깎이 비쌌어요. 사아가도 안 합니더. 사천 원에서 오천 원 주라고 하잖아요. 천 몇 원 사서만은 이천 원 주라고 하는 걸 갖다가.

@ 그럼 어떤 고기를 잡는지에 따라서 이깎 쓰는 것도 다르고.

#1 그렇지요.

@ 방법도 다르고.

#1 그렇계, 인자 뭐 도다리 잡는 거는 그물가 잡고 또 뭐 이 방을 꼬가 잡고 뭐 다

이 고기 잡는 분야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금시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 채낚기고 전부 채낚기 얘기고.

@ 그러면 아까 배를 고정시킨다 하는 그게 그 쪽 끌고 가면서 하는 그거 빼놓고는 배를 고정시켜서 하는 거예요?

#2 아니에요.

@ 그니까 가에서.

#1 아이, 줄빨래이는 그래 안 하지.

#2 빨락 낚는 거는.

@ 그냥. 가에서 하는 거예요?

#1 인자 삼월사월오월 그걸 가빨래이라고.

#2 배를 타고 덕에서 이렇게 낚는 거 중에서는 아까 감성돔하고 이렇게 흑돔. 이런 거는 자기 노는 포인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앵커를 놔서 고정하고 빨락은, 빨락은 조류가 흘러가면서 따라서 이제 그 덕을 찾아서 가서 조류가 흐르는 걸 계산해 가지고 그 덕에다가 낚시를 드리우고 한 번 이래 그니까 한 번 낚시를 하고 나면은 배가 흘러 또 빠지잖아요.

#2 다시 그 자리에 도로 돌아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물이 깊기 때문에 물이 깊기 때문에 앵커를 놓을 수가 없어.

@ 아 그렇겠다.

#1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는.

#2 덕을 자주 찾아서 이동해가면서 왔다갔다 이렇게.

#1 그 바람이 틀리면은 바람을 봐 가지고 그것이 틀리면은.

#2 아주 어떻게 보면은 거의 고정성이 없지. 고정성이 없고 인제 그곳에 계속 집요하게 이렇게 그 위치를 찾아서 가는 게 빨락.

#1 그거를 나가래라 그러거든.

#1 슬낚기고.

#1 배가 떠가는 걸 나가서 다부 골로 가는 걸 나가리.

#2 그래 그제 인제 기술이라 그제. 조류 계산해야 되고 수심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추 무게 계산해서 이걸 파뜨리, 떨어뜨리면은 그 밑에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닿겠다.

#1 물밑에 어초.

#2 이 위치에 가서 낚시를 드리우고 또 배가 흘러 가면은.

@ 또 제자리 찾아와야 되고.

#1 예, 또 올라와야 돼요.

#2 끄어올리고. 끄집어 올리고 또 제자리 가고.

@ 그를 나가리라고요?

#1 나가리. 나가리를 한다. 떠내려가면 또다시 올라와가지고.

@ 나가리 하다.

#1 또 내려 가가 또 올라오는 기라.

#2 나가리 본다.

#1 우리가 보통 크면 나가리 한다.

@ 이거는 돛을 밑에까지 고정시키는 방법이 힘드니까 흘러가면서.

#1 그럼, 그건 저 바다에 인자.

#2 그래 인제 물때도. 물때도 채낚기 물때는 인제 고정을 시키는 요때. 우리가 고정을 시키는 물때는 사리때 하고, 이제 인제 감성돔이나 옥돔은 배를 고정시키니까 사리때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인제 우리 그 빨락이나 이런 채낚기. 그 설락기는 그 조금때에 해야 돼. 사리때에 하면은, 그 뭐야 낚시 들어가기 전에 벌써 떠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리때는 물살이 썩고, 조금때는 물살이 느리거든요. 고, 고 개념이라는 거지.

#1 그런데, 아까 감성돔이, 감시이니 가리기해서 저거는 물 야픈 데서 하기 때문에 고정 딱 시키 놓는 땀이 좋는데, 말하자면이 저기 바다에서 고기를 빨래이를 잡는 거는.

나가리 해 가 잡는 거는 그 선장이라 하는 사람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

@ 자리를 잘 파악해야 되니까.

#1 그렇지.

@ 어르신 이 지역에서 물때를 물때에 관련된 말이 한물 두물 이런 말 많이 쓰시나요?

#1 그러지요. 한물, 두물. 그러면 스물사흘 조금 초여더래에 조금.

#2 조금부터 세가 보지요.

#1 조금도 세보면. 그러면 조금부터 초야드래 같으면 초여더래가 조금이거든. 그러면 아 응.

#2 한물.

#1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물.

#2 세물, 너물.

#1 열한물, 열두물, 열세물.

#2 다섯물.

#1 그러면 요 시기에 뿔래이 낚으러 나가는거야. 줄뿔래이 낚으러.

#2 열세물 때에 가요.

#1 그러면 열세물부터 조금을 보는 거라. 말하자면 한물 두물까지.

#2 두물까지. 한물, 두물, 아침조금 뭐 한조금. 열네물을 갖다가 아침조금이라 해요.

#1 아침조금.

@ 아 열네물어요? 이런 말은 또.

#2 그럼 조금은 한조금이라 하고.

#1 스물사흘 한조금.

#2 조금을 그냥 조금이라 안 하고 한조금.

#1 스물사흘 될건데, 스무이튿날은 아까 말한 거 같이.

#2 아침조금.

@ 아침조금?

#2 열네물을 아침조금이라 합니다.

@ 아침조금 한조금 이런 말을 쓰시는구나.

#1 거기 인자, 차 그것도 인자 여러 가지구만.

@ 그러면 열세물부터 한물, 두물까지 뿔락을.

#2 그렇죠. 조금시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시라 그런다. 조금시.

@ 조금시에는?

#2 조금시에는 인자 뿔락이나 덕, 덕에 가서 낚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사리때 앙시때라 그러거든. 앙시. 여기는 앙시때라.

@ 앙시? 앙.

#2 예, 앙시.

#1 물빨 많이 실 때에는 물 많이 나고 하는 걸 앙시때.

#2 앙시때는 우리가 배를 고정시켜서 하는 감시이 낚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물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물, 거 우리가 망하고 방이 있는데 망하고 방이 있는데, 망은 고정시켜 놓는 것을 망이라 하고 방은 끄는 걸 방이라 해요.

@ 삼강망, 이강망 하는 그건가 보다.

#2 그렇지 망은 고정시키고.

#1 고정시켜 놓은 게 망이고.

#2 우리 삼강망, 이강망, 또 이렇게 정치망. 또 뭐 자망. 이렇게 망. 고정시키는 거. 방은 끌고 가는 거.

#1 이동을 하는 거. 끌고 가는 거.

#2 뭐 기선저인망. 뭐 쌍끌이망. 망망.

#2 그걸 방이라고 해요. 방. 끌고 가는 거, 인자 둘러 싸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거.

#1 자망. 그면 자망이라 하는 건 그만.

#1 어초 같은데 밑에 이빠이가 있으면, 뺑 돌리가지고 바로 놔 놓으면 고기가 들어와서.

#2 그래서 인제 그렇고 인제 그런 망이나 방을 하는 날은 조금때 하고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조금때 주로 대체로 하고 그 다음에 인제 해녀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녀작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갯바위에서 얇은 물에서 뭐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인제 거 사리때, 앙시대 한다.

#2 늘 그래요. 어디든 마찬가지로 그럴 거예요.

@ 그렇겠쥬. 이 경험에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1 서울사람들은 못 알아 듣구만.

#2 서울사람들은 못 알아.

@ 그래도 이 상세하게 종류도 나오고 이깎 종류도 나오고, 물때도 나오고. 그래서 아 좀 이해가 됐어요. 방법도 이해가 됐고. 그쥬.

#2 도다리도 낚고, 소래미도 낚고. 그런 사람들 뭐.

#1 솔미도 낚고.

#2 네, 솔미도 낚고. 이런 저런 거 낚고.

@ 솔미가 뭔데요?

#2 용치놀래기라는 고기를 이 동네는 솔미라 해요. 솔미.

@ 농치?

#2 용치놀래미, 놀래기 놀래미, 용치놀래기. 놀래미 용치놀래미.

#2 그거를 이 동네에선 솔미라 해요.

#1 돌채.

@ 이게 뭐 추 같은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채가?

#2 글썸.

#1 이기 요 낚싯대에, 고기 낚을 때 이기 다 드는 기라. 말하자면. 이거는 낚싯바늘.

#2 돌채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낚.

@ 어제 낚으로 만들었는 그거?

#2 이거는 봉돌이라 하는 봉돌.

#1 뱃돌, 뱃돌.

@ 뱃돌?

#2 우리 우리.

#1 보통 뭐 뱃돌이라 그러길래.

#2 뱃돌.

#1 아니래 뱃돌.

#2 근데 우리말로 돌채.

#1 우리말이래, 육지가 우리가 쓰는 말. 판 사람은 우찌 쓰는지 모르겠는데.

#2 요즘에는 요렇게 이런 낚싯대를 씁니다.

@ 낚싯대를 여기서는 따로 채낚기대, 아니 설대. 이런 말 쓰나요? 서래끼대 이러나요?

#2 주지. 이걸 합쳐서 주지.

#1 요거는 이자 낚수가 많이 잦으니까 주지.

#2 주지.

@ 그러면 낚싯대를 따로 부르는, 설낚기 낚시?

#2 그냥 여기 우리는.

@ 낚수?

#2 대, 낚대라고 불르지. 낚대. 낚대. 주지.

#1 가서 저 이런 거는 보면 고기 잡으러 내려올라고 같다. 이런 거 낚으러.

@ 그럼 이렇게 다는, 요 부분은 낚싯바늘 하고 줄 달린 거는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그러니까 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겠네요. 이런 낚시 바늘이나 이런 게.

#2 그렇죠. 잔고기가 아니고 빨락 이런 거는 많이 이렇게 달고. 거 저기 뭐고.

#1 뭐 소래미 낚는 거는 이렇고.

#2 저기 그 뭐고 우리가 그 전갱이나 이런 거 낚을 때는 또 뭐 작게 달고. 소래미 이런 거 달 때는 두 개 세 개 정도 달고.

@ 아 그 끌고 가는 거.

#2 또 감성돔 달 때는 한 개만 달고 옵니다.

#1 마키 다르구만. 낚는 기.

@ 그 크기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2 고기 크기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크기에 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1 감식이나 가리이나 낚는 거는 인자 빨라구 바늘보다 조금 낫, 굵지.

#2 그 인제 쉽게 말해서 방어라든가 이런 거 낚는 데는 열 개 스무 개 대 채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세네 개 채우고, 그거는 고기가 크기 때문에 많이 물면 안 되니까. 그렇고. 인제 감성돔은 예민한 고기기 때문에, 여러 개 채우면 안 되고 하나만 채우고.

#1 참 감심이 저 놈이 우리 솔직히 말하자면 참 약다이러거든 사람이 약은 사람을 아 저놈이 약니라. 감식이도 그렇습니다.

@ 감식이 보고 약다 약다 그래요.

#2 릴을 뭐 다르게 부르는 말은 없지예? 요 공간에 와서 릴.

#1 없다. 어, 없어. 아까 조 그림은 낚싯대.

#2 낚대.

#1 낚대 그라믄 낚싯대.

#2 낚대.

#1 우리가 말하는 건 낚싯대.

#2 낚싯대, 낚대.

@ 아, 고기 예민한 애를 약았다, 약다 이래요?

#1 약다 하는구만. 사람도 보고, 참 저놈 약더라. 감수어도 그러는 기야. 감식이 저놈도 참 세상을 약은 님이 감식이구만. 그런데 저저는 이 자망을 놔도 안 걸리거든.

#1 자망을 놔도. 자망이 방어는 다 잡히는데 감식이는 잘 안 걸리는 이유가 언간히 약은게네. 그물날만 딱 말으면 그러면 바위틈에 들어가 안 나오는 기라. 그랑께 인자.

#2 내가 옛날에 물 위에서 이렇게 수경을 쓰고 이렇게 봤는데 감식이 떼를 봤는데 자망이 이렇게 깔리 있잖아요. 자망이 있다던가, 수초가 있는 곳에는 감식이가 없어요. 수초가 있으면 감식이가 없고. 이래 있으면 떼들이 이렇게 가다 자망을 넘는 거예요.

#1 그마치 영리하고.

#2 수초가 없는 곳에 감성돔이 살거든 수초도 그 파래같이 이렇게 따따닥 붙어있는 김 이라든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 그 막 뜯어 먹기도 하고 그 사이에 또 파래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이사이에 새우들이 살아요. 파래새우라고 그런 걸 막 잡아먹고 하는데 수추가 이렇게 길어서 넘실넘실한다든가 이런 데는 근처에도 안 가.

#1 그만큼 약다. 이말이야.

@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톨톨한 고기네요.

#1 톨톨하지요. 감식이 저놈이 참 톨톨구만. 영리하고. 그러니까 말이 우리가 밥 지러 나갈 때 인자 한 뺨 딱 쥐가지고 옷을 조금 받아가지고 물이 인자. 안 갈 때 말이야.

세계 안 갈 때. 그래가지고 숨을 이리 막 죽은 게 아니고, 요파 대고 사알 날바주면 우리가 보통 날바준다 그러합니다. 요리 사 이래갖고.

#2 뭐조예?

@ 날바준다.

#1 날바주지.

#2 날바.

#1 날바. 식으로 날바준다.

#2 날바준다.

#1 팍 주는 기 아니고

@ 살살, 살살한다.

#1 살 날바주면 말이지. 이 자숙이 싸 후면 술가너말 물고 들어올 때 잡아, 이 땡기부면 말이지. 합자 고대로 들어옵니다. 입안에 넣었다가 잡아땡기리면 이 다물어야 될데, 입을 딱 벌리가 있으께. 그대로 쪽 다 나가빠는 기라. 그만큼 약았습니다. 하여튼 참 약구만은. 감식이 저놈.

@ 되게 예민하니까.

#2 감식이 저게 주둥이가 우째 생겼냐하면은 천장하고 아래가 딱딱해요. 바늘이 안 들어가거든요. 감시이가. 바늘이 안 들어가고 감시이는 삼키든가 아니면 물려 올려올 때 이렇게 입술에 걸려 입술 이런 데 걸리면.

@ 아 옆에

#1 요짜 아니면 요짜구만.

#2 요요, 입술에 걸려온다고. 이 입술이.

#1 요리 꼽히고 요리 꼽히는 게 아니고.

@ 아니고, 요 옆에 약한 부분.

#2 아래 위 이렇게 입천장하고 입 아래쪽이 혀가 없고 굉장히 딱딱해요. 그니까 이 주둥이를 가지고 그 딱딱한 게도 잡아먹고 홍합도 쪼아먹고 이렇게 그런데 이 감성돔이 먹이를 먹을 때 딱 와서 먹이를 한 번 입에다 넣어 이렇게 물고, 사알 땡겨보는 거예요.

#2 먹어도 되는가 마는가. 사알 땡기가 놓는다 말이에요. 또, 이렇게 입에다 넣어서 한 번씩 몇 번 갖고 놀다가 주서 먹는 겁니다. 저. 감성돔이 습성이예요. 그 약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습성을 알아야 돼. 싹 입에다 넣어서.

#1 저 보통 물이 우리가 어렵다고 그러지. 물 밑이 어렵다. 검검하니. 이럴 때는 또 조금 낫지, 근데 맑을 때는, 물이 맑을 때는 참 약게 놀더만. 그러이 힘이 들지.

#2 바닷물이.

@ 어제 청수 그러셨잖아요.

#1 예, 거 물이 청수가 들어왔던지 이라면 물이 텅텅하면 자식이 말이야 뭐 맨손으로 물리면 무는 수가 있는가 청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물이 맑을 때, 참 맑을 때가 있구만은. 그러면 인제 입에 넣었다가 말이야 잡아 땡기리면 이 그 미끼로 하나 또 건드리보도 안 하고 싹 내 놓는 기라. 그놈이 근데 제일, 우리 김 선생님은 감시이 잡아봤는가 모르겠다. 감시이가 제일 재미가 있는 기요.

@ 잡기 힘들니까 재밌는가 보다.

#1 참 재미있어. 감시이. 이 낚싯대니 말이지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 참 미치는 기지. 미치.

@ 아까 전에 감식이 잡을 때 낚시줄을 날바준다하는 게 천천히 내린다는 의미?

#1 으, 천천히 날바주는 거.

#1 천천히 주는 거. 감식이는 전부 이 술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 감식이는 언제라도 천천히 주는구만.

#2 물이, 물이 살살갈 갈 때. 살살 이렇게 땡겨줬다가 사알 놓으면은 물 따라 이렇게.

#1 그러면 물 따라 가면서 덕이요 다 있다가 카면 말이지. 이 날바주면은 요 덕에 갖

다 딱 붙는 기라. 그러면 자 우리가 미끼를 쳐도 비름을 해도 이 덕이 있으니까 여가서 많이 받치는 기라 말하자면. 그랑게, 감식이가 요기 노는 기라. 그러면 이제 요 물 밑도요 참 희한합니다.

#2 이게 여기가 감성돔이 노는 덕이 거 같으면 배를 요 위에 띄우는 게 아니고 저만큼 띄어요. 낚시가 이렇게.

@ 옆으로 이렇게 간다. 응.

#2 물이 요쪽으로 가니까. 위에서 인제 밑밥을 떨어뜨리면은 물 따라 이레 떨어져 가지고 돌돌돌 굴러가서 요기 쌓이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요.

@ 그러면 고기를 잡기 좋은 물이 어제 어르신이 조갯물 같이.

#1 좀 어둡은 거.

@ 좀 뿌연 물.

#2 우윳빛 같이 우유, 물에 우유 탄 거 모양으로 그러게 이게 영양분이 많다고 플랑크톤도 많고. 일단 먹이가 이렇게 형성도 돼 있고.

#1 그러지 독수가 들어왔다고 카면 감식이 저놈은 아주 안 무구만.

#2 청수라는 건 인제 플랑크톤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산소량이 용정 산소량이 작다고 그 때는 유리 같이 굉장하.

@ 그래서 깨끗하구나. 물이. 못 사니까.

#2 산소가. 용정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특히 인제 오염되기 직전이라든가. 그럴 때 인제, 그렇게 많이 생겨. 그런 현상이.

#1 그래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보면 '아따 물 참 나빠게 들어왔네'이라 거든.

#2 그래서 태풍이란 게 필요한 거예요.

@ 그죠. 막 섞지.

#2 파도도 치고 안에 인제 파도가 쳐서 안에 산소량도 충분히 용정 산소량도 높이고 태풍이 그런 역할을 해요.

#1 서마로 함 붙었다크면 고기가 마이 안 들어 오요. 저 먼바다 고기가. 고등어 다 뭐 저런저 깔치다. 저런 고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태풍이 안 불고 너무 조용하게 있어도 고기가 많이 안 나구만.

@ 그 어르신 그 갯물하고 맹물이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갯물하고 맹물하고 섞이는 데. 거기를 부르는 물이나 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1 글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뭐라고 그러노. 가사이 우리 저 우에서 저수지서 내려오는 물이 안 있나. 내려오면은 요 동촌에 가면은 말이지. 그 갯물하고 맹물하고 만나지거든.

#2 그 위치를 거를 정확하게 표현 안하고 그냥 '요는 갯물하고 맹물하고 만나는 곳이 되서, 만나는 데라서 고기가 뭐 많다' 그런 의미라.

#1 어 많다. 거기서 산란을 한다. 그런 거 주로 고기 같은 기다 뭐.

#1 뭐 저러면은.

#2 맹물하고 갯물하고 만나는 데라.

#1 만나는 데라 그라지. 요기 와서라 마 산란을 하거든.

#2 위치를 정확하게.

@ 보통 고기 만나는 데서 고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다고요. 알을 낳아서 그런가?

#2 그쵸. 이젠 거 섞이는.

#1 고기는 그는 시기에 따라.

#2 섞이는 곳에 산란하는 어종들이 있거든요.

#1 어, 어종들이 있어.

#2 어종들이 대체로 그런 곳에서 산란을 많이 해요. 고기들이.

#1 가사 복식이다 뭐 저런 기는.

#2 특히 우리 근해에 있는 서식하고 있는 어종들은 대체로 그런 기가 많아.

@ 그 지점을 부르는 말은 따로 없고?

#2 예, 뭐 우리 지역에서는 고 그냥 섞이는 곳이다. 섞이는 데다 그렇습니다.

#1 아, '섞이는 데다' 고만. 그래 거기 산란을 하려 왔다. 고기가. 복식이다 뭐 저런 기. 그짜서 산란을 하고 현재기 동촌 같은 데 눈에 보이구만 거기가면. |

#2 복어, 뭐 뽕지. 송어. 또 뭐 이런저런 이렇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뭐 이렇게 이런 어종들이 거기에 안 있겠어요.

@ 다른 데 가니까 그 지점을 기수, 그리고 그 지점에 사는 물고기를 기수어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2 우리는 그런 말은 우리가 안 썼고.

@ 그냥 풀어서 꼭 이렇게 쓰시는구나.

#2 계절마다 이렇게 먹는 고기들이 낚는 고기들이 고기가 맛이 있으니까 계절마다 달리해서.

@ 그죠. 뭐든지 제철음식이라고.

#2 특히 감시. 아까 이렇게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네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시 맛봤나? 감시 맛봤나' 그런 말은 좋은 일을 경험했나 그런 말과 똑같은 식으로 쓰이는데.

#1 인제 유월 달에 농어회 묵어 봤나? 인자 또 감성돔 무 봤나?

#2 감시 맛봤나 하는 말이 가장 그 이렇게 잘 쓰이는데, 이거는 감시가 겨울철에 그렇게 맛이 있다가 딱 봄 되면 맛이.

#1 여름 되면.

#2 정말로 없어지는 고기가 그거거든요.

#1 그러이 육월 달 되면 아주 맛이 없으니까 똥감시라 그래 똥감시. 똥감시기.

#2 감시 맛봤나?

#1 감시기가 제철되면 참 맛있는 고긴데.

@ 희한하네요.

#2 모든 고기 다 그래요.

#1 고마 지 질이 넘어 갓빠면 퐁감시라 그래 감시 퐁감시. 그러면 고기가 전부 철 따라서 맛도 철따라 맛 들고.

#2 퐁감시가 어린 감시를 퐁감시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맛이 없는 계절의 고기 감시를 퐁감시라 하기도 하고.

#1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육월 감시이 개도 안 먹는다' 맛이 없다.

@ 유월 감시 개도 안 먹는다.

#1 하모. 그리 잘 먹는 맛있는 고기가 그 시기에 되빠면 맛도 없는 기라. 그래서 개도 안 먹는다.

#2 봄감시 개도 안 먹는다. 육월 감시가 아이고. '봄감시 개도 안 먹는다'. 봄 되면은 맛이 없어져.

#1 맛이 없어져.

@ 그러면 감시 맛봤나 하는 거는 언제나 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어느 계절이든.

#2 인제, 인제는 인제 좋은 경험을 했나는 말에 인제 대명사.

@ 관용적인 표현이다 그죠?

#2 예, 관용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감시 맛봤나.

@ 그게 좋은 일 있었나 이런 의미하고 비슷한 거예요?

#2 그렇죠.

@ 좋은 일 있나?

#1 그 비슷하죠.

@ 감시가 어쨌든 좋은 일에도 쓰고 봄감시는 개도 안 먹는다 이런 것처럼 별로 맛이 없다 뭐 이런.

#1 감시기가 참말로 맛이 이기 이거만. 그 철 따라서 감시이를 물리면은 우리가 낚시대

에 물리면.

#2 좋은 의미에도 쓰여진다 그런 말이죠. 뭐 어떻게? 그 말이 거기에 맞겠나? 아니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 제삼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일을 답습하는 거 있거든요. 다시 재차, 반복하는 거 있는데 그럴 때 옆에서 왜 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저 뭐 감시 맞봤나? 뭐 그런 얘기를 한대요.

@ 아 두 가지 의미가.

#2 좋은 경험이 있었나 그런 뜻이거든요. 좋은 경험이 있었나? 저걸 해가지고 저게 좋은 경험이 있었나?

@ 아, 그러니 또 하지. 뭐 이런 거요?

#2 왜 저걸 하지? 감시 맞봤나?

#1 가서 말로 갖다가 자꾸 반복하는 사람.

#2 그런 뜻으로도 쓰여진다.

#1 예, 그런 뜻에서 감시 맞봤나. 그 말을 써요.

@ 그럼 두 번째 의미가 더 맞다는 얘기죠? 그죠?

#2 그렇제.

@ 맛이 좋으니까 맛 봤는 걸 또 하는 것처럼?

#2 그렇죠.

@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1.3. 설래끼꾼의 설래끼 이야기 셋-김삼춘 씨

#1 이게 인자 하나의 도구인데.

#2 고기 잡는 도구.

#1 어 낚시 아냐. 낚시이 조 오게 밑에다가 달거든 달고.

#2 그러니 낚시가 밑에 물에 들어가 있으니 물으께네.

@ 내려가게.

#1 달고 요거로.

#1 요리 낚다고.

#1 요리 끼우면 요 줄로 저 낚싯대 끄트머리에다가 매거든 매면 요걸 봉들을 단다 말
이야.

#2 그래야 인제 물에 들어가니까. 저거이 무거울께네.

#1 그래 요기다가 새우로 한 발씩 낚다고. 그러면 요기 낚시로 열두 개 달렸어. 그래 인
제 고기 잡히는 거 봐서 자꾸 바늘로 더 달 수 있어.

#2 많이 잡히면 더 달고.

#1 스물 개 달 수도 있고 서른 개 달 수도 있고 뭐. 이래 달아 인제 요를 시범줄이라
하는데 요기 인자 전부 다 내 도구인데, 요게 낚시를 보면 요거 인자 낚시 떨어지면
또 요 보충을 또 하고 요 보면 삼십 개짜리도 있고 스무 개짜리도 있고 뭐 천지거든
요. 이것도 이것보다 많다 해서 많거든. 응 그러니까 인제 그라고 이 줄도 보면 5호해
놓고 요는 뭐 6호를 해 낚거든 그러니까 줄 따라서 이기 또 고기 따라서 또 틀린다.

@ 줄이랑 이거 잇는 이거 부위를.

#2 저 감상은 요새 사가지고 쓰거든 그거 남부터 근데 옛날에는 만들어가 많이.

@ 굵기에 따라서?

#1 예 굵기에 따라서.

#1 줄로 매는 기라.

#2 저걸 맨들어. 많이 녹하가지고

#1 또 요 또 요쪼로 또 별도로. 그러면 인자 돛 낚을 때는 돛줄이 또 따로 있고, 농어
낚을 때 또 따로 있고. 참 낚시 뭐 말도 마라. 이것을 인제 엄청나지. 내가 쓰는 게.

@ 이거의 이름이 뭔데요? 그러면.

#1 콩돌.

#2 콩돌, 콩돌이라 그래.

#1 콩돌.

@ 콩돌이요?

#2 아니 뽕돌이라 안 하나? 뽕돌. 이 밑에 이기 갖고 온 거 안 들어간다 이거야 들어가지 물에.

#1 봉돌.

@ 뽕돌이요?

#1 단연자 갈제?

#3 네.

#2 이거는 요 맨들어 쓰거든. 근데 사러 가면 천오백 원인가 주고 사는데.

#1 욱지서 나만큼 잡고 이런 경대 쓰던 놈도 없어. 전부 그냥 선부점에 가서 사 쓰지.

#2 우리는 납으로 까서 만든다.

#1 이레, 일 년이 이 납을 맨든 게 한 백 개 정도는 내가 맨들어.

@ 아 녹여서 저.

#2 납을 녹혀가지고.

@ 그 어르신 이거 아까 꺼 판처럼 생긴 게 그게 이름이 뭔데요? 아까 그거 보여주신 거.

#1 이거?

@ 요거요. 이런 거는 이름 뭐?

#1 고기 낚는 주지.

@ 주?

#1 주지. 주지.

@ 주지.

#1 어, 빨래이 잡는 주지. 주지라 하거든.

@ 옛날에 아까는 낚시줄이라 하셨고 요거는 그냥 낚시 바늘을.

#2 그거는 낚시 바늘이지.

#1 가만있어요. 인자 요거를 내가 보여주지. 요기 어디 됐나 하면 인자 딴 사람이 이렇게 시지도 안 해. 요 잡아라고.

#1 요 간격이 똑같다고.

#2 이갑 담으면 이갑 담으면. 아가씨 잡는다. 아가씨 이제 잡는다.

#1 큰일 난다.

@ 괜찮아요.

#1 잡아 봐라.

#2 고만치 봤으면 됐소. 이제.

#1 요런 식으로.

#2 요래 인제. 요렇게 끼 넣는구만.

#1 한 개씩 가리워 거리가 똑같다고.

#2 요도 이갑을 끼거든 새우. 그래 갖고 인자 뽕돌 주워다 달고.

@ 아 여기다가.

#2 어, 그래 가지고 낚시 여미 넣어.

#1 그래가지고 인자 뽕돌을 박아가지고 내라.

#2 고기 있으면은 서로 이거 먹을 끼라고 인제 뽕돌에 붙는 거지.

#1 고기가 전부 다 이쪽에 한 마리씩 많이 몰때는 한 마리씩 다 달리 올 든다고 낚시 열두 개 매면, 열두 개 다 달리 올라온다고.

#2 고기 많은 데 가면 있다는 이말이야.

#3 이 낚시하고 즐하고 이렇게 다 꾸며 놓은 걸 주지라 그래요. 주지. 셋팅한 걸 주지라고 그래요.

#3 어 통 말해서 주지라 이카거든.

@ 어르신 이게 좀 있다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이걸 좀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다 여쭙보고?

#3 주지.

#2 저런 거는 뭐 어장 하는 사람이 해야지. 우리는 저런 안 합니다.

#3 그런데 우리가 어장 한다 기보다도 이거는 그 레저.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 같고 지금 현재는 이 이게 투망이거든 투망. 이렇게 하고 한쪽 해 갖고 착 이레 잡는 투망인데, 이걸 저 서해안이 이렇게 수심이 얇은 곳에서 해. 수심이 얇은 곳에 인제, 송어라든가 이런 거 얇은 데 이렇게 뭐 많이 무는 고기 있어요. 고기떼를 보고 던지는 거예요.

#1 고기가 인제 물이 이렇게 쭉 빠지는 데 보면 뭐 저저 뭐야 저저 뭐라 하노. 그 텔레비도 이레 보면 장화도 하고 달린 옷이 있어 이레. 그걸을 입고 들어가거든. 입고 들어가 딱 둘러 매고 고기가 오데로 가나 보고 둘러 씌거든.

#1 이기 한 삼십 년 전이래. 이기 이십 만원 삼십 만원 이래. 요새는 더 하지. 이 보통하고 틀리다고.

#3 리을 리을 전부 리을.

#1 이거는 딱 거는 고기 뭐 부르면 열한 마리 물고 있으면 힘이 들지만은 이거는 힘이 안 들어. 그만큼 이 안에 기아가 좋더라.

#3 말씀을 하실 때 저쪽으로 보고.

@ 요 여기 얘기 해주시면 괜찮아요.

#3 예. 저보고 말씀 하시면.

#1 근데 이기 내가 이기 오래됐는데, 지금 이거,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

어요. 없죠. 비싸니까.

#1 우리는 이기 짐 여여 낚시 이것도 낚시 이것도 일산이라. 이 일산은 잘 뿌르지도 않고, 잘 후하지도 안 하고. 이렇더라고요. 써보니까로. 그런데 국산은 안 좋더라. 나도 국산이지만은 국산은.

#3 요즘 국산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송어들이 관련 구술 발화

2.1. 어로장의 송어들이 이야기-김관일 씨

@ 들어오는 시간은요?

들어오는 시간에 시간이 없어요. 나가는 시간은 있어도 들어오는 시간은, 주로 시간을 정해 놓고 오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봐서 인자.

@ 통장님보다 연세가 네 살인가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사사년 생입니다.

@ 사십사년생이요?

네.

@ 그 송어 잡았을 때 이렇게 세는, 몇 마리 잡았는지 세는 단위가 그 뭐지 도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주산알, 주산알로.

주산알로가 그 맹글어 났습니다. 그러니까네. 주산 알 하날에 우리가 열 하거든요. 스무 마리로 인제 하나둘 세가지고 두말 세가지고 열을 하면 주산은 인자 두 마리 열하면 주산은 한 개가 내려갑니다.

@ 그 도구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개 이름이 있어요?

거기 우리가 산이라 하지. 인자 잡는 산이라 하지.

@ 아 산. 그 이거 송어들이 어장에 나가실 때 처음 나가서 일 하신 지가 몇 년 정도가 되셨어요?

그거 옛날에는 뭐꼬 애들이 본때 이기에서 태어나가 이거 옛날부터는 그라니까네. 공부는 뭐 묵고 살기 위해서 못 하고 이 배로 탔다 아닙니까. 그래 이런 배를 탄 지가 우리가 국민학교 졸업하고 배로 탔거든요.

@ 아 열서너 살 때.

열한 두 살 됐지요. 그래 타가지고 그래 인자 인제 이런 산에 있네. 저는 배를 내 타다 이제 왔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망반장이라고 하는 그 저도 됐는데, 그 순간에 또 쉬, 놀았습니다. 몸도 안 좋고 좋고 그래가지고 놀고 인자 그래가 있다가 또 장 올부터 인자 또 산에 올라가 인자 망을 보고.

@ 어르신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관일.

@ 연세는요?

지금 육십 여덟.

@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유월, 사사년공 유월 이십칠일생.

@ 여기 주소는요?

대항동 이백육십 육번지.

@ 여기서 그러면 태어나셔서 계속 자라신 거예요?

네.

@ 여기서 계속, 그럼 이사 나가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아이, 여기서 났다가 저 넘어 동네 안 있습니까? 외항포라는 데.

@ 네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 한 여섯 살에 여기서 나가지고 여섯 살에 저 넘어를 갔습니다. 거 넘에서 한 삼십오 년 간 살았습니다. 살다가 이자 이게 그래가 넘어 완 지가 한 이십 년.

@ 그러면 중간에 잠깐 쉬셨고, 계속 승어, 뱃일 하시고, 뭐 이런 일 계속 하셨다 그죠?

네.

@ 그러면 어르신 아버님은 어떤 일 하셨어요?

거짐 우리 아버지도 배를 저런 배를 탔지. 타다가 인자 나이가 있어 돌아가시고 마.

@ 그 아버님은 그러면 승어들이 저런 걸 아셨어요?

응.

@ 그 자제분은 몇 분이세요.

세 명.

@ 거기서 어르신 하는 일 물려 받으신 분 있나요?

우리 자제분은 없지.

@ 시킬 생각도 없으세요?

어. 없어.

@ 어 힘든 일이구나.

@ 그러면 그 어르신처럼 제일 위에 망에서 망을 보는 사람을 보는 사람을 부르는 말을 뭐라 그래요?

그게 그래 망전이라 하고 옛날에는 망쟁이. 망쟁이라 하고, 망장이라 하는 여러 말이 있어요. 요새는 주로 어로장이라 하지, 부르는 게. 어로장 그러고.

@ 그러면 어르신은 어로장 하신 지는 한 어느 정도 됐어요? 예전에 했는 거까지 치면.

나는 한 이십 몇 년 됐지요. 어로장 한 지는.

@ 어로장 하기 전에 부어로장은 해보셨어요?

그 했지. 그는 무조건 오늘 내일 가가지고 어로장이 되는 게 아니고 부어로장을 몇 년 배워야 어로장이 돼지. 무조건 어로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 그러면 어로장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데요? 고기 잡을 때.

인자 고기를 보고 고기가 오는 거를 보고 배를 시기가(시켜서) 잡는 그게 인자 어로장이지.

@ 고기가 오는 게 보이시죠?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 그러니까요. 어떻게 달라져요?

안 보이는 데 그라시겠습니까. 고기가 오는 거 다 이 저 이거 따라 꺾기가 오면 이 물 색깔이 틀려져요. 색깔로 고기가 물이 항상 파란색, 파란색 그대로 안 있습니까? 그러면 고기가 나타나면 그 복판에 색깔이 완전히 틀립니다.

@ 어떤 색깔로 되는데요?

약간 붉은 색이 나지요.

@ 그러면 개들이 뭉쳐서 다니니까 보이구나.

그렇지. 그게 작게 올 때도 있고, 많이 올 때도 있고. 거기 짬이 없어요. 그게.

@ 그럼 어로장이 그런 일을 하면, 부어로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부어로장은 조금 그 자리에서 안 있고, 조금 밑을 내려갔다가 밑에 가서 고기가 오는 데, 먼 거리를 우리가 못 보거든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부 어로장은 같이 앉아 있을 때도 있고, 꺾기가 없으면 저 밑을 먼 거리를 한 번 돌아보고 오는 게 거기 부어로장이지.

@ 그리고 부어로장이 줄도 당기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거는 옛날에는 그 망바라 하는 게 있었어요. 산에서 그거는 줄로 매는 망바라고 있습니다. 망바.

@ 줄이 쪽 연결 되었던라고요.

그기 바닷물하고 산에 하고 연결되어, 그기 인자 우리가 괴기로 뱃사람 시키면 우리 그 같이 뱃사람도 그물로 들어 올리고, 우리도 줄을 땡기면 그 바당에서 높은 데 땡기이, 그물이 빨리 올리게 있어. 그러니까네.

@ 그러면 어로장은 그런 일은 안 하고 부어로장이.

아니 다 같이 합니다. 그걸.

@ 그 망대라고 그러나요? 망대.

망때이.

@ 거기 가니까 높은 데의 어로장 방이 있는 데가 있고, 그 밑에 조그만 데가 있던데요.

밑에서 다 봅니다. 우에서는 안 보고. 인자 고기가 오면 배 시갈 때는 배에서 인자 하라할 때는 올라가서 시키고, 앉아서 있을 때는 고기가 오는 거는 밑에서 주로 보고.

@ 아 저는 높은 사람이 위에 올라 가 있고.

아니래.

@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로장님하고 부어로장님 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 그니까 밖목선을 타면 하장인가? 뭐 이래 이름이 호칭 부르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던라고요.

배 꺼징 하장이 여 사공, 이물, 무상, 하장, 이래 된다 아닙니까?

@ 그 뭐 첫째, 둘째바, 셋째바 뭐 이런 말들도 있던데요.

아 그거는 그는 그기 제일 큰 배 밖목선에다 하는 거예요.

@ 제일 큰 배가 밖목선이에요?

그 여섯 척이거든요. 그래 명칭이, 배마다 명칭이 다 있어야 산에서 보고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 배 명칭이 없으면 여섯 척에, 여섯 척 어디, 명칭이 있어야. 배 이레 부르지. 그래 밖목선, 안에 인자 제일 큰 배가 밖목선.

@ 그 맞은 편이.

제일 바당에 있는, 그 이견 밖목선. 중간에 바당에 있다고 밖장등. 바당에 있다고, 복판에 있다고 밖장등. 그래 간, 바당의 갓, 가에 있다고 밖귀잡이. 인자 안에는 안목선. 안에 있다고 안목선. 안장등, 안귀잡이.

@ 안귀잡이.

그 여섯 척.

@ 그러면 밖목선에 타는 사람이 아까 전에 어떤 사람, 부르는 말이 어떤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 인제 밖목선에는 그래니께네, 사람이 제일 큰 배가 사람이 여섯, 여섯 명이 탑니다. 그러끼네 인자 사공, 둘째바, 셋째바.

@ 앓는, 서는 순서가 그렇게 되죠?

네.

@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사공. 둘째바. 셋째바. 인자 밧줄이 인자 사공이라도 바 하나 땡기고, 둘째바는 또 땡기고 셋째바도 땡기고, 넷째바는 걸이. 그 걸이라고 이레 해가지고 이레 나무로 끼어 놓고. 그물 안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빼야 그기.

@ 줄이 땡겨지는 거죠?

그러니께. 돌아오지. 둘째바. 그 다음에는 오동끼, 흘찌 거도 흘찌기 또 있습니다. 있고, 그래 이물에는 이물 무상. 그래 있고, 밖장등에는 인자 밖장등 한 사람만 있기 때문에 밖장등 그마 그것도 밧줄도 다 걸어요. 있는데 땡기고, 귀잡이라고 귀에 있다고, 그런 거는 밧줄이 있어도, 물에 떠가 있는 밧줄이기 때문에 그기 붙잡혀 있는 게 없고, 그만 인자 이름 무상, 하장, 사공 이레 되어 있지요. 다른 배들은 그래 되어 있고, 밖목

선만 인자 제일 큰 배만 바당에 있으니 명칭이 주로.

@ 아 그럼 안목선에도 그런 말이 없나요?

안목선에도 인자 이물 무상, 둘째바 있지. 그거 사람이 너인데, 안목선에는 그는 이물 무상, 둘째바, 걸이바, 사공이래 되거든.

@ 그러면 둘째바, 걸이바, 사공, 또 한 분이 뭐라고요?

이물 무상.

@ 무상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물에서 한다고 이물무상, 배 이름에서 한다고, 이물무상이라. 그러니까네 사공은 꼴에 한다고 사공이거든. 노로 젓고 한다고, 사공이라 카고.

@ 그럼 어쨌든 제일 중요한 배는 애들이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안목선하고 밖목선이 제일 중요하 다 그죠? 그러면 그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업을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처음에 인제 송어들이 시작하는 작업이잖아요. 그죠?

오늘은 가서 인제 사개로, 한 이 개월 할 동안 그 자리에 그물로 완전히 거서는 작업 할 그거를 어구로 배가 준비를 해가 다 얹혀 놓고.

@ 딱 자리를 잡고 고정시켜 놓는 거죠?

네, 그거는 다른 데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상마칠 때 삼개월, 삼개월. 이개월이면 이개월. 마칠 때까지 딱 그 자리에서만.

@ 삼월부터 오월까지 하나요?

지금 삼월, 오월 그래요.

@ 그럼 오늘 같은 작업이 자리를 딱 고정시켜놓으면 그게 계속 쭉 가는 거다 그죠?

그렇지. 인제 그렇게 인자 내일부터 인자 아침에 시간이 지금은 아직 지금 초기거든 요. 이 초살 있고, 중살 있고, 막살이 있는데, 지금 초살에는 조금 늦게 가고, 중살에 조 게 일찍 날짜 지나면 사월 이레 되면 한 네 시에 나갑니다.

@ 그 초살, 중살 하는 게.

마 인자 마지막에.

@ 물때에 관련된 거예요?

물때 인제 고기가 고기 행동이 날짜가 치면, 달력을 치면 괴기도 하는 행동이 틀리고, 매일 같이 오는 게 같이 오는 게 아니고 그때 되면 고기가 빠르고, 이 오는 길도 여러 집에 갔다가 오고, 지금은 또 느리 느리 오고, 마.

@ 그게 음력으로 뭐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 양력으로 따라. 음력, 양력을 비슷하게 갑니다. 고기가.

@ 그러면 초살이가 어느 정도 인데요?

지금부터 초살이라 하거든요.

@ 오늘이 이십일이니까.

네 사월 넘어가면 이거 중살이. 그때부터는 고기가.

@ 빨라지고.

그라니까네. 그때부터는 일찍 나가고.

@ 그 다음에는 오월 달에는 따로 뭐.

넘어가면 그때는 조금 고기가 와도 많이 안 오고, 조금 약하게 오고 인자 그 때는 우리가 시마이 넣는, 날짜가 넘어가니까 우리가 시마이할 때가 다 됐거든.

@ 어머, 신기하다.

그래 고기 행동이 다 틀립니다. 초살이, 중살이, 막살이. 고기 하는 행동이.

@ 아니 그러면 고기 크기는 똑같나요? 아니면.

고기는 때 따라서 굵은기. 계속 똑같은 게 안 오고, 그 시기에 따라서 큰 기 올 때가 있고, 굵은 기 올 때가 있고, 또 중간이 올 때가 있고, 잔 기 올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 그 고기가 크기에 따라서 부르는 말 이름이 다른가요?

아 그건 안 다르지. 송어는 똑같지. 그 부르는 모찌야. 중부리.

@ 그러니까 모찌 하고, 중부리 하고 뭐 있던데요.

네 그래 합니다.

@ 제일 작은 게 그럼 뭐라 그래요?

모찌.

@ 중간 거는요?

중부리.

@ 큰 거는요?

그 인자 송어. 대자 그러면 대송어.

@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그러면 사개를 놓고 내일부터 계속 아침마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는 인자 나가고, 그 자리에서 그물을 들어올리고, 인자.

@ 고기 잡으러 가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세요.

뭐 거 가 가지고 고기 안 오면 그물만 들어가 배에 딱 묶어놓고 그대로 마 있다가 마 밥 시간되면 밥 먹고, 시간되면 점심 먹고, 한 두시 괴기 없으면 가자하고 들어오고 하는 그게 거의 다지.

@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고기가 없을 때 기다리는 거지요? 맞죠.

무조건 기다리는 겁니다.

@ 그러면 만약에 고기를 어로장님께서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때부터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는 산에서 이거 고기가 봤다, 뱃사람 고기가 뭐 보는 기거든. 산에서 보는 깬데. 보면은 그 신호가 전체로 안 하고, 부르는 게 '뽕목선 뽕라' 카면은 그면 전체 사람들이 고기 온다하는 그런 저거가 인자 그리 인식을 하거든. 고기 온다 안 하고, 우리가 산에

서 안 하고. 밖목선 봐라 하면 그만 저만 행동을 다 하지요.

@ 그럼 밖목선 봐라 할 때, 그냥 이야기 하세요? 아니면

핸드폰 가 핸드 마이크 가, 이기 하면 거리가 머니까네, 잘 안가. 말로 가는 잘 안 듣기 거든요. 그러니까네, 반할 되어 버리니까네, 바람이 불고, 미 파도에서는 잘 안 듣긴 다 아납니까? 그러니까네 그것 가 핸드 마이크 가지고.

@ 그럼 어르신께서 밖목선 봐라하면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지.

@ 그럼 고기가 싹 들어가면.

이자 걷을 거면 밖목선까지 거는 인자 상황 그래 놓으면 거가 준비를 하면 우리가 밑에 있다가 인자 올라가는 이유는 그 하면 뱃사람도 아 저 집 승어가 요 앞에 왔다 하는 거는 뱃사람들끼리 다 알게 돼요. 앉아서 이레 있다가 바다에 요 올라가그러 되어 있어요. 올라가면 뱃사람 다 올라간다 오갑있다 하는 거는.

그래 기기 인자 전면적으로 신호 우리 이 하는 신호거든요.

@ 그러면 봐라하고 나서는 '해라' 이런 말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그렇지. 봐라 해 놓고 인자 그물 안에 들어가면 '밖목선 해라', '안목선 해라'. 그거 인자. 배가 여섯 척 있으니까네, 어느 배 놓나. 그래 요 거 말이 떨어지기 한참에 배가 동그랗게 딱 가두는 게 아니고, 배마다 다 틀려. 그래 다 한 배 하는 게 다 틀립니다.

@ 배들이 어차피 다 그물을 조여야 되니까.

무조건 해라 카면 여섯 척이 다 하나는 게 아납니다.

@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그 그물 안에 들어가는 그 행동을 봐 가면서 배로 시키거든요. 그래야 공박하지. 이 다 같이 했빠면 고마 오다가 괴기가 튀어 나가버리면 헛지거든.

@ 그러면 어구 앞에 있는 밖목선하고 안목선이 먼저 이렇게 조아야.

모여 올, 그렇지. 그러면 이 그물 여기는 인자 가서는 이기 전체가 그물이라 카면 이

공간에 다 앉아 있거든. 여기 인자 이 그림 같으면 바닥에는 그물이 떠가 있습니다. 이 뒷배도 떠가 있고, 우리가 그물 들어올 때는 다 앉차뽐니다. 땅 밑에 앉아뿌는데. 그래 여기도 아직 가라다 앉아 가꼬 그러니 괴기들 들어오면 당겨오면 이래 오면 괴기 모르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인제 이 배로 해라 하면 배는 구를 끼고, 해라하면 나갈 끼고. 그러면 이 배도 해라하면 나갈 끼고. 그럼 이 배는 세 척은 해라 카면 그러면 그러니 이게 두 척 세 척이거든. 한참에 시키는데, 한참 있다가 그거는 이 그거 그 늦게 이 봉무에 들어가 놀래가 하면 믿고 할 데가 없어요. 인제 놀래가 튀어 나오고. 인자. 튀 돌아보지만 그물에 올라왔했는데, 나간다 아닙니까?

@ 그러면 밖목선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안목선이 움직이고, 안장등인가?

해 놓고 있다가 여기는 한참 있다가 '같이 해라' 하면은 뭐.

@ 귀찮이들이 움직이라 밖장등이랑 같이.

한참 대차게 노는 거죠.

@ 그러면 여기서 밖장등하고, 아니 밖목선하고 안목선이 잡아당길 때 망루에서도 같이 당기나요?

그렇지. 쥐고 당기면 우리는 들어오면 똑같이 땡기고.

@ 그 줄을 부르는 이름이 있나요?

그거를 망바. 망바.

@ 여기 당기는 게 망바고. 아까 전에 뭐 이름이 있었는데.

망뚜리나 망바나 그거는. 망에서 땡긴다고 그래 망바 아닙니까?

@ 그럼 망쪽에서 망에서 당기는 거 말고, 다른 줄은 부르는 이름이 있나요?

없지요.

@ 그러면 고기 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이제 배들이 딱 모여 들었잖아요.

이거 모여 있었는데, 그물 인자 그래 그물이 인자 빨거 아닙니까? 그물이 인자 학교 운동장 마이합니다. 그물이. 배가 그래 있어도. 학교택, 학교 운동장 같아요. 그물이 큼니다. 그래 그물을 올리면 배에가 배에 그물, 빼에 실어야 그물이 올라 오거든요. 그

담아 놓으면, 인자 배가 동그라이 모아놓으면 고리 꺾기가 인자 큰배개씩 밖목선 그런 데 실어가지고 인자 이 고기를 몰아가지고. 그물을 빼면, 한참 물. 그물 빼면 양쪽에 다 빼니까네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자 그러이 좀 많으면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해서 그물로 기르거든요. 여기 배에서. 이렇게 기르면 맞는 거는 놔 놓고, 조깨난 뒤 여 그래 한참 고기 다 못 놓는다 아닙니까? 조금 사 가지고 땡기 올리면 배 위에 올라 오거든. 올라오면.

@ 그게 아까 동두리라 하던가? 뭐.

그래 그래 하면 동두리.

@ 동두리.

꺾기를 몰아 올리가 그래 거기서 해가지고 그걸 상으로 쓰는 발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게 여기서 마리. 열에 한 마리 산내로 잡는 것. 그것 세 가지인데, 몇 마리고 그 가기 위해서 열에 한 마리하면. 그 발동기 하면 그래 그 마리 수를. 이것만 하면 모른다 아닙니까?

@ 그러면 어르신은 이제까지 잡아 온 것 중에 정말, 가장 많이 잡힌 적이 몇 마리 정도 되나요?

그기 해도 그기 판매가 이기 우리가 판다는 이기, 실어가지고 상무선에 차가 싣고 가는 판다는 그기 만 마리 정도는 팔아지는데, 만 마리가 넘어가빠리면 한 마리 오백 원도 안 하거든요.

@ 아 많아져도.

인자 그 만 마리까지는 천오백 원, 이천 원씩 하는데, 만 마리 넘어가면 금마들이 안 하니까네. 그 해도 사람들 욕만 보고, 자꾸 거기서는 오늘 만 마리. 만 몇 천 마리 잡았는데, 그거를 다 팔면 작업 내일 안 할 것 같으면 몇 천 마리 파는데, 내일 작업을 하면 그기 있으면 내일 잡은 거는 가서 인자 오백 원밖에 못 받는 거래요. 그래이 그거는 물에 에꾸를 다 부. 보냈잖아 아닙니까. 그러니까네 그거는 보내는 거는 몇 마리인가 그거를 확인을, 안 세보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 그러네요.

센 거만 인자 고리 만 마리다. 센 거만 알지. 그거 내빠린 거는 우리가 모른다 아닙니까.

@ 아 내보내는구나.

매가 되는 거는 보내.

@ 그런 말씀은 통장님 안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그 물고기들이 들어와서, 그물에 들어와서 그 물이 밑으로 쪽 쳐지면, 고기들이 막 튀었는 걸 이 고기가 떠야지 건져내니까.

그렇지.

@ 통장님 말씀으론 고기 잘라서 비린내 나게 막 던지기도 한다고.

이거 만 마리가 넘어가면 이기 무게가 있어 가지고 껍질이 밑을 박습니다. 우에 만 마리 뜨는 거는 뜨고. 그래 박으면 사람이 우리 사람이 십구 명입니다. 십구 명인데 빙 돌아가지고 땡겨도 그물이 안 올라옵니다. 밑에 인제 배기니까 그라니까네 인자 거기 왜 그러냐 하면 껍질을 하면 거기 비린내가 지 자체에서 나는데, 인자 껍질을 자르면 비린내가 더 난다. 몸에서. 거기 인자 우리가 옛날에 보니까네 인자 거기 사람 올리다가 못 올리니까네 인자 한 칼 넣어보고, 거기 여봐도 안 했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래 했다 하는 기라. 그 우리도 역시 해보니까네, 그거 해도 올라오지도 안 해요.

@ 지가 힘이 빠지다 보면 올라오죠. 그 아까 전에 산 하는 그거 그 고기 세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기 우리가 망그렸는 기제. 옛날에 주산 그것 가지고. 인자.

@ 아 원래 주산 알을 이렇게 빼서.

그것 가지고 그걸 망그려요.

@ 그러면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망대 갔을 때, 그 소주 잔이 다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 제사, 고사 지내는 데.

@ 그 우에 있는 거기 옛날에는 거기 인자 그 밑에 물가에 있었는데,

@ 고사 지내는 데가요?

네, 거기 물가에서 거기 다 우에 태풍이 오고해가 다 씻기 나가고, 인자 우리 내려가는 데. 그 산이 역시로 험합니다. 그래니까네 그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올려

가가지고 거기 지은 지가 한 삼, 한 삼 년밖에 안 합니다.

@ 아니 이게 진짜 가파르고 막.

위험성이, 그래 그 산 탄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해 가지고 해서 짓는 기. 그 우에 인자 뭐 실리지. 돌아가신 분이 열세 분. 그 망바한 분이.

@ 어로장만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로장만. 그게 방품이 열세 분.

@ 지금까지요?

돌아가신 분이. 저기 있는 분들은. 이 마을에 두 사람. 한 분, 두 분. 두 분 계신다.

@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외항리, 외항포 이 쪽에 있는 어르신인가요?

이 우리 보라고 불러요. 우리 그러니께네 한 분은 우리가 지금 계시는 우리 백부님이 지금 살아 있는, 백부님이 망을 봤거든요. 보고 지금 연세가 되어가지고 물러 나뻘고.

@ 백부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김순관. 그 백부님도 양부 살다가 넘어와가 이 동네서 삽니다.

@ 그럼 그 분은 몇 년 동안 하셨는데요?

그거는 백부님은 많이 했습니다.

@ 안 그래도. 뭐 고사지내는데 보니까 신위가 여러 개 막 모셔져 있길래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근데 그게 어로장 어르신들 모셔 놓은 거라 하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그게.

@ 어로장 고사를 언제 지내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날짜를 잡아가 하는데, 좋은 날을 택해가 하거든요. 그러니께네. 옛날 부터 이기 본데 이기 고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 나갈 때, 바로 그 고사를 지내야 맞는 건데, 옛날 할아버지들, 이걸 잘 못 해 낚는 기라요. 주로 할 때, 고사도 받아 가 지

내고 할끼네.

@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한창 쪼끼있을 때, 괴기 잡고 할 때 이거 고사를 지내거든요. 거기 그러니까네, 어찌 물어보니까네, 유월 달에는 여기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 갖고 고사도 안 지내고 양력, 음력 삼월달 돼야 고사를 지낸다. 그거는 말이 됩니다. 확실한 몰라도. 이렇게 해 놓고 하나끼네. 남해서 옛날엔 그렇게 하던데, 그런 말이 나오는 기라요.

@ 그러면 시작할 때 딱 한 번만 지내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 중간에.

아니, 이 한 번. 한 번만 지내는 거지예.

@ 그러면 고사 음식에는 어떤 게 올리는, 어떤 걸 올리는 데요?

여기서서는 돼지 이런 거, 머리 있는 거는 안 올리고, 맹태, 과일, 그리고 인자 밥, 나물 밥.

@ 술 같은 거는요?

술도 다 대접을 해요.

@ 그럼 육고는 안 올리고요?

그니까 여기 육고기는 안 올려요. 다른 데는 돼지고기 머리도 쓴다 아닙니까?

@ 네. 그러니까요. 다른, 저희 작년에는 죽방렴하고 돌살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흑돼지 머리만 올린다면서.

그 다른 데는 흑돼지 합니다. 다 하는데, 우리 여기만 안 하대.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건 안 한다 아닙니까.

@ 그러면 할 때는 옛날에는 무당도 오고, 무술인도 오고 그런 식으로 지낸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했는가, 중판에 우리 백수님 할 때도 여기도 안 했고, 우리 애가 할 때도 이거 이거를 안 했고, 뭐고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우리야 그마 이거는 날로 받아가 하자 그러고. 무당 이런 것도 필요 없다. 옛날에는 무당을 조금 했는 모양이라.

@ 그러면 이게 고기 잡으러 갈 때 하면 안 되는 행동 이런 게 있어요? 금기사항 이런 거.

금기사항은 많이 있지.

@ 어떤 거 있는데요?

그러니까네 여기는 짐승 같은 거는 절대 잡아서 안 되고, 그거는 부정을 탄다고 해가지고. 개 같은 건 절대 상각을, 그러나 요새는 옛날하고 틀려서 거기 안 믿겨. 옛날에는 해가지고 개 이런 거 먹었다 하면 배 선인들 앉아 놓고 하차도 시켰는데, 지금은 고마 세상이 이렇다 해도 그 하차시켜버리면 다른 사람을 데리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태운다. 그러니까 묵어도 태워야지.

@ 어쩔 수가 없다. 그죠?

옛날에는 묵어도 이런 게 같게 그러면 배로 못 탔어. 사람들이 많이 돌아갔는데, 지금은 이런 배 안 탈라 합니다. 지금.

@ 힘들어서? 아니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잡혀서 그런가요?

그러니까네, 지금은 개인의 그런 동네하고 우리가 갈라 먹기로 했는데, 갈라먹기는 동네하고 반반을 생산 올라오면 반을 동네 가지고 가고, 반은 선원들이 가지고 가고 했는데, 경비 제하빠고 남는 돈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안 하고 지금 월급, 이거 선원들이 월급 받을라고 합니다. 인자는 그래 한 달에 백이십만 원, 아 이백이십만 원씩 주고.

@ 안 그래도 택시 기사분이 친구가 그걸 하는데, 하장을 한데요. 그 밥하는 일. 근데 이백이십만 원 월급 받는다고 그러시던데요.

그러니까. 이백이십만원 줍니다.

@ 아 그럼 대부분 다 월급 받고 하는 거예요?

아, 다 월급입니다.

@ 근데 그 월급 줄 만큼의 돈을 버나요? 그러면.

그 돈은 벌어야지. 거기 인자 그 못 벌면 인자 그래 인자 지금은 어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촌계에서는 개인을 넘가 줬어요. 어촌계에서 하다가.

@ 안 그래도 입찰을 했다면서 하던데.

그러니 인자 개인이 넘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 어촌계에서 하니께네. 자꾸 동네 이 간사가 지금 조금 이레 지중이 안 되어 있고, 간사가 보통 어촌계에서 하는데, 동네에서 하면 이 간사가 완전히 봄 한철, 이렇게 송어들이 이게 확 때이야 되거든. 간사가 체력도 안 되는데, 해 내야 돼. 그런데 하기가 좀 그거해서 개인이 넘갔거든요. 개인이 하게 되면 지금 한 달에 이백이십만원 주고 하니께네, 그게 안 올라오면 완전히 적자가 선주가 마이너스 났빠지.

@ 그럼 예전에는 어르신, 돈을 많이 버셨겠네요?

그 전에는, 저기 그래 고기가 자꾸 개 오거든요. 그러니께네 자꾸 괴기가 없었지요. 많이 안 잡히더라고.

@ 그러면 요즘 송어들이 하신 게 삼월에서 오월까지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달은, 어르신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뭐 먹고 논다 아납니까?

@ 아니 다른 고기를 잡으시거나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힘도 없고, 또 이거 폴로 다치가 꼼짝도 못 합니다. 지금 이거 내 이 망도 못 볼긴데, 지금 하도 선주들이 좀 봐줄 해가지고 인자 놀긴데, 그러니께. 니는 마 이기 손 자체로 보는 이거는 눈을 가 보는 마라도 눈 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안 있나.

#2 아가씨 욱 봅니다.

@ 해 보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니 말 했는 거 하고 똑같은데 뭐. 그래 야기 했다.

#2 그래도 내 보다 형님 연세가 많고, 송어들이에 역사가 깊으니까네, 혹시 있을까 싶어가.

깊어도 그 말은 그 말이거든. 동네서 니도 자랐으니까네. 통장님도 동네서 자랐으니다 안다.

#2 비슷비슷 그래도,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나보다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가.

@ 그러니까 어로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쪽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2 그렇지.

@ 또 다른.

영 틀리지예.

@ 어르신은 배를 타고 나가면 바로 망대에 올라 가시는 거예요?

네, 바로 우로 올라가야지.

@ 그럼 밑에 배를 세워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로 가면 해변 가서 밑에 밑에서 올라오는 길이, 길이 있습니다.

@ 그러면 망대까지 올라가는 데 몇 분 정도 걸리는데요?

거기 한 이분. 이분이면 갑니데이. 이분이면.

@ 그러면 음식 같은 거 식사는 그 위에서 드시는 거예요?

인자 식사는 해마다 밑에서 해가지고 안목선으로 해가지고 밑에서 이거 달아놓으면 우리가 위에 땡기는 그것도 망바고 밧줄도 땡기고, 그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땡기가 먹는데, 그것도 인제 여음식으로 되어 가지고. 인자 뭐 옛날 아들하고 요새 아들하고, 요새는 다 배 타도 나가 사십 넘은 사람이 다 타거든요. 그러니까네. 이는 다쳐보이소. 여음식 왔다하면 그래 가, 산에서 밥을 하자. 그래 산에 망우리 올라가가 하는데, 거기 다가 인제 땡글어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땡글어 놔.

@ 안 그래도 들어가보니까 가스레인지도 있고.

가스레인지는 옛날부터는 그. 물 기르고 하는 건 다 산에 있는데.

@ 이게 시대가 바뀌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르신은 이거 송어들이 하면서 뭐 보람 있는 일 뭐가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있겠습니까? 게우 벌어가 묵고 살고 하는 그거 밖에 없습니다.

@ 그 보니까 제가 들은 걸로는 아까 반반씩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 그래도 선원들 중에서는 어로장이 가장 많이 가져간다 하던데요. 이할 뭐 일할 반.

옛날에는 그랬는데, 거기 인자 우리가 망만 보면 선원이 그 때는 이십육 명이 지금은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전에 할 때는 선원이 이십육 명, 망인 두 명, 뭐 이십팔 명, 직가가 서른 직갑니다. 반을 가, 반 고 온다 아닙니까? 백만 원 같으면, 백만 원 가 서른씩 갈라 먹거든요. 그래 남으면 선원들 한 직가모 망인은 두 직가. 그러니까 서른 직가고, 서른 명이니까네 이십팔 명이서 두 직가로 가오께네 서른직가 아닙니까.

@ 어쨌든 배는 더 쳐주는 거는 맞죠? 그죠.

그래 지금은 안 그러고, 지금은 반 직가 밖에 더. 선원들보다 반 직가 더 받는다. 월급이, 봉급이 이백이십만원 같으면 나는 삼백이다.

@ 그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럼 이 송어들이 오래 계속 될 것 같으세요? 어르신 생각에.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됐는데, 밑에 사람들이 인자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인자 오늘 가나 내년 가나 다 끝날 나이거든요. 그 밑에 사람들이 이어나가 할 끼지 우리 때는.

@ 그럼 그거 송어를 보는 게, 어르신 하는 일을 누구한테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아니 저거가 알아서 몇, 한 일이년 보고 인자 몇 년 그 자리에서 보고, 이제 망인 하는 행동을 보고 이래 가지고 해야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한 두 분 있는데, 계시는데. 그 오래는 안 봤는데 그런 사람이고, 완전히 이거를 가업으로 보는 이 지한테 생계가 안 되니까네 자꾸 이거를 불라하는 생각을 안 하다고.

@ 그죠. 기본적으로 돼야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무형, 통장님 말로는 무형문화재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문화재는 이기 옛날로부터 문화재는 되기가 힘들지.

그래. 그거는 맞는데, 힘드니까 안 할라 하지.

@ 어르신 그러면 송어가 많이 잡히려면, 사월에 많이 잡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바람이.

북동풍. 동풍이라 카고, 북동풍이라고.

@ 동풍을 여기서는 셋바람 그러는가요?

그래. 그 동풍이 셋바람. 북동풍이 셋바람이거든. 그래, 남동풍 이런 거 불모, 남쪽에 서 불면 우리가 그 바다에 가서 배가 못 서가 있어. 파도에. 그러니까네 그거 출하를 못해. 바다까지 못 가거든. 그래계네. 일기예보에 그런 거하면 이게 오면 안 된다 내가 그 말 아닙니까.

@ 그러면은 물때는 언제가 좋다. 뭐 고기 잡기에 좋은 물때는 어떤 게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때보다 시때가, 물이 셀 때가 물 조수가 잘,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하면, 고기가 잡히고.

@ 고기들이 막 움직이니까.

조금때는 조금, 괴기 있어도 잘 이동하는 게 적고.

@ 그럼 물이 셀때가 몇 물 정도되면 센가요?

한 너물 넘어가면 물이 세지. 열두물세까지는 물이 세고. 인자 세물, 너물, 한물 두물 세물 판에는 조금때고.

@ 그러면 너물 넘어가면 인제 괜찮아지고?

시때가 되고.

@ 그럼 너물부터 몇 물때가 시때인데요?

열두물까지, 시때라고 카고. 거기에 비해서 인자 세물 네물까지는 조금때라 하고.

@ 그 때가 시때가 하여튼 고기가 많이 잡히는 때가 그죠?

그것 자체로 그러니까, 날씨만 그러니까네, 조금때라도 날씨만 잘해주면 많이 잡고 뭐 못잡는 게 그날 그 사월 달에 넘어가면 주로 날씨만 좋으면 계속 잡아 올라오거든요.

@ 그러면 어르신 시간 잘 맞춰서 올게요.

2.2. 송어들이 배 선원의 송어들이 이야기 둘-김은배 씨

@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쭙보면 편하신 대로 말씀해주시면 돼요.

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배에, 바다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뭘까요?

하나의 뱃놈 하는 거예요. 뱃놈. 옛날에 보면 뱃놈. 뱃놈을 하다가 요새는 또 한수 올리가가고 뱃님 인자. 보통 뱃놈이라 하시마시.

@ 그러면 그 송어들이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거기도 어떤 일을 하는 지에 따라서 부르는 말이 좀 다르잖아요. 통장님 아시는 말 중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거는 인자 고기가 만약에 어장에 요 나와 있으면 고기가 저 온다 아납니까? 그러면 아까 산에 가서 망대 봤지요? 거기서 사람이 막 내려다보고 있고 있으면은 이 고기가 이 많이 뭉쳐오면은 이 붉은 빛을 내요. 그러면 우에 산에서 어로장이 '봐라' 이래 오는 거라. 근데 지금은 그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요 고루로 만들어가 나무를 박아 놓은 게 있어요. 쌍말로 막 '쫓빠라' 이란다고.

요를 빠라 이란다 말입니다. 그래야 어장이 올라오거든요. 용어를 많이 쓰고, 지금 와가지고는 고마 '봐라', 밖목선 뭐 '밖목선 해라'. 그러면은 인자 뭐 조금 오늘도 보면 '안목선 해라' 그런 식이 되는 거지요.

@ 그러면 어로장을 부르는 말이 다른 말이 또 있나요?

그러이 이 언어가 어로장에서 다 하는 겁니다. 뱃사람들은 어로장의 언어에 따라가지고 땡기고 그라는 거지.

@ 뭐 망쟁이, 망쟁이, 망재이 이런 말도 있다고 그러던데.

글치. 지금은 우리 어로장을 썼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보면 망쟁이라 하거든 망쟁이. 우에서 망을 본다 그런 뜻으로 망쟁이라 이래 불렀어요.

@ 망수 이런 말도 쓰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망쟁이라 할 수도 있고, 망수라 할 수도 있고, 지금에 와서 어로장이라 할 수 있고, 예 그런.

@ 그러면 어로장 밑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 뭐예요?

어로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을 인자 부망쟁이, 부망쟁이.

@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은

부망수 이래 나오는 거지요.

@ 부로어장 이런 말도 쓰겠다. 그쵸?

예.

@ 밖목선, 그러니까 외목선을 타는 사람들 중에 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뭐 사공 둘째바, 셋째바 뭐 이런 말 있다고 그러던데. 이런 말 있나요?

네.

@ 제일 높은 순서대로 꼭 이렇게 한 번 말씀해주세요.

큰배가 있으면 제일 뒤에서 하면은 첫째바. 걸이 제일 먼 데 있는 걸 땡기다는 사람이라요. 힘이 제일 센 사람이어야 땡겨올 수 있는 거라. 그 다음에 힘 조금 그보다 조금 적게 하는 사람은 둘째바, 하나 쪽 이래 돼 있거든.

@ 끝에서부터 쪽쪽쪽 위치가 되는구나.

그러면 인자. 쪽 오다보면 인자 네 사람 오면 인자 걸이 빼는 게 있어요. 제말로 ‘쫓 빼라’ 카는 거. 고거를 안 빼면은 어로장이 안 올라 온다는 결론이지.

@ 그게 딱 고정시켜주는 역할.

그렇지요. 딱 고정시켜가지고 배를 딱 부딪치다 놓는 거지요. 그래 빼야 배가 힘으로 부터 어장을 뽑을 수 있는 거라요.

@ 그거 빼는 사람이 걸이바 이런 말 쓰나요?

그렇지 걸이 빼는 그런 걸 옛날에는 쫓 빼라 그랬는데, 지금은 인제 걸이라 하는 거지. 걸이 빼라.

@ 걸이 빼는 걸이 빼는 걸 담당하는 사람 있었어요?

있습니다.

@ 그 사람 부르는 걸 걸이바 이런 말 써요?

그런 말은 잘 안 쓰는데, 보면 넷째바. 보통 하장이 보통 그걸 빼거든요. 하장이 제일 머니께네. 힘이 세니까 그거 힘 약한 사람은 안 빠지는 거지. 하장이 제일 젊은, 젊은 사람이 하장이 하기 때문에 하장을 보통 그걸 맡기는 거지요.

@ 하장이 배에서 밥 짓는 일을 하시는 분이 맞나요?

네, 맞지요.

@ 그럼 제일 서열이 낮은 거예요?

서열은 그런 게 아니고.

@ 그냥 역할분담이 다른?

예, 우리 다 한동네다 보니까네 연세 많은 사람을 밥을 하라 할 수 없거든요. 힘은 젊은 사람이 다 하는데도, 나이가 어리니까네, 동네 어른들한테 하나의 그 밥을 해가지고 바친다 그런 그러지요.

@ 그 저희들 들어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사공이다.

아니지 망쟁이 다음에는 이자 밖목선 사공. 배 내에서는 사공이 제일 대빵이지.

@ 망쟁이요?

망쟁이.

@ 아 그 배에서.

배에서는 사공이 제일 대빵입니다.

@ 사공을 상바 이런 말 쓰나요?

네 상바 땡기면서도 사공의 이 사공이 하나 잘 못 하면은 고기를 다 놓칠 수도 있는

문제라.

@ 그렇죠. 줄을 빨리 당겨야 하나까. 그러면 뭐 사공, 둘째바, 셋째바, 넷째바, 오동이.

오동이 제일 앞에 이물에. 배 치면은 제일 앞에 이물에 그거 이자 오동을 빨리 땡겨 가지고 걸치 주자 고기 안 넘어가게끔 땡기는데 그게 인자 아 우리 회관에 갔으면은 그자. 회관에 가면 우리 승어 잡는 사진도 짝 다 걸리 있고.

@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중간에 또 가보니까 왜 무슨 큰 건물 있던데, 그게 회관이죠? 통장님.

요 바로.

@ 곁에 건물만 사진을 찍었는데,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아 그랬으면 아까 했으면,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 그러면 거기를 가서.

예, 그래 할까요? 그래 설명이 더 낫겠다.

@ 그러니까요. 보고 이렇게 하시면 더 나올 것 같아요. 잠깐 끌게요.

@ 다시 연이어서 계속 물어볼게요. 그러면 통장님 아까 사개 친다는 게 뭐예요?

사개라는 거는 배가 여섯 척이 있으면은 인저 배가 고정이 되어된다 아닙니까. 그래 줄로 가지고 인자 닻을 놔야 된다는 결론이라. 그게 인자 사개라 하는 겁니다.

@ 아 그러면은 승어들이 처음 시작할 때 어장을 막는다 그러셨잖아요. 금방.

네, 사개부터 해가 놓고, 요 줄 줄 비지예, 이게 전부 그 닻을 놔가지고 배 고정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게 멀기 뻑 둘러 있다가 고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막 땡기가지고 아까 딱 이기 밖목선이거든. 근데 이게.

@ 제일 끝에 바깥 쪽에 있는 거.

제일 뒤에 있는 저 사람이 사공이라.

@ 아 저기 치 있는 게 그쪽.

그런데 저 게 밖목선이고, 이쪽에 있는 게 안목선이고, 또 밑에 있는 게 안장등. 안귀잡이.

@ 예, 안귀잡이

그라고 박귀잡이, 박장등. 요요요 다 있네. 요게 예. 밑에 그게 맞는 거 같네.

@ 그러면 일단 다시 아까 사람 이름부터 하면 그러면 밖에 있는 밖목선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분이 사공이고.

예, 사공이고. 그 다음에 저 서가 있는 저 사람은, 어장을 다 쪼아 냐기 때문에 조금 편하지예. 저 사람이 둘째바. 그 다음에 요 한 사람 업드린 저 사람이 인자 걸이, 걸이 빼는 사람.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저 사람이 인자 앞에 오동. 오동 잡는, 땡기는 사람.

@ 오동이 밑에, 그지 그물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오동이라는 거는 요 어장 요래 요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 네.

그럼 여기 또 기가 하나 있어요. 기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는 밖목선, 요 있다 아닙니까? 그럼 요서 사공의 요 정도에서 주 땡기고, 그 다음에 둘째바 땡기고, 그 다음에 셋째바 땡기고, 그 다음에 걸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장이 여서 모가 하나 나 있어요. 모가. 모가 나 있는데, 요게 인자 오동이라 하는 게 아닙니까? 제일 앞에 사람이 요걸 거다 올리야 고기 안 넘어가지예. 인자.

@ 그렇지, 고기가 튀어나가지는.

그렇지예.

@ 아 그래서, 오동. 오동도 있고 오동 흘치기 하는 건 뭔데요?

그래 인자 오동을 떨기 땡기면은 이제막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고리 있어가지고 쪼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가 빨리 올리빠야 적은 배 저거는, 박귀잡이라 하는 저거는 혼자 하거든요. 혼자기 때문에 많이 힘을 못 쓴다 아닙니까? 그면 걸이는 똑같은 걸인데 밖목선 오동이 많이 땡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고리가 있어가지고 흘치가지고 올린다는 거지.

@ 그렇구나, 그럼 오동 흘치기를 하는 사람이 오동이겠네요.

그렇지요. 앞에 제일 이물 하는 사람이 오동.

아 이물에 있는 사람이. 오동바, 인자 바를 잡는다 이 말입니다. 줄로.

@ 그러면 어쨌든 여기 여섯 척이 있지만, 제일 힘을 많이 쓰고 중요한 게 그러면 안목선.

아닙니다. 밖목선, 안목선이지예.

@ 음 두 채가 이렇게 입구를 모아야 하니까.

그렇지요, 범위가 이것도 맹그로 줄이 하나 있으면 이기 하나 있고, 이기 하나 있고, 이기 하나 있다 아닙니까. 요래 하나 있고, 밖목선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요 막 산에서 요거마이 줄로 땡기주고, 안목선 사람은 다섯 사람밖에 안 쓰는데, 땡기는 사람. 밖목선은 뭐 지금은 여섯 명 쓰는데, 옛날에는 일곱 명 썼어요.

@ 안 그래도 일곱 명이라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일곱 명 썼습니다. 그러니까네, 일곱 명이서 한참에 힘을 모우고 안목선에도 한참에 힘을 모아야 앞에 이 걸이를 몽땅 올리겠다는 결론이지요. 차단시키뿌면은 뒷배들은 인자 설설해도.

@ 그게 이렇게 모아주는.

예, 올라오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지요.

@ 산에서도 이렇게 줄이 쪽 연결되어 있는 게, 그 부어로장이 줄을 당겨야 되나요?

땡겨주는 셈이지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도움을 주는 셈이지요.

@ 그러면 산에서는 부어로장이 그 줄을 당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망보는, 망쟁이가 땡긴다는 결론이지요.

@ 아, 한꺼번에 힘을 같이 딱 줬을 때 그러는구나.

그렇지요, 이거는 한, 이 이것부터 먼저 도와야 인자 뒤에 사람이 따라 도울 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 척이 한 한참이 전체가 하여튼 힘을 한참에 모아서 하는 어장

이 이 송어들이 하는 겁니다.

@ 그러면 이름을 안목선, 밖목선. 밖목선을 외목선 뭐 이런 말도 쓰나요?

아니예, 그런 건 아니고 밖장등, 안장등. 밖귀잡비, 안귀잡이.

@ 귀잡이가 제일 끝에 있는.

예, 요쪽에 인자 저쪽에 있는 게 밖귀잡이, 요쪽에 있는 게 안귀잡이.

@ 그러면 중간에 있는 두 개를 갖다가.

안장등, 밖장등.

@ 왜 장등라 할까요?

글썄 인제, 그러니까네. 요기 쪽 있으면 중간을 잡아준다는 결론이지예. 이 사람들은 양쪽 길을 가지고 땡기지만은 이 사람은 이거만 들어만 주면 되는 거라요. 그렇게 장등배라 그래. 쪽 퍼져 있는 거 인자 중간에 잡아주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 그 여기서 이 지역에서는 많이 잡히는 고기가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송어철이니까 송어. 송어철 조금 지나면, 한 오월 달 되면 고랑치 카는거, 고랑치. 고랑치 카는 고기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고랑치 안 먹었어요. 미끌미끌하다고 버렸는데, 지금은 횃집에 가면 최고급입니다. 회는.

@ 고랑치를 여기서 쓰는 사투린가요? 고랑치 하는 게?

여기서 쓰는 거는 인자 꼬랑치, 꼬드랑치, 꼬드랑치 하는 건데. 저거는 강원도가면 장갱이라 한다던데 그러던데.

@ 아 장갱이를 꼬등랑치 하는구나.

예 우리는 꼬등라치 하는 거지예.

@ 그게 장갱이다 그죠. 그러면 장갱이를, 만약에 콩치를 저번에 동해안 쪽에 조사를 하러 가니까 콩치를 전문적으로 잡는 배를 콩치바리 뭐 이런, 콩치잡는 배의 선원을 콩치발이 뭐 이런 말을.

아니지예. 콩치바리는 콩치잡는 배는 우리는 이쑤구리하거든요. 이쑤구리. 이쑤구리. 두 채가 싸는. 이쑤구리하는 거 합니다. 고계 인자 콩치 잡는데, 지금 그건 아직 철이 멀었는데, 가을쯤 되면은 그건 많이 옵니다. 일로.

@ 그럼 이 지역에서도 해녀도 있나요?

해녀가 한 팔 명. 팔 명 있습니다.

@ 지금 활동하고 계신가요?

네. 활동하고 있어요.

@ 그럼 해녀들을 부르는 말이 뭐가 있어요?

해녀들 부르지. 지금은 옛날에 그 사람들은 제주서 왔는데, 산 시간만 삼십년 이상 돼가 노니까네 제주말은 아예 안 씁니다. 이 가덕말만 그냥 뭐 똑같이 쓰는데요.

@ 그 예, 뭐 해녀들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 뭐가 뭐 상군, 중군, 하군.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눠서.

우리는 전에 보면 해녀들을 갖다가 보지기라 하거든, 보재기. 제주 말로는 보재기라 했어요.

@ 그냥 통틀어서 그렇게.

그렇지예. 보재기. 해녀보고 보재기, 보재기 했는데. 지금은 보통 뭐 옛날 그거는 보재기하면 또 듣기 싫다 아납니까. 그래노니까네 해녀.

@ 그러면 이 지금 여섯 배인데, 타는 뭐지 사람 수가 다 다르잖아요. 통장님.

그렇지예. 큰 배는 지금 여섯 명 쓰고, 밖목선은. 안목선은 전에는 다섯 명 쓰는데, 지금 또 이 선원을 줄아빠가 너이 쓰고, 그 다음에 안장등은 둘이 쓰고, 밖장등은 저기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쓰고, 그 다음에 안귀잡이, 밖귀잡이는 세 사람도 씁니다.

@ 아 저희들이 처음에 왔을 때 네 명, 안귀잡이, 밖귀잡이 네 명 정도 쓰다.

예. 옛날에는 네 명 썼어요. 네 명 쓰고, 일곱 명 쓰고, 다섯 명 쓰고 이랬었는데. 사람이 좀 줄아 뿐 썸이지예.

@ 그럼 배마다 하는 역할이 아까 전에 안목선하고 밖목선부터는 처음에 그물을 확 잡아당겨주고 이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 그 다음에 그 안귀잡이하는 배는 도래바 하는 그물을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기 아까 요래 요 귀가 요 있거든요. 요가 안귀잡이하는 기가 있어요. 밖귀잡이라는 건 밖귀잡이. 그 다음에 안장등이라는 건 요서 짝 잔등 맹크로 퍼 낚다 아 낚니까? 요것만 잡고 있는 배라고 안장등.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만 잡고 있기 때문에 밖장등 하는 거지요.

@ 도래바 하는 이중그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도래바라, 도래바는 없어요. 쭈구리는 안 씁니다.

@ 쭈구리?

이 우리 송어들이는 안 쓰고.

@ 아 송어들이는 안 쓰고, 다른 데에서 그러면 쓰는 거예요?

네.

@ 아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걸로는 안귀잡이 배에서 고걸 설치한다고 그래서.

예

@ 그러면 그 이게 송어들이가 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부터 시작되나요?

시기, 전에는 보름밥 먹으면은, 음력 일월 보름 밥 먹으면은 바로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가지고 한 달 정도는 고기 쪼매이 잡고 못 잡고 막 고생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자 오늘부터 나갔어요. 오늘부터 착수를 했어요. 옛날에는 뭐 밥이나 얻어먹고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밥이 문제가 아니고 돈벌이 아 낚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은 전에는 우리 동네서 공동으로 해가지고 직거래를 해가지고 했는데, 사루계로 해가지고.

@ 그러더라고요. 뭐 어촌계 사가져 가고.

육은 선원들 가지고 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조금 발달돼 가지고, 사람들이 안 탈라하는 거라. 사람들이.

@ 힘들어서요?

힘든 게 아니고 해보니까네, 삼개월 해보니까네 많이 잡혀도 한 오백만 원 뭐 이래 밖에 안 되니까네 그래서 작년, 이년 전부터는 개인 앞으로 우리가 쫓어요. 주니까 이제 선원 하는 사람이 올해 같은 때는 이백이십만 원 이백이십만 원을 준다기 때문에, 그것도 얼굴 보고 타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거 잘 안 탈라해예.

@ 돈이 그만큼 안 되는구나.

네.

@ 그러면 제일 처음 어망을 오늘 설치를 하면 그물이 아까 줄을 달아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줄이. 밖목선은 뒤에 저기도 줄을 하나 빼인다 아닙니다. 저 앞에 저서도 저리 가는 줄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밖장등은 또 허리 들어서 바로 항 나가고, 배가 꺾쪽도 못하게끔 요래 딱 잡겠끔, 줄로 딱 쳐놔요. 고정을 해 놓는 거라.

@ 아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예 그렇게 되어있어요. 요거는 인제 하나만 있고, 이것도 하나만 있고.

@ 여기도 두 개씩 있네요.

요도 있고, 요도 하나 있고.

@ 요기도 이렇게 두 개씩 있고요?

요기는 인제 저가 가에 바위에 묶으는 거지. 한 가에 배를 부쳐놓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가에만 부치면 안가는 없는 셈이지.

@ 그럼 안목선은 그러면 바위 옆에 딱 붙여놓고,

그렇지요. 거기 가 보면은 한 가로 볼 때 보면, 이 작대기 가지고 파도에 배가 안 뿌

라지겠끔 밀어가면서 가로 붙이놔야 되는 거라예. 한 가로부터 오기 때문에. 안목선 같은 데는 안목선 안장등은 닳을 안 쓰고, 가에다가 돌 바위에다 묶어놓고 땡기 놓는 거라예.

@ 그 안목선에서 어로장이나 부어로장이나 밖목선 선원들 밥을 준비하는 게 맞나요?

네.

@ 아, 그 안목선에서 그럼 다 준비하는 거. 다른 배는 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 먹고요?

그렇지요. 안목선에서는 한 가에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 이 높은 데서 도래를 만들어 가지고 소쿠리에 담아서는 망쟁이 거기서 땡겨가지고 받아가지고 밥 먹고, 또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걸어서 올라갔어요. 갖다 주러. 바위 타고.

@ 높던데요?

예. 내 쪼매날 때 한잔할 때는 그런 머리를 쓸 줄 몰랐고, 그 바위타고 그 내려가가지고 망대까지 갖다주고 밥 다 먹고 나면 소쿠리 가지고 내려오고 그랬었어요.

@ 아 망대까지요? 그 망대 위에 보니까 제사 같은 거 지낼 수 있는.

고거 인자 작년에 우리가 완공을 했는가베. 거기 인자 고사장. 옛날에는 고사 지내면 제일 밑에 바위 물가서 지냈는데, 거 보니 돌이 금방 떨어지기 직전 식으로 위험하니까.

@ 예, 절벽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고사 사람들 모셔다놓고 무너진다면 이게 인명사고 굉장히 난리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인제 밑에서 안 지내고 위에서 지낼 수 있게끔 고사장이지요. 고사 지낼 수 있게끔. 좀 너르지요? 거기서 인제 공문을 보내다가, 좀 말 꽤나 사람들이 참석해가지고 앉아서 고사지내고 나면, 인제 한제리 앉아가지고 음식 먹고. 그런 그렇게 만든 겁니다.

@ 그럼 고사는 언제 지내는데요?

그거는 날짜는 없어요. 승어들이에서 인제 알아서, 고기가 안 잡힌다든지. 그러면 마.

아마 사월, 사월 초쯤 되면 고사지낼 거예요.

@ 아까 전에 사진 찍으러 가니까 그냥 소주잔에다 소주만 한 잔씩 따라 놓고

오늘 입냥했으니까네, 정문에서 사신, 이 그러니까네. 어로장, 역대 어로장들 돌아가신 분들 짝 많다 아닙니까.

@ 아 그분들 신위를 모셔다 놓은 거구나.

예, 전부 다 확 밥 떠놓고 그러니까. 고사지낼 때는.

@ 그러면 한 번 어로장이 되면 옛날에는 끝까지 계속 그분만 어로장을 했는 거예요?

글치, 아니 어로장을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돌아가시쁘다 아닙니까. 돌아가시 뻐면은 자동적으로 어로장에 했는 사람들은 승우들이 올라가 있어요. 거 망띠 망띠 아로, 고사 지내는 데, 고사지낼 때마다 밥 한그릇 떠다 놓고 절하고.

@ 그래서 보니까 신위가 여러 개 있길래,

예, 그러니까 백 몇 십 년을 했으니까네 돌아가신 분은 꽤 안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신발이 처음부터 와 있는 거지.

@ 소주잔도 막 여러 개 놓여있고, 그러면 그건 그냥 오늘 같은 날도 그러면 처음 들어갔으니까, 그물을 낚으니까 그냥.

그렇지요. 예. 아무래도 인자 어로장 눈에 잘 보이게 해줄라하고, 옳은 고기 좀 잘 잡히게끔 하게. 일종의 하나의 교인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어업에서는 미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다 보니까네 신발 그거하고, 신발은 한 번하고 나면 또 다 버리뿌예. 버리갖고 또 다음 해 오면 또 새 신발 사고.

@ 아 신발 신발요? 그 신발도 올려요?

예, 한 사람에 신발 한 켤레씩 짝 놓습니다. 고사 지낼 때는. 밥도 한 사람에 한 그릇씩 짝 놓고.

@ 아까는 그냥 소주잔만 있어서.

오늘은 고사날은 아니거든요. 첫 입막이다 해서, 소주잔을 아마 부어 놔을 겁니다.

@ 그러면은 신발을 하는 이유가 뭐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그거는 우리는 보통 보면 집에서 뭐 제사 지내는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 어로 장들 돌아가시고 나니까네, 고사 지낼 때마다 신발을 하시더라고. 신발을 놓더라고요. 한 사람 한사람씩.

@ 그럼 제사 지낼 때, 고사 지낼 때 다른 음식은 여기 특별하게 놓는 게 있나요?

다른 거는 셋지요. 꼭 제사상 식입니다. 제사상 식이고, 오는 손님을 인제 대접하기 위해서는 보통 돼지 같은 것도 한 마리 잡고, 고기 잡고 다음에 안 그면, 요새 육고기 잘 안 먹습니까. 고기 잡으면 송어 막 한 백 마리면, 백 마리 가져가지고 그거 뭐 판치고.

@ 다른 지역. 죽방렴 가니까, 그 염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금기사항이 있더라고요. 송어 들이 할 때.

그렇지요. 여기는 여기는 개고기는 아예 안 먹어요.

@ 그거는 맞더라고요. 개고기는 안 먹고, 염소 사슴 고기 안 먹는다 그쪽에는 그렇다고요.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개만은 송어들이 타는 사람들 안에서는 아예 안 먹습니다.

@ 그렇구나. 그럼 금기사항이 개고기 안 먹는다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옛날부터 그렇게 하는 갑데예. 개고기는 뭐 하나의 창자로 보면 사람하고 같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개고기만은 일체 못 먹게 하는 거라예.

@ 그 배 탈 때 뭐 여자들에 관련된 이런 게 있나요? 뭐 여자들 타면 안 된다. 뭐.

전에는, 옛날에는 여자들이 아예 안 탔어요. 그런데 고사지낼 때만은 여자를 싣고 갔거든요.

@왜요?

그러면 지금은 인자 선원들만 가지고 절을 하고 마는데, 옛날에는 그 이 굿하는 사람. 막 그런 사람. 모시고 했어요.

@ 아, 폼 크게 했는 편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네 그런 사람들 고사하는 그날 아니면은 여자들은 아예 배에 못 올라오게 합니다.

@ 그 망 있는 데도 못 가게 하고?

망에는 갈 수 있지요. 배를 못 타는 거지.

@ 망에는 갈 수 있나요? 저는 아까 갔는데. 막 첫날인데 여자가 재수 없다고. 여자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까 싶어서.

아예, 육지서는 아무 관계없는데, 배만은 여자분들 안 태웁니다. 예.

@ 그럼 다르게 금기사항은 없고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거고. 음식은 뭐 그냥 다른 지역에 제사지내는 것처럼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 그럼 어로장이 제사를 주관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주로 총 주관은 어로장이 다 하는 거지예. 망재기가 다 합니다. 내가 선주라도 선주, 내가 선주라 하는 그것만 있는 거지. 뒤에서 전체의 움직이고 하는 거는 망재이가 제일 대빵이지요. 고기가 지나가는데도, 망이가 뭐 모른 척했으면 막 넘어갔뿌는 거지요. 그러니까 망재이가 제일 대빵.

@ 지금 망쟁이 하는 어르신이 이 동네에 계시나요?

있지예.

@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원망이 허창호 씨였고,

@ 네, 허창호 씨가 네 계속 저희들 자료 찾아보니까 오래 되셨다면서.

오래된 거는 아닌데, 한 때 지금은 올해는 허창호 씨가 개인이 하다보니까네, 어떤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안 있겠습디까. 그래가지고 안 하고요. 이제 김관일, 김관일 씨

가 올해 인자

@ 김 관자 일자 써요?

예, 관일. 관일이가.

@ 친구 분이세요?

아니, 우리보다는 세 살 많으신데.

@ 그러면 어망을 어망을 설치할 때 좋은 위치가 있나요?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변동이 없나요?

변동은 없어요. 딱 그 자리입니다.

@ 아, 제가 아까 가서 봤는 그 자리인가요?

예, 딱 그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좀 앞에 가도 만약에 어장을 깔아 놓고 있거든. 이 물 밑에다가. 그러면 바위 같은 거 있으면은 그물이 찌지거든.

@ 찢어지죠.

찢어진다는 말이야. 그러면 올려버리면 뭐 다 빠져 나가니까네. 그 자리만은 이 밑에 아무 것도 없어요. 깨끗하게, 그물이 안 찌진다고네. 그리고 고기가 오는 것도 보면은 거기에 타가지고 요 뺨 둘러가지고 오는 거고.

@ 아 이렇게 타서 오는 거?

예, 저 등대 쪽에서 오면은 그리로 싹 들어오기 때문에 딱 위치가.

@ 아 그럼 매년 그 비슷한 위치에서 그물이.

예, 몇 년이 아니고.

@ 몇 백 년.

그렇지요. 요 송어도 시작하고는 딱 그 자리입니다.

@ 그 어망을 어망 크기가 얼마정도 되나요?

크기가 뭐 저 한 이거만 해도 백메다. 이백 한 삼백 사백 뺀 둘러갈라면 사백메다 정도 됩니다.

@ 이 전체적으로 한 사백미터요?

네.

@ 그럼 그물을 가라앉혀놓고 날씨가 나쁘면은 그냥 가라앉혀놓고 뭐.

아니 인자 날씨가 나쁘면은 거다 오고, 안 그러면은 고기 올 때까지 앉혀놓고 있는 거지요.

@ 거기에 줄 이름 중에 통장님. 비염줄 하는 거 있어요?

비염이 인자 배들이 아까 안귀잡이, 밖귀잡이, 밖목선 닳을 한다 안합디까. 그러면 이 물에 있는 이물에 줄로 묶으는 거는 올림이고, 올림줄이라 하고, 뒤 뒤에 뒤 끝에서 땡기는 줄은 저 비음이라 하는 거라.

@ 비음?

비음. 비음줄. 그리 올림줄에 이빠이 올리놓고 나면, 비음줄은 자동적으로 배가 따라 올라간다기네. 올림줄이 그것이 배를 올려놔야 비음은 자동적으로 그 다음은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비음줄이라 하는 기라.

@ 비음줄이 여섯 줄 정도 되는 게 맞아요? 비염줄이. 줄 숫자가 몇 개 정도 되는데요?

비음 숫자가 배 한 개에 그러니까네 안장등, 밖장등 빼고는 다 있으니까네.

@ 아 그럼 네 줄인가?

그렇지요. 그거 안귀잡이도 비음이 하나 있고, 밖귀잡이도 비음이 하나 있고, 밖목선도 비음이 하나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인자 안목선도 요 밖에 줄 두나 아납니까. 그 앞에 저기 비음줄이니까네 안목선도 가에 묶어 놓지만은 비음줄이 하나 더 있고. 근데 밖장등, 안장등 비음줄이 없어요. 줄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 그 밖장등 안장등 거기에는 올림줄만 있는가요?

그렇지요.

@ 그러면 고기를 안 잡을 때는 비음줄로 그냥 딱 고정시켜 놓는 거고. 고기가 그물에 고기가 있어서 그물을 들어 올리면 올림줄을 당기면 비음줄이 당연히 따라 오고.

자동적으로 북측으로 다 풀어 이, 올림줄 비음줄 한 사람이 다 뉘뉘야 그물이 이 사백메다에 가까이 둘러 있는 게 짝 오물어 붙어버린다 아납니까. 그래, 그래니께네 저런 식으로 사람이 뛰어 올라가고 할 정도로 배를 붙어야 이자 고기를 인자 이 퍼 올리는 거지요. 퍼 올리는 거는 저 뒤에 저런 식으로 동두리라, 하나의 동두리라 하거든. 동두리.

@ 동두리가 그물에서 고기 끌어 올렸을 때 제일 고기 많이 모여 있는 동그란 부분 처지는 그 부분을 동두리 그래요?

아납니다. 여기서 동두리 하는 거는 고기를 담아가지고 마 한 어떤 테는 사백 마리씩 주 담습니다. 가가지고 사람이 여러 사람 붙어가지고 그물로 딱 싸고 땡기올리야 올리제. 예, 동두리 그물은 또 이 실이 굵은 게 또 있어요. 얼마치 또 달거만에. 저저 저도 마찬가지로잡니다. 저서 싸가지고 여러 사람이 올리는 게 동두리 합니다.

@ 아 그물 이렇게 한 겹 싸서, 안 튀어 나가게 한 겹 싸서 올리는구나.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도 더 하는 거지요, 저거는.

@ 그러면 전체 그물을 모아서 동두리 하는 그물로 이렇게.

예, 몽땅 고기를 못 올리기 때문에 쪼매이 쪼매이 해서 담아 올리는 게 동두리 하는 거예요. 동두리.

@ 그러면 그 그물은 원래 생긴게 네모냥게 생겼는데 싸서.

아납니다. 요 안에 동두리 그물이 있어요. 안목선 요 정도에.

@ 이런 식으로 동두리 그런 게 있구나.

실이 굵은 게 별도로 들어가 있구만.

@ 아, 그러네요.

네 안 그러면 터지빠면 안 되기 때문에. 굵은 실이 있어요. 또 그물이.

@ 그러면 이거 송어 잡이 하는 시간이 대충, 잡이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조업하는 시간은.

조업하는 시간은 저거는 짬이 없어요. 새벽에 보통 요새 같으면 다섯이나 이래 되면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면 고기가 송어가 없어도 좀 일찍 들어오는 거고, 송어 저 발 앞에 이렇게 놓고 있으면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 또 한 되면 또 밤 시키도 해요. 밤새도록. 달이 있을 때라도. 덩어리가 송어가 많이 온다는 데는 보면 하얀 시그리를 냅니다. 이게.

@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네. 밤에 보면 작대기를 같은 거를 막 이래 하면 빠짝빠짝하는 시그리를, 예 고런 식 고기도 꼬리치는 고런 시그리를 내 오는 거라. 그거를 보고 밤에도 잡는다 이 말입니다. 식

@ 움직임을 움직이는 게 보이는구나.

그렇지요. 빠딱빠딱하는 게 보인다고요. 한 마리 두 마리가 많은 숫자로 하기 때문에.

@ 아 그렇네요. 그러면 색깔이 뭐 하얀 색이 빛이 좀 나는 가봐요.

그렇지요. 예, 하얘가지고 이 빠짝빠짝하는 거지요.

@ 그 고기떼가 송어떼가 움직이는 거를 보고 날씨를 예측한다 하는 말도 들었는데요. 고기가 밤에 많이 움직이면 날씨가 그 다음 날 좋지가 않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보통 보면 인자 우리가 남서풍 카는 건데, 남서풍이 불라하면 고기가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덩어리가 크고, 숫자가 많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은 벌써 요새 뭐 일기예보가 있고 하지만 옛날 사람들 일기예보 압니까. 하늘 보고, 하늘 쳐다보고, 구름 가는 거 보고 아 이거는 마 비가 오겠다. 안 그러면 남서풍이 불겠다. 그걸 예측 아닙니까? 또 크게 불겠다. 예 그러면 고기떼가 많이 와가지고 움직일 때는 틀림없이 남서풍이 한 번 불겠다. 아마 날씨 안 좋을 거다. 예측을.

@ 그럼 송어들이 할 때 좋은 바람은, 잡기 좋은 바람은?

저 동풍이지요, 동풍.

@ 이쪽에서는 동풍을 뭐라 그러나요?

우리는 셋바람, 셋바람.

@ 동풍도 괜찮고 북동풍도 괜찮다고 그러던데.

그래 북동풍은 북동풍은 아침에는 북동풍을 나갔다가 한 열시나 되면 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풍이 온다는 거지.

@ 아 시간에 따라서.

예 북동풍에서 동으로 살 가면서 열시나 넘어 되면 동풍이 온다 그 말이제.

@ 이 지역에서 북동풍을 부르는 말이 뭔데요?

우리는 인자 북동풍을 한다는 부르는 거는 그 노불 논다. 아침 일찍 노불 논다 이라고 거든요.

@ 아 노불요? 높새바람.

그러니까 노새, 노불 논다 하는 게 높새바람, 하나의 높새라 하는 거는 북동풍이 요에 부르기 높새바람 하는 셈이고, 요개 저 아까 멩그로, 동으로 돌아오면은 셋바람 하는 기고.

@ 그러니까 노불 바람 하기도 하고.

예, 아침 일찍 부는 거는 높새, 높새바람. 열 시나 넘어가면 동으로 해가지고 오면 완전히 셋바람.

@ 그러면 물때는 어느 물때가 좋나요?

보통 다섯물. 다섯물에서 열두물 세물. 물이 조금 가야 조금때는 물이 잘 안 가잖아요.

@ 물이 간다는 게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아니지. 물 조로가 이 썰물 되면은 이 가는 식에.

@ 빠져나간다.

시대 되면은 썰게 빨리 많이 나고 물이 빨리 내려가거든. 그래가지고 조금때 되면은 물도 안 가고.

@ 많이 안 빠져.

많이 안 빠지기 때문에. 물이 맑다 이래 노거든요. 맑다. 물이 빨리 안 가기 때문에. 물이 맑으면 아무래도 고기가 뭐 다른 장애물이라도 있으면 내 아무리 고기라도 장애물이 있으면 잘 안 들어오거든요.

@ 안 올라 하니까.

네.

@ 그러면 별로 안 좋은 물때는요?

그러니까네 열 두 세물에서 보통 한 다섯물. 네물 사이. 요때는 인자 물 조로가 안 빨리 안 가기 때문에. 물이 안 가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고기가 잡기가 힘든 다 하는 겁니다.

@ 자 인제 그러면 설치를 다 했어요. 그러면 어로장이 고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있잖아요. 계속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같이 만약에 다섯 시 나간다고 하면은 이 어로장 판단해가지고 저 물기까지 함 가보고 고기 없으면 오늘 철수하자 하는 거야.

@ 다른 배를 타고 그냥 가보시는 거예요?

아니, 육지로 걸어가는 거지. 배로 타고 가서 못 보니까네.

@ 저거는 송어 잡았는 거 세는 거 어로장이.

그렇지요. 예. 스무 마리를 쪽, 이 쪽지다가 세다 넣으면은 열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저 알맹이 하나 내루는 기라. 그 역할 하는 하나의 그기 에 저걸 뭐라 하노?

이 하나의 주산 알인데, 저것이 무슨 명칭이 있는데

아따 생각나더니, 금방 또 생각이 안 나네.

@ 조금 있다가 생각나시면 말씀해주세요.

@ 아 그래서, 인제 고기를 계속 기다리잖아요.

네.

@ 고기가 저기 딱 들어왔으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그러면 어로장이 딱 어떤 말을 하는 거죠?

어로장이 제일 먼저 밖목선을 보고, '봐라' 하는 기라. 그러면 준비해라 그런 뜻이지 예. '봐라' 하는 거는. 준비해라. 고기가 얼추 다 왔으니께네, 딱 지 자리서 앉아라. 준비 딱 해가 있어라. 봐라. 그 말 한 마디에 여섯 척이 전부 딱 긴장 속이라. 딱 둘러 잡고 준비를 하는 거지예. 그러면 망에서 인자 밖목선 저 사공을 보고 인자 '해라' 한다고. 하면은 올림줄 이거 딱 티아 주면서 한 차에 막 그때는 진짜 이 입에서 하근내가 날 정도입니다. 그 탁 퍼떡 수이 안 올리면은 못 잡으니까네.

그 다음에 인자 안목선, 밖목선에서 얼추 다 조가 놔 놓으면은 인자 뒷배를 논마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네 척, 한 채가 왓 달아 붙어서 땡깁니다.

@ 그러면 그때 봐라 하고 당기는 줄이 베릿줄 하는 건데, 들어보셨어요?

베릿줄? 베릿줄은 우리 안 씁니다. 안 쓰고, 밧줄 하는 거. 밧줄. 하나 개개인이 달아서 땡기는 줄로 밧줄 하는 걸로.

@ 이게 다 그냥 개개인마다 밧줄이 하나씩 다.

다 있지요. 그래 아까 이야기 했는 대로, 요래 요래 요 있지. 요 오동이 제일 앞에 사람은 오동 요거를 땡기고, 사공은 요게, 요래 딱 땡기고, 둘째바 요게 땡기고.

@ 아 이런 식으로.

예 예 예 예, 그럼 안목선도 마찬가지로 요래 요래 요래 땡기고. 요거 줄마다 여럿이 땡기는 게 아니고, 이 밧줄이 다 자기 밧줄이 깔렸어요.

@ 아 그걸 그냥 밧줄, 밧줄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산에 있는 부어로장하고 부어로장도 줄을 당긴다고 했잖아요.

네.

@ 그거는 줄 이름이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줄인데, 한 사람이 땡기는 것보다 두 사람이 땡기면 힘이 더 큰 힘.

@ 밧줄이 더 빨리 땡겨지니까.

그 역할하는 거지. 아까 가셨지만은 망대하고 이쯤 이런 계속 온다 아닙니까?

@ 네.

그러니 여기서 하나 땡기는, 망대에서 하나 땡기주는 요것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 근데 거기서 그렇게 땡길만한 힘이 되나요?

충분하지요.

@ 거리감이 있던데.

저거예, 한때는 우리가 기계 장치를 할라 그랬어요. 기계 장치를 해가지고 하고 마보다 막 뺑 놀리면은 탁 트인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둘레로 하지고, 줄로 바로 감을라 생각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 아 그래요?

네, 안 되고, 옛날 했는 그대로 해보자. 그러니까네. 아직까지 옛날.

@ 사람 손이 많구나.

백 몇 십 년 전부터 한 아직 케케묵은 그걸로 하고 있어요.

@ 그러면 그게 한 삼십 초, 일 분도 안 되게 잡아 당겨야 한다면서.

저거 뭐 하는 데는 한 삼십, 일 분. 일 분도 채 안 걸릴 겁니다. 딱 쪼아뿔 때는.

@ 그러면 일단은, '봐라' 하고 '해라' 하면, 딱.

그렇지요. '봐라' 해가지고 딱 줄 딱 잡고 막 이 대기되어 있다가 '밖목선 해라' 그러면 순간이지요. 순간. 얼추 다 쪼아지면은 뒷배 다 해라.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이라.

@ 뒷배 다 해라하면은 이게 다 모여드는.

그렇지요. 와 저것이 다 모아들이뻐는 거지예.

@ 예, 그리고 나서는 어떤 작업을 하나요?

이제 다 쪼고 나면 그물 여유가 많다 아납니까? 요 넓게 있는 기.

@ 그렇죠. 좁아지니까.

그물을 땡기야지예. 땡기면 고기가 자동적으로 이 쪼이 올라가 뜬다 아납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동두리하는 거지예. 동두리하고, 발동기 옆에 하면 딱 또 두습니다. 두고, 발통 거다가. 전부 살립니다. 살라가지고, 물차에 다 전국적으로 팔아가는 거지예.

@ 그 그물을 쪼아 올려서, 고기가 막 튀어 나가면 안 되니까, 쪼아 올려서 옮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핫가하는 걸 이용한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 이거는 만약에 한 십만 마리나 뭐 한 이십만 마리 만약에 어장을 들었다 아납니까? 그러면 쪼았다 아납니까? 쪼았으면 튀 넘어가는 기 아마 한 몇 백 마리 됩니다. 이 그래 배 폭도 너른데도, 바로 바로 이 배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숫자가 많을 때는 튀 넘어가는 그거 신경 안 써예.

@ 그럼 배에서 배에 들어 올려서, 배 끝부분에 자 모양처럼 생긴 승지하는 게 있다던데. 승지.

그런 거는 우리 송어들이에서는 안 쓰는데.

@ 그러면 안장등 나가라. 뒷배 다 나온나. 이런 말도 아까 전에 아까 하신 것처럼 모여 드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앞에 배가 요 입구를 얼추 막았는 상태 끝으면은 이 사람들은 그물을 다 들고 있거든. 들고 있으니까네, 이 사람들은 천천히 해도 되, 고기 안 새어나가게 그러면 뒷배 다 나온나 하면 요게 몇 채 막 한참에 땡기뿌리거든.

@ 뒷배 다 나온나 그 말 나오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 그러면 송어 잡아서 바로 옆에 송어 운반하는 배가.

네 배가 발동기가 큰 게 하나 있어요. 힘으로 인자 배를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끌어 가고 저녁에 올 때 또 끌고 들어오고.

@ 그러면은 일단은 배가 딱 여섯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운반해가는 운반선도 있고.

운반선이 큰 발동기 하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저 상태, 거리가 저렇게 먼데 저 상태 가지고 끌고 들어올 수는 없다 아닙니까.

@ 그 때는 동력선을 이용하고.

그렇지요. 동력선. 여기는 새벽에 나갈 때도 이 배들은 닻 차고 나갈 때 이용하고, 저녁에 채수해가 올 때도 이용하고. 고기 잡으면 고기 운반 이용은 다 해주요. 그런 배가 있습니다.

@ 그 관리선도 따라 붙나요?

관리선이 하나 그거지.

@ 그게, 그 배가 그렇게 하는 거구나.

고기 관리선. 전부 해서.

@ 그러면 고기를 대부분 잡는 게 송어잡이인데, 다른 고기가 들어오기도 하나요?

그렇지요. 요 보면은 전이도 그레께네 뭐 백 번 중에 한 번 정도. 전어도 한 번씩

뭐 우리 어릴 때 보면 감성돔 그것도 한 몇 백 마리 잡은 것도 있어요. 송어 같이. 요 새야 좀 귀한 셈인데.

@ 그 송어를 아까 열 마리를.

스무 마리를 열 하거든요. 열 하면 저 주산 알 저게 하나 툭 내려가는 거라요. 그러면 저 주산알로 헤아리보면 오늘 천 마리를 잡았다. 만 마리를 인자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지.

@ 그럼 백 마리를 따로 부르는 말이 동이 맞나요?

한 동, 한 동. 천 마리를 한 접.

@ 그럼. 많이 하실 때는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 건데요?

여기서요? 많이 잡을 때는 사십두 접 잡았으니까, 사십이만 마리 잡은 거래요.

@ 한꺼번에요?

네.

@ 그러면 이 동두리가 이 동두리 몇 번을 해야 되겠네요.

고기가 내려 앉아놓으면은 안 밀라내요. 이 놀리 놓으면 사람 힘으로 못 땡겨요. 그러면, 대구에 막 튀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칼로 탁 돛배이, 동가리를 내가 막 집어 넣어요. 비린내 나면 올라오라꼬. 그러면 인자 결국 고기도 인자 놀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힘이 빠지고 나면 인자 서서히 그물 쪼아 지는 거지예.

@ 아 그러면 개들이 비린내 나면 조금 뜨기도 하나요?

그런 것도 있고. 기름도 집니다. 이 병에 들어가 기름도 집어넣고. 영 천지를 다 합니다. 안 뜨면은.

@ 맞아요. 안 뜨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십만 마리 이 이래 넣어놔 놓으면은 굉장해요. 굉장해.

@ 아 진짜 기분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세는 도구를 뭐지 주산 알 쪽 했는 것처럼 이름을 혹시 기억 하시겠어요?

글씨. 그게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 이게 뭐 특별하게 만드는 나무 재질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예?

@ 재료를 뭘로 만드는가 해서요?

저 재료는 옛날 우리 주산알이 있다 아닙니까. 옛날, 옛날 나무 주산알. 그겁니다. 그거.

@ 저희들이 하여튼 준비한다고 자료를 다 이렇게 좀 찾아왔거든요.

야. 그리고 보니 요기 우리 육서관 같네.

@ 지금 이게 많은데 처음에 막 줄을 끌어 당기는 작업인가요?

아, 예. 요 물이 세계 들어올 때는 이 사람이 이레 여섯 명이 땡기도 꼼짝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밖목선이 여 앞에 줄 땡기는 기라. 올림 저.

@ 올림줄 하는 그런 거?

예, 아 비음줄 땡기는 거.

@ 그럼 이분은 지금 그냥 노 젓는 건가요?

이거는 인자 노 젓는 거. 그러께네 인자 발동기가 돌아오더라도 노를 조금 저어가지고 발동기까지는 줄로 끌든지 해야지. 채이야 끌고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래 노는 항상 있어야 되는 기라요.

@ 이것도 그냥 줄 당기는 거다. 그죠?

예 이것도 줄 땡기는 기고.

@ 이거는 지금 그물 펴져 있는 상텐 건가요?

예, 물 아닌데, 이기 이기 우리 밖목선 같은데, 밖목선인데, 이거는 뭐 가에, 뭐 배깅할 때 쓰는 긴갑네. 통구 만들 때.

@ 요기는 지금 무슨 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요 뒤에 배들이 없고, 이게 하나의 밖장등, 요서 밖장등 하나 적어 놓고 엔진이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밖목선에서 만약에 힘이 딸리가지고 못 땡길 때는 엔진을 가지고 거 주기도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 이걸 가지고, 줄도 다시 또 치주게 하고, 그 역할도 또 합니다. 한다는 결론이제. 요게 인제 어구네 어구.

@ 어구요?

네, 이거 이거.

@ 입구 쪽에. 지금 요거는 설명한 게 그러면 요 앞부분이 지금 어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구, 어구.

@ 이게 밖목선이고, 그럼 요 옆에 있는 게 사실은 뭐 관리실이고?

이거는 여 뭐냐 하면은 발동기 운반선을 항상 여기 대기해 해가 있습니다. 요 땃(땃)을 놓고.

@ 이거 같으면은 그림을 그려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런 거 같은데, 통장님 그림과 비슷한 거 같아요.

이거는 인자 어구가 어장에 만약에 파도가 많이 올 때 안 빼왔을 경우에 그러면 놔놔다 아납니까? 그러면 파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찢어진다고 하거든요. 찢어지는 경우에는 여기 도면이 있어요. 어장 꾸미는 도면, 고계상 싶으네.

@ 아 어장 꾸미는 도면도 있구나.

그렇지요. 품살도 어느 정도 더 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도면이.

@ 이게 아까 빼라하는 그거예요?

예,

@ 이 지금 배에 박혀 있는 거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 요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안 있나, 아까는 그랬는데. 지금은 걸이라 하거든요. 요 짜뻗하게 요레 깎아 냈어요. 그래가지고.

@ 처음에는 남자들 성기처럼 뭐 좇이라 한다 그런 말은.

예. 좇대라는 게 그랬다 아십니까. 근데 이거 요 다방구 같은 거 딱 만들어 놓아요.

@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 줄로가 요 딱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거기에 다 꿰우는 기라. 꿰어가지고 딱 잡고 있는 거지. 밖목선에서, 잡고 있다가 '밖목선 해라' 하면은 마 힘 센 사람이 빼 빼는 거지. 요기 쪽 빠진다는 결론이지. 요기 고리 딱 뜯기. 그러면 자동적으로 배가 싹 안으로 붙으면서 끌어올린다는 거지.

@ 그럼 애가 어쨌든 밑에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 줄에 고정을 시켜주는 거지요.

@ 밑에 커다란 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맞아요?

예. 돌로 이 큰 돌로 같이 해가지고 끼아놔야.

이 아까 올림줄이라 했던 거, 오기 전에. 저기 보면은 한 삼십 발 정도 가면 밑에 이 중줄이 한 와이어가 나와요. 와이어 나와가지고 요거 고정을 시켜주는 기라. 그래 딱 뽑아 놔야 꼼짝도 안 하고 어구장 차고 있는 거지. 그런 역할입니다.

@ 저는 이게 여기 지금 꽃혔는 건 줄 알았어요.

이거는 인자 하나의 줄 감는 거. 줄. 예 우리가 뭐 밧줄 다 안 합디까. 고거 요런 데 묶우고, 그래 하지예.

@ 딱 고정시키는 거구나. 이거는 뭐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나요?

이거는 앞에 닳도 하는 거래. 닳도.

@ 닳도?

닳도.

@ 닳도?

앞에 줄 묶으는 거거든. 줄 묶으는 거.

@ 얘는요? 이게 지금 노 있는 데인가? 노.

이거는 이거는 아닌데. 아 이거는 노, 노. 이거 노거든요. 노.

@ 이레 묶어.

닳으로 묶아 놓은 거네.

@ 이거는 그냥 밑에 줄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런 건가요?

이거는 하나의 노꾸리 하는 거야. 노꾸리. 노꾸리 하는 건데.

@ 노꾸리?

네. 물이 많이 세 가지고 배가 많이 못 올라간다 아닙니까. 위치까지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엔진 걸어가지고 감는 식으로 요 감아가지고, 요 양쪽에 요기 요 한벌 넘어 되구만은 이기. 양쪽에서 이기 감아. 이 감아 가지고, 배를 원위치로 올린다. 올리는 거.

@ 아 막 그 가니까.

사람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요걸 인자 이용해서 하는 거래요.

@ 그럼 이게 아까 전에 그건가요?

예. 아까 줄 묶은다는 거. 이게 밧줄 아닙니까. 밧줄. 밧줄.

@ 아. 밧줄.

@ 새벽에 지금 일찍 가는 거 기다리시고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 놨는 가봐요.

동네 사진도 있고.

@ 아 마을 들어 올 때의 사진도 있는구나. 그러면 고기를 송어가 잡히면요. 그 송어를 부르는 다른 말이 있을까요?

송어를 잡으면은 다른 말은 없어요.

@ 그냥

송어는 송어.

@ 뭐 암놈이든, 수놈이든 따로 부른다거나.

아 있어요. 암송어, 수송어.

그냥.

암송어는 보면은 통통하고, 수송어는 좀 셀쫄한 썸이지. 맛을 보면은 암송어 우리가 굉장히 맛이 있지예.

@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네.

@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도 부르는 말이 없나요?

그거는 인자 모칠, 짜매난 거, 요거만 한 거는 모칠 하는 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를 고런 거는 중부리.

@ 중부리?

중부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큰 거는 인자 송어.

@ 그러면 그게 지금 처음에 잡히는 애들은 조금 작은 애들이에요? 모칠.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큰 송어가 올 때가 있고, 좀 적은 송어가 올 때가 있어요.

@ 중부리?

예, 그러면 그 중에 또 잔기 섞인다 아닙니까? 그러면 인자 짜만한 거 모칠. 그 다음에 큰, 거서 조금 크다는 게 중부리. 그런 거는 돈 가치가 안 되는 기고. 그런 거는 널찌 다 버리빠야야지.

@ 그렇구나.

@ 잡아서, 이거를 어판장에 바로 넘기나요? 송어를.

어판장에 넘기는 게 아니고, 물차가 바로 옵니다. 물차. 물차가 오면은 한 물차에 큰 거는 한 천 마리씩 실어예. 실으면 저 사람들은 인자 각지에 다 가져가는 거지예. 자기 인자 거래처, 넣어 준다든지. 요새는 우리 마 많이 잡으면 한 스물 뭐 이십몇 만, 십만 마리나 잡고 할 때는 요 판매가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 노량진서 시장 글로 가져 갔어요. 가지고 가고, 또 남으면은 동네 사람, 한 집에 열 마리씩이면 열 마리 또 다 넣어 놔습니다. 그게 다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했었어요.

@ 부산 어판장이나 이런 데는 가져가지도 않고?

그때 가져가도 그 이상. 그러니까네. 어판장도 만약에 만 마리가 오면, 만 마리 정도의 먹을 만한 그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만 마리고, 삼만 마리 가져 가면은 한 마리 천 원 받을 거 같다가, 삼백 원, 이백 원 받으면 그건 적자가 되는 기라. 그런. 사실, 그러니. 뭐 만 마리면 만 마리 출하를 시키고, 나머지는 차라리 동네 사람들 갈라주자. 한 번 가격이 내리가빠면은 올리기도 힘든 거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많이 안 가져가지예.

@ 그러면 송어를 이렇게 여기서 어르신들이 잡은 고기를 주로 해 먹는 요리나 이런 게, 동네에서 특별하게 있나요?

주로 인자 여기서는 축제 때 한 번도 안 오셨는가베. 축제 때 오면 이걸 뭐 회치고, 매운탕하고, 요 찌짐도 하고, 구이도 하고. 요새 봄 같은 데는 썩 조금 넣고 미역국 끓어놔도 참 좋아요.

@ 아 썩하고 미역하고 같이요?

네. 축제할 때마다 전부 맛자랑 다 하는데.

@ 내일 한 번 그럼 주로 회하고, 그냥 먹듯이 그냥 먹는다. 그죠?

예. 다양하게 해가 먹을 수 있지요.

@ 그 송어들을 잡는데, 굳이 목선을 계속 이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있지요. 왜 있냐 하면은 저 밖장등은 저거는 제일 밖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밖목선은 안목선, 안장등, 안귀잡이 같은 이런 배들은 또 새카매 저래 색칠해놨다 아닙니까. 하얀 색칠도 못 해요.

@ 아, 안쪽에 있는 배들은요?

왜 그러냐면, 고기가 빛을 보면 오다가도 나가겠다는 결론이제. 그리고 저 밖장등 가지고 저거 FRP 이 배 저거는 파도가 조금 오면은 꼰랑꼰랑 이래 된다고, 그러면 물소리가 착착 난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히 더 못 쓰는 기지에. 목선이라야 이거 흔들어도 그냥 흔들 수 있는데, 충격을 크게, 소리 안 내주는 거라. 그 때문에 저거 나무를 씹니다.

@ 그렇구나.

안 그러면 빛은 요새 험쩍한 저런 거 쓰면 되는데. 쓸 수가 없어요.

@ 아 그럼 나무 배를 만드는 게 더 비싼가요?

비싸지예. 요새는 또 나무 배 만드는 사람도 없고.

@ 그러면 이 지역에서 나무 배를 만드시는 어르신이 있나요?

이기는, 아마 지금 아마, 지금 올 때, 다대포 사람이 모았는데, 그분도 지금 연세 많으셔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몰라요. 요새 나무 배 아예 안 모는데, 모는 데 없다 아닙니까? 전부 FRP.

@ 그러니까요. 그럼 나중에 없어, 이거 뭐지 부서지면 어떡하죠?

이제 결국 그래 하다 보면, 둘레를 갖다가 FRP로 싹다든지 그런 수가 나야지요.

@ 그래서 어쨌든, 배에 묶인 줄 같은 거는 비염줄, 올림줄.

올림줄, 비음줄

@ 아까 닳줄 했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인자 밧줄. 밧목선, 안목선 땡기는 밧줄.

@ 그 정도 있는 거. 그렇고, 그쵸.

그 다음에 요 망에서 땡긴다고 망바하는 거 아닙니까. 망에 올라가는 거. 망재기가 땡긴다고 해서 망바.

@ 이거 전통 어로 방식을, 아니 이렇게 송어 잡는 게 좋은 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하나의 종다면은 이제 이 다른 식으로 안 해 봤어요. 또 개수도 안 해 봤는데, 옛날 그대로 쓰고 있고. 그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요들어 쓰는 거는 우리가 가덕이 하나 밖에 없어요. 송어들어.

@ 그렇더라고요.

이기 인제 우리가 문화재 문제에 우리가 관련이 있어 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계. 문화재 안 되더라고요.

@ 무형문화재 추진한다면서 이렇게 하던데.

예. 늘 한 몇 년 됐어요. 제법 한, 제법 됐는데. 안 되더라고요. 문화재로 인정 안 해주지 싶더라고.

@ 그래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쵸? 죽방렴은 그런 걸로 좀 받았는 것 같던데요.

근데. 때로는 보면 죽방렴 맵크로 이 불통을 뒤로 만들라고도 생각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여러 사람, 이 사람들이 배 여섯 척 가지고 하는 거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옛날 그대로 아직 전통 살리고 있는데. 요 새는.

@ 그러면 그거는 좀 종다면은, 아쉽거나 뭐 이런 점은 없을까요?

뭐 아쉬운 거는 뭐 요래 보니 조금 옛날 거 케케묵은 걸 아직 한다는 게 조금 아쉽다 하는 거지예. 왜냐면은 거제고 저 보면 이 구스라죽에 가면 그 육수망이 아니고는, 배 네 채가 하터만은 개조해 갖고.

@ 아 그래요?

예. 있어요. 그거는 사람도 몇이 안 쓰고, 이 따방구로 만들어가지고, 우에서 엔진이 이래 있어. 고기가 들면 엔진을 고다만 딱 두면 엔진 가 바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퍼 낼 때 필요한 사람 몇 명만 사용하지. 사람이 아예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유일하게 우리 대항만큼 아직 옛날 전통 그대로 받아들인다.

@ 그러면 이게 사실은 계속 이렇게 지금 하시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죠?

그쵸. 이기기 없어지지는 못 하는기. 이계서 쪼매이 수입해 오는 거 가지고, 우리 마을 전체 경비로 씁니다. 올해도 이천 만원 이 입찰을 해 줬는데, 내년까지 사천 만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년까지 사천 만원을 해가지고, 우리 어촌계 그 동네 운영을 그 돈 가지고.

@ 축제할 때도 쓰시고. 뭐.

축제할 때는 부락 안 하고, 구청에서 한 이천 만원. 전에는 시에서도 조금 이래 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또 시에서는 축제 비용을 줄아빠. 아예 안 주고, 구청에서도 한 이천 만원 나오는가. 그러니까네 부득 돈이 사천만원. 연 생활비, 저 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승어들이 이게 뭐 들 그게 없어요. 그래 타가지고 이 보시다시피 횃집도 몇 안 되고 하니께네, 누가 기증할 사람도 없고. 상주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네. 작년에 우리 적자 봤어요. 몇 년을 절 그렇다보니 올해는 인자 주차장도 없고, 길도 아직 안 좋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내년까지는 가덕도 대항 승어들이 축제는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 아 그래요?

모르지. 가덕도 승어들이를 빼고, 가덕도 승어 축제만 올해 요 넘어 동네 천성서 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 거기까지 어쨌든 버스가 들어오고.

어느 정도 학교 주차장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때는 우리 천성 승어들이 축제가 아니고 가덕도 전체가 이 특산물도 내 놓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그래서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전통적으로 옛날 방식이, 몇 백 년 전 쓰던 방식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말 같은 것도 많이 안 바꼈을 것 같고.

네. 많이 바꼈다 하는 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밖목선 좃 빼라 하는 그거. 고기 하나의 걸이 빼라. 이기 조금, 조금 듣기 좋은 말이 들어간 거고. 그 외에는 얼추 다 그대로 쓰고 있어요.

@ 그대로 이렇게 녹음 말을 저장할, 어쨌든 말을 저장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왔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엔 아까 한 개만 더 여쭙보면 그 어장을 처음에 어장을 놓고 새로 만드는 걸 세개하 다 뭐 이런 말 해요?

해기?

@ 세개

사개.

@ 어장 처음에 줄 거는 그런 작업을 뭐라 그래요?

아 어장 설치하는 거?

사개. 사개 막는다. 즉 말해서. 뺨 돌려서 배가 찰 수 있는 줄을 사개를 만든다.

@ 아, 사개 만든다.

옛날 그대로, 사개 막는다.

@ 그 사개가 네 쪽 방향을 다 막는다 뭐 이런 뜻인가?

그렇지. 밖목선 고정시키는 사개 막고, 밖잔등 사개 막고, 안장등, 밖귀잡이 지가 딱 위치에 있을라면 줄로 이리 딱 고정을 시키놔야 한다 아닙니까. 고걸 인자 사개라 합니다. 사개. 사개 막는다. 이런 거는 대구 잡는 어장도 마찬가지로. 사개 막는다.

@ 네. 통장님, 여러 말씀 고맙습니다.

제 4 장 조사된 어휘

1. 채낚기

옥지도에서 고기를 잡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채낚기’ 방식이다. 이는 옥지도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1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어업방식으로 낚싯대에 외줄을 걸어 낚시하는 방식이나 여러 개의 바늘이 이 외줄에 달려 있고 잡는 어종에 따라 외줄에 거는 낚시 바늘의 수와 크기, 낚싯줄의 굵기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일반 낚시와 차이가 있다.

채낚기에 관한 조사에서는 ‘명칭(전체, 부분, 종사자, 단위), 고기 잡기(도구, 행위, 어획물, 방법, 장소, 시기, 어획물 처리, 기타), 고사(대상, 시기, 장소, 음식, 행위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조사하였다. 다음은 조사한 내용을 범주별로 정리한 것이다.

1.1. 채낚기 관련 명칭

채낚기 관련된 명칭 조사에서는 채낚기 전체 명칭, 채낚기를 구성하는 부분 명칭, 종사자의 명칭, 단위에 대한 명칭을 조사하였다.

1.1.1. 전체 명칭

1) 채낚기/설낚기/설래끼/슬래끼/줄낚시

‘채낚기’ 어로 방식을 옥지도에서는 ‘설래끼, 슬래끼’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래끼, 슬래끼’는 ‘설낚기’에서 나온 어휘로 ‘설낚기>설락기>설라끼>설래끼’로 어형 변화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설’은 낚시에 필요한 여러 개의 바늘을 연결해 놓은 낚싯줄을 말하고 ‘설낚기’는 이런 설을 이용해 하는 낚시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설’+‘낚다’ 어간+‘-기’의 합성어이다.

- ⇒ {채낚기라} 하면 이제 우리가 어 지금 뭐 {설낚기} 채낚기기 이렇게 같이 쓰는데. 옛날에 설래끼 이렇게 설래끼. 설이라는 말은 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줄. 줄이라고 우리가 설을 이렇게 좀 뭐 그물 그물에도 보면은 설을 설을 당겨라 설을 뭐 이렇게 그물코 이런 형태를 갖다가 설이라. 그러니까 설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지금

- 현재 용어로 바늘도 달고 하는 그 셋팅이 된 걸. 이제 설이라 그래요. 그 정도. 채낚기는 그정도. 그러니까 설래끼. {슬래끼}. 설래끼.
- ⇒ 설낚기가 아니고 {설래끼}.
 - ⇒ 그 먼 곳까지 낚시 인제 거 깨뜨 싹고가서 이렇게 {줄낚시} 해서 이렇게 뭐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많은 가봐.

1.1.2. 부분 명칭

채낚기는 일종의 낚싯대를 이용한 어업이다. 그러므로 채낚기에 관한 부분 명칭도 낚싯대에 관한 것이다. 조사된 부분 명칭어로는 ‘설’, ‘주지’, ‘시범줄, 모릿줄, 아릿줄’, ‘꽁돌, 뽕돌, 뿔돌, 돌채’가 있다.

1) 설

‘설’은 낚싯대에 거는 낚싯줄과 바늘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설이 낚시의 주요 부분이므로 전체 명칭도 ‘설낚기, 설래끼’로 부른다.

- ⇒ {설이라는} 말은 단순한 한 가닥 줄 이게 설이라 하지 않고. 요걸 갖다가 꾸며놓은 걸 설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사진 17] 설(줄+바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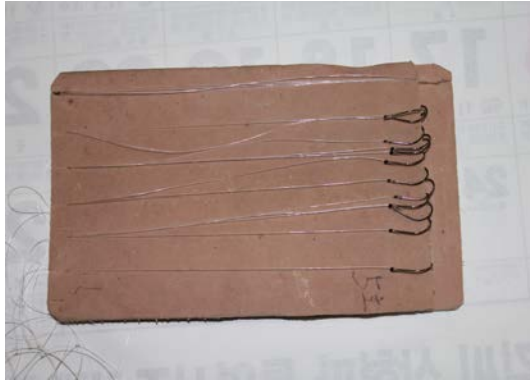


[사진 18] 설 2

2) 주지

‘주지’는 설낚기를 위해 준비된 낚싯대 전체를 부르는 명칭이기도 하고, 설을 감아놓은 판자를 부르는 말로 사용된다. 설에 달린 바늘은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른데 숙련자일수록 많은 수의 바늘을 달며, 잡는 고기가 클수록 바늘 수는 적어진다.

- ⇒ 그렇게 줄낚시를 설래끼라 하죠. 그 줄 셋팅된. 그 설 거. 그걸 갖다가 인제 그걸 뭐라 했냐면은 주지라고 주지. 주지 {주지}. 하나의 셋팅된 그 설래끼할 수 있는 셋팅된 하나의 낚시 전체를 주지라고 했는데. 낚시를 그 주지를 넣어서 낚시하는 걸 설래끼라 했다 말입니다.



[사진 19] 주지

3) 시범줄, 모릿줄, 아릿줄

낙숫줄에 감아 놓은 줄도 부르는 명칭이 나뉘지는데 낙숫줄의 제일 기본이 되는, 다른 줄이 묶이는 줄을 ‘시범줄, 모릿줄’이라 하며 시범줄 밑에 묶이는 바늘이 달린 개별 줄을 ‘아릿줄’이라 한다. ‘아릿줄’은 ‘아래+스(사이 스)+줄’의 합성어로 큰 줄 아래에 달린 줄이라 하여 ‘아랫줄’이고 이것이 발음형으로 바뀐 것이 ‘아릿줄’이다.

- ⇒ 이래 달아 인제 요를 {시범줄이라} 하는데 요기 인자 전부 다 내 도구인데.
- ⇒ 시범줄, {모릿줄이라고도} 하고.
- ⇒ 밑에는 {아릿줄}.

4) 콩돌/뿡돌/뿔돌/봉돌/돌채

‘콩돌’은 낚시 바늘이 물 아래로 잘 내려가게 무게감을 주기 위해 다는 낚시추로 예전에는 집집마다 납을 녹여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콩돌’은 ‘뿡돌, 뿔돌, 돌채’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 ⇒ {콩돌}, 콩돌이라 그래.
- ⇒ {뿡돌이라} 안 하나? 뿡돌. 이 밑에 이기 갖고 온 거 안 들어간다 이거야 들어가지 물에.
- ⇒ 보통 뭐 {뿔돌이라} 그러기에.
- ⇒ 이거는 봉돌이라 하는 {봉돌}.
- ⇒ {돌채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납으로 만든 거.

5) 줄

‘낙숫줄’은 ‘줄’이라 줄여 말한다.

- ⇒ 이 {줄도} 보면 5호 해놓고 요는 뭐 6호를 해 놔거든 그러니까 줄 따라서 이기 또 고기 따라서 또 틀린다.
- ⇒ 요거는 인자 이 {낙시 줄} 매는 데를 퍼뜩 생각이 안 난다. 그 축. 낚시 축이라 하거든. 여를 줄 매는 데를.

6) 줄모태/모태

‘얼레’는 낚시줄 따위를 감는 데 쓰는 기구로 옥지도에서는 ‘줄모태, 모태’라 한다.

⇒ {모태라고} 하는데, 우리는 {줄모태}. 지금 뭐요 내 처 저방하고 태산 같이 있는데, 모태. 만들어 놓은 게.



[사진 20] 이늘



[사진 21] 줄모태/ 모태

7) 이늘/낚시끝

‘미늘’은 낚시 끝의 안쪽에 있는, 거스러미처럼 되어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작은 갈고리를 옥지도에서는 ‘이늘, 낚시끝’이라 한다.

⇒ 다 이늘이라 하거든. {이늘}.
⇒ 고기 인제, 고기고. 요거는 {낚시끝이라} 하거든.

8) 낚시촉

낚시바늘에 줄을 매는 부분을 ‘낚시촉’이라 한다.

⇒ 요거는 인자 이 낚시 줄 매는 데를 퍼뜩 생각이 안 난다. 그 촉. {낚시촉}이라 하거든. 여를 줄 매는 데를.

1.1.3. 종사자 명칭

채낚기 어업과 관련된 종사자 명칭에는 ‘설래끼꾼, 슬래끼꾼, 어로장, 해패, 적군, 선장’ 등이 있다.

1) 설래끼꾼/슬래끼꾼, 어로장, 해패/일본조

채낚기로 어로 활동을 하는 사람을 ‘설래끼꾼, 슬래끼꾼’이라 하고 설래끼꾼 중에서 고기가 많이 사는 덕의 위치를 잘 알고 설래끼 업에 유능한 사람을 ‘어로장’이라 하는데 이

는 다른 어종을 잡는 어부에게도 쓰는 말이다. ‘해패, 일본조’는 설래끼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예전에는 이런 모임이 많아서 함께 조업을 하였다.

- ⇒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설래끼꾼}. 낚 자 쓰거든요. 나무꾼이하는 낚자. {슬래끼꾼}.
- ⇒ {해패라고} 해서 채낚기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해패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지금 지금은 인자 거 어업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이렇게 조금 줄어들다보니까. 그 해패가 인제 해산이 됐는데, 한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조라는} 어업 해패가 있었어요.
- ⇒ 그 어초 위치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래서 항상 {어로장이라고} 하고.

2) 적군/동무, 선주

‘적군, 동무’는 어업을 하는 사람 중 샅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채낚기 또한 선주들이 여러 슬래끼꾼을 적군으로 두어 일을 시켰다고 한다. ‘선주’는 배의 주인을 말한다.

- ⇒ {적군이고}. 적군은 인자 배 어장을 위해서 종사하는 분들. 일당을 받을 수도 있고,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어장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자 적군이고.
- ⇒ 그 다음에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선주고}.
- ⇒ 적군이 있고요. 적군이라 하고, 또 동무라고도 합니다. {동무}.

1.1.4. 단위 명칭

1) 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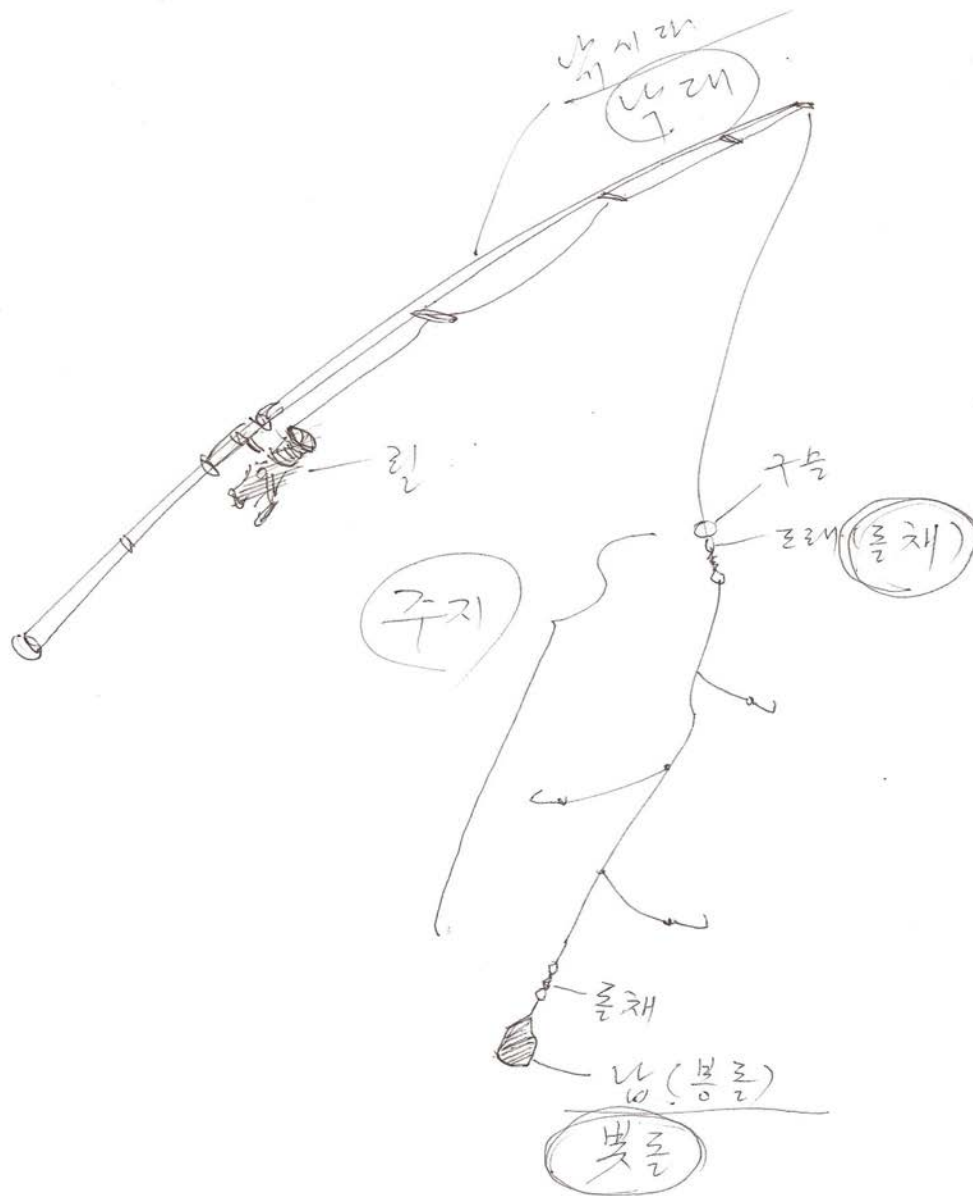
채낚기를 하기 위해서 낚시줄에 여러 개의 낚시 바늘을 다는데 이는 설래끼꾼에 따라, 어종에 따라 그 개수가 달라진다고 한다. 유능한 설래끼꾼일수록 많은 수의 바늘을 달고, 어종이 작을수록 많은 수의 바늘을 단다. 보통 70~80 개의 바늘을 단다. 이 때 다는 바늘을 세는 단위가 ‘개’이며 바늘과 바늘 사이의 거리가 한 ‘발’ 정도이다. 여기서 ‘발’은 장정이 두 팔을 벌렸을 때 팔 사이의 간격 정도이다.

- ⇒ 이기 인제 여 낚시가 보통 한 칠팔십 {개} 이래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이기 인자 보통 우리가 이 간격이 한 한 {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상의 채낚기 명칭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채낚기 관련 명칭 어휘

범주	어휘 항목	
채낚기 관련 명칭	전체 명칭	채낚기, 설낚기, 설래끼, 슬래끼, 줄낚시
	부분 명칭	설, 주지, 쫑돌, 뽕돌, 뿔돌, 돌채
		줄, 줄모태, 모태, 이늘, 낚시끝, 낚시촉
	종사자 명칭	설래끼꾼, 슬래끼꾼, 해패, 일본조, 적군, 선주
단위 명칭	개, 발	



[그림 1] 채낚기 도구-제보자 김흥국 씨 제공

1.2. 고기 잡기

채낚기는 준비한 낚시대를 가지고, 무동력선 뗏목을 타고 고기들이 모이는 덕에 가서 낚시를 하는 것이다. 어종에 따라 낚시대에 거는 바늘 수도 달라지고, 잡는 장소, 방법이 다르다. 설레끼꾼의 노련함이 요구되는 어로 방식이다.

채낚기 고기 잡기에 관한 어휘는 '준비물, 행위(준비단계, 현장), 어획물, 방법, 장소, 시기, 어획물 처리, 기타 등의 범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2.1. 준비물

1) 낚싯대/낚숫대/낚대/경대

‘설래끼’ 어업을 위해서는 ‘낚싯대’가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다. ‘낚싯대’는 물고기를 잡는 도구의 하나로 낚싯줄을 매어 쓰는 가늘고 긴 대로, 옥지도에서는 ‘낚싯대, 낚숫대, 낚대, 경대’라 한다.

- ⇒ {낚싯대에다가} 낚시에다가 꽃을 달구만은.
- ⇒ 낚싯대. {낚숫대}. 뭐 낚숫대.
- ⇒ {낚대}. 뭐 낚시 뭐 이렇게 낚대. 낚대가 제일 적합한 용어 같아요.
- ⇒ 옥지서 나만큼 잡고 이런 {경대} 쓰던 놈도 없어. 전부 그냥 선부점에 가서 사 쓰지.

2) 미끼/이깎, 공갈이깎/인공미끼, 그무리/갯지렁이/거무리/물그시이/물거시이/갯지리이

‘미끼’는 낚시 끝에 꿰는 물고기의 먹이로 옥지도에서는 ‘미끼, 이깎’이라 한다. 미끼 중에는 실제로 ‘지렁이, 게’ 등이 아니라 닭털, 오리털 같은 가짜 미끼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인공미끼, 공갈미끼’라 한다.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많이 쓰는 미끼는 ‘갯지렁이’이다. 옥지도에서는 갯지렁이를 ‘갯지리, 물거시이, 물그시이, 그무리, 거무리’라고 한다. 또한 지렁이는 ‘거시이’라 한다.

- ⇒ 인제 우리가 인제 바다에 인제 땅에 인제 떨어뜨린 {미끼}, 그러니까 바닷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다에 기어다니는 거라든가.
- ⇒ 볼래이는 {이깎을} 낚시다 끼 매가지고 이 길게 이렇게 이깎을 끼가지고, 그라 저 덕에 진 데가 가서 인자 이 흘러주기는 기라.
- ⇒ {인공 미끼는} 나는데 또 이렇게 뭐야 닭털이라든가 오리털이라든가 부드러운 털을 기다가 이렇게 묶어서, 이게 새우나 다른 일반 먹이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 ⇒ 낚시에 이렇게 치장을 해서 인제 {공갈미끼를} 달아가지고 낚는 거고.
- ⇒ 그무리 그무리라요. {그무리}.
- ⇒ {갯지렁이}, 어.
- ⇒ 거머리가 아니고 {거무리}.
- ⇒ 그냥 {그무리} 파러 간다 이래 갖고 그무리.
- ⇒ 우리가 갯가에 나오는 바다에 모래 모래밭이나 돌 뒤져서 파서 이렇게 하는 거 {거무리라} 그러거든요.
- ⇒ 그거는 우리 보통 우리가 숨기 말하면 {물그시이}.
- ⇒ 예 그시를 {물그시이}.
- ⇒ 가리이 낚는다 인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갯지리이라고}.

3) 밀밥, 비름(하다)

물고기나 새가 모이게 하기 위하여 미끼로 던져 주는 먹이를 ‘밀밥’이라 한다. 고기를 모으기 위해 밀밥을 주는 행위를 ‘비름’이라 하는데 이는 ‘미름하다’로 표현한다.

- ⇒ 감싱이를 낚을 때는 비름은, 우리가 {밀밥} 주고 하는 거는 이자 오가제이도 되고 뭐 저저 우디라고 바닷물에 가면 투투불기 있구만 돌에 붙은 기. 자 고거 따서도 하고
- ⇒ 비름, 비름이라 하면 밀밥을 비름이라 하지 않고 밀밥을 치는 행위를 {비름이라} 합니다.

4) 뗏마/뗏마새끼/뗏마/전마선

채낚기는 나무로 만든 무동력선을 타고 가 작업을 하는데 요즘은 참치와 같은 대형 어종을 잡을 때는 동력선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채낚기 조업을 위해 타는 배를 ‘뗏마, 뗏마새끼, 뗏마, 전마선’이라 한다.

- ⇒ {뗏마라} 그래. 쪼매난 배.
- ⇒ 이 저저 요 뭐고 경상도 말 {뗏마새끼} 하거든.
- ⇒ 옛날에 저희들이 쓰고 있던 무동력선 그거는 이 동네에서는 {뗏마라고} 불렀는데, 뗏마가 일본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은 전마선입니다. 전마선.
- ⇒ {전마선이고} 그게 전마선이고 인제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그걸 뗏마라고 불렀습니다.

5) 어탕기

능란한 설래끼꾼은 물고기가 몰려 있는 덕의 위치를 잘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탕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어탕기’는 물고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계이다.

- ⇒ {어탕기} 고만 딱 가면 또 요새 어탕기 좋은 거는 근처에 가면 뻘뻘뻘 요 돌이다 이렇거든.

이상의 준비물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채낚기 준비물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준비물	낙싯대	낙싯대, 낙숫대, 낙대, 경대
	미끼	미끼, 이깎, 공갈이깎, 인공미끼 갯지리, 물거시이, 물그시, 그무리, 거무리
	밀밥	밀밥, 비름
	배	뗏마, 뗏마새끼, 뗏마, 전마선
	기타	어탕기

1.2.2. 행위

1) 준비에서 행위

(1) 빵돌 맨들다

낙싯줄에 물에 가라앉게 만들기 위해 낙싯줄에 빵돌, 콩돌 등으로 보이는 것을 만들어 단다. 요즘은 구입해서 사용을 하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납을 녹여 직접 만들어 썼다고 한다.

⇒ {뽕돌 이거는 요 맨들어} 쓰거든. 근데 사러가면 천오백 원인가 주고 사는데. 우리는 납으로
까서 만든다.

(2) 콩돌/봉돌 달다/박다

납을 녹여 만든 봉돌(콩돌)을 준비해둔 낚싯대에 단다.

- ⇒ 요리 끼우면 요 줄로 저 낚싯대 꼬트머리에다가 매거든 매면 요걸 {봉돌을 단다} 말이야.
- ⇒ 요도 이갑을 끼거든 새우. 그래 갖고 인자 {뽕돌 주워다 달고}.
- ⇒ 어, 그래 가지고 낚시 여미 넣어. 그래 가지고 인자 {뽕돌을 박아가지고} 내라.

(3) 물그시 파러 가다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많이 쓰는 미끼는 ‘갯지렁이’이다. 육지도에서는 갯지렁이를 ‘갯지렁이, 물거시이, 물그시, 그무리, 거무리’라고 한다. 또한 지렁이는 ‘거시이’라 한다. 미끼를 잡으러 가는 행위를 ‘무시이 파러 가다’이다.

- ⇒ 우리가 갯가에 나오는 바다에 모래 모래밭이나 돌 뒤져서 {파서} 이렇게 하는 거 거무리라 그러거든요.
- ⇒ 니 어데가노? {물그시 파러 간다}.

(4) 미끼 달다/이갑 끼다, 미끼 주다/치다, 꽃 달다

준비된 미끼는 낚싯대에 달고, 미끼를 단 낚싯줄은 물에 내린다. 이처럼 미끼를 낚싯대에 다는 행위를 ‘미끼 달다, 이갑 끼다’라 하고 미끼를 단 낚싯줄을 물에 넣는 것을 ‘미끼 주다, 치다’라 한다. 또한 미끼 중에는 실제로 ‘지렁이, 게’ 등이 아니라 닭털, 오리털 같은 가짜 미끼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인공미끼, 공갈미끼’라 한다. 이런 인공미끼를 다는 것을 ‘꽃 달다’라고 표현한다.

- ⇒ {미끼 달아} 가지고 고마 열매든지 그냥 막 뽕친다 아니가.
- ⇒ 이렇게 이갑을 끼가지고, 그라 저 덕에 진 데가 가서 인자 이 흘러주기는 기라.
- ⇒ 아니 자망이 아니고 이 저저 저런 물에다 담가놓고 우 에다가 그 {미끼로 주면} 고기가 그 미끼 글로 먹을라고 저 모이거든.
- ⇒ 그러면 자 우리가 {미끼를 쳐도} 비름을 해도 이 덕이 있으니까 여가서 많이 받치는 기라.
- ⇒ 공갈낚수라고 낚싯대에다가 낚시이다가 {꽃을 달구만은}. 이 꼭 저 뭐 달구새끼 닭터래기로 빼든지 인자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있거만은

2) 현장에서 행위

(1) 가늌 보다, 어초 찾다, 어초가늌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번식하는 바다 밑의 도도룩한 곳을 ‘어초’라 한다. 이 어초를 지역에서는 ‘덕’이라 하고 이 덕을 찾아 낚시하는 것이 채낚기에서는 중요하다. 물고기들이 모여 살고 산란을 하는 덕을 많이 알고 있고, 잘 찾는 설래끼꾼이 최고의 어로장인 것이다. 이 덕을 찾는 행위를 ‘가늌 보다, 어초 찾다’라 표현한다. 두 표현을 합해 ‘어초가늌’이라 하기도 한다.

- ⇒ 한 대여섯 명대로 이렇게 가서 빠뜨려라 그러면 빠뜨리고 올리라 그러면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인제 처음에 어떻게 발견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 되겠고 또 그 위치를 어떻게 찾아가는가 하는 것도 문제고. 근데 그거를 인제 가늌이라고 합니다. 찾아가는 건 가늌이라고 해요. {가늌 본다}.
- ⇒ 가늌이라고 해요. {어초가늌이에요}. 덕을, 덕이라고 하지요 인제. 제대로 가면은 어 덕 불락 덕의 혹은 덕의 가늌을 이렇게 봐가지고 가늌을 봐가지고 거기에다가 낚시를 인제 들이는 거예요. 그래 요기 덕을 찍어봤거든. 그래 그런 고기는 항상 덕을 좋아하는 기라.

(2) 배 고정하다/배 짜세우다, 닻 놓다/땃 놓다/앵커 놓다

땃마나 고기잡이배를 타고 나가서 채낚기 조업을 할 때는 배 위에서 조업을 하는 것이므로 움직이지 않게 배를 바다에 고정시켜야 한다. 이를 ‘배 고정하다, 배 짜세우다, 닻 놓다’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배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닻은 3개 정도 놓는다고 한다.

- ⇒ 감성돔은 {배를 짜 세워서} 인제 그 덕에 얹은, 대체로 좀 깊은 덕은 아니고요.
- ⇒ {앵커를 놔서 고정하고}.
- ⇒ {배가 딱 고정시킨} 대로 딱 서가 있는 기라.
- ⇒ 땃을 놔아가지고, {땃을 놓는데}.
- ⇒ 양 {땃을 놓는다든가}, 세개를 놓는다든가 놔아가지고.
- ⇒ 인제 이 조류가 흐리니까 여기 포인트에다가 낚시를 열기 위해서 배 위치를 달리해서 인제 배를 짜 세운다. {앵커를 놓는다}.

(3) 비름하다/밀밥주다

물고기가 모이게 하기 위하여 미끼로 던져 주는 먹이를 ‘밀밥’이라 한다. 이는 고기를 모으기 위해 밀밥을 주는 행위를 ‘비름’이라 하는데 이는 ‘비름하다’, ‘밀밥주다’로 표현한다.

- ⇒ 감성이를 낚을 때는 비름은, 우리가 {밀밥 주고} 하는 거는 이자 오가제이도 되고 뭐 저저 어디라고 바닷물에 가면 투투불기 있구만 돌에 붙은 기. 자 고거 따서도 하고.
- ⇒ 비름, 비름이라 하면 밀밥을 비름이라 하지 않고 밀밥을 치는 행위를 {비름이라} 합니다.

(4) 채 영다, 낚시 들이다, 낚수 채우다

물고기가 많이 몰려 있는 덕을 찾으면 준비한 비름을 주어 고기가 몰리게 하고 채낚기 낚싯대를 설치한다. 이를 ‘채 영다, 낚시 들이다, 낚수 채우다’라 한다. 낚싯대를 들이면서 본격적인 채낚기가 시작된다.

- ⇒ {채 가지고 여면은} 말이지 들어서 이 여면은 말이지 마 잠시 고마 많이 낚는 기라. 말하자면 망태를 가가서 한방 지르면 지는 기라 고마.
- ⇒ 가늠을 봐가지고 거기에다가 {낚시를 인제 들이는} 거예요.
- ⇒ 그 {공갈낚수로 채야} 가지고.

(5) 날바주다

채낚기 낚싯줄을 물에 내릴 때는 어종에 따라서 살살, 천천히 내려야 한다. 예민한 어종은 달아나버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어종이 감성돔인데 감성돔 설래끼를 할 때는 줄을 살살 내려줘야 한다. 이렇게 줄을 천천히 내리는 행위를 ‘날바주다’라 표현한다.

- ⇒ 그래가지고 숨을 이리 막 죽은 게 아니고, 요따 대고 사알 {날바주면} 우리가 보통 날바준다 그러합니다.

(6) 훌쩍훌쩍 하다/홀대 쳐주다/홀대지다/낚싯대 쳐주다

인공미끼를 단 낚싯대를 바다에 들이면 낚싯줄에 단 미끼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움직여 공갈 이깁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물고기들이 덤석 미끼를 문다. 그래서 낚싯대를 손목을 까딱까딱하면서 움직여 미끼가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 행위를 ‘훌쩍훌쩍 하다, 홀대 쳐주다, 홀대지다, 낚싯대 쳐주다’라고 표현한다.

- ⇒ 우리는 말하자면 훌쩍이라. 훌쩍훌쩍 훌쩍이. 보통 우리말은 {홀대진다}.
- ⇒ 공갈낚수로 달아가지고 유두리를 하는기라. {훌작훌작하니}.

(7) 유두리 하다

낚싯대를 움직여 인공미끼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고기 유인하거나, 밑밥을 줘 고기를 모이게 하는 방식 등을 이용해 고기를 모으는 행위를 ‘유두리 하다’라 표현한다.

- ⇒ 그는 줄 뽀래이라고 이깁을 공갈낚수로 달아가지고 {유두리를 하는} 기라. 훌작훌작하니.

(8) 쳐박기/ 땅발이, 쳐박기 하다/땅발이가 되게 하다, 가라앉혀주다

감성돔이나 흑돔을 잡을 때는 배를 바다에 고정시킨 후 채낚기 낚싯줄을 물에 넣는 방

법이 타 어종과 다르다. 얇은 곳에서 줄을 느슨하게 쳐지게 하여 채낚기 줄을 바닥에 가라앉혀야 한다. 이런 조업 방법을 ‘처박기, 땅발이’라 하고 이런 행위를 ‘처박기 하다, 땅발이가 되게 하다’라고 표현한다.

- ⇒ 그런 낚시를 할 때는 {땅발이라고} 해서 땅에다 {가라앉쳐줘야} 해요.
- ⇒ 그 인제 {땅발이를 해서} 낚는 고기는 인제 뭐 감성돔이나 감시이나 아니면 흑돔이나 혹은 도다리나 이런 것들은 배를 고정시켜야 되거든.
- ⇒ 감성돔이라든가 감식이라든가 흑돔 낚을 때는 바닥에다 완전히 가라 앉쳐서, 줄도 느슨하게 이렇게 이렇게 조서 인제 우리가 인제 여기서 얘기하면은 우리 요즘 낚시 방법으로는 {처박기 합니다}. {처박기}.

(9) 나가리/나가래 하다, 나가리 보다

물고기를 잡을 때 닻을 이용해 배를 고정시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조금씩 이동할 수 있다. 배가 물살에 이동하면 다시 고기가 있는 덕을 찾아 이동하는데 이처럼 물살에 떠내려간 배를 다시 물고기 어초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나가리 하다, 나가래 하다, 나가리 보다’ 등으로 표현한다. ‘나가리/나가래’는 다시 어초를 찾아 이동하는 것인데 이는 ‘하다, 보다’와 연어 구조로 표현한다.

- ⇒ 배가 떠가는 걸 나가서 다부 골로 가는 걸 나가리. {나가리를 한다}. 떠내려가면 또 다시 올라와가지고.
- ⇒ {나가리 본다}.
- ⇒ 그거를 {나가래 하다}라 그러거든.

(10) 땡겨 올리빠다, 끄집어 올리다, 잡아 땡기다

채낚기에 고기가 걸리면 낚싯대를 올린다. 이런 행위를 ‘땡겨 올리빠다, 끄집어 올리다, 잡아 땡기다’라 표현한다.

- ⇒ 어 밑에 이래 딱 깔아 놔다가 {땡겨올리빠다} 이말이래. 그러면 안에 그 제이리하고 뭐지 그런게 다 들어가빠, 고마.
- ⇒ {끄집어 올려서}.
- ⇒ 이 자숙이 싸 후면 술가너말 물고 들어올 때 {잡아 땡기부면} 말이지.

(11) 고기 따다, 망태에 지르다

낚싯줄에 고기가 걸리면 고기를 떼어내는데 이것을 ‘고기 따다’라 하고 따낸 고기는 예전엔 망태에 담아 보관, 이동했는데 망태에 고기를 담는 행위를 ‘망태에 지르다’라 표현한다.

- ⇒ 하나하나 {고기를 따지요}.
- ⇒ 채 가지고 여면은 말이지 둘이서 이 여면은 말이지 마 잠시 고마 많이 낚는 기라. 말하자면 {망태를 가가서 한방 지르면} 지는 기라 고마.

(12) 향문에 대롱 넣다, 헛바닥 주서 넣다

잡힌 물고기에 대한 처치로 잡힌 물고기가 갑자기 물 밖으로 나오면 압력차에 의해 부레가 입으로 튀어나오는데 그러면 물고기 향문에 대롱을 집어넣는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공기가 빠져 밖으로 나온 부레는 다시 입속으로 들어가 고기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 공기가 빠지면 부레와 함께 빠져나온 물고기 혀(헛바닥)도 집어넣어준다고 한다.

- ⇒ {향문 쪽으로 인제 조그만한 대롱을 넣으면} 공기가 싹 빠져요.
- ⇒ 싹 빠진다고 그러면 {헛바닥을 이렇게 주서 넣으면서}.

(13) 옮겨 다니다

채낚기 어업을 위해서는 한 군데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따라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며 작업을 한다.

- ⇒ 그리고 인제 그런 곳을 여러 곳 {옮겨 다니면서} 하죠. 여러 데 옮겨 다니면서 하다가 인제 인제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상의 고기 잡기 행위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행위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행위	준비	뽕돌 맨들다 콩돌/봉돌 달다/박다 물그시 파러 가다 미끼 달다/이깎 끼다, 미끼 주다/미끼 치다, 꽃 달다
	현장	가늠 보다, 어초 찾다, 어초가늠 배 고정하다/배 짜세우다, 닻 놓다/땃 놓다/앵커 놓다 비름하다/밑밥 주다 채 영다, 낚시 들이다, 낚수 채우다 날바주다 훌쩍훌쩍 하다/홀대 쳐주다/홀대지다/낚싯대 쳐주다 유두리하다 처박기/땅발이, 처박기 하다/땅발이가 되게 하다, 가라앉혀주다

범주	어휘 항목
	나가리, 나가래, 나가리 하다/나가래 하다/나가래 보다 땡겨 올리빠다, 꼬집어 올리다. 잡아 땡기다 고기 따다, 망태에 지르다 향문에 대롱 놓다, 햇바닥 주서 놓다 옮겨 다니다

1.2.3. 어획물

채낚기를 해 잡을 수 있는 어종은 다양하다. 육지도 앞바다에서는 계절별로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 있는데 볼락은 겨울부터 4~5월에 잡히고, 농어는 5~6월, 갈치, 삼치는 여름에 잡히고, 돔은 여름~가을 사이에 많이 잡힌다. 감성돔, 흑돔은 은 12~2월에, 소래는 6~7월, 도다리는 4~12월에 많이 잡힌다. 이처럼 계절별로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 있는데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지역에서는 ‘-바리’라 하는데 ‘농어바리, 빨락바리’ 등으로 표현한다.

어획물에 관련된 어휘는 전문용어, 방언, 일본말 등 다양하게 조사되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물고기 이름에는 ‘-어’ 대신 ‘-에’를 붙인 어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 또한 특징이다. 물고기 종류에 관련된 어휘는 크기를 기준으로 하위 범주화되어 있다. 또한 일본과 가까운 남해안 지역이므로 일본어형이 많이 남아있다.

1) 괴기/고기/물고기, 텃고기

육지도에서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고기, 괴기, 물고기’라 부른다. 그리고 물고기의 종류에 여러 곳을 이동하는 물고기가 있고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고기가 있는데 육지도 주변에서 머물러 사는 고기를 ‘텃고기’라 한다.

- ⇒ 여기서 고마 보통 여기서 육고기는 육자 붙이고, 여기서 생선 종류는 {고기} 겁니다.
- ⇒ 아따, 이 {괴기} 맛있다. 이 무슨 괴기고? 이런. 인자 이런 거.
- ⇒ {물고기} 들어오면 물이 들어올 때는 들어 와가지고 나갈 때는 못 나니께네 그래 갇히는 걸 뭐라 하더만.
- ⇒ 거기에 늘 항상 이렇게. 그 이렇게 뭐야 사는 거라 해야쥬. 그 {텃고기들의} 집이에요. 삶의 터예요. 그게 덕인데. 승어는 그런 곳에 안 살아요.

2) 고등어/꼬두리/고도리/사바, 난킨사바, 주우사바, 고사바

‘고등어’는 고등엇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은 기름지고 통통하며 등에 녹색을 띤 검은색 물결무늬가 있고 배는 은백색이다. 육지도에서는 ‘고등어, 꼬두리, 고도리, 사바’라 부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고도리’는 ‘고등의 새끼, 고등어의 옛말’이라 하고 있으나 육지도에서는 고등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바’라는 일본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크기에 따라 ‘난킨사바, 주우사바, 고사바’라는 말을 쓰는데 ‘난킨사바’는 작은 고등

어, ‘주우사바’는 중간 정도 크기의 고등어, ‘고사바’는 큰 고등어를 지칭하는 말이다.

- ⇒ {고등어는} 인제 계속 고등어라고 했고. 고등어 낚시는 요기 이렇게 뭐 우리 경제적인 낚시가 아니고 인제 레포츠 낚시였었고.
- ⇒ 고등어네. {꼬두리}.
- ⇒ 그게 아까 고등어네요. {꼬두리}.
- ⇒ 그런데, 그게 안 글코, {고도리라} 말은 고등어라는 말이거든요. 고등어를 우리 순옥지말로 고도리 그러는데, 일본 사람이 요서 많이 어장을 했거든요.
- ⇒ 일본 사람이 고등어를, 고등어를 뭐냐하면 {사바} 카거든. 사바.
- ⇒ 예, 보통 고등어 큰 거를 {사바} 그러거든요.
- ⇒ 난킨, {난킨사바}. 이 왜놈 말입니다, 순일본사람 말인데, 난킨사바는 쪼깨난 고등어.
- ⇒ 큰 거는 {고사바}. 중간쯤 되는 건 {주우사바}. 낭킨, 낭킨이라 하는 건 이제 쪼깨만한 건.

3) 방어/방에/야도, 알야도, 중부리, 대부리, 고부리

‘방어’는 전갱잇과의 하나로 몸의 길이는 1미터 정도로 긴 방추형이고 주둥이는 뾰족하다. 몸은 등이 푸른빛을 띤 회색, 배는 은빛을 띤 흰색이고 옆구리에 누런색 세로띠가 하나 있는 물고기로 옥지도에서는 ‘방어, 방에, 야도’라 부른다. 옥지도에서도 물고기 이름에 ‘-어(漁)’를 ‘-에’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야도’는 일본어로 작은 방언은 일본어로 ‘알야도’라 부른다. 또한 ‘중부리’는 중간 정도 크기의 방어, ‘고부리, 대부리’는 큰 것을 말한다.

- ⇒ {방어지}.
- ⇒ 요서는 {방에라고} 합니다.
- ⇒ 인제 그 방어 방어는 방어가 아니고 여기서는 {야도}, 야도라 그래요.
- ⇒ 야도 뭐. 그 다음에 큰 거를 야도라 했고, 알야도라 알야도. 작은 걸 {알야도}.
- ⇒ 큰 거는 인제 그 {중부리}, {대부리} 뭐 고부리 그렇게 불렀어요.
- ⇒ {고부리는} 더 큰 거고.

4) 삼치/마구리/가또

‘삼치’는 고등잇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1미터 정도이고 가늘며, 옆으로 납작하다. 청색에 푸른 갈색의 얼룩무늬가 있고 배는 흰색이다. 옆구리에는 회색 얼룩점이 흩어져 있고 비늘로 덮여 있다. 옥지도에서는 ‘마구리, 가또’라 부른다.

- ⇒ {삼치}. 삼치가 나지요. 삼치가 옛날 요기서 많이 나 갖고 수출도 많이 시켰습니다. 이 삼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 ⇒ {마구리라} 카는 말 씨거든요.
- ⇒ 그게 인제 삼치 종류입니다. 요 요 자체는 이런 이 삼치는 요기서는 우리가 가또라 카는 말도 씨는데 삼치를 {가또라} 해가지고 크게 가치 없다고 말하는데 있고. 삼치는 이것과 하고 비슷하게 닮아서, 닮아서 이 삼치는 헛감으로 참 좋습니다.

5) 농어, 까지메이/까지메기

‘농어’는 농엇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50~90cm이고, 등은 검푸르고 배는 희며, 어릴 때는 등과 등지느러미에 검은 갈색의 작은 점이 많다. 몸은 옆으로 납작하며 주둥이가 크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며, 온몸에 잔비늘이 많다. 옥지도에서는 ‘농어’라는 말 이외에 ‘까지메이, 까지메기’라는 말을 함께 쓰는데 이는 크기에 따른 분류이다. 농어는 큰 것을 부르는 말이며 ‘까지메이, 까지메기’는 농어 새끼를 말한다.

- ⇒ {농어는} 요게 더러 잡히지.
- ⇒ 그 다음에 농어는 농어는 새끼를 {까지메기라} 했어요. 까지메기
- ⇒ {까지메이}. 까지메기.
- ⇒ {까지메이}. 다른 데는 깔따구라 했다는데, 그렇게 안 하고, 까지메이. 그 다음에 뭐 큰 거는 농어라 했고.

6) 감성돔/감송어/감시이/감식이, 똥감시이

‘감성돔’은 도미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40cm 정도이고 타원형이며, 은빛을 띤 청색 바탕에 갈색의 가로무늬가 있다. 주둥이가 뾰족하고 등 쪽이 솟아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 맛이 좋다. 옥지도에서는 ‘감성돔’이라는 표준 어형보다는 ‘감시이, 감식이, 감송어’라 부른다. 또한 ‘똥감시이’는 새끼 감성돔을 말하거나 봄에 잡은 맛이 없는 감송어를 지칭하기도 한다. 새끼 감성돔은 더러운 흙탕물에서 살아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 {감성돔}. 그거는 인제 감시이라고 했지요. 감시이. 감시이. 그러면 새끼감시이는 똥감시이. 똥감시이 뭐 이렇게 구정물에 있다고 해서 똥감시라 하고.
- ⇒ {감시이도} 있지. 감시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별사람들이 감시이라고 씁니다.
- ⇒ 큰 놈은 그냥 감시이. 감성돔을 감시이라 했어요. 감시이. 감시이. 뭐 감생이, 감송어 그레 안 하고 감시이. {똥감시이}.
- ⇒ 그래서 인제 감성돔이라든가 {감식이라든가} 흑돔 낚을 때는 바닥에다 완전히 가라 앉쳐서, 우리가 인제 여기서 얘기하면은 우리 요즘 낚시 방법으로는 처박기라 합니다.
- ⇒ {감송어}. 감송어.

7) 돔, 상사리

도미의 준말인 ‘돔’은 도미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몸은 타원형으로 납작하며 대부분 붉은색을 띠고 비늘은 둥글고 크다. 옥지도에서는 ‘돔’이라 쓰는데, 작은 돔은 ‘상사리’라 한다.

- ⇒ 그랬고, 이제 돔 낚시해서 {돔}. 돔 낚시는 여름철에 해서 여름철 가을철 하죠. 여름 가을철 하는데, 돔은 작은 걸 {상사리라} 했어요. 상사리. 돔은 작은 걸 상사리라 하고 큰 건 돔이라고 하고. 돔 했어요. 돔.

8) 흑돔, 가리이

‘흑돔’은 놀래깃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1미터 정도이고 긴 타원형이며, 어두운 갈색이다. 어릴 때에는 옆구리에 흰색의 세로띠가 있는데 성장하면 수컷은 앞머리 부분이 흑 모양으로 나온다. 욕지도에서는 ‘흑돔’이라 부르며, 작은 흑돔은 ‘가리이’라 부른다.

- ⇒ {흑돔이라고}. 흑이 푹 붙은 거는 흑돔이고. 흑이 안 나온 거는 가리이라고.
- ⇒ {가리이}. 적은 걸 가리이라 하고

9) 전갱이/전강이/메가리/아지, 오아지, 쥬아지, 고아지

‘전갱이’는 전갱잇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40cm 정도이고 원뿔형이며, 등은 어두운 녹색, 배는 흰색이다. 몸에 하나의 구부러진 옆줄이 있고 그 위에 방패 비늘이 발달하여 있다. 욕지도에서는 ‘전갱이, 전강이, 메가리’와 ‘아지’라는 일본어가 함께 쓰인다. 또한 크기에 따라 ‘오아지(大), 쥬아지(中), 고아지(小)’로 부른다.

- ⇒ {전갱이가} 아지거든요.
- ⇒ 정강은 있지요. {정강이}.
- ⇒ 전갱이가 일본말로 {아지}.
- ⇒ 여 인제 저기 잡히는데 그것도 고등어식으로 오아지, 쥬아지, 고아지지 여기는. 아까 저기는 아까 난칭이라고 안 하고. {오아지는} 큰 아지.
- ⇒ {쥬아지는} 중간 것, {고아지는} 작은 것.
- ⇒ {메가리}. 그기 말하자면 아진데, 정갱이. 왜놈말로 아지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정갱이고.

10) 불락/뿔락/뿔라이/뿔래기/뿔라구, 까만뿔래기/먹뿔래이, 붉은 뿔래기/열기

‘불락’은 양불락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20~30cm이고 방추 모양이며, 잿빛을 띤 갈색이 가장 많고, 잿빛을 띤 적색도 있는데 몸의 색깔은 생활 장소나 물의 깊이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몸 옆에 대여섯 줄의 불분명한 검은 띠가 가로로 나 있고, 주둥이는 끝이 뾰족하며 눈이 불거지고 아주 크다. 욕지도에서는 ‘뿔락, 뿔라이, 뿔래기, 뿔라구’라고 다양하게 부르는데 대부분 어두경음화된 형태로 쓰인다. 불락은 색을 기준으로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검은 불락은 ‘까만 뿔래이/뿔래기, 먹뿔래이/뿔래기’라 부르고, 붉은 불락은 ‘붉은 뿔래기/뿔래이, 열기’라 부른다.

- ⇒ {불락이} 많이 잡히고 인제, 오월 육월쯤 되면은 그거예요.
- ⇒ {뿔락어는} 뿔래이 뿔래이.
- ⇒ 겨울철에는 겨울철에는 불락. 불락 알지요? 그래서 이 불락을 여기서는 {뿔래기라} 했어요.
- ⇒ {뿔래이}. 그래서 그 뿔래이도 그 종류가 그 {까만 뿔래이가} 있고 {붉은 뿔래이가} 있어요. 그 까만 거는 {먹뿔래이}. 먹뿔래이 이렇게 했고. 좀 붉은 뿔래이는 그냥 열기라고 했죠. 열기.
- ⇒ 빨간 뿔래이가 아니고 인제 빨간 불래이라는 말은 안 쓰고 고마 {열기라고} 했고. 열기라 했고.
- ⇒ 인제 붉은, 검은 뿔래이는 {먹뿔래이라} 그랬고. 먹뿔. 까만뿔, 검은뿔래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고.

11) 야도바리, 농어바리, 볼락바리, 참치바리, 조기바리, 콩치바리

‘고기를 잡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바리’라 한다. 방어를 잡는 것을 ‘야도바리’라 부르는 것처럼 ‘농어바리, 볼락바리, 참치바리’와 같이 ‘물고기 이름+바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 ⇒ 그래서 농어 낚시라는 건 농어바리라고 하거든. 농어바리. {볼락바리}.
- ⇒ 농어바리 뭐 그런 행위를 {농어바리라고} 그래요.
- ⇒ 바리라는 말. {참치바리니} {조기바리니} 뭐 {콩치바리니} 바리라고 어항 그 자체에 부지 쓰는 말이지.
- ⇒ 인제 그 방어 방어는 방어가 아니고 여기서야 야도 야도라 그래요. {야도바리}.

이상의 어휘물 관련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어휘물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물고기	전체 명칭	괴기/ 고기/ 물고기, 텃고기	
	종류	고등어	고등어/꼬두리/고도리/사바, 난킨사바, 주우사바, 고사바
		방어	방어/방에/야도, 알야도, 중부리, 대부리, 고부리
		삼치	삼치/마구리/가또
		농어	농어, 까지메이/까지메기
		감성돔	감성돔/감송어/감시이/감식이, 퐁감시
		도미(돔)	돔, 상사리
		흑돔	흑돔, 가리이
		전갱이	전갱이/메가리/아지, 오아지, 쥬아지, 고아지
	볼락	볼락/뿔락/뿔래이/뿔래기/뿔라구, 까만뿔래기/떡뿔래이, 붉은 뿔래기/열기	
기타	야도바리, 농어바리, 볼락바리, 참치바리, 조기바리, 콩치바리		

1.2.4. 장소

1) 덕/어초, 깊은 덕, 얇은 덕

고기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채낚기 어업을 하는 장소가 달라진다. 주로 어초인 ‘덕’에 고기가 많이 서식하므로 덕에서 조업이 이뤄진다. 이처럼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번식하는 바다밑의 도도룩한 곳을 ‘어초’라 한다. 이 어초를 지역에서는 ‘덕’이라 하고 이 덕을 찾아 낚시하는 것이 채낚기에서는 중요하다. 덕을 찾아 채낚기를 하는 것은 어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깊은 덕에는 ‘볼락’을 주로 낚고, 수심이 10~15m 정도 되는 얇은 덕에는 ‘감

성돔'을 낚는다.

- ⇒ 감성돔은 배를 짜 세워서 인제 그 {덕에} {얕은 덕}, 대체로 좀 {깊은 덕은} 아니고요.
- ⇒ 뿔래이 같은 거는 줄뿔래이라고 낚수 많이 달아가지고 저 {어초} 있는 데 마 그런 데서도 낚고.

2) 모래바닥/모래밭, 자갈밭, 작밭

소래미라 불리는 보리멸은 모래바닥이나 작밭에 산다. 그러므로 그런 장소를 찾아서 채낚기를 한다.

바닥이 모래로 이뤄진 곳을 '모래바닥, 모래밭'이라 하고 자갈로 된 곳은 '자갈밭', 자갈 중 작은 자갈로 된 곳은 '작밭'이라 한다.

- ⇒ 덕하고 관계없이. {모래바닥이다}, 요 지역이 모래바닥이다. 오랜 경험에 통해갖고 모래바닥이나 아니면은 자갈바닥이, {자갈밭이다} 아니면 뿔밭이다. 마. 이런 어떤 위치의 아무 곳이나 가서.
- ⇒ {모래밭}. 그는 바다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것도 한 수심 이십메다 내에 있는 이 내에 있는 모래밭. 뭐 모래밭이나 {작밭이라} 그래요. 작밭.

3) 바위 틈, 배 위

어중에 따라 설래끼꾼이 어초 있는 바위 틈에서 채낚기를 할 수 있고, 배 위에서 조업을 할 수도 있다. 땅밭이를 해 잡는 고기는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배를 정박해두고 낚시줄을 땅에 드리워 하는 방법이므로 배 위에서 조업을 한다. 흑돔, 감성돔, 도다리 등이 주 어종이다. 반면 볼락은 어초가 있는 곳으로 가서 주변 바위 틈에서 낚시줄을 턱으로 내려 잡는다.

- ⇒ 또 {바위 틈}, 바위가 물 밑에 있는 데서도 낚고, 인자 그래하고.
- ⇒ 이게 여기가 감성돔이 노는 덕이 거 같으면 {배를 요 위에} 띄우는 게 아니고 저만큼 띄어요.

1.2.5. 시기

1) 사리때/양시때

어중에 따라 잡는 물때도 조금씩 다르다. 물살이 세고, 빠른 사리때는 배를 고정해 낚는 '감성돔' 낚시를 한다. 물살이 세더라도 닻을 놔 배를 고정하기 때문에 채낚기 작업을 할 수 있다. 사리때를 '사리'는 사전에 등재된 의미로는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큰 날'이지만 지역에서는 '물이 가장 낮은 날,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날, 물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조수간만의 큰 차로 인해 물이 가장 많이 빠지지만 지역의 주민들은 '물이 많이 빠져 고기 잡으러 가는 날'로 인식하고 있고 갯벌 작업도 사리때 작업을 하러 간다고 한다. 사리라는 어휘보다는 이 지역에서는 '사리때, 양시때, 왕시'라 한다.

- ⇒ 그 다음에 인제 {사리때}, {양시대라} 그러거든. 양시. 여기는 양시대라 양시. 물빨 많이 실 때에는 물 많이 나고 하는 걸 양시대. 양시때는 우리가 배를 고정시켜서 하는 감시이 낚시를 합니다.
- ⇒ 갯바위에서 얇은 물에서 뭐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인제 거 {사리때}, {양시대} 한다.
- ⇒ 물때는 {사리때하고}, 이제 인제 감성돔이나 흑돔은 배를 고정시키니까 사리때에 유리하고,
- ⇒ 우리가 사리때를 {왕시라} 하고.

2) 조금/조금시/조금때/한조금/열세물~두물

‘조금’은 음력 8일, 음력 23일로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적을 때’로 물의 흐름이 느려진 다. ‘조금’을 옥지도에서는 ‘조금, 조금때, 조금시, 한조금’이라 하고 대체로 열세물에서 두 물 정도까지의 물때라 한다. 물살이 느린 조금때는 볼락을 주로 잡는다.

- ⇒ {열세물부터 한물, 두물까지} 볼락을.
- ⇒ 그러면 열세물부터 {조금을} 보는 거라. 말하자면 한물 두물까지.
- ⇒ 그렇죠. {조금시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시라 그런다. 조금시. 조금시에는 인자 볼락이나 덕, 덕에 가서 낚시를 하고.
- ⇒ 그 다음에 인제 우리 그 볼락이나 이런 채낚기. 그 설낚기는 그 {조금때에} 해야 돼. 사리때에 하면은, 그 뭐야 낚시 들어가기 전에 벌써 떠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리때는 물살이 썩고, 조금때는 물살이 느리거든요.
- ⇒ 조금은 {한조금이라} 하고. 스물사흘 한조금.

1.2.6. 채낚기 방법

채낚기를 하는 방법은 어종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감성돔, 흑돔, 도다리 등의 어종은 ‘처박기, 땅발이’를 하고, ‘볼락’은 ‘줄빨래이’를 해서 잡는다.

1) 처박기, 땅발이

해당 어종이 모여 있는 곳에 배를 타고 나가 2~3개의 닻으로 배를 고정시킨 후 낚시줄을 느슨하게 흘려 바다에 닿게 한다. 줄을 가라앉히는 것인데 이를 ‘땅발이, 처박기’라 한다.

- ⇒ {땅발이라고}해서 땅에다 가라앉쳐줘야 해요. 그래서 인제 감성돔이라든가 감식이라든가 흑돔 낚을 때는 바닥에다 완전히 가라 앉쳐서, 줄도 느슨하게 이렇게 조서 인제 우리가 인제 여기서 얘기하면은 우리 요즘 낚시 방법으로는 {처박기라} 합니다. 처박기.

2) 줄빨래이

볼락은 잡는 방식으로 볼락은 한 곳에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는데 이를 제보자들은 ‘덩거리져 있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래서 볼락 몇 마리만 낚시바늘을 물면 다른 놈들도 한꺼번에 미끼를 물어 잡기가 수월하다. 인공미끼를 달아 조금만 낚시대를 움직여주면 볼락이

달려드는데 이를 ‘줄빨래이’라고 표현한다. 볼락은 많은 수를 한꺼번에 잡아올릴 수 있기 때문에 채낚기 바늘 간격도 촘촘히 한다고 한다.

- ⇒ 인제 빨래이 같은 거는 {줄빨래이라고} 낚수 많이 달아가지고 저 어초 있는 데 마 그런 데서도 낚고, 또 바위 틈, 바위가 물 밑에 있는 데서도 낚고.
- ⇒ 빨래이 그는 {줄빨래이라고} 이갑을 공갈낚수로 달아가지고 유두리를 하는기라. 훌작훌작하니. 고기덩거리로 이렇게 지어 있다가 낚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한 놈이 이렇게 그게 먹이라고 이래갖고 막 각 달라든다고. 달라들면은 다른 놈들도 막 동시에 왁 이렇게 덤벼들어서 그 낚시에 인제 그야말로 엮여 올라오는 거지 뭐.

1.2.7. 어획물 처리

1) 소금 흘다, 찌다, 곱다, 회, 바까오다

어획물은 회를 쳐 먹거나 소금을 뿌려 찌거나 구워 먹는다. 또한 예전에는 육지로 가져가 생필품과 바꾸기도 하였다.

- ⇒ 그러면 집에 갖다놓고. 막 그러고 전부 {소금을 흘고} 이래가지고 인자 {찌도} 먹고 {꾸도} 먹고 {회도} 해 먹고 옛날에는 우리 사람들 뭐 팔 때도 없으니까, 전부 마 고마 해먹는데. 그 래가 인자 그런 걸로 해서 많이 모다 낚다가 고성 같은 데 인제 전데(저런데) 가면은 쌀이 귀 하니까 쌀도 그 고기를 주고 바꿔. 바꾼다하지 말하자면 고기주고 쌀 {바까 온다}. 인제 요래 가지고.

1.2.8. 기타

1) 설이 좁다

채낚기에서 바늘 달린 낚싯줄을 ‘설’이라 하는데 ‘설이 좁다’는 바늘 사이의 간격이 좁은 것을 말한다.

- ⇒ 설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줄이 아니고 우리가 인제 그 이렇게 지금 현재 용어로 바늘도 달고 하는 그 셋팅이 된 걸. 이제 설이라 그래요. 그 그물을 우리 보면 {설이 좁다} 좀 더 쥐라. 설을 좀 더 쥐라 뭐 그래 가지고 이 {설이 너무 좁아서}.

2) 고기가 덩거리져 있다

볼락은 한 곳에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는데 이를 제보자들은 ‘덩거리져 있다’라고 표현 하였다. 그래서 볼락 몇 마리만 낚싯바늘을 물면 다른 놈들도 한꺼번에 미끼를 물어 잡기가 수월하다.

- ⇒ 아, 머물러 있다가 먹이가 오면은 떼로 왁 올라와서. 우리가 말하자면 아이고 물 밑에 물밑에 빨라구가 {덩거리로 지아가 있다}. 요렇게 말하거든. 많이 있다 이 말이야. 고기 덩거리로 이

렇게 지어 있다가 낚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한 놈이 이렇게 그게 먹이라고 이래갖고 막 캅 달라든다고 달라들면은 다른 놈들도 막 동시에 왁 이렇게 덤벼들어서 그 낚시에 인제 그야말로 엮여 올라오는 거지 뭐.

3) 비늘이 시달리다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고기들이 서로 부딪혀 비늘이 상한다. 이렇게 비늘이 상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이처럼 고기 끼리 부딪혀 비늘이 상하는 것을 ‘비늘이 시달리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채낚기로 잡은 고기는 고기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비늘이 상할 일이 적다고 한다.

- ⇒ 육지는 그게 그동안 쭉 고집스럽게 이렇게 해 왔고, 또 그게 이렇게 용이한 게 뭐냐 하면은 그물로 이렇게 잡는 어업보다도 낚시로 잡기 때문에 그물에 이렇게 {비늘이라든가 시달려가지고} 신선도가 이렇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4) 덕이 지다/덕이 있다/어초가 있다

물속의 지형지물로 고기들이 서식하고 좋은 곳을 ‘어초’라 하는데 남해안에서는 ‘덕’이라 하기도 한다. ‘덕이 있다’를 ‘덕이 지다’로도 표현한다.

- ⇒ 그것도 낚는 질이 어려 가지라. 뽕락은, 뽕래이는 이갑을 낚시다 끼 매가지고 이 길게 이렇게 이갑을 끼가지고, 그라 저 {덕에 진} 데가 가서 인자 이 흘러주기는 기라.
- ⇒ 인자 어데 가면은 몇도, 몇 마디 나가면은 이제 거기 {덕이 있다}. {어초가 있다}.

〈표 9〉 장소, 시기, 방법, 어획물 처리, 기타 관련 어휘

범주	조사 어휘	
고기 잡기	장소	덕/어초, 깊은 덕, 얇은 덕 모래바닥/모래밭, 자갈밭, 작밭 바위 틈, 배 위
	시기	사리때/양시때/왕시 조금/조금시/조금때/한조금, 열세물~두물
	방법	치박기, 땅발이, 줄뽕래이
	어획물 처리	소금 흘다, 찌다, 꿍다, 회, 바까오다
	기타	설이 줍다, 고기가 덩거리져 있다, 비늘이 시달리다 덕이 지다/덕이 있다/어초가 있다

1.3. 고사지내기

1.3.1. 명칭

육지도는 바다를 끼고 있는 어촌 지역이므로 어획량을 늘리려는 고사를 많이 지냈다. 고사 명칭은 일반적으로 ‘고사’라 하고 ‘풍신제, 진수식, 선신제, 선왕제’ 등으로도 부른다. ‘풍신제’는 풍신인 영등할머니에게 지내는 제사이고, ‘진수식’은 새로 만든 배를 처음으로 물에 띄울 때에 하는 의식이다. ‘선신제, 선왕제’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이롭게 하는 신을 모시는 제의이다. 제의를 지내는 시기는 때에 따라 다르나 음력 2월인 한 해의 어로 활동이 시작인 시기, 혹은 계절풍이 불 때 지낸다. 제의에 올리는 음식은 다른 고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바다에서 잡은 어획물이나 나물류, 떡, 술 등을 올린다.

- ⇒ 그래서 인제 배에서 막 돼지잡고 이래갖고 {고사한다고} 그래가지고.
- ⇒ 우리가 {풍신제를} 음력 이 철에 올려요. 계절풍 막 불어올 때. 막 이렇게 올려요.
- ⇒ 이제 배라는 게, 인제 우리가 여기 {진수식이잖아요}. 진수식인데 서낭, 서낭하는 거 있어요.

1.3.2. 행위

육지도에서 고사는 ‘할맛네’와 ‘서낭신’에게 지낸다. 할맛네는 어류와 나물류를 관장하는 영등할멈으로 본격적인 어업이 시작되는 시기에 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지내는 것을 ‘고사 모시다, 할맛네 지내다’라고 하는데 고사를 지내지 않아 할맛네가 심술을 부리면 바람이 많이 불어 어로행위가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고사를 지내고 바람이 잦아지는 것을 ‘바람 잠 재우다, 할맛네 올라가다’라 표현한다.

1) 고사 하다/고사 지내다/할맛네 지내다/바람 올리다

육지도에서는 고사를 지내는 행위를 ‘고사 하다, 고사 지내다, 할맛네 지내다, 바람 올리다’라고 한다. ‘할맛네 지내다, 바람 올리다’는 ‘풍신제’에 관한 것인데 바람을 관장하는 풍신인 영등할멈에게 고사를 지내는 것을 ‘할맛네 지내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풍신제는 바람을 잠재우는 제사이므로 ‘바람 올리다’라는 표현도 한다.

- ⇒ 이래갖고 {고사 한다고} 그래가지고 인제 그래 인자 의지를 할 데가 없으니까.
- ⇒ 행위가 배에 인제 약간의 {고사 지내는} 수준 정도로 하죠.
- ⇒ {할맛네 이렇게 지낸다} 이래가지고 뭐 일주일을 주기로 해갖고 한 삼 주 정도 해요.
- ⇒ 그 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거, {올린다는} 말 그 자체가 인제 잠재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1.3.3. 기타

1) 할맛네 올라 가다/바람 잠 재우다

풍신제를 지내면 바람은 어로 활동을 하기 좋게 순해진다고 어민들은 믿는다. 이런 믿음에서 제의 후 영등할멈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고, 바람을 잠 재웠다고 표현한다.

- ⇒ 이 동네는 {할맛네 올라간다} 그런 말을 해요.
- ⇒ {바람을 잠 재우기} 위한 하나의 농경사회 혹은 우리 특히 바다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그 주술적인 행위지요.

이상의 고사지내기 관련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민속 관련 어휘

범주	조사 어휘	
고사 지내기	명칭	고사(하다/ 모시다), 풍신제, 진수식
	대상	할맛네(영등할멈: 어류, 나물류 관장), 서낭신
	시기	음력 2월, 계절풍 불 때,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음식	나물류, 떡, 술
	행위자	선주
	행위	고사 하다, 고사 모시다, 할맛네 지내다, 바람 올리다, 나무에 오색띠 두르다, 서낭당 2~3바퀴 돌다, 서낭기 달다, 진수기념하다, (지인이) 깃발 만들어 주다
	기타	바람 잠 재우다, 할맛네 올라가다

1.4. 관용표현

어류와 관련된 관용 표현에는 감성돔과 관련된 것이 많이 조사되었는데 ‘감시가 맛 봤나?’라는 말의 주된 의미는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인데 이는 감성돔 고기가 그만큼 맛이 있어서 나온 표현이라 한다.

‘봄감시 개도 안 먹는다’라는 표현은 감성돔은 맛이 좋지만 봄에 잡는 것이 맛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봄에 잡힌 감성돔을 ‘똥감시’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또한 그리고 감성돔은 아주 약아서 잡기가 어렵다고 하여, 약고 영리한 사람에게도 비유적으로 쓰인다고 한다.

- ⇒ 봄감시 개도 안 먹는다. 육월 감시가 아이고. ‘봄감시 개도 안 먹는다’. 봄 되면은 맛이 없어져.
- ⇒ ‘감시 맛봤나’는 인제, 좋은 경험을 했나는 말이지.
- ⇒ 제삼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일을 답습하는 거 있거든요. 다시 재차, 반복하는 거 있는데 그럴 때 옆에서 왜 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저 뭐 {감시 맛봤나} 뭐 그런 얘기를 해요.

- ⇒ 좋은 경험이 있었나 그런 뜻이거든요. 좋은 경험이 있었나? 저걸 해가지고 저게 좋은 경험이 있었나?
- ⇒ 참 {감심이} 저 놈이 우리 솔직히 말하자면 {참 약다이라거든} 사람이 약은 사람을 아 저놈이 약니라. 감식이기도 그렇습니다.
- ⇒ 감식이 저놈도 참 {세상을 약은 놈이 감식이구만}.

〈표 11〉 관용 표현

범주	어휘 항목
관용 표현	감시 맛봤나, 봄감시 개도 안 먹는다, 세상에 약은 놈이 감식이다.

2. 송어들이

부산 가덕도의 어민들은 ‘가덕도 대항 송어들이’라는 이름으로 160여 년간 독특한 방법으로 이어져 온 전통 방법으로 송어를 잡고 있다. 봄철이 되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송어가 연안 수면 가까이로 떠오르면 산중턱에서 망을 보던 어로장이 “봐라!” 하고 소리친다. 이때를 기다리고 있던 대여섯 척의 무동력 어선들이 일제히 그물로 송어떼를 둘러싼 뒤 걷져 올린다. 이를 육소장망이라고 부른다.

본 조사에서는 전통 어로방식인 송어들이에 관해 ‘명칭(전체 명칭, 부분 명칭, 종사자 명칭), 고기 잡기(시기, 위치, 행위, 어획물, 단위, 도구, 금기), 고사 지내기(명칭, 대상, 장소, 행위, 차림상)’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조사하였다.

2.1. 송어들이 관련 명칭

2.1.1. 전체 명칭

1) 송어들이, 송어들이, 육소장망, 송어잡이

송어가 들만한 물목에 그물을 깔아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망대에서 어로장이 물 색깔과 물 속 그림자의 변화로 송어떼를 감지해 지시를 내리면 재빠르게 6척의 목선에 탄 선원이 그물을 끌어올려 송어를 잡는 전통적인 어로 방식을 ‘송어들이, 송어들이, 육소장망(六艘張網)’이라 한다. 송어를 그물 안으로 들인다 해서 ‘송어들이’라 하기도 하고, 그물로 송어들 둘러친다고 해서 ‘송어들이’라 하기도 한다. 여러 어휘 중 가덕도 대항리 주민들은 대부분 ‘송어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송어들이는 160여 년간 이어져온 어로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업을 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가덕도 대항리 송어들이가 유일하다고

한다. 송어들이는 음력 1월 보름이 되면 송어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바다에 고정 시켜두고 송어떼가 몰려오면 6척의 배가 그물을 들어 올려 송어를 잡는다. 그물을 들어올리는 시간이 불과 1분 미만이므로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6척의 배가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송어잡이의 주된 전략이다.

- ⇒ 여섯 척이 한 한섬이 전체가 하여튼 힘을 한섬에 모아서 하는 어장이 이 {송어들이} 하는 겁니다.
- ⇒ 고기를 대부분 잡는 게 {송어잡이인데}.

2.1.2. 부분 명칭

송어들이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6척의 배가 필요하다. 6척의 배는 각각 이름, 위치, 승선 인원, 하는 일 등이 다르며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여야 성공적인 송어들이를 할 수 있다. 이 6척의 배는 ‘밖목선, 안목선, 박장등, 안장등, 밖귀잡이, 안귀잡이’이다. 또한 각 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 부속물이 있다. 다른 목선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도 있으며 일반적인 부속물도 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송어들이를 위한 부속물도 있다. 송어들이에 필요한 부분 명칭에 대한 설명에서는 6척의 배에 대한 이야기와 배 부속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6척의 배

(1) 밖목선

‘밖목선’은 ‘밖’+‘목선’의 형태로 말 그대로 ‘밖에 위치한 목선’이다. 여기서 밖은 육지 쪽에서 봤을 때의 위치이다. 즉 육지 쪽이 아니라 바다 쪽에 위치한 배라는 것이다. 다음의 기호를 \cap 바다에 깔아 놓은 어구로 본다면 밖목선은 위쪽 터진 입구 쪽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밖목선의 크기는 6척의 배 중 가장 크다. 그리고 승선 인원도 가장 많다. 그만큼 밖목선은 송어들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망대에서 송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작업 지시를 하는 어로장이 제일 먼저 작업 지시를 내리는 배도 밖목선이다. 밖목선은 어로장이 ‘봐라’, ‘밖목선 해라’하고 지시를 내리면 빨리 어구의 입구를 막아 그물에 들어온 송어가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승선 인원도 다른 배에 비해 가장 많은 6명으로 힘을 많이 서야하며, 배 크기도 크다. 예전에는 밖목선에 7명이 승선하였으나 요즘은 송어들이 배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 6명이 탄다고 한다. 밖목선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밖목선의 사공은 종사자들 중 서열이 어로장, 부어로장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 ⇒ 아 그거는 그는 거기 제일 큰 배 {밖목선에다} 하는 거예요.
- ⇒ 이 사람이 이레 여섯 명이 땡기도 꼼짝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밖목선이} 여 앞에 줄 땡기는기라.

(2) 안목선

안목선은 ‘안’+‘목선’의 형태로 말 그대로 ‘안에 위치한 목선’이다. 여기서 ‘안’은 육지 쪽에서 봤을 때의 위치이다. 즉 바다 쪽이 아니라 육지 가까이에 위치한 배라는 것이다. 다음의 기호를 \supset 바다에 깔아 놓은 어구로 본다면 안목선은 아래쪽 터진 입구 쪽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밖목선과 안목선은 터진 입구 쪽에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송어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면 밖목선이 빨리 줄을 당겨 어구를 모으는 것처럼 안목선도 함께 그물을 좁히면 위의 기호에서 터진 입이 오므라들어 타원형처럼 되고 송어는 어구에 갇히는 것이다. 그래서 송어들이에서 송어가 어구로 들어오는 입구를 지키고 있는 밖목선과 안목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안목선은 육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산에서 송어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어로장, 부어로장의 식사를 챙겨주는 배이기도 하다.

안목선의 승선 인원은 4명이다. 예전에는 5명이었으나 줄고 현재는 4명이 배를 탄다. 그리고 안목선에는 닻이 없는데 이는 배를 육지 가까이 바위에 묶어두므로 닻은 필요가 없다고 한다.

- ⇒ 제일 바당에 있는, 그 이건 밖목선. 중간에 바당에 있다고 밖장등. 바당에 있다고, 복판에 있다고 밖장등. 그래 간, 바당의 갓, 가에 있다고 밖귀잡이. 인자 안에는 {안목선}. 안에 있다고 안목선. 안장등, 안귀잡이.
- ⇒ 그렇지. 봐라 해 놓고 인자 그물 안에 들어가면 ‘밖목선 해라’, ‘{안목선} 해라’. 그거 인자. 배가 여섯 척 있으니까네, 어느 배 놓나. 그래 요 거 말이 떨어지기 한참에 배가 동그랗게 딱 가두는 게 아니고, 배마다 다 틀려. 그래 다 한 배 하는 게 다 틀립니다.
- ⇒ 인자 식사는 해마다 밑에서 해가지고 {안목선으로} 해가지고 밑에서 이거 달아놓으면 우리가 위에 땡기는 그것도 망바고 밧줄도 땡기고, 그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3) 밖장등

밖장등은 ‘밖’+‘장등’의 형태로 육지 쪽이 아니라 바다 쪽에 위치한 목선으로 기호 \supset 를 어구의 위치로 본다면 밖목선의 옆에 위치하는 배이다. ‘장등’은 제보자의 말로는 ‘밖장등’은 그물의 ‘등’,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장등’이라 하는데 이는 ‘등’의 경상도 방언이다. 밖장등에는 1명의 선원이 탄다. 밖장등은 밖목선이 어구 입구를 막을 때 그물을 잡아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 ⇒ 그 다음에 안장등은 둘이 쓰고, {밖장등은} 저기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쓰고. 그 다음에 안귀잡이, 밖귀잡이는 세 사람도 씁니다.
- ⇒ 요것만 잡고 있는 배라고 안장등.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만 잡고 있기 때문에 {밖장등} 하는 거지요.
- ⇒ 그 다음에 {밖장등은} 또 허리 들어서 바로 항 나가고. 배가 꿈쩍도 못하게끔 요래 딱 잡겠끔, 줄로 딱 쳐놔요. 고정을 해 놓는 거라.

(4) 안장등

안장등은 ‘안’+‘장등’의 형태로 바다 쪽이 아니라 육지 쪽에 위치한 목선으로 기호 ㄷ를 어구의 위치로 본다면 안목선의 옆에 위치하는 배이다. 따라서 밖장등과 안장등은 밖목선, 안목선 옆에 위치하며 둘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배이다. ‘장등’은 제보자의 말로는 ‘안장등’은 그물의 ‘등’,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장등’이라 하는데 이는 ‘등’의 경상도 방언이다. 밖장등에는 2명의 선원이 탄다. 안장등은 밖목선이 어구 입구를 막을 때 그물을 잡아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안장등에는 안목선과 마찬가지로 닻이 없는데 이는 배를 육지 가까이 바위에 묶어두므로 필요가 없다고 한다.

- ⇒ {안장등}, 밖장등. 그러니까네. 요기 쪽 있으면 중간을 잡아준다는 걸론이지예. 이 사람들은 양 쪽 길을 가지고 땡기지만은 이 사람은 이거만 들어만 주면 되는 거라요. 그렇게 장등배라 그래. 쪽 퍼져 있는거 인자 중간에 잡아주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5) 밖귀잡이

밖귀잡이는 ‘밖’+‘귀’+‘잡-’+‘-이’의 형태로 ‘밖에서 귀 부분을 잡아주는 배’이다. ‘귀’는 ‘모가 난 물건의 모서리’라는 뜻인데 여기서서는 어구의 귀 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귀잡이’가 ‘ㅣ’ 모음 역행동화의 영향으로 ‘귀잡이’로 발음이 된다. 따라서 밖귀잡이는 바다 쪽에 위치하고 어구의 귀 부분,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는 배이다. 밖장등의 옆 자리이다. 밖귀잡이에는 3명의 인원이 승선하는데 예전에 비해 1명이 줄었다.

- ⇒ 제일 바당에 있는, 그 이건 밖목선. 중간에 바당에 있다고 밖장등. 바당에 있다고, 복판에 있다고 밖장등. 그래 간, 바당의 갓, 가에 있다고 {밖귀잡이}. 인자 안에는 안목선. 안에 있다고 안목선. 안장등, 안귀잡이.
- ⇒ {밖귀잡이라} 하는 저거는 혼자 하거든요. 혼자기 때문에 많이 힘을 못 쓰다 아닙니까?

(6) 안귀잡이

안귀잡이는 ‘안’+‘귀’+‘잡-’+‘-이’의 형태로 ‘밖에서 귀 부분을 잡아주는 배’이다. ‘귀’는 모가난 물건의 모서리라는 뜻인데 여기서서는 어구의 귀 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귀잡이’가 ‘ㅣ’ 모음 역행동화의 영향으로 ‘귀잡이’로 발음이 된다. 따라서 안귀잡이는 육지 쪽에 위치하고 어구의 귀 부분,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는 배이다. 안장등의 옆 자리이다. 안귀잡이에는 3명의 인원이 승선하는데 예전에 비해 1명이 줄었다.

- ⇒ 인자 안에는 안목선. 안에 있다고 안목선. 안장등, {안귀잡이}.

(7) 논마이

송어들이에서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밖목선과 안목선이 어구의 입구를 모으는 작업을 먼저 하고 나머지 배들은 이후에 작업을 함께 한다. 이처럼 밖목선, 안목선 외에 후에 움직이는 배들을 ‘논마이’라고 한다. 따라서 논마이는 ‘밖장등, 안장등, 밖귀잡이, 안귀잡이’가 포함된다.

- ⇒ 그 다음에 인자 안목선, 밖목선에서 얼추 다 조가 놔 놓으면은 인자 뒷배를 {논마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네 척, 한 채가 왁 달아 붙어서 땡깁니다.

(8) 운반선/동력선/발동기/관리선

운반선은 위에 언급한 6척의 배 외에 송어들이를 도우는, 유일한 발동선이다. 송어들이를 해 고기를 잡을 때는 예민한 송어 때문에 모터 소리가 나지 않는 목선을 이용하지만 작업 전 6척의 배를 끌고 가거나, 잡은 송어를 운반, 작업 후 다시 배를 끌고 올 때 이용한다. 송어를 많이 잡으면 몇 만 마리도 잡으므로 운반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 운반선을 ‘발동기, 동력선, 관리선’이라 한다.

- ⇒ 네 배가 {발동기} 큰 게 하나 있어요. 힘으로 인자 배를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끌어 가고 저녁에 올 때 또 끌고 들어오고.
- ⇒ {운반선이} 큰 발동기 하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저 상태, 거리가 저렇게 먼데 저 상태 가지고 끌고 들어올 수는 없다 아닙니까.
- ⇒ 그렇지요. {동력선}. 여기는 새벽에 나갈 때도 이 배들은 닻 차고 나갈 때 이용하고, 저녁에 채수해가 올 때도 이용하고. 고기 잡으면 고기 운반 이용은 다 해주요. 그런 배가 있습니다.
- ⇒ {관리선이} 하나 그거지.

2) 배 부속물

(1) 좃/좃대/걸이

송어들이는 조업을 하지 않을 때는 큰 그물인 어구를 바다에 깔아 놓는다. 그 깔아놓은 어구는 조업을 시작하면 작업을 하는 6척의 배와 연결해 송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송어를 기라다리는 동안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좃, 좃대, 걸이’이다. 다른 목선에는 없는 ‘좃대’는 남성의 성기를 닮아 길쭉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요즘 들어서는 순화된 어휘인 ‘걸이’라는 말을 쓴다. 말 그대로 그물을 배에 걸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송어가 그물에 들어와 어로장의 작업 지시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좃대’를 빼는 작업이다.

- ⇒ 요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안 있나, 아까는 그랬는데. 지금은 걸이라 하거든요. 요 썩썩하게 요래 깎아 났었요. 그래가지고. {좃대라는} 게 그랬다 아닙니까. 근데 이거 요 다방구 같은 거

- 딱 만들어 놓아요.
- ⇒ 네. 많이 바꿨다 하는 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밖목선 {쫓} 빼라 하는 그거. 고기 하나의 걸이 빼라. 이기 조금, 조금 듣기 좋은 말이 들어간 거고.
 - ⇒ 사공. 둘째바. 셋째바. 인자 밧줄이 인자 사공이라도 바 하나 땡기고, 둘째바는 또 땡기고 셋째바도 땡기고, 넷째바는 걸이. 그 {걸이라고} 이레 해가지고 이레 나무로 끼어 놓고. 그물 안 쫓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빼야 그기.

(2) 닳도

배에 줄을 감는 곳으로 송어들이 배에는 올림줄과 비음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줄을 묶어두는 곳이다. 올림줄은 배의 앞인 이물에 묶이는 줄이고 비음줄은 뒷부분인 고물에 묶이는 줄이다. 송어잡이가 시작되면 이 이음줄과 비음줄을 잡아당겨 그물을 조이게 하는 것이다.

- ⇒ 이거는 앞에 닳도 하는 거래. {닳도}. 닳도, 앞에 줄 묶으는 거거든. 줄 묶으는 거.

(3) 노

물을 헤쳐 배를 나가게 하는 도구로 안목선과 안장등에 있는 노는 배를 육지 가까이 바위에 묶을 때 배가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할 때도 사용하며 작업 후 배들이 운반선으로 이동할 할 때도 사용하는 도구이다.

- ⇒ 아 이거는 노, 노. 이거 노거든요. {노}.

(4) 노꾸리

목선에 물이 많이 새게 되면 배가 무거워진다. 그렇게 되면 배가 점점 무거워져 가라앉게 되는데 그때 노꾸리에 발동선의 엔진을 연결해 배를 원 위치로 배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것이다.

- ⇒ 이거는 하나의 {노꾸리} 하는 거야. 노꾸리. 노꾸리 하는 건데. 물이 많이 새 가지고 배가 많이 못 올라 간다 아닙니까. 위치까지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엔진 걸어가지고 감는 식으로 요 감아가지고, 요 양쪽에 요기 요 한 발 넘어 되구만은 이기. 양쪽에서 이기 감아. 이 감아 가지고, 배를 원위치로 올린다. 올리는 거. 사람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요걸 인자 이용해서 하는 거래요.

3) 기타

송어들이에선 배와 배의 부속품 외에도 조업에 연관된 것이 있다. ‘망대’는 어로장이 송어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는 곳이고 올림줄, 비음줄은 배와 어구를 연결해주는 줄, ‘망

바/망뚜리’는 망대와 배를 연결하는 줄이다.

(1) 망대/망

승어들이의 작업 지시를 하는 어로장은 승어들이 어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서 승어를 기다린다. 망대는 ‘망’+‘대’의 합성어로 ‘망을 보는 대’로 사방을 바라 볼 수 있게 만든 곳이다. 승어들이 어장 옆 산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로장과 부어로장이 승어를 기다리는 곳이다. 간단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도구가 있는 정도이다.

- ⇒ 그거는 인자 고기가 만약에 어장에 요 나와 있으면 고기가 저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산에 가서 {망대} 봤지요? 거기서 사람이 막 내려다 보고 있고 있으면은 이 고기가 이 많이 뭉쳐 오면은 이 붉은 빛을 내요.
- ⇒ 그 바위타고 그 내려가 가지고 {망대까지} 갖다 주고 밥 다 먹고 나면 소쿠리 가지고 내려오고 그랬었어요.
- ⇒ {망에는} 갈 수 있지요. 배를 못 타는 거지.



[사진 22] 망대



[사진 23] 망대에서 내려다 보는 어장

(2) 바, 망바/망뚜리

‘바’는 밧줄과 같은 줄을 이르는 말이다. 앞서 말한 망대와 바다에 쳐져 있는 어구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때 망대와 연결된 줄을 ‘망바, 망뚜리’라 한다. 승어잡이 작업이 시작되면 밖목선과 안목선이 어구의 입구를 죄는데 그때는 멀리 떨어진 망대에서서도 힘을 보탠다. 그래서 망대에서도 잡아당길 수 있는 줄을 이어 놓았는데 그 줄 이름이 ‘망바, 망뚜리’이다. ‘망바’는 ‘망’+‘바’의 형태로 ‘망에 연결된 줄로 이해할 수 있다.

- ⇒ 그거를 {망바}. 망바.
- ⇒ {망뚜리나} 망바나 그거는. 망에서 땡긴다고 그래 망바 아닙니까?



[사진 24] 망바

(3) 올림줄/올림

송어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6척의 배를 송어를 기다리는 동안 바다에 고정해놓아야 한다. 고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닻’을 이용하는데 ‘안목선과 안장등’은 닻을 이용하기 보다는 바다 옆 바위에 줄을 묶어 둔다고 한다. 이 외의 배는 닻을 사용하는데 이물과, 고물에 닻을 연결해 배를 정박한다. 이때 이물과 연결된 닻의 줄을 ‘올림줄’이라 한다. 배의 앞부분에 연결된 닻이므로 올림줄을 당겨 닻을 올리면 배 뒤에 연결된 비음줄도 따라 올라 온다고 한다.

⇒ 비음이 인자 배들이 아까 안귀잡이, 박귀잡이, 박목선 닻을 한다 안합디까. 그러면 이물에 있는 이물에 줄로 묶으는 거는 {올림이고}, {올림줄이라} 하고, 뒤 뒤에 뒤 끝에서 땡기는 줄은 저 비음이라 하는 거라.

(4) 비음줄/비음

‘비음줄, 비음’은 배의 뒷부분인 고물에 연결된 닻줄로 안장등, 박장등을 제외한 박목선, 안목선, 박귀잡이, 안귀잡이에 한 줄씩 있다.

⇒ 올림줄 {비음줄} 한 사람이 다 놔뵈야 그물이 이 사백메다에 가까이 둘러 있는 게 짝 오물어 붙어버린다 아닙니까. 그래, 그래니께네 저런 식으로 사람이 뛰어 올라가고 할 정도로 배를 붙이야 이자 고기를 인자 이 퍼 올리는 거지예.

⇒ 그러면 이물에 있는 이물에 줄로 묶으는 거는 올림이고, 올림줄이라 하고, 뒤 뒤에 뒤 끝에서 땡기는 줄은 저 {비음이라} 하는 거라.

(5) 도래

바위에 흙을 파고 줄을 걸어서 돌려 움직이는 장치인 ‘도르래’를 말한다. 망대의 어로장과 부어로장의 식사는 안목선에서 담당하는데 안목선과 망대가 있는 산까지는 거리가 멀므로 도르래를 이용해 음식을 나른다고 한다. 예전에는 안목선 선원이 직접 망대까지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 ⇒ 그렇지요. 안목선에서는 한 가에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 이 높은 데서 {도래를} 만들어 가지고 소쿠리에 담아서 망쟁이 거기서 땡겨가지고 받아가지고 밥 먹고, 또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걸어서 올라갔어요. 갖다 주러. 바위 타고.

2.1.3. 종사자 명칭

1) 어로장/망쟁이/망장이/망수/망전/망이/망반장

어로장은 송어들이 조업을 총관장하는 사람이다. 오래된 송어잡이 경험을 갖고 있어 망대에서 내려다 봤을 때 멀리 송어떼가 보인다. 송어가 어구로 들어오면 망대 아래의 6척의 배에게 작업 지시를 내린다. 어로장의 ‘봐라’ 한 마디로 송어잡이는 시작된다. 어로장은 다양하게 불리는데 ‘망전, 망쟁이, 망장이, 망수, 어로장, 망이, 망반장’이라 한다. 예전에는 망을 지킨다 해서 ‘망쟁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어로장’으로 많이 부른다.

- ⇒ 그게 그래 {망전이라} 하고 옛날에는 망쟁이. {망쟁이라} 하고, {망장이라} 하는 여러 말이 있어요. 요새는 주로 어로장이라 하지, 부르는 게. 어로장 그러고.
- ⇒ 그렇지요. 그러니까 망쟁이라 할 수도 있고, {망수라} 할 수도 있고, 지금에 와서 {어로장이라} 할 수 있고, 예 그런.
- ⇒ 망재이가 제일 대빵이지요. 고기가 지나가는데도, {망이가} 뭐 모른 척했으면 막 넘어갓뿌는 거지요. 그러니까 망재이가 제일 대빵. 산에 올라가면 {망반장이라고} 하는 그 저도 됐는데.

2) 부어로장/부망쟁이/부망수

부어로장은 어로장 밑에 있는 서열로 어로장의 일을 돕는다. 어로장과 함께 망대를 지키기도 하고, 고기가 없으면 산에서 내려와 먼 거리를 한 번 돌아보면서 송어떼를 관찰하는 역할을 한다. 부어로장을 ‘부망쟁이, 부망수’라 부르기도 한다.

- ⇒ 그 했지. 그는 무조건 오늘 내일 가가지고 어로장이 되는 게 아니고 {부어로장을} 몇 년 배워야 어로장이 돼지. 무조건 어로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어로장은 조금 그 자리에서 안 있고, 조금 밑을 내려갔다가 밑에 가서 고기가 오는데, 먼 거리를 우리가 못 보거든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부 어로장은 같이 앉아 있을 때도 있고, 고기가 없으면 저 밑을 먼 거리를 한 번 돌아보고 오는 게 거기 부어로장이지.
- ⇒ 어로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을 인자 {부망쟁이}, 부망쟁이.
- ⇒ {부망수} 이래 나오는 거지요.

3) 첫째바/사공, 상바

여섯 척의 배에 타는 선원은 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밖목선은 6명, 안목선은 4명, 안장등 2명, 밖장등 1명, 안귀잡이, 밖귀잡이 3명씩이다. 이는 예전의 인원보다 한 명씩 줄

어든 인원이다. 선원은 각각의 배에서 정해진 위치에 있는데 위치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이들의 명칭은 배에서 그물과 연결된 어떤 줄을 잡아당기는지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밖목선에는 고물에서부터 ‘사공(첫째바), 둘째바, 셋째바, 넷째바(걸이바), 오동, 이물무상’이라 부른다. 안목선은 배의 앞 부분인 이물에서부터 ‘이물무상, 둘째바, 걸이바, 사공’이라 하고 안귀잡이, 밖귀잡이에 타는 선원은 ‘이물무상, 하장, 사공’이라 한다.

첫째바는 배의 뒷부분인 고물(꼴)에 있는 사람이다. ‘첫째’+‘바’의 합성어인데 ‘바’가 ‘밧줄, 줄’의 의미이므로 ‘첫째줄’이라는 의미이다. 말할 때는 ‘바’는 어두경음화된 ‘빠’로 말한다. ‘첫째바’는 배와 그물에 연결된 첫째 줄을 잡아당기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밖목선의 첫째바는 고물에서 줄을 당기는 거리가 멀고 제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므로 힘이 세고 줄을 제일 잘 당기는 사람을 배치한다. 그래서 제일 숙련된 사람을 첫째바로 정하므로 사공이 첫째바를 한다. 첫째바인 사공이 잡아당기는 줄을 ‘상바’라 한다. 따라서 송어들이 종사자의 서열은 ‘어로장-부어로장-밖목선 사공(첫째바)’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 ⇒ 큰 배가 있으면 제일 뒤에서 하면은 {첫째바}. 거리 제일 먼 데 있는 걸 땡기다는 사람이라고. 힘이 제일 센 사람이어야 땡겨올 수 있는 거라.
- ⇒ 배에서는 {사공이} 제일 대뺑입니다. {상바} 땡기면서도 사공의 이 사공이 하나 잘 못 하면은 고기를 다 놓칠 수도 있는 문제라.
- ⇒ 사공. 둘째바. 셋째바. 인자 밧줄이 인자 사공이라도 바 하나 땡기고, 둘째바는 또 땡기고 셋째바도 땡기고, 넷째바는 걸이. 그 걸이라고 이레 해가지고 이레 나무로 끼어 놓고. 그물 안 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빼야 그기. 둘째바. 그 다음에는 오동끼, 훌찌 거도 훌찌기 또 있습니다. 있고, 그레 이물에는 이물 무상.
- ⇒ 안목선에도 인자 이물 무상, 둘째바 있지. 그거 사람이 너인데, 안목선에는 그는 이물 무상, 둘째바, 걸이바, 사공이래 되거든.

4) 둘째바

둘째바는 배의 고물에서 두 번째로 위치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다. 사공인 첫째바 다음에서 줄을 잡아당긴다.

- ⇒ 그 다음에 힘 조금 그보다 조금 적게 하는 사람은 {둘째바}, 하나 쪽 이레 돼 있거든.

5) 셋째바

셋째바는 배의 고물에서 세 번째로 위치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다. 둘째바 다음에서 줄을 잡아당긴다.

- ⇒ 사공, 둘째바, {셋째바}. 인자 밧줄이 인자 사공이라도 바 하나 땡기고, 둘째바는 또 땡기고 {셋째바도} 땡기고, 넷째바는 걸이. 그 걸이라고 이레 해가지고 이레 나무로 끼어 놓고.

6) 넷째바/걸이바/하장

넷째바는 배의 고물에서 네 번째로 위치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다. 셋째바 다음에서 ‘걸이, 좇’이라는 그물을 고정해 놓는 고정목을 빼는 사람이므로 ‘걸이바’라 부르기도 한다. 넷째바는 보통 배의 하장이 담당하는데 ‘하장’은 배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넷째바는} 걸이. 그 걸이라고 이레 해가지고 이레 나무로 끼어 놓고. 그물 안 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빼야 그기.
- ⇒ 그런 말은 잘 안 쓰는데, 보면 넷째바. 보통 하장이 보통 그걸 빼거든요. 하장이 제일 머니께네. 힘이 세니까 그거 힘 약한 사람은 안 빠지는 거지. {하장이} 제일 젊은, 젊은 사람이 하장이 하기 때문에 하장을 보통 그걸 맡기는 거지요.
- ⇒ 안목선에는 그는 이물 무상, 둘째바, {걸이바}, 사공이래 되거든.

7) 오동바/오동

오동바는 넷째바 다음에 위치한 사람을 부르는 말로 밖목선에서 배의 제일 앞인 이물에 있는 오동과 연결된 줄을 잡아당기는 사람이다. 사공과 마찬가지로 고기가 도망치지 않게 빨리 줄을 잡아 당겨야 하는데 오동바가 있는 자리에는 고리가 있어 줄을 고리에 풀리지 않게 단단히 동여매는 장치가 있다. 이를 ‘오동훔치기’라고 하였다. ‘오동바’는 오동과 연결된 줄을 의미하기도 하고 줄을 잡아당기는 선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오동’은 돛을 제외한 배의 높이를 의미한다. 오동이 배의 이물에 위치해 있으므로 배의 높이로도 이해할 수 있다.

- ⇒ 사공, 둘째바, 셋째바, 넷째바, 오동이. {오동이} 제일 앞에 이물에. 배 치면은 제일 앞에 이물에 그거 이자 오동을 빨리 땡겨가지고 걸치 주자 고기 안 넘어가게끔 땡기는데.
- ⇒ 요게 인자 {오동이라} 하는 게 아닙니까? 제일 앞에 사람이 요걸 거다 올리야 고기 안 넘어가지에. 인자.
- ⇒ 그래 인자 {오동을} 멀기 땡기면은 이제막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고리 있어가지고 쪼이 들어가거지. 그래가 빨리 올리빠야 적은 배 저거는, 밖귀잡이라하는 저거는 혼자 하거든요. 혼자기 때문에 많이 힘을 못 쓴다 아닙니까? 그면 걸이는 똑같은 걸인데 밖목선 오동이 많이 땡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고리가 있어가지고 훔치가지고 올린다는 거지.
- ⇒ 아 이물에 있는 사람이. {오동바}, 인자 바를 잡는다 이 말입니다. 줄로.

8) 이물무상

안목선, 안귀잡이, 밖귀잡이에서 배의 앞인 이물에 위치한 선원을 이르는 말이다.

- ⇒ 이물에서 한다고 {이물무상}, 배 이물에서 한다고, 이물무상이라. 그러니까네 사공은 끝에 한다고 사공이거든. 노로 젓고 한다고, 사공이라 카고.

이상의 승어들이 관련 명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송어들이 관련 명칭

범주	조사 어휘		
송어들이 관련 명칭	전체 명칭	송어들이, 송어들이, 육소장망, 송어잡이	
	부분 명칭	6척의 배	밖목선, 안목선, 밖장등, 안장등, 밖귀잡이, 안귀잡이 논마이(밖목선, 안목선 외의 뒤에 움직이는 배) 운반선/동력선/발동기/관리선
		배 부속물	쫓/쫓대/걸이(그물을 배에 고정시키는 도구) 닷도, 노, 노꾸리
		기타	망대/망, 바, 망바/망뚜리(망대와 배를 연결하는 선) 올림줄/올림(이물), 비움줄/비움(고물) 도래
종사자 명칭	어로장/망쟁이/망장이/망수/망전 부어로장/부망재이/부망수 첫째바/사공, 상바, 둘째바, 셋째바, 넷째바/걸이바/하장 오동바/오동, 이물무상		

2.2. 고기 잡기

본격적인 송어들이 조업은 음력 1월 보름경에 시작된다. 망대 아래 고사장에서 돌아가신 망쟁이들에게 고사를 지내고 송어들이 어장에 어구를 치는 ‘사개 치기’ 작업을 하면서 5월경까지의 송어들이가 시작되는 것이다.

2.2.1. 시기

1) 계절

송어들이 작업은 음력 1월 보름경에 시작된다. 즉 양력 3월부터 양력 5월경까지 3개월 정도 작업이 이어진다.

- ⇒ 시기, 전에는 보름밥 먹으면, {음력 일월 보름} 밥 먹으면 바로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가 가지고 한 달 정도는 고기 찌매이 잡고 못 잡고 막 고생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자 오늘부터 나갔어요. 오늘부터 착수를 했어요.
- ⇒ 네, 그거는 다른 데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삼개월, 삼개월. 이개월이면 이개월. 마칠 때까지 딱 그 자리에서만. 지금 {삼월, 오월} 그래요.

2) 물때

송어들이 작업에 적당한 물때는 물살이 조금 빨라지는 때이다. 물살이 느리면 물이 깨끗해서 고기들이 장애물을 다 알고 피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살이 빨라지는 사리때가 좋은데 ‘다섯물에서 열세물’ 정도가 좋다. 가덕도에서는 ‘사리때’를 ‘시때’라 한다. 물살이 느려지는 조금때인 ‘열세물에서 네물’ 사이는 송어들이 작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 보통 다섯물. {다섯물에서 열 두물 세물}. 물이 조금 가야 조금때는 물이 잘 안 가잖아요. 물 조로가 이 썰물 되면은 이 가는 식에. {시때} 되면은 썩게 빨리 많이 나고 물이 빨리 내려가거든. 그래가지고 {조금때} 되면은 물도 안 가고. 많이 안 빠지기 때문에. 물이 맑다 이래 노거든요. 맑다. 물이 빨리 안 가기 때문에. 물이 맑으면 아무래도 고기가 뭐 다른 장애물이라도 있으면 내 아무리 고기라도 장애물이 있으면 잘 안 들어오거든요.
- ⇒ 그러니까네 {열 두 세물에서 보통 한 다섯물. 네물 사이} 요때는 인자 물 조로가 안 빨리 안 가기 때문에. 물이 안 가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고기가 잡기가 힘들다 하는 겁니다.

3) 바람

송어잡이 하기에 좋은 바람은 동풍이다. 또한 아침에 북동풍이 불어도 송어들이 조업에 도움이 된다. 가덕도에 아침에 북동풍이 불면 이 바람이 오전 10시 넘어가면 동에서 부는 동풍으로 가덕도에 불기 때문이다. 동풍을 가덕도에서는 ‘셋바람’이라 한다. 그리고 북동풍은 ‘높새, 노불’이라 하는데 북동풍이 부는 것은 ‘북동풍 하다, 노불 논다’라 표현한다.

- ⇒ 저 동풍이지요. {동풍}.
- ⇒ 우리는 셋바람, {셋바람}.
- ⇒ 그래 북동풍은 {북동풍은} 아침에는 북동풍을 나갔다가 한 열시나 되면 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풍이 온다는 거지.
- ⇒ 우리는 인자 {북동풍을 한다는} 부르는 거는 그 {노불 논다}. 아침 일찍 노불 논다 이라거든요.
- ⇒ 그러니까 높새, {노불} 논다 하는 게 높새바람, 하나의 높새라 하는 거는 북동풍이 요에 부르기 높새바람 하는 셈이고, 요개 저 아까 맹그로, 동으로 돌아오면은 셋바람 하는 기고.
- ⇒ 예, 아침 일찍 부는 거는 높새, {높새바람}. 열시나 넘어가면 동으로 해가지고 오면 완전히 셋바람.

4) 시간

음력 1월 보름 경 송어들이 조업을 시작하면 물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새벽 5시 정도가 되면은 사개를 쳐 놓은 송어들이 어장에서 조업이 시작된다. 5시 정도에 어장에 나가 송어가 없는 날은 일찍 마을로 돌아오고 송어떼가 어장 앞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송어가 어구에 들기를 기다린다. 어떤 날은 밤까지 기다림이 계속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업을 나가는 시간도 조금씩 달라진다. 송어들이 하는 시기를 크게 ‘초살, 중살, 막살’로 나누고 음력 1월 보름 경인 3월에는 ‘초살’이라 해서 새벽 다섯 시에 나가고 4월 정도 되는 ‘중살’이 되면 작업 시간이 더 빨라진다. 고기들의 움직임이 그 만큼 더 빨

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살이 되면 새벽 4시 정도에는 조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송어들이 작업을 종료하는 ‘막살’ 시기인 5월이 되면 송어떼의 양도 점점 줄어들어 한 해의 송어들이를 마감한다. 이렇게 송어들이를 마감하는 것을 ‘시마이 하다, 시마이 놓다’라 한다.

- ⇒ 조업하는 시간은 저거는 짬이 없어요. {새벽에} 보통 요새 같으면 {다섯 시나} 이래 되면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면 고기가 송어가 없어도 좀 일찍 들어오는 거고, 송어 저 발 앞에 이렇게 놓고 있으면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 또 한 되면 또 {밤} 시기도 해요.
- ⇒ 인제 그렇게 인자 내일부터 인자 아침에 시간이 지금은 아직 지금 초기거든요. 이 {초살} 있고, {중살} 있고, {막살이} 있는데, 지금 초살에는 조금 늦게 가고, 중살에 조개 일찍 날짜 지나면 사월 이래 되면 한 네 시에 나갑니다. 마 인자 마지막에. 물때 인제 고기가 고기 행동이 날짜가 치면, 달력을 치면 괴기도 하는 행동이 틀리고, 매일 같이 오는 게 같이 오는 게 아니고 그때 되면 초살이라 하거든요. 사월 넘어가면 이거 중살이. 그때부터는 고기가 빨라지고. 그러니까네. 그때부터는 일찍 나가고. 그 다음에는 오월 달에는 따로 뭐. 넘어가면 그때는 조금 고기가 와도 많이 안 오고, 조금 약하게 오고 인자 그 때는 우리가 시마이 놓는, 날짜가 넘어가니까 우리가 시마이할 때가 다 됐거든.

2.2.2. 위치

매년 송어들이 어장은 변동이 없다. 송어들이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덕도 대항리 송어들이 어장도 160여 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어장의 위치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 송어잡이 어구를 치는 자리는 바닥에 바위 같은 어초가 있으면 쳐 놓은 그물이 찢어질 수 있으므로 어구를 치는 바닥은 아무 것도 없이 깨끗하다.

- ⇒ 예, {딱 그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좀 앞에 가도 만약에 어장을 깔아 놓고 있거든. 이 물 밑에다가. 그러면 바위 같은 거 있으면은 그물이 찢어지거든. 찢어진다 이말이야. 그러면 올려버리면 뭐 다 빠져 나가니까네. 그 자리만은 이 {밑에 아무 것도 없어요. 깨끗하게}, 그물이 안 찢진다께네. 그리고 고기가 오는 것도 보면은 거기에 타가지고 요 뺨 둘러가지고 오는 거고. 저 등대 쪽에서 오면은 그리로 싹 들어오기 때문에 딱 위치가. 요 송어도 시작하고는 딱 그 자리입니다.
- ⇒ 네, 그거는 다른 데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상마철 때 삼개월, 삼개월. 이개월이면 이개월. 마칠 때까지 {딱 그 자리에서만}.

2.2.3. 작업 과정

1) 사개 놓다/사개 치다/사개 막다/입낭하다/어구 얹혀 놓다/땃을 놔서 고정시키다

송어들이 작업은 음력 1월 보름경 송어들이 들어오는 길목에 ‘사개’를 치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개’는 여섯 척의 목선이 서있는 자리를 땃을 놔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여섯 척의 배가 작업 시 있는 자리를 고정하는 작업이다. 이와 함께 바닥에는 그물을 얹혀두어 작업을 하러 가면 작업 배를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바닥에 가라앉혀 둔 그물과 배

를 연결해 송어떼가 들어오면 그물을 당겨 고기떼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송어 어장에 각 배의 자리를 정해두고 바다에 그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사개’라 하고 이는 ‘사개 놓다, 사개 막다, 입냥하다, 어구 얹혀 놓다, 닻을 놔서 고정시키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중 ‘사개 막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입냥하다’는 ‘그물을 바다에 놓다’라는 말이다.

- ⇒ 사개라는 거는 배가 여섯 척이 있으면은 인저 배가 고정이 되어 된다 아닙니까. 그래 줄로 가지고 인자 닻을 놔야 된다는 결론이라. 그게 인자 {사개라} 하는 겁니다.
- ⇒ 사개. {사개 막는다}. 즉 말해서. 뺑 돌아서 배가 찰 수 있는 줄을 사개를 만든다.
- ⇒ 그렇지. 밖목선 고정시키는 사개 막고, 밖장등 사개 막고, 안장등, 밖귀잡이 지가 딱 위치에 있으면 줄로 이리 딱 고정을 시키놔야 한다 아닙니까. 고걸 인자 사개라 합니다. 사개. {사개 막는다}. 이런 거는 대구 잡는 어장도 마찬가지라. 사개 막는다.
- ⇒ 오늘은 가서 인제 사개로, 한 이 개월 할 동안 그 자리에 그물로 완전히 거서는 작업할 그거를 {어구로} 배가 준비를 해가 다 {얹혀 놓고}.
- ⇒ 네, {사개부터 해가 놓고}, 요 줄 줄 비지에, 이게 전부 그 {닻을 놔가지고 배 고정시키는} 겁니다.
- ⇒ 오늘 {입냥했으니까네}, 정문에서 사신, 이 그러니까네. 어로장, 역대 어로장들 돌아가신 분들 짝 많다 아닙니까.



[표 25] 사개 치고 항구로 돌아가는 길

2) 배 닻 차고 나가다

사개를 치고 오면 다음 날부터 새벽 5시경이 되면 어장으로 나가 송어떼를 기다린다. 여섯 척의 배들이 함께 동력선에 이끌려 어장으로 향하는 것이다. 배들이 출발할 때의 모습을 ‘닻 차고 나가다’라고 표현하였다.

- ⇒ 그렇지에. 동력선. 여기는 새벽에 나갈 때도 이 {배들은 닻 차고 나갈 때} 이용하고, 저녁에 채수해가 올 때도 이용하고. 고기 잡으면 고기 운반 이용은 다 해주요.

3) 좃대 꿰다, 어장 막다, 배 고정시키다

여섯 척의 목선에 있는 ‘좃대’는 배에 그물을 꼭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남성의 생식기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어잡이가 시작되면 그물을 잡아 당겨 올려야 하므로 이 좃대를 빼고 신속히 그물을 올려야 한다. 이처럼 송어잡이가 시작되기 전 닻을 내리고, 바다에 가라앉힌 어구와 배를 고정해두는 좃대를 꿰어 배와 그물의 자리를 고정 시켜야 한다.

- ⇒ {좃대라는} 게 그랬다 아닙니까. 아니 줄로가 요 딱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거기에 다 {꿰우는} 기라. 꿰어가지고 딱 잡고 있는 거지. 밖목선에서, 잡고 있다가 ‘밖목선 해라’ 하면은 마 힘센 사람이 빼빼는 거지. 요기 쏙 빠진다는 결론이지.
- ⇒ 네, 사개부터 해가 놓고, 요 줄 줄 비지에, 이게 전부 그 닻을 놔가지고 {배 고정시키는} 겁니다.

4) 바위가에 묶다/가로 붙이 놓다, 작대기로 밀다

송어들이 작업을 가서 여섯 척의 배를 고정할 때 1차적으로 닻과 좃대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안목선’과 ‘안장등’은 육지와 가까우므로 닻을 내리지 않고 육지의 큰 바위에 배를 묶어둔다. 배를 육지 쪽에 붙일 때는 세계 부딪히면 배가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작대기(노)로 밀어가면서 배가 바위에 세계 부딪히지 않도록 조절을 해가면서 바위에 묶어야 한다.

- ⇒ 요기는 인제 저가 {가에 바위에 묶으는} 거지. 한 {가에 배를 붙여놓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가에만 부치면 안가는 없는 셈이지.
- ⇒ 거기 가 보면은 한 가로 볼 때 보면, 이 {작대기 가지고 파도에 배가 안 뿌리지겠끔 밀어}가면서 가로 붙이놔야 되는 거라에. 한 가로부터 오기 때문에. 안목선 같은 데는 안목선, 안장등은 닻을 안 쓰고, 가에다가 {돌 바위에다 묶어놓고} 땡기 놓는 거라에.

5) 바위 타다, 망대에서 내려다 보다

배 여섯 척이 바다에 고정을 시켜 두면 이제 기다림은 시작된다. 어로장과 부어로장은 산을 타고 망대에 올라가서 송어떼들이 몰려 오는지를 망대에서 내려다 보고 기다린다.

- ⇒ 옛날에는 그냥 걸어서 올라갔어요. 갖다 주러. {바위 타고}.
- ⇒ 그러면 아까 산에 가서 {망대} 봤지요? 거기서 사람이 막 {내려다 보고} 있고 있으면은 이 고기가 이 많이 뭉쳐오면은 이 붉은 빛을 내요.

6) 송어 기다리다

송어들이는 대부분의 조업 시간을 송어떼를 기다리면서 보낸다. 큰 소리를 내면 송어떼가 알아차리므로 조용히 송어들이 어구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선원들은 잠을 자기도 하고, 라디오를 듣기도 하면서 어로장의 신호를 기다린다.

- ⇒ {송어} 저 발 앞에 이렇게 놓고 있으면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

7) “봐라”, “밖목선 해라”, “안목선 해라”, “같이 해라”

망대에서 바다를 내려다 보고 있는 어로장이 붉은 빛의 송어떼가 어구 쪽으로 몰려들어가는 것이 보이면 드디어 작업지시를 내린다. 첫 마디가 ‘봐라’이다. ‘봐라’라고 지시를 내리면 6척의 배는 일시에 긴장을 하며 어로장의 다음 지시를 기다린다. 이제 고기가 어장 안으로 들어가면 고기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그물을 들어 올려야 하는데 이는 ‘해라’라는 다음 작업 지시로 이뤄진다. 어로장이 ‘해라’ 하고 다음 지시를 내리면 먼저 밖목선이 움직인다. 밖목선의 좇대를 빼고 재빨리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조금만 늦어도 송어잡이를 망칠 수 있으므로 최초 작업 개시 배인 밖목선의 작업이 중요하다. 밖목선의 작업에 이어 안목선도 함께 그물을 들어올려 송어가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 고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 두 배에 이어 나머지 여섯 척의 배들도 어로장이 ‘같이 해라’하면 작업을 일사불란하게 함께 한다. 조금만 늦어도 고기들이 튀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밖장등과 안장등은 그물을 들어 올려주고 밖귀잡이와 안귀잡이도 그물을 조아 준다.

- ⇒ 어로장이 제일 먼저 밖목선을 보고, {“봐라”} 하는 기라. 그러면 준비해라 그런 뜻이지예. “봐라” 하는 거는. 준비해라. 고기가 얼추 다 왔으니께네, 딱 지 자리서 앉아라. 준비 딱 해가 있어라. 봐라. 그 말 한 마디에 여섯 척이 전부 딱 긴장 속이라. 딱 둘러 잡고 준비를 하는 거지예. 그러면 망에서 인자 밖목선 저 사공을 보고 인자 {“해라”} 한다고. 하면은 올림줄 이거 딱 티아 주면서 한 차에 막 그때는 진짜 이 입에서 하근내가 날 정도입니다. 그 탁 퍼떡 수이 안 올리면은 못 잡으니까네.
- ⇒ 그거는 인자 고기가 만약에 어장에 요 나와있으면 고기가 저 온다 아십니까? 그러면 아까 산에 가서 망대봤지요? 거기서 사람이 막 내려다 보고 있고 있으면은 이 고기가 이 많이 뭉쳐오면은 이 붉은 빛을 내요. 그러면 우에 산에서 어로장이 {“봐라”} 이래 오는 거라. 근데 지금은 그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요 고루로 만들어가 나무를 박아 놓은 게 있어요. 쌍말로 막 “좃빠라” 이란다고. 요를 빠라 이란다 말입니다. 그래야 어장이 올라오거든요. 용어를 많이 쓰고, 지금 와가지고는 고마 “봐라”. 밖목선 뭐 {“밖목선 해라”} 그러면은 인자 뭐 조금 오늘도 보면 {“안목선 해라”} 그런 식이 되는 거지요.
- ⇒ 그렇지요 “봐라” 해가지고 딱 줄 딱 잡고 막 이 대기되어 있다가 “밖목선 해라” 그러면 순간이지요. 순간. 얼추 다 쪼아지면은 {뒷배 다 해라}.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8) 주 땡기다, 올리삐다, 딱 쪼아뿌다, 괴기 몰아 이빠이 올리다, 망쟁이 땡기다, 한참 대차게 놀다

송어떼가 어장 안으로 들어와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면 한 번에 그물을 들어 올려 고기를 가두는 작업이 중요하다. 밖목선을 선두로 6척 배가 모두 ‘그물 죄기’를 하면 멀리 망대에 있는 ‘어로장’과 ‘부어로장’도 망바를 당겨 힘을 보탠다. 이를 표현하는 어휘로는 ‘그물을 땡기다, 한참에 땡기다, 빨리 올리삐다, 이빠이 올리다, 딱 쪼아뿌다, 망쟁이 땡기다’ 등이 있다. ‘그물을 당겨 올린다’는 의미이다. 이런 그물 올리기 작업의 전반적인 모습을 ‘대차게 놀다’라고 표현하였다.

- ⇒ {그물을 땡기야지예}. 땡기면 고기가 자동적으로 이 쪼이 올라가 뜬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동두리하는 거지예. 동두리하고, 발동기 옆에 하면 딱 또 두습니다. 두고.
- ⇒ 그렇지예. 앞에 배가 요 입구를 얼추 막았는 상태 글으면은 이 사람들은 그물을 다 들고 있거든. 들고 있으니까네, 이 사람들은 천천히 해도 되, 고기 안 새어나가게 그러면 뒷배 다 나눈다 하면 요게 몇 채 막 {한참에 땡기뿌리거든}.
- ⇒ 그래가 {빨리 올리빠야} 적은 배 저거는, 밖귀잡이라하는 저거는 혼자 하거든요.
- ⇒ 저거 뭐 하는 데는 한 삼십, 일 분. 일 분도 채 안 걸릴 겁니다. {딱 쪼아뺏} 때는.
- ⇒ 올림줄에 {이빠이 올리놓고} 나면, 비음줄은 자동적으로 배가 따라 올라간다기네.
- ⇒ {망쟁이 거기서 땡겨가지고}.
- ⇒ {한참 대차게 노는} 거죠.

9) 뒷배는 설설하다

어장의 입구를 막기 위해 밖목선과 안목선이 먼저 작업을 시작해도 4척의 뒷배는 조금 여유가 있다. 어로장이 다시 ‘같이 해라’라는 지시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뒷배들은 작업에 천천히 가담한다는 말이다. 이를 ‘뒷배는 설설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설설하다’, ‘살살하다’와는 의미 차이가 있다. ‘일을 설설하다’라는 표현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지 않는 모습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표준어 ‘설렁설렁하다’의 의미와 연관이 된다.

- ⇒ 차단시끼뿌면은 뒷배들은 인자 {설설해도}.

10) 중간 잡아주다/들어 주다

밖목선과 안목선이 어구를 입구를 막기 위해 그물을 조아주는 작업을 할 동안 ‘안장등’, ‘밖장등’ 배는 중간에서 그물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이런 작업을 ‘중간 잡아주다, 들어 주다’라 표현한다.

- ⇒ 글썸 인제, 그러니까네. 요기 쪽 있으면 {중간을 잡아준다} 결론이지예. 이 사람들은 양쪽 길을 가지고 땡기지만은 이 사람은 이거만 {들어만 주면} 되는 거라요. 그렇게 장등배라 그래. 쪽 퍼져 있는 거 인자 중간에 잡아주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11) 퍼 올리다/담아 올리다, 고기 뜨다, 동두리 하다

그물을 조아 고기가 도망가지 못 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수확 작업을 한다. 그물에 있는 송어를 배에 싣는다는 말이다. 이를 ‘퍼 올리다, 담아 올리다, 고기 뜨다’라 표현한다. 또한 잡힌 송어떼가 많으면 떠 올리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동두리’라는 그물을 쓴다. 배에 있는 그물로 잡힌 고기를 많은 분량 한꺼번에 떠올릴 수 있는 그물로 큰 그물에 잡힌 고기를 작은 그물로 떠 올린다는 것이다. 동두리 그물을 이용해 고기를 떠올릴 때는 여러 사람이 동두리 그물로 송어떼를 딱 싸서 고기가 떨어지지 않게 한 다음 들어 올리는데 송어가 많이 잡힐 때는 이 동두리 작업 여러 번 반복한다. 이처럼 동두리 그물을 써

고기를 떠올리는 작업을 ‘동두리 하다’라 표현한다.

- ⇒ 그래, 그래니께네. 저런 식으로 사람이 뛰어 올라가고 할 정도로 배를 붙이야 이자 고기를 인자 이 {퍼 올리는} 거지예. {퍼 올리는 거는} 저 뒤에 저런 식으로 동두리라, 하나의 동두리라 하거든. 동두리. {동두리 하는} 거는 {고기를 담아가지고} 마 한 어떤 데는 사백 마리씩 주 담습니다. 가가지고 사람이 여러 사람 붙어가지고 그물로 딱 싸고 땡기 올리야 올리제. 예, 동두리 그물은 또 이 실이 굵은 게 또 있어요. 얼마치 또 달거만에. 저저 저도 마찬가지로. 저서 싸가지고 여러 사람이 올리는 게 동두리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도 더 하는 거지요. 저거는 몽땅 고기를 못 올리기 때문에 짝매이 짝매이 해서 {담아 올리는} 게 동두리 하는 거예요. 동두리.

12) 알맹이 하나 내롱다, 주산 알 내려 가다

잡은 고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할 때는 ‘산’이라는 도구를 이용한다. 주산알을 가지고 만든 고기 셀 때 사용하는 도구로 스무 마리에 주산 알 하나를 내린다. 송어는 스무 마리를 ‘열’이라 하고 100마리를 ‘동’, 1000마리를 ‘접’이라 한다.

- ⇒ 그렇지요. 예. 스무 마리를 쪽, 이 쪽지다가 세다 넣으면은 열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저 {알맹이 하나 내루는} 기라.
- ⇒ 스무 마리를 열 하거든요. 열 하면 저 {주산 알 저게 하나 툭 내려가는} 거라요. 그러면 저 주산알로 헤아리보면 오늘 천 마리를 잡았다. 만 마리를 인자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지.
- ⇒ 주산알로가 그 맹글어 났습니다. 그러니까네. 주산 알 하날에 우리가 열 하거든요. 스무 마리로 인제 하나들 세 가지고 두말 세 가지고 열을 하면 주산은 인자 두 마리 열하면 {주산은 한 개가 내려갑니다}.

13) 다 버리삐다/물에 보내삐다

잡은 송어 중에서 너무 작아서 상품성이 없는 것은 바다에 버린다. 그리고 너무 많은 송어가 잡혀도 일부는 버린다. 송어가 많이 잡혀 어판장에 내놓으면 그만큼 송어 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송어 이상이 잡히면 다시 바다로 돌려 보내고 다음 날 와서 다시 잡는 방법을 택하는데 이는 송어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 ⇒ 예, 그러면 그 중에 또 잔기 섞인다 아닙니까? 그러면 인자 짜만한 거 모칠. 그 다음에 큰, 거서 조금 크다는 게 중부리. 그런 거는 돈 가치가 안 되는 기고 그런 거는 널찌 {다 버리삐야야지}.
- ⇒ 내일 작업을 하면 거기 있으면 내일 잡은 거는 가서 인자 오백 원밖에 못 받는 거래요. 그래이 그거는 물에 에꾸를 다 부 {보냈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네 그거는 보내는 거는 몇 마리인가 그거를 확인을, 안 세보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14) 배 채수하다, 고기 운반하다, 철수하다

그물에 갇힌 고기를 다 잡아 올리면 이제 그날의 송어들이 작업은 끝난다. 이제 잡은 고기를 어판장으로 옮기는데 이때는 함께 다니는 동력선을 이용해 운반한다. 동력선은 여

섯 척의 작업선을 항구로 이동시키고 잡은 고기도 운반하는 것이다. 작업이 끝나면 어로장의 지시로 항구로 철수하는 것이다.

- ⇒ 여기는 새벽에 나갈 때도 이 배들은 닢 차고 나갈 때 이용하고, {저녁에 채수해가 올} 때도 이용하고. 고기 잡으면 {고기 운반} 이용은 다 해주요. 그런 배가 있습니다.
- ⇒ 그렇지. 같이 만약에 다섯 시 나간다고 하면은 이 어로장 판단해가지고 저 물기까지 함 가보고 고기 없으면 오늘 {철수하자} 하는 거야.

15) 시마이 하다/시마이 넣다

음력 1월 보름경에 시작된 송어들이는 양력 5월 경에 한해 송어들이를 마감한다. 그래서 바다에 가라앉힌 그물도 걷어오고 6척의 목선도 다음 해를 위해 공동시설에 보관해둔다. 한해의 송어들이를 정리하는 것을 ‘시마이 하다’, ‘시마이 넣다’라 표현하는데 ‘시마이’는 일본어로 ‘마치다’라는 의미이다.

- ⇒ 넘어가면 그때는 조금 고기가 와도 많이 안 오고, 조금 약하게 오고 인자 그 때는 우리가 {시마이 넣는}, 날짜가 넘어가니까 우리가 {시마이 할} 때가 다 됐거든.

2.2.4. 어획물

1) 종류

(1) 송어, 암송어, 수송어, 모칠/모찌, 중부리, 대송어, 전어, 감성돔

송어는 일반적으로 ‘송어’라 통칭해서 부른다. 하지만 크기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 크기가 작은 송어를 ‘모찌, 모칠’이라 하고 중간 정도의 송어는 ‘중부리’, 다 자란 송어를 ‘대송어, 송어’라 한다. 그리고 암컷은 ‘암송어’, 수컷은 ‘수송어’라 한다. 다른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암송어가 수송어보다 훨씬 맛이 있다. 또한 송어들이 어장에는 주로 송어를 잡지만 그 외의 물고기가 들어오기도 한다. 예전에는 전어나 감성돔도 몇 백 마리씩 잡은 적이 있다고 한다.

- ⇒ 아 그건 안 다르지. {송어는} 똑같지. 그 부르기는 모찌야. 중부리.
- ⇒ 송어는 {송어}.
- ⇒ {모찌}.
- ⇒ 그거는 인자 {모칠}, 째매난 거, 요거만 한 거는 모칠 하는 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를 고른 거는 중부리.
- ⇒ {중부리}.
- ⇒ 그 인자 송어. 대자 그러면 {대송어}.
- ⇒ {암송어는} 보면은 통통하고, {수송어는} 좀 썰썰한 썸이지. 맛을 보면은 암송어 우리가 굉장히 맛이 있지예.
- ⇒ 그렇지예. 요 보면은 전어도 그레께네 뭐 백번 중에 한 번 정도. {전어도} 한 번씩 뭐 우리 어

릴 때 보면 {감성돔} 그것도 한 몇 백 마리 잡은 것도 있어요.

2) 상태

(1) 통통하다, 셀쫼하다

암송어와 수송어의 생김새는 조금 다르다. 암송어는 몸통이 조금 통통한 편이고 수송어는 몸통이 암송어에 비해 통통하지 않고 길이감이 더 있는 편이다. 이를 ‘통통하다, 셀쫼하다’라 표현하였다.

- ⇒ 암송어는 보면은 {통통하고}, 수송어는 좀 {셀쫼한} 셈이지. 맛을 보면은 암송어 우리가 굉장히 맛이 있지예.

2.2.5. 단위

1) 마리, 열, 동, 접

송어를 세는 기본 단위는 ‘마리’이다. 스물 마리를 ‘열’이라 해 산의 알맹이 하나를 내리는데 백은 ‘동’, 1000은 ‘접’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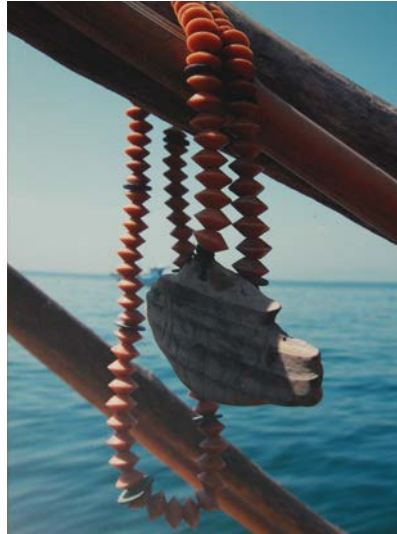
- ⇒ 스무 마리를 {열} 하거든요. 열 하면 저 주산 알 저게 하나 툭 내려가는 거라요. 그러면 저 주산알로 헤아리보면 오늘 천 {마리를} 잡았다. 만 마리를 인자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지. 한 동, 한 {동}. 천마리를 한 {접}.

2.2.6. 도구

1) 산/잡는 산/주산알

잡은 송어를 세는 도구는 ‘산, 잡는 산’이라 한다. 이는 주산 알맹이를 줄에 끼워 만든 것으로 송어 스무 마리에 주산 알맹이 하나를 내린다.

- ⇒ 그기 우리가 {산이라} 하지. 인자 {잡는 산이라} 하지.
- ⇒ {주산알로가} 그 맹글어 났습니다. 그러니까네. 주산 알 하날에 우리가 열 하거든요. 스무 마리로 인제 하나들 세가지고 두말 세가지고 열을 하면 주산은 인자 두 마리 열하면 주산은 한 개가 내려갑니다.



[사진 26] 산

2) 어장 꾸미는 도면

송어들이 어장을 만들 때는 어구나 배의 위치를 정해서 사개를 친다. 사개를 치기 위해 어로장은 일종의 설계도 같은 것을 만드는데 이를 ‘어장 꾸미는 도면’이라 하고 이를 보고 사개를 치고, 어구가 찢어지면 보수도 한다.

- ⇒ 이거는 인자 어구가 어장에 만약에 파도가 많이 올 때 안 빠왔을 경우에 그러면 놔뵈다 아님 니까? 그러면 파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찢어진다고 하거든요. 찢어지는 경우에는 여기 도면이 있어요. {어장 꾸미는 도면}.

3) 물차

고기를 실은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바로 물차에 실어 판매처에 보낸다. 신선한 송어를 거래하기 위해 물차에 1000마리 정도를 실어 보낸다.

- ⇒ 어판장에 넘기는 게 아니고, 물차가 바로 옵니다. {물차}. 물차가 오면은 한 물차에 큰 거는 한 천 마리씩 실어예. 실으면 저 사람들은 인자 각지에 다 가져가는 거지예.

2.2.7. 금기

송어들이 어업에도 안전하게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지켜야할 금기 사항이 있다.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이 금기 사항을 아주 엄격히 지켜 조업을 하였지만 요즘은 선원들이 일이 힘든 송어들이 배를 많이 타지 않으려고 해 금기 사항이 많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한다.

1) 개고기 안 먹는다

꼭 지켜야 할 금기 사항으로는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있다.

⇒ 그렇지요. 여기는 여기는 {개고기는 아예 안 먹어요}.

2) 짐승 잡지 않는다

짐승을 잡는 것도 부정을 타 조업이 원만치 않게 된다고 믿는다.

⇒ 그러니까네 여기는 {짐승 같은 거는 절대 잡아서는 안 되고}, 그거는 부정을 탄다고 해가지고 개 같은 건 절대 상각을, 그러나 요새는 옛날하고 틀려서 거기 안 믿겨. 옛날에는 해가지고 개 이런 거 먹었다 하면 배 선인들 앉아 놓고 하차도 시켰는데, 지금은 고마 세상이 이렇다 해도 그 하차시켜버리면 다른 사람을 데리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태운다. 그러니까 묵어도 태워야지.

3) 여자 배에 안 태운다

조업하는 배에 여자를 태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부정을 탄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고사를 지낼 때는 음식을 담당하는 여자들을 배에 태워서 고사장까지 데리고 갔다고 한다.

⇒ 전에는, 옛날에는 {여자들이 아예 안 탔어요}. 그런데 고사지낼 때만은 여자를 싣고 갔거든요.

2.2.8. 기타

1) 고기가 뭉쳐 오다, 붉은 빛을 내다/붉은 색이 나다, 발 앞에 놀다

송어는 떼를 지어 이동한다. 뭉쳐서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산에 있는 망대에서 송어떼를 보면 바다가 붉은 빛을 낸다고 한다. 어로장은 이를 보고 송어떼가 어장 쪽으로 오는 것을 파악한다. 송어가 어장 앞에서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을 ‘발 앞에 놀다’라 표현한다.

⇒ 그거는 인자 고기가 만약에 어장에 요 나와 있으면 고기가 저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산에 가서 망대 봤지요? 거기서 사람이 막 내려다 보고 있고 있으면은 이 {고기가 이 많이 뭉쳐 오면은} 이 {붉은 빛을 내요}.

⇒ {약간 붉은 색이 나지요}.

⇒ 나가면 고기가 송어가 없으므로 좀 일찍 들어오는 거고, {송어 저 발 앞에 이렇게 놀고 있으면}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

2) 그물 찢어진다/ 찢어진다, 고기 다 빠지다, 튀 넘어 가다

송어들이 조업을 하는데 그물이 찢어지면 송어가 다 빠져 나가 버린다. 그래서 송어들이 어장을 만들 때 바다 바닥에 바위가 없이 평평한 곳에 그물을 쳐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 고기들이 도망가지 못 한다. 또한 조업 중에도 그물이 찢어지면 조업을 망치는 것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한꺼번에 많은 송어떼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면 송어가 배를 튀어 넘어 도망가는 일도 허다하다고 한다.

- ⇒ {찢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올려버리면 뭐 {다 빠져 나가니까네}. 그 자리만은 이 밑에 아무 것도 없어요. 깨끗하게, 그물이 안 {짜진다}께네.
- ⇒ 우리 이거는 만약에 한 십만 마리나 뭐 한 이십만 마리 만약에 어장을 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쪼았다 아닙니까? 쪼았으면 {튀넘어가는} 기 아마 한 몇 백 마리 됩니다. 이 그래 배 폭도 너른데도, 바로 바로 이 배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숫자가 많을 때는 튀넘어가는 그거 신경 안 써예.

3) 고기가 빛을 보면 나가부다, 배를 새까맣게 칠하다, 물소리가 착착나다, 나무 쓰다
 송어는 예민해서 빛을 보거나 소리가 나면 위험을 감지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송어들이 할 때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배는 하얀색처럼 밝은 색을 칠하면 안 된다. 고기가 빛을 보면 어장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어들이 배 겉 부분은 검은 색으로 칠한다. 또한 송어는 소리에도 민감하므로 배의 재질이 요즘 많이 쓰는 FRP 재질도 이용하지 못 한다. 이 재질로 만든 배는 파도가 닿으면 목선에 비해 소리가 많이 난다. 그래서 송어들이 배는 여전히 나무배를 이용하는 것이다.

- ⇒ 밖목선은 안목선, 안장등, 안귀잡이 같은 이런 {배들은 또 새카매 저래 색칠해놨다} 아닙니까. 하얀 색칠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고기가 빛을 보면 오다가도 나가뿐다는} 결론이제. 그리고 저 밖장등 가지고 저거 FRP 이 배 저거는 파도가 조금 오면은 꿀랑꿀랑 이래 된다고, 그러면 {물소리가 착착 난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히 더 못 쓰는 기지예. 목선이라야 이거 흔들어도 그냥 흔들 수 있는데, 충격을 크게, 소리 안 내주는 거라. 그 때문에 저거 {나무를 씁니다}.

4) 빠짝빠짝 하얀 시그리를 낸다, 빠딱빠딱 하다

송어떼는 밤에는 하얀 빛을 낸다고 한다.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여러 마리가 함께 움직이고, 꼬리지느러미를 움직여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것이다. 이를 제보자들은 ‘시그리를 내다, 빠딱빠딱 하다’라 표현하였는데 이를 보고도 송어떼의 움직임을 파악해 밤에도 송어잡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시그리’는 달빛에 고기비늘이 반사되어 생기는 빛일 것이라 하였다.

- ⇒ 그러니까네. 밤에 보면 작대기를 같은 거를 막 이래 하면 {빠짝빠짝하는 시그리를}, 예 고런 식 고기도 꼬리치는 고런 {시그리를 내} 오는 거라. 그거를 보고 밤에도 잡는다 이 말입니다. {빠딱빠딱하는} 게 보인다고요. 한 마리 두 마리가 많은 숫자로 하기 때문에. 하얘가지고 이 빠짝빠딱하는 거지요.

이상의 고기 잡기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고기 잡기 관련 어휘

범주	조사 어휘		
고기 잡기	시기	계절	음력 보름경, 양력 5월, 3개월
		물때	다섯물에서 열세물, 사리때, 조금때, 열세물에서 네물
		바람	동풍, 셋바람, 북동풍, 노불, 높새바람, 북동풍 한다, 노불 논다.
		시간	새벽 5시 정도, 밤, 초살, 중상, 막살
	위치	바다 밑에 아무 것도 없는 곳, 매년 같은 자리	
	행위	1) 사개 놓다, 사개 치다, 사개 막다, 입낭하다, 어구 얹혀 놓다, 닳을 낚서 고정시키다 2) 배 닳 차고 나가다 3) 좇대 꿰다, 어장 막다, 배 고정시키다 4) 바위 가에 묶다, 가로 붙이 놓다, 작대기로 밀다 5) 바위 타다, 망대에서 내려다 보다 6) 송어 기다리다 7) “봐라”, “밖목선 해라”, “안목선 해라”, “같이 해라” 8) 주 땡기다, 올리빠다, 딱 쪼아뿌다, 괴기 몰아 이빠이 올리다, 망쟁이 땡기다, 한참 대차게 놀다 9) 뒷배는 설설하다 10) 중간 잡아 주다, 들어 주다 11) 고기 퍼 올리다, 고기 담다, 고기 뜨다, 동두리 하다 12) 알맹이 하나 내롱다, 주산 알 내려 가다 13) 다 버리빠다, 물에 보내빠다 14) 배 채수하다, 고기 운반하다, 철수하다 15) 시마이 하다, 시마이 놓다	
	어획물	종류	송어, 암송어, 수송어 모칠/모찌(小), 중부리(中), 송어(大), 대송어 전어, 감성돔
		상태	통통하다, 셀쫌하다
	단위	1=마리, 20마리=열, 100마리=동, 1000마리=집	
	도구	주산알/산/잡는 산, 어장 꾸미는 도면, 물차	
	금기	개고기 안 먹는다, 짐승 잡지 않는다, 여자 배에 안 태운다	
	기타	1) 고기가 멍쳐 오다, 붉은 빛을 내다/붉은 색이 나다, 발 앞에 놀다 2) 그물 짜지다/찢어진다, 고기 다 빠지다, 튀 넘어 가다 3) 고기가 빛을 보면 나가뿌다, 배를 새까맣게 칠하다, 물소리 착착 나다, 나무 쓰다 4) 빠짝빠짝 하얀 시그리를 낸다, 빠딱빠딱 하다	

2.3. 고사 지내기

2.3.1. 명칭

송어들이 조업이 아무 사고 없이 이뤄지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고사를 지낸다. 고사는 지내는 행위를 ‘입막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역대 고사장들의 입을 막아 불평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 한다. 가덕도 대항리의 고사가 특별한 것은 고사의 대상이 바로 역대 송어들이 어로장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의 입막음을 해서 한 해의 송어잡이가 평온하길 바란다.

- ⇒ 오늘은 {고사날은} 아니거든요. 첫 {입막이다} 해서, 소주잔을 아마 부어 냈을 겁니다.
- ⇒ 전부 다 확 밥 떠놓고 그러니까. {고사 지낼} 때는.

2.3.2. 대상

가덕도 대항리 송어들이 고사는 ‘역대 어로장’을 모시는 것이다. 그만큼 송어들에서 어로장의 역할은 중요하며 이는 이미 돌아가신 어로장을 정성껏 모시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 ⇒ 오늘 입냥 했으니까네, 정문에서 사신, 이 그러니까네. 어로장, {역대 어로장들} 돌아가신 분들 짝 많다 아닙니까. 전부 다 확 밥 떠놓고 그러니까. 고사 지낼 때는.
- ⇒ 예. 아무래도 인자 {어로장} 눈에 잘 보이게 해줄라하고, 옳은 고기 좀 잘 잡히게끔 하게. 일종의 하나의 교인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어업에서는 미신 아닙니까.

2.3.3. 위치

예전에 송어들이 고사는 망대가 있는 산 아래, 어장이 보이는 바닷가 바위 위에서 지냈다. 하지만 망대가 있는 산이 높고 급경사라 아래 공간도 위험해서 요즘은 바닷가에서 고사를 지내지 않고 새로 만든 고사장에서 지낸다. 고사장은 망대에서 조금 산 아래로 내려오는 위치에 있고 여기서는 어장이 내려다보인다.

- ⇒ 거기 인자 {고사장}. 옛날에는 고사 지내면 제일 밑에 {바위} {물가서} 지냈는데, 거 보니 돌이 금방 떨어지기 직전 식으로 위험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고사 사람들 모셔다놓고 무너진다면 이게 인명사고 굉장히 난리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인제 밑에서 안 지내고 위에서 지낼 수 있게끔 고사장이지요.

2.3.4. 시기

송어들이 고사는 음력 1월 보름경 송어들이를 하기 위해 바다에 사개를 치는 날에 간단히 지낸다. 바다에 그물을 가라앉히는, 입낭을 할 때 고사를 지내 한 해의 송어들이 조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또한 날짜가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지만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으면 또 고사를 지내는데 사개를 친 후 조업이 잘 되지 않으면 4월 초경에 고사를 다시 지낸다고 한다.

- ⇒ 오늘 {입낭 했으니까네}, 정문에서 사신, 이 그러니까네. 어로장, 역대 어로장들 돌아가신 분들 짝 많다 아닙니까. 전부 다 확 밥 떠놓고 그러니까.
- ⇒ 그거는 날짜는 없어요. 송어들이에서 인제 알아서, {고기가 안 잡힌다든지}. 그러면 마. 아마 사월, {사월 초쯤} 되면 고사지낼 거예요.

2.3.5. 차림상

가덕도 대항리 송어들이 고사에서는 고사상에 ‘신발’을 올린다. 이는 역대 어로장을 위한 것으로 어로장을 위한 신발을 한 켤레씩 올리고 고사가 지나면 버리고, 다음 고사에도 다른 신발을 올린다. 이 외에도 다른 고사상과 마찬가지로 여러 음식을 올리는데 대표적인 것이 잡은 ‘송어’를 올리거나 ‘소주, 돼지, 밥’ 등이다.

- ⇒ 예. 아무래도 인자 어로장 눈에 잘 보이게 해줄라하고, 옳은 고기 좀 잘 잡히게끔 하게. 일종의 하나의 교인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어업에서는 미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다 보니 까네 신발 그거하고, 신발은 한 번하고 나면 또 다 버리뿌예. 버리갖고 또 다음 해 오면 또 새 신발사고. {한 사람에 신발 한 켤레씩} 짝 놓습니다. 고사 지낼 때는. {밥도} 한 사람에 한 그릇씩 짝 놓고. 오늘은 고사날은 아니거든요. 첫 입막이다 해서, {소주잔을} 아마 부어 놔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집에서는 뭐 제사 지내는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 어로장들 돌아가시고 나니까네, 고사 지낼 때마다 신발을 하시더라고. 신발을 놓더라고요. 한 사람 한사람씩. 다른 거는 썩지요. 꼭 제사상 식입니다. 제사상 식이고, 오는 손님을 인제 대접하기 위해서는 보통 {돼지} 같은 것도 한 마리 잡고. {고기} 잡고 다음에 안 그면, 요새 육고기 잘 안 먹습니까. 고기 잡으면 {송어} 막 한 백 마리면, 백 마리 가져가지고 그거 뭐 판치고.

이상의 고사지내기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고사지내기 관련 어휘

범주	조사 어휘	
고사 지내기	명칭	고사, 입막이, 고사 지내다
	대상	역대 어로장
	장소	바위, 물가, 고사장
	시기	입낭하는 날, 흥어기, 사월 초
	차림상	신발 한 켤레, 송어, 소주, 돼지, 밥

2.4. 관용 표현

1) 남서풍 불라 하면 고기 많이 이동한다, 남서풍 불면 날 안 좋다

송어잡이와 관련된 관용 표현을 보면 고기의 움직임은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것, 혹은 날씨를 보고 고기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에 관련된다. ‘남서풍’을 위주로 판단하는데 송어떼가 움직임이 크면, 많은 수 이동하면 조만간 남서풍이 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남서풍이 불어도 송어떼의 움직임이 클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날씨도 흐려짐을 알 수 있다.

⇒ 보통 보면 인자 우리가 남서풍 카는 긴데, {남서풍이 불라하면 고기가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덩어리가 크고, 숫자가 많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은 벌써 요새 뭐 일기예보가 있고 하지만 옛날 사람들 일기예보 압니까. 하늘 보고, 하늘 쳐다보고, 구름 가는 거 보고 아 이거는 마 비가 오겠다. 안 그러면 남서풍이 불겠다. 그걸 예측 아십니까? 또 크게 불겠다. 예 그러면 고기떼가 많이 와가지고 움직일 때는 틀림없이 {남서풍이 한 번 불겠다. 아마 날씨 안 좋을 거다}. 예측을.

〈표 15〉 관용 표현

범주	조사 어휘
관용 표현	남서풍 불면 고기 많이 움직인다, 남서풍 불면 날씨 안 좋다

제 3 부

연 구 결 과

제 5 장 마무리

제 5 장 마무리

지금까지 민족생활어 조사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옥지도의 채낚기와 가덕도의 송어들이에 관련된 조사 어휘를 살펴보았다. 채낚기에 관한 생활어 조사는 경상남도 통영시 옥지도 동항리에 거주하는 김임옥, 이수용, 김삼춘, 김순금, 김홍국 씨를 제보자로 하였고, 송어들이에 관한 조사는 부산시 가덕도 대항동에 거주하는 김관일, 김은배, 서영자, 차선이 씨를 제보자로 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는 채낚기와 송어들이에 관한 여러 하위 범주로 나누어 관련 어휘를 조사·정리하였다.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채낚기

- 1) ‘채낚기’ 어로 방식을 옥지도에서는 ‘설래끼, 슬래끼’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래끼, 슬래끼’는 ‘설낚기’에서 나온 어휘로 ‘설낚기>설락기>설라끼>설래끼’로 어형 변화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설’은 낚시에 필요한 여러 개의 바늘을 연결해 놓은 낚싯줄을 말하고 ‘설낚기’는 이런 설을 이용해 하는 낚시라는 의미이다.
- 2) 채낚기에 관한 부분 명칭도 낚싯대에 관한 것이다. 조사된 부분 명칭어로는 ‘설’, ‘주지’, ‘시범줄, 모릿줄, 아릿줄’, ‘꽁돌, 뽕돌, 뽏돌, 돌채’가 있다.
- 3) 채낚기 어업과 관련된 종사자 명칭에는 ‘설래끼꾼, 슬래끼꾼, 어로장, 해패, 적군, 선장’ 등이 있다.
- 4) 채낚기를 위한 준비물로는 ‘낚싯대/낚싯대/낚대/경대’, ‘미끼/이깍’, ‘공갈이깍/인공미끼’, ‘갯지리/물거시이/물그시/그무리/거무리’, ‘밑밥/비름’, ‘땃마/땃마새끼/땃마’, ‘전마선’ 등이 있다.
- 5) 준비 과정에서 행위에 관련된 표현에는 ‘뽕돌 맨들다, 꽁돌/뽕돌 달다/박다, 물그시 파러 가다, 미끼 달다/이깍 끼다, 미끼 주다/미끼 치다, 꽃 달다’ 등이 있고 현장에서는 가늌 보다, 어초 찾다, 어초가늌, 배 고정하다/배 짜세우다, 땃 놓다/땃 놓다/앵커 놓다, 비름하다/밑밥 주다, 채 영다, 낚시 들이다, 낚수 채우다, 날바주다, 훌쩍훌쩍 하다/훌대 쳐주다/훌대지다/낚싯대 쳐주다, 유두리하다, 처박기/땅발이, 처박기 하다/땅발이가 되

게 하다, 가라앉혀주다, 나가리, 나가래, 나가리 하다/나가래 하다/나가래 보다, 땡겨 올리빠다, 끄집어 올린다. 잡아 땡기다, 고기 따다, 망태에 지르다, 항문에 대롱 넣다, 헛바닥 주서 넣다, 옮겨 다니다' 등의 표현이 있다.

- 6) 육지도 앞바다에서는 계절별로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 있는데 볼락은 겨울부터 4~5월에 잡히고, 농어는 5~6월, 갈치, 삼치는 여름에 잡히고, 돔은 여름~가을 사이에 많이 잡힌다. 감성돔, 흑돔은 12~2월에, 소래는 6~7월, 도다리는 4~12월에 많이 잡힌다. 이처럼 계절별로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 있는데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지역에서는 '-바리'라 하는데 '농어바리, 빨락바리' 등으로 표현한다.
- 7) 채낚기를 하는 장소는 덕/어초, 깊은 덕, 얇은 덕, 모래바닥/모래밭, 자갈밭, 작밭, 바위틈, 배 위 등이며, 물때는 잡는 어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채낚기의 방법도 어종에 따라 처박기, 땅발이, 줄빨래이 등이 있다. 기타 채낚기를 이용한 고기잡이와 관련된 표현에는 '설이 좁다, 고기가 덩거리져 있다, 비늘이 시달리다, 덕이 지다/덕이 있다/어초가 있다' 등이 있다.
- 8) 가덕도에는 영등할멈에게 고사를 지내며 이를 '할맛네'라 한다. 고사를 지내는 것을 '고사 하다, 고사 모시다, 할맛네 지내다, 바람 올리다'라 표현하고, 고사를 지낸 후에는 '바람 잠 재우다, 할맛네 올라가다' 등으로 표현한다.

2. 송어들이

- 1) 송어가 들만한 물목에 그물을 깔아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망대에서 어로장이 물 색깔과 물 속 그림자의 변화로 송어떼를 감지해 지시를 내리면 재빠르게 6척의 목선에 탄 선원이 그물을 끌어올려 송어를 잡는 전통적인 어로 방식을 '송어들이, 송어들이, 육소장망(六艘張網)'이라 한다.
- 2) 송어들이 사용되는 6척의 배는 '밖목선, 안목선, 밖장등, 안장등, 밖귀잡이, 안귀잡이'라 하고 이 외에 '논마이, 운반선/동력선/발동기/관리선'이라는 어휘가 있다. 특이한 배 부속물에는 '쫓/쫓대/걸이, 닳도, 노, 노꾸리'가 있고, 기타 부분 명칭으로는 '망대/망, 바, 망바/망뚜리, 올림줄/올림, 비움줄/비움, 도래'가 있다. 종사자 명칭에는 '어로장/망쟁이/망장이/망수/망전', '부어로장/부망재이/부망수', '첫째바/사공', '상바, 둘째바, 셋째바, 넷째바/하장, 오동바/오동, 이물무상' 등이 있다.

- 3) 송어들이 작업 시기는 음력 1월경에 시작해 3개월 정도 이뤄지며, 적당한 물때는 다섯 물에서 열세물 정도인 사리때인 ‘시때’가 적당하다. 또한 동풍인 셋바람과 북동풍인 ‘높 새바람/노불’이 불 때가 좋으며 시간은 초살일 때는 새벽 다섯 시부터 시작된다.
- 4) 송어들이 어장은 매년 같은 자리로 변동이 없는데 어장을 까는 바다 바닥이 어초가 없는 깨끗한 곳이다.
- 5) 송어들이 행위에 관련된 표현을 작업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개 놓다, 사개 치다, 사개 막다, 입냥하다, 어구 얹혀 놓다, 닳을 놔서 고정시키다,
 - (2) 배 닳 차고 나가다 (3) 좇대 꺾다, 어장 막다, 배 고정시키다 (4) 바위 가에 묶다, 가로 붙이 놓다, 작대기로 밀다 (5) 바위 타다, 망대에서 내려다 보다 (6) 송어 기다리다 (7) “봐라”, “밖목선 해라”, “안목선 해라”, “같이 해라” (8) 주 땡기다, 올리빼다, 딱 쪼아뿌다, 괴기 몰아 이빠이 올리다, 망쟁이 땡기다, 한참 대차게 놀다 (9) 뒷배는 설설하다 (10) 중간 잡아 주다, 들어 주다 (11) 고기 퍼 올리다, 고기 담다, 고기 뜨다, 동두리 하다 (12) 알맹이 하나 내룻다, 주산 알 내려 가다 (13) 다 버리빼다, 물에 보내빼다 (14) 배 채수하다, 고기 운반하다, 철수하다 (15) 시마이 하다, 시마이 넣다
- 6) 어획물로는 송어, 암송어, 수송어, 모칠/모찌(小), 중부리(中), 송어(大), 대송어, 전어, 감성돔 등이 있다.
- 7) 송어는 ‘산, 잡는 산’이라는 도구로 세는데 단위로는 ‘20마리=열, 100마리=동, 1000마리=접’이 있다.
- 8) 역대 어로장에게 올리는 고사는 ‘고사, 입막이’라 하고 송어들이 시작되는 음력 1월 말경에 사개를 치는 날에 지낸다. 독특한 것은 고사상에 돌아가신 어로장에게 신발을 한 켤레씩 올린다는 점이다.
- 9) 송어들이와 관련된 관용 표현으로는 ‘남서풍 불면 고기 많이 움직인다, 남서풍 불면 날씨 안 좋다’ 등이 있다.

이러한 채낚기와 송어들이에 관한 어휘 조사를 통해, 본 조사는 다음과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1)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이들 주제에 관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생활어를 수집하여 분류할 수 있었다.

- 2) 채낚기와 송어들이에 관해 분류체계를 나누고, 다양한 어휘를 수집하여 채낚기와 송어들이에 관련된 어휘에 대해 어휘망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3) 제보자의 구술 발화를 통해 경상남도 옥지도와 가덕도의 다양한 방언 어휘를 수집, 확인할 수 있었다.
- 4) 수집한 어휘를 표준국어대사전과의 비교 작업을 통해 수집 어휘의 등재여부와 사전과의 의미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 5) 수집한 어휘를 방언검색프로그램과 비교 작업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검증, 수정할 수 있었다.
- 6) 조사 결과물을 조사 어휘, 음성 자료, 음성전사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여, 전자사전 형식의 『민족생활어사전』 편찬의 자료로 구축하였다.
- 7) 어업 방식의 변화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전통 어로 방식인 채낚기와 송어들이에 관련된 어휘, 즉 사라져 가고 있는 어휘를 정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조사와 연구에 대한 반성은 다음과 같다.

- 1) 채낚기와 송어들이에 관해 체계를 나누고 많은 관련 어휘를 수집하고 분류하였지만 조사 시간의 부족으로 더 많은 어휘를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2) 채낚기와 송어들이에 관해 하위 분류를 나름 체계적으로 나누어 적절한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실제 여러 여건상 채낚기 작업 과정을 보지 못 하고, 제보자의 구술에 의존해 관련된 어휘를 조사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좀 더 정밀한 조사를 못한 것이 아쉽다.
- 3) 사라져 가는 어휘 조사, 수집에 치중하다보니 제보자를 고령의 제보자로 선정하여 젊은 계층이 사용하는 채낚기와 송어들이 어휘와의 비교 작업이 하지 못 하였다.
- 4) 채낚기와 송어들이에 관한 조사 지점을 경상남도 옥지도와 가덕도를 정하였는데 다른 지역 채낚기, 송어들이 관련 어휘와 비교를 하지 못해 아쉬웠으며 이에 관한 조사는 이후 채낚기, 송어들이에 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국립국어원,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크리홍보, 2010.
- 국립국어원,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크리홍보, 2011.
- 국립민속박물관, 『경남 어촌민속지』, 필기획, 2002.
- 국립민속박물관, 『어촌민속지』, 필기획, 1996.
- 국립수산기술훈련소, 『정치망어업』, 1984.
- 김려, 박준원, 율김, 『우해이어보』, 서울: 다운샘, 2004.
- 나승만 외 7인, 『다도해 사람들』, 경인문화사, 2003.
- 박계홍, 『한국민속학개론』, 형설출판사, 1983.
- 육지면지편찬위원회, 『육지면지』, 참글사, 2008.
- 이강산, 『가덕도 송어잡이』, 눈빛출판사, 2011.
- 이강욱, 『한국의 도서문화: 서남해 도서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제 11집, 1993.
- 이근우 외 4명, 『한국 수산지』, 서울: 새미, 2010.
- 이병기·박승원·김진건, 『연근해어업개론』, 태화출판사, 1989.
- 이원식, 『한국의 배』, 서울: 대원사, 1991.
- 이태원, 『현산어보를 찾아서』, 서울: 청어람 미디어, 2002.
- 장정룡, 『속초시 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1997.
- 주강현, 『관해기 1-3』,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6.
- 최덕원, 『남도의 민속문화』, 밀알, 1994.
- 한국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 1-5』, 서울: 해양수산부, 2002.
- 니컬러스 에번스, 김기역·호정은 역,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다』, 글항아리, 2012.
- 데이비드 크리스털, 권루시안 역, 『언어의 죽음』, 이론과 실천, 2005.
- 앤드루 달비, 오영나 역, 『언어의 종말』, 작가정신, 2008.
- 클로드 아제주, 김병욱 역, 『언어들의 죽음에 맞서라』, 나남, 2011.
- Lindsay J. Whaley, 김기혁 역, 『언어 유형론-언어의 통일성과 다양성』, 소통, 2008.

부 부

4 체뉘기 조사어휘(흥기육)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	대표제어	유형	발음장모	원시	뜻풀이	원래	기타 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형태분류	표준국어사전을 작성 했어	
어촌생활진흥 어록	체뉘기	명칭	명칭	부분 명칭	상세분류	형표제어	동명		명	뉘시 바늘이 물 아래로 잘 내려가게 무게감 (중동), 공돌이라 그래.		예전에는 진진마다 뉘를 녹여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공돌'은 '뉘뉘', '뉘뉘', '뉘뉘'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김상훈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록	체뉘기	명칭	명칭	부분 명칭			뉘뉘		명	뉘시 바늘이 물 아래로 잘 내려가게 무게감 (중동)이라 그래.			김상훈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록	체뉘기	명칭	명칭	부분 명칭			뉘뉘		명	뉘시 바늘이 물 아래로 잘 내려가게 무게감 (중동)이라 그래.			김상훈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록	체뉘기	명칭	명칭	부분 명칭			뉘뉘		명	뉘시 바늘이 물 아래로 잘 내려가게 무게감 (중동)이라 그래.			김상훈 (옥지도)				O
어촌생활진흥 어록	체뉘기	명칭	명칭	부분 명칭			뉘뉘		명	뉘시 바늘이 물 아래로 잘 내려가게 무게감 (중동)이라 그래.			김상훈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록	체뉘기	명칭	명칭	부분 명칭			뉘뉘		명	뉘시 바늘이 물 아래로 잘 내려가게 무게감 (중동)이라 그래.			김상훈 (옥지도)				O
어촌생활진흥 어록	체뉘기	명칭	명칭	부분 명칭			뉘뉘		명	뉘시 바늘이 물 아래로 잘 내려가게 무게감 (중동)이라 그래.			김상훈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록	체뉘기	명칭	명칭	부분 명칭			뉘뉘		명	뉘시 바늘이 물 아래로 잘 내려가게 무게감 (중동)이라 그래.			이수용 (옥지도)				O
어촌생활진흥 어록	체뉘기	명칭	명칭	부분 명칭			뉘뉘		명	뉘시 바늘이 물 아래로 잘 내려가게 무게감 (중동)이라 그래.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록	체뉘기	명칭	명칭	부분 명칭			뉘뉘		명	뉘시 바늘이 물 아래로 잘 내려가게 무게감 (중동)이라 그래.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록	체뉘기	명칭	명칭	부분 명칭			뉘뉘		명	뉘시 바늘이 물 아래로 잘 내려가게 무게감 (중동)이라 그래.			이수용 (옥지도)				O
어촌생활진흥 어록	체뉘기	명칭	명칭	부분 명칭			뉘뉘		명	뉘시 바늘이 물 아래로 잘 내려가게 무게감 (중동)이라 그래.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록	체뉘기	명칭	명칭	부분 명칭			뉘뉘		명	뉘시 바늘이 물 아래로 잘 내려가게 무게감 (중동)이라 그래.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록	체뉘기	명칭	명칭	부분 명칭			뉘뉘		명	뉘시 바늘이 물 아래로 잘 내려가게 무게감 (중동)이라 그래.			김용국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록	체뉘기	명칭	명칭	부분 명칭			뉘뉘		명	뉘시 바늘이 물 아래로 잘 내려가게 무게감 (중동)이라 그래.			김용국 (옥지도)				X

4 체류기 조사어휘(흥기옥)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	상세분류 2	대표어	출발점	발음장모	문사	뜻풀이	유래	기타 정보	출진장모1	출진장모2	영단어부	영단어부	영단어부	표준국어		
어촌생활	전통 어로	채부기	명칭	종사자 명칭			어포장	명	성래끼꾼 중에서 고기가 많이 사는 덕의 위치를 잘 알고 설래끼에 유능한 사람.	명	어초 위치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래서 환상 {어포장이라고} 하고.			강흥국 (옥지도)					○	○	
어촌생활	전통 어로	채부기	명칭	종사자 명칭			해패	명	설래끼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해패라고} 해서 채부기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하나의 해패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지금 지금은 인자 거 어업이 어업에 종사 하는 어민들이 이렇게 조금 줄어들다보니까			강흥국 (옥지도)						○	○
어촌생활	전통 어로	채부기	명칭	종사자 명칭			일본조	명	설래끼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 심어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조라는} 어업 해패가 있었어요.			강흥국 (옥지도)						○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채부기	명칭	종사자 명칭			작군	명	어업을 하는 사람 중 식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		{작군이고}, 작군은 인자 배 어장을 위해서 출사하는 부를 일당을 받을 수도 있고, 횡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레가지고 모여서 어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자 작군이고.			강임옥 (옥지도)						○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채부기	명칭	종사자 명칭			동무	명	어업을 하는 사람 중 식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		어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동무라고도 합니다. {동무}.			강임옥 (옥지도)						○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채부기	명칭	종사자 명칭			선주	명	배의 주인.		그 다음에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선주}고.			강임옥 (옥지도)						○	○
어촌생활	전통 어로	채부기	명칭	단위 명칭			개	명	채부기를 하기 위해서 낚시줄에 여러 개의 낚시 바늘을 다는데 다는 바늘의 수를 세는 단위.		채부기를 하기 위해 여 낚시가 보통 한 줄 낚시 {개} 이라고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기 인자 보통 우리가 이 간격이 한 할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강삼춘 (옥지도)						○	○
어촌생활	전통 어로	채부기	명칭	단위 명칭			발	명	바늘과 바늘 사이의 거리를 재는 단위		바늘과 바늘 사이의 거리를 재는 단위 이기 인자 여 낚시가 보통 한 줄 낚시 개 이래 다는 "발"은 정장이 두 팔을 펼쳤을 때 팔 사이의 간격 정도이다.			강삼춘 (옥지도)						○	○
어촌생활	전통 어로	채부기	고기 잡기	준비물			낚시대	명	고기를 잡는 도구		낚시줄을 매 낚시대(대다) 낚시예다가 낚을 달구만은. 어 쓰는 가능고 근 대.			강삼춘 (옥지도)						○	○
어촌생활	전통 어로	채부기	고기 잡기	준비물			낚시대	명	= 낚시대.		낚시대. {낚시대}. 뭐 낚시대.			강삼춘 (옥지도)						○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채부기	고기 잡기	준비물			낚대	명	= 낚시대.		{낚대}. 뭐 낚시 뭐 이렇게 낚대. 낚대가 제일 적합한 용어 같아요.			강삼춘 (옥지도)						○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채부기	고기 잡기	준비물			경대	명	= 낚시대.		옥지서 나만큼 잡고 이런 {경대} 쓰던 놈도 없어. 전부 그냥 선부잡에 가서 사 쓰지.			강삼춘 (옥지도)						○	○

4 체류기 조사어휘(흥기옥)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	상세분류 2	대표제어	출발점	발음장모	원시	뜻풀이	유래	기타 정보	출전장모1	출전장모2	영단어/사자/의성/의태어	표준국어사전에 등재 여부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낚기	고기 잡기	준비물				미끼	명 낚시 끝에 꿩은 물고기의 먹이.			인제 우리가 인제 바다에 인제 뚝에 인제 뚝어 쓰린 {미끼}, 그러니까 배단영이라든가 아니면 뚝 바다에 기어다니는 거라든가.			김상준 (옥지도)				○	
								명 낚시 끝에 꿩은 물고기의 먹이.			물래이는 {이깁음} 낚시나 캐 매가지고 이 깁게 이렇게 이깁을 까가지고. 그러자 덕에 진 데가 가서 인자 이 물러두기는 기라.			김상준 (옥지도)			○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낚기	고기 잡기	준비물				공갈미끼	명 살아 있는 미끼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미끼. 미끼처럼 보여 물고기를 유인하는데 사용한다.			낚시에 이렇게 치장을 해서 인제 {공갈미끼를} 달아가지고 낚는 거고.			김상준 (옥지도)				○	
								명 살아 있는 미끼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미끼. 미끼처럼 보여 물고기를 유인하는데 사용한다.			{인공 미끼는} 낚는데 또 이렇게 먹이 담틀이라든가 오리틀이라든가 푸드라운 탈을 기다가 이렇게 묶어서, 이게 세우나 다른 말만 먹이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김상준 (옥지도)			○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낚기	고기 잡기	준비물				켓지렁이	명 다모강의 환형 동물들 통틀어 이르는 말로 켓가에 사는 지렁이.			{켓지렁이} 아.		반딧파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많이 쓰는 미끼는 켓지렁이이다. 옥지도에서는 켓지렁이를 '켓지렁'이라 불거서, '미끼 세우나' '거무라'라고 한다. 또한 지렁이는 '거시어'라 한다.			이수용 (옥지도)			○
								명 다모강의 환형 동물들 통틀어 이르는 말로 켓가에 사는 지렁이.			{다모강의 환형 동물들 통틀어 이르는 말로} 그무리 그무리라요. {그무리}.		여기서의 그무리, 거무리는 '거머리'의 변이형이 아니라 '켓지렁이'의 옥지도 방언형이다.			이수용 (옥지도)			○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낚기	고기 잡기	준비물				거무리	명 다모강의 환형 동물들 통틀어 이르는 말로 켓가에 사는 지렁이.			거머리가 아니고 {거무리}.			이수용 (옥지도)				○	
								명 다모강의 환형 동물들 통틀어 이르는 말로 켓가에 사는 지렁이.			그것은 우리 보통 우리가 습기 많하면 {물그시어}.			이수용 (옥지도)			○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낚기	고기 잡기	준비물				물그시어	명 다모강의 환형 동물들 통틀어 이르는 말로 켓가에 사는 지렁이.			그것은 우리 보통 우리가 습기 많하면 {물그시어}.			이수용 (옥지도)				○	
								명 다모강의 환형 동물들 통틀어 이르는 말로 켓가에 사는 지렁이.			가리가 낚는다 인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켓지렁이라}고.			이수용 (옥지도)			○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낚기	고기 잡기	준비물				밀밥	명 물고기나 새가 모이게 하기 위하여 미끼로 으갠 찰밥을 주는 먹이.			켓쌀이를 볶을 때는 비름은 우리가 {밀밥} 죽고 하는 것은 이제 오가페이도 되고 왜 저지 오디라고 바닷물에 가면 투투발기 있으면 물에 붙는 거. 자 고기 따셔도 하고.			이수용 (옥지도)				○	
								명 물고기나 새가 모이게 하기 위하여 미끼로 으갠 찰밥을 주는 먹이.			비름, 비름이라 하면 밀밥을 비름이라 하지 않고 밀밥을 지는 행위를 {비름이라} 합니다. 그러 하는데 이는 '미름하다'로 표현된다.			이수용 (옥지도)			○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낚기	고기 잡기	준비물				덧야	명 나물로 만든 무동력산.			{덧야라} 그래. 쪼매난 배.			김흥규 (옥지도)				○	
								명 나물로 만든 무동력산.						김흥규 (옥지도)			○		

4 체누기 조사어휘(흥기육)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	상세분류2	대표어	음양	발음장모	문자	뜻풀이	용례	기타 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사자/용성/영어	영단어/사자/용성/영어	표준국어사전을 제언							
어촌생활진흥	어류	체누기	고기 잡기	준비물			옛마세끼	음	옛마세끼	명	나물로 만든 무동락선.	이 저저 요 뭐고 경상도 말 {옛마세끼} 하거든.		김흥국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류	체누기	고기 잡기	준비물			옛마	음	옛마	명	나물로 만든 무동락선.	옛마는 나무로 만든 무동락선을 타고 가 죽영을 하는데 요즘은 장지와 같은 대형 어줄을 잡을 때는 동락선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전엔 체누기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말은 전마선입니다. 조임을 위해 타는 배를 '옛마, 옛마세끼, 옛마, 전마선'이라 한다.	김흥국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류	체누기	고기 잡기	준비물			전마선	음	전마선	명	배와 육지 또는 배와 배 사이의 언덕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개 전마선이라고 인해 우리가 이 지역에서 쓰는 '전마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이 말린 돌단배를 '홍선, 돌대배'라고 한다. 이 지역에서 많이 쓰는 홍선을 '옛마, 옛마세끼, 옛마'라 한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전마선'은 큰 배와 육지 또는 배와 배 사이의 언덕을 가리키는 작은 배라 풀이하고 있는데, 재방자들은 '배' 앞에 해당되는 배를 전마선이라 하였다. 이는 배 안에 육지와 배의 언덕을 이 배를 이용해 얹어 하여 홍선인 '옛마와 전마선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란 볼 수 있다.	김흥국 (옥지도)												
어촌생활진흥	어류	체누기	고기 잡기	준비물			어망기	음	어망기	명	물고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계.	{어망기} 고만 먹 거면 또 요새 어망기 풀은 거는 근처에 가면 배배 요 풀이다 이렇거든.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류	체누기	고기 잡기	행위	준비에서 행위		뽕돌 맨들다	구	뽕돌 맨들다	구	남싹이 물에 가라앉게 만들기 위해 남싹(뽕돌 이거는 요 맨들여) 쓰거든. 근데 사라가 줄에 낚시주인 뽕돌, 꾀돌 등의 낚시줄을 만들어 내서 만든다.	남싹이 물에 가라앉게 만들기 위해 남싹(뽕돌 이거는 요 맨들여) 쓰거든. 근데 사라가 줄에 낚시주인 뽕돌, 꾀돌 등의 낚시줄을 만들어 내서 만든다.	김상훈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류	체누기	고기 잡기	행위	준비에서 행위		뽕돌 달다	구	뽕돌 달다	구	남싹이 물에 가라앉게 만들기 위해 남싹(뽕돌 이거는 요 맨들여) 쓰거든. 근데 사라가 줄에 낚시주인 뽕돌, 꾀돌 등의 낚시줄을 만들어 내서 만든다.	오리 개우면 오 줄로 저 낚시대 고드머리애다가 매거는 매번 요걸 {뽕돌을 달다} 말이야.	김상훈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류	체누기	고기 잡기	행위	준비에서 행위		뽕돌 달다	구	뽕돌 달다	구	남싹이 물에 가라앉게 만들기 위해 남싹(뽕돌 이거는 요 맨들여) 쓰거든. 근데 사라가 줄에 낚시주인 뽕돌, 꾀돌 등의 낚시줄을 만들어 내서 만든다.	오도 이감을 끼거든 새우. 그래 갖고 인자 {뽕돌} 달다.	김상훈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류	체누기	고기 잡기	행위	준비에서 행위		뽕돌 막다	구	뽕돌 막다	구	남싹이 물에 가라앉게 만들기 위해 남싹(뽕돌 이거는 요 맨들여) 쓰거든. 근데 사라가 줄에 낚시주인 뽕돌, 꾀돌 등의 낚시줄을 만들어 내서 만든다.	어, 그래 가지고 낚시 여미 넣어. 그래 가지고 인자 {뽕돌을 막아가지고} 내라.	김상훈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류	체누기	고기 잡기	행위	준비에서 행위		물그사이 파러 가다	구	물그사이 파러 가다	구	갯가에 갯지렁이를 잡으러 가다.	니 어태가노 {물그사이} 파러 가다.	이수용 (옥지도)							X					

4 체널기 조사어휘(흥기옥)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	상세분류 2	대표어	출입암	발음정보	문서	뜻풀이	용례	기타 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부호 사전·용성 영단어부	표준국어 사전 등 영단어부	
어촌생활진흥 아로	채널기	행위	고기 잡기		준비에서 행위			미개 달다		구 지렁이, 홍합 같은 이끼를 낚시대에 달다.	{미개 달아} 가지고 고마 살매든지 그냥 막 낚는다 아니까.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채널기	행위	고기 잡기		준비에서 행위			이끼 낚다		구 지렁이, 홍합 같은 이끼를 낚시대에 달다.	이렇게 {이끼를 낚아지고}, 그라 저 덕에 친대가 가서 인자 이 불러주는기라.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채널기	행위	고기 잡기		준비에서 행위			미개 주다		구 미개를 단 낚시줄을 물에 놓다.	아니 지렁이 아니고 이 저저 저런 물에다 담가 놓고 두 애다가 그 {미개로 주던} 고기가 그 미개 줄도 먹들라고 저 모이거든.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채널기	행위	고기 잡기		준비에서 행위			미개 치다		구 미개를 단 낚시줄을 물에 놓다.	그라면 저 우리가 {미개를 쳐도} 비를을 해도 이 덕이 있으니까 여가서 많이 낚치는기라.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채널기	행위	고기 잡기		준비에서 행위			꽃 달다		구 인공 미개를 달다. 인공 미개로는 '달릴'이 낚나 '오리달'을 많이 사용한다.	공물 낚수라고 낚시대애다가 낚시이다가 {꽃을 달고} 이 모어들과 반식하는 바다림의 도도북한 낚는지 인자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잇거만은.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채널기	행위	고기 잡기		현경에서 행위			어초 찾다		구 고기들이 서식지인 어초를 찾다. 물고기를 낚는 곳이 모어들과 반식하는 바다림의 도도북한 낚는 '어초'라 한다.	고기들이 서식지인 어초를 찾다. 물고기를 낚는 곳이 모어들과 반식하는 바다림의 도도북한 낚는 '어초'라 한다.	{어초를 찾아} 낚수를 내리지.		김홍국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채널기	행위	고기 잡기		현경에서 행위			가능 보다		구 고기들이 서식지인 어초를 찾다. 물고기를 낚는 곳이 모어들과 반식하는 바다림의 도도북한 낚는 '어초'라 한다.	고기들이 서식지인 어초를 찾다. 물고기를 낚는 곳이 모어들과 반식하는 바다림의 도도북한 낚는 '어초'라 한다.	근데 그거를 인제 가능이라고 합니다. 찾아가는 가능이라고 해요. {가능 보다}.		김홍국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채널기	행위	고기 잡기		현경에서 행위			어초가는		명 고기들이 서식지인 어초를 찾는 것. 물고기를 낚는 곳이 모어들과 반식하는 바다림의 도도북한 낚는 '어초'라 한다.	가능이라고 해요. {어초가능이예요}. 덕을, 덕이 있다고 하고 인제, 제대로 가면은 어 덕 불랑 덕의 혹은 덕의 가능을 이렇게 부가지고 가능을 부가지고 거기애다가 낚시를 인제 들이는 거예요			김홍국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채널기	행위	고기 잡기		현경에서 행위			배 패세우다		구 바다에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닻을 놓아 고장한다. '뺏'이나 '고기잡이배를 타고 나가서' 채널기 조임을 할 때는 배 위에서 조임을 하는 것이므로 움직이지 않게 배를 바다에 고정시켜야 한다. 닻을 놓아 고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를 패 세워서 {배를 패 세워서} 인제 그 덕에 열은. 감성들은 {배를 패 세워서} 인제 그 덕에 열은. 것이므로 움직이지 않게 배를 바다에 고정시켜야 한다. 닻을 놓아 고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채널기	행위	고기 잡기		현경에서 행위			앵커 놓다		구 바다에서 배의 닻을 놓다. '뺏'이나 '고기잡이배를 타고 나가서' 채널기 조임을 할 때는 배 위에서 조임을 하는 것이므로 움직이지 않게 배를 바다에 고정시켜야 한다. 닻을 놓아 고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앵커를 놔서 고정하고}.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채널기	행위	고기 잡기		현경에서 행위			닻 놓다		구 바다에서 배의 닻을 놓다. '뺏'이나 '고기잡이배를 타고 나가서' 채널기 조임을 할 때는 배 위에서 조임을 하는 것이므로 움직이지 않게 배를 바다에 고정시켜야 한다. 닻을 놓아 고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닻을 놓는다는거} 보야. 양 {닻을 놓는다는거}, 세개를 놓는다는거 보야. 양 {닻을 놓는다는거} 하고.		이수용 (옥지도)				X	

4 체냥기 조사어휘(흥기육)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	상세분류 2	대표어	출발점	발음장모	음차	뜻풀이	용례	기타 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부호	영단어부호	표준국어	
어촌생활진흥	어류	체냥기	고기 잡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현장에서 행위	행위	맞는다	맞는다	몸서	바다에서 배의 돛을 놓다. 뱃이나 고기잡이 배를 타고 나가서 체냥기 조임을 할 때는 배 위에서 조임을 하는 것이므로 움직이지 않고 배를 바다에 고정시켜야 한다. 돛을 놓아 고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뱃에서 돛을 놓아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한다. 뱃이나 고기잡이배를 타고 나가서 체냥기 조임을 할 때는 배 위에서 조임을 하는 것이므로 움직이지 않게 배를 바다에 고정시켜야 한다. 돛을 놓아 고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수용 (옥지도)						
어촌생활진흥	어류	체냥기	고기 잡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현장에서 행위	행위	배 고정시키다	배 고정시키다	몸서	바다에서 돛을 놓아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한다. 뱃이나 고기잡이배를 타고 나가서 체냥기 조임을 할 때는 배 위에서 조임을 하는 것이므로 움직이지 않게 배를 바다에 고정시켜야 한다. 돛을 놓아 고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뱃에서 돛을 놓아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한다. 뱃이나 고기잡이배를 타고 나가서 체냥기 조임을 할 때는 배 위에서 조임을 하는 것이므로 움직이지 않게 배를 바다에 고정시켜야 한다. 돛을 놓아 고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수용 (옥지도)						
어촌생활진흥	어류	체냥기	고기 잡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현장에서 행위	행위	밧줄 주다	밧줄 주다	몸서	고기를 모으기 위해 밧줄을 준다.	감성어를 낚을 때는 비름은, 우리가 (밧줄 주다가) 하는 것은 이제 오기제이도 되고 뭐 지저우나라고 바닷물에 가면 투투물기 있으면 물에 붙는 게. 저 고거 따서도 하고.	이수용 (옥지도)						
어촌생활진흥	어류	체냥기	고기 잡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현장에서 행위	행위	비름 하다	비름 하다	몸서	고기를 모으기 위해 밧줄을 준다.	비름, 비름이라 하면 밧줄을 비름이라 하지 않고 밧줄을 지는 행위를 {비름이라} 합니다.	이수용 (옥지도)						
어촌생활진흥	어류	체냥기	고기 잡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현장에서 행위	행위	채 열다	채 열다	몸서	몸고기가 많이 물려 있는 덕을 찾으면 준비한 비름을 주어 고기가 물리게 하고 체냥기 낚시대를 설치한다.	{채} 가지고 {어면은} 말아서 이 어면은 말이지 마 잠시 고마 많이 낚는기라. 말하하면 양태를 가가서 한방 지르면 지는기라 고마.	이수용 (옥지도)						
어촌생활진흥	어류	체냥기	고기 잡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현장에서 행위	행위	낚시 들이다	낚시 들이다	몸서	몸고기가 많이 물려 있는 덕을 찾으면 준비한 비름을 주어 고기가 물리게 하고 체냥기 낚시대를 설치한다.	가늘을 벗가지고 거기메다가 {낚시를 인제 들이는} 거예요.	이수용 (옥지도)						
어촌생활진흥	어류	체냥기	고기 잡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현장에서 행위	행위	낚수 채우다	낚수 채우다	몸서	몸고기가 많이 물려 있는 덕을 찾으면 준비한 비름을 주어 고기가 물리게 하고 체냥기 낚시대를 설치한다.	그 {중갈} 낚수로 채야} 가지고.	이수용 (옥지도)						
어촌생활진흥	어류	체냥기	고기 잡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현장에서 행위	행위	낚바 주다	낚바 주다	몸서	낚시줄을 천천히 조금씩 물 속으로 내린다.	체냥기 낚시줄을 물에 내릴 때는 어중에 따라서 살짝 천천히 내려야 한다. 예민한 어종은 말아내 버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어종이 갯성돔인데 갯성돔, 설레끼를 할 때는 줄을 살짝 내려줘야 한다. 이렇게 줄을 천천히 내리는 행위를 '낚바 주다'라 표현한다.	이수용 (옥지도)						

4 체냥기 조사어휘(흥기육)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	상세분류 2	대표어	출발점	발음장모	음성	뜻풀이	용례	기타 정보	출전장모1	출전장모2	영단어부호 사건·음성 표기방법	표준국어 사건·음성 표기방법	
어촌생활진흥 어록	어촌 생활진흥 어록	체냥기	고기 잡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현장에서 행위		물대지다		동	낚시대 물속을 까맣까맣하면서 움직여 미끼가 조금씩 움직이게 한다.	낚시대 물속을 까맣까맣하면서 움직여 미끼가 조금씩 움직이게 한다. (물속을 쫓는다).	인공미끼를 낚시대 물속에 들어간 낚시줄에 미끼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공으로 움직여 낚시꾼이 낚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물고기들이 낚시 미끼를 낚시 줄을 쫓아 올린다고 표현한다.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록	어촌 생활진흥 어록	체냥기	고기 잡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현장에서 행위	물대지다	물속을 쫓는다		동	낚시대를 물속을 까맣까맣하면서 움직여 미끼가 조금씩 움직이게 한다.	낚시대를 물속을 까맣까맣하면서 움직여 미끼가 조금씩 움직이게 한다. (물속을 쫓는다).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록	어촌 생활진흥 어록	체냥기	고기 잡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현장에서 행위	물대지다	유두리하다		동	낚시대를 움직여 인공미끼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고기가 유두리하다. (물속을 쫓는다).	낚시대를 움직여 인공미끼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고기가 유두리하다. (물속을 쫓는다).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록	어촌 생활진흥 어록	체냥기	고기 잡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현장에서 행위	물대지다	망발이		명	감성돔이나 옥돔을 잡을 때는 배를 바다에 고정시킨 후 체냥기 낚시줄을 물에 넣는 방법이 타 어종과 다른데 옆은 곳에서 줄을 느슨하게 쳐지게 하여 체냥기 줄을 바닥에 가깝게 놓는 방법이다.	감성돔이나 옥돔을 잡을 때는 배를 바다에 고정시킨 후 체냥기 낚시줄을 물에 넣는 방법이 타 어종과 다른데 옆은 곳에서 줄을 느슨하게 쳐지게 하여 체냥기 줄을 바닥에 가깝게 놓는 방법이다. (가만앉겨줘야) 해도.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록	어촌 생활진흥 어록	체냥기	고기 잡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현장에서 행위	물대지다	망발이 하다		구	감성돔이나 옥돔을 잡을 때는 배를 바다에 고정시킨 후 체냥기 낚시줄을 물에 넣는 방법이 타 어종과 다른데 옆은 곳에서 줄을 느슨하게 쳐지게 하여 체냥기 줄을 바닥에 가깝게 놓는 방법이다.	감성돔이나 옥돔을 잡을 때는 배를 바다에 고정시킨 후 체냥기 낚시줄을 물에 넣는 방법이 타 어종과 다른데 옆은 곳에서 줄을 느슨하게 쳐지게 하여 체냥기 줄을 바닥에 가깝게 놓는 방법이다. (가만앉겨줘야) 해도.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록	어촌 생활진흥 어록	체냥기	고기 잡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현장에서 행위	물대지다	쳐박기		명	감성돔이나 옥돔을 잡을 때는 배를 바다에 고정시킨 후 체냥기 낚시줄을 물에 넣는 방법이 타 어종과 다른데 옆은 곳에서 줄을 느슨하게 쳐지게 하여 체냥기 줄을 바닥에 가깝게 놓는 방법이다.	감성돔이나 옥돔을 잡을 때는 배를 바다에 고정시킨 후 체냥기 낚시줄을 물에 넣는 방법이 타 어종과 다른데 옆은 곳에서 줄을 느슨하게 쳐지게 하여 체냥기 줄을 바닥에 가깝게 놓는 방법이다. (쳐박기).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록	어촌 생활진흥 어록	체냥기	고기 잡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현장에서 행위	물대지다	기리앉혀주다		구	감성돔이나 옥돔을 잡을 때는 배를 바다에 고정시킨 후 체냥기 낚시줄을 물에 넣는 방법이 타 어종과 다른데 옆은 곳에서 줄을 느슨하게 쳐지게 하여 체냥기 줄을 바닥에 가깝게 놓는 방법이다.	감성돔이나 옥돔을 잡을 때는 배를 바다에 고정시킨 후 체냥기 낚시줄을 물에 넣는 방법이 타 어종과 다른데 옆은 곳에서 줄을 느슨하게 쳐지게 하여 체냥기 줄을 바닥에 가깝게 놓는 방법이다. (기리앉혀줘야) 해도.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어록	어촌 생활진흥 어록	체냥기	고기 잡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현장에서 행위	물대지다	기리앉혀주다		동	망발이를 할 때 낚시줄을 바닥에 닿게 한다.	망발이를 할 때 낚시줄을 바닥에 닿게 한다. (가만앉겨줘야) 해도.		이수용 (옥지도)				X

4 체늬기 조사어휘(흥기육)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	상세분류 2	대표제어	출입암	발음장모	문서	뜻풀이	유래	출전장모1	출전장모2	형태변화 사건, 음성, 형태	표준국어 사건, 음성, 형태		
어촌생활진흥 아로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늬기	고기 잠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행위	나가기라 한다	나가기라 한다		배를 다시 애초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다. 물고기를 잡을 때 돛을 이용해 배를 고정시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조금씩 이동할 수 있다. 배가 물살에 이동하면 다시 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는데 이처럼 물살에 떠내려간 배를 다시 물고기 애초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나가기라 한다. '나가기라 한다. 나가기라 한다.' 등으로 표현한다. '나가기라/나가래'는 다시 어초를 찾아 이동하는 것인데 이는 '하다, 보다'와 연어 구조도 표현한다.	이수용 (옥지도)					X	
										배를 다시 애초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다. 물고기를 잡을 때 돛을 이용해 배를 고정시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조금씩 이동할 수 있다. 배가 물살에 이동하면 다시 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는데 이처럼 물살에 떠내려간 배를 다시 물고기 애초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늬기	고기 잠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행위	나가기라 보다	나가기라 한다		배를 다시 애초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다. 물고기를 잡을 때 돛을 이용해 배를 고정시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조금씩 이동할 수 있다. 배가 물살에 이동하면 다시 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는데 이처럼 물살에 떠내려간 배를 다시 물고기 애초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X	
										배를 다시 애초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다. 물고기를 잡을 때 돛을 이용해 배를 고정시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조금씩 이동할 수 있다. 배가 물살에 이동하면 다시 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는데 이처럼 물살에 떠내려간 배를 다시 물고기 애초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늬기	고기 잠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행위	망겨 올리베리다	나가기라 한다		배를 다시 애초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다. 물고기를 잡을 때 돛을 이용해 배를 고정시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조금씩 이동할 수 있다. 배가 물살에 이동하면 다시 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는데 이처럼 물살에 떠내려간 배를 다시 물고기 애초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X	
										배를 다시 애초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다. 물고기를 잡을 때 돛을 이용해 배를 고정시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조금씩 이동할 수 있다. 배가 물살에 이동하면 다시 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는데 이처럼 물살에 떠내려간 배를 다시 물고기 애초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늬기	고기 잠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행위	망겨 올리베리다	망겨 올리베리다		고기가 낚시대에 걸리면 낚시대를 망겨 올린다.	어. 밑에 아래 막 쪼아 낚다가 {땀겨올리베리다} 이말이래 그러면 양에 그 제이리하고 튀지 그러게 다 들어기베. 고마.	이수용 (옥지도)						X
										고기가 낚시대에 걸리면 낚시대를 망겨 올린다.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늬기	고기 잠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행위	망겨 올리베리다	망겨 올리베리다		고기가 낚시대에 걸리면 낚시대를 망겨 올린다.							X	
										고기가 낚시대에 걸리면 낚시대를 망겨 올린다.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늬기	고기 잠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행위	망겨 올리베리다	망겨 올리베리다		고기가 낚시대에 걸리면 낚시대를 망겨 올린다.							X	
										고기가 낚시대에 걸리면 낚시대를 망겨 올린다.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늬기	고기 잠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행위	망겨 올리베리다	망겨 올리베리다		고기가 낚시대에 걸리면 낚시대를 망겨 올린다.							X	
										고기가 낚시대에 걸리면 낚시대를 망겨 올린다.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늬기	고기 잠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행위	망겨 올리베리다	망겨 올리베리다		고기가 낚시대에 걸리면 낚시대를 망겨 올린다.							X	
										고기가 낚시대에 걸리면 낚시대를 망겨 올린다.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늬기	고기 잠기	행위	현장에서 행위	행위	망겨 올리베리다	망겨 올리베리다		고기가 낚시대에 걸리면 낚시대를 망겨 올린다.							X	
										고기가 낚시대에 걸리면 낚시대를 망겨 올린다.		이수용 (옥지도)						X

4 체냥기 조사어휘(흉기육)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	상세분류 2	대표어	출판명	발음정보	용례	기타 정보	출간정보1	출간정보2	형태분류 (사자, 동성, 양언어부)	표음국어 시간 등 정보																																																																																																																																																						
어촌생활 전통 어로	체냥기	고기 잡기	행위	형경에서 행위		행위	헛바닥 주사 널다	<p>인 밖으로 나온 물고기를 헛바닥에 떨어 내 놓고, 잡힌 물고기(헛바닥)에 대한 칭찬으로 물고기를 잡지 않을 척으로 나오면 헛바닥에 떨어 내는 척 배치고 그대면 (헛바닥을 이용해 주사 놓)이 무레가 앞으로 뛰어오는데 그러면 물고기가 흥분에 대응을 잘어본다고 한다. 이렇게 해 공기가 빠지면 무레와 함께 빠져나온 물 고기 혀(헛바닥)도 잡아낼어준다고 한다.</p>	<p>헛바닥 주사 널다</p>	<p>헛바닥 주사 널다</p>		이수용 (옥지도)	이수용 (옥지도)	O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체냥기	행위	현경에서 행위		행위	물고기를 잡아다	<p>물고기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 근데 덕 을 갖아 자리를 훑겨 가며 낚시를 한다.</p>	<p>물고기를 잡아다</p>	<p>물고기를 잡아다</p>		이수용 (옥지도)	이수용 (옥지도)	O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체냥기	어획물	전체명칭			고기	<p>명 = 물고기.</p>	<p>명 = 물고기.</p>		<p>어때. 이 {고기} 맞았다. 이 무슨 고기고? 이런. 인자 이런 거.</p>	이수용 (옥지도)	이수용 (옥지도)	O	O																																																																																																																								
																																														어촌생활 전통 어로	체냥기	어획물	전체명칭		물고기	<p>명 = 물고기.</p>	<p>{물고기가} 들어오면 물이 들어올 때는 들어 와 가지고 나갈 때는 못 나니께네 그대 갈하는 걸 뭐라 하던만.</p>	<p>명 = 물고기.</p>		<p>{물고기가} 들어오면 물이 들어올 때는 들어 와 가지고 나갈 때는 못 나니께네 그대 갈하는 걸 뭐라 하던만.</p>	이수용 (옥지도)	이수용 (옥지도)	O	O																																																																																																									
																																																													어촌생활 전통 어로	체냥기	어획물	전체명칭		뒷고기	<p>명 = 뒷고기로 이동하지 않고 옥지도 주변 에서 머물며 사는 고기.</p>	<p>명 = 뒷고기로 이동하지 않고 옥지도 주변 에서 머물며 사는 고기.</p>	<p>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옥지도 주변 에서 머물며 사는 고기.</p>		<p>그 {뒷고기들의} 짐이예요. 상의 터예요. 그대 덕인데. 좋아하는 그런 곳에 안 살아요.</p>	이수용 (옥지도)	이수용 (옥지도)	O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체냥기	어획물	종류		고등어	<p>명 = 고등어.</p>	<p>{고등어는} 이제 계속 고등어라고 하고, 고등어 낚시는 여기 이렇게 뭐 우리 경제적인 낚시가 아니고 이제 레포즈 낚시였었고.</p>	<p>명 = 고등어.</p>		<p>{고등어는} 이제 계속 고등어라고 하고, 고등어 낚시는 여기 이렇게 뭐 우리 경제적인 낚시가 아니고 이제 레포즈 낚시였었고.</p>	이수용 (옥지도)	이수용 (옥지도)	O	O																																																																											
																																																																																											어촌생활 전통 어로	체냥기	어획물	종류		포두리	<p>명 = 고등어.</p>	<p>고등어네. {포두리}.</p>	<p>명 = 고등어.</p>		<p>고등어네. {포두리}.</p>	이수용 (옥지도)	이수용 (옥지도)	O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체냥기	어획물	종류		고소리	<p>명 = 고등어.</p>	<p>그런데, 그대 안 걸코. {고소리라} 말은 고등어 라는 말이기도요. 고등어를 우리 순옥지말도 고 소리 그러는데.</p>	<p>명 = 고등어.</p>		<p>그런데, 그대 안 걸코. {고소리라} 말은 고등어 라는 말이기도요. 고등어를 우리 순옥지말도 고 소리 그러는데.</p>	이수용 (옥지도)	이수용 (옥지도)	O	O																																													
																																																																																																																									어촌생활 전통 어로	체냥기	어획물	종류		사바	<p>명 = 고등어.</p>	<p>해, 보통 고등어 큰 거를 {사바} 그러거든요.</p>	<p>명 = 고등어.</p>		<p>해, 보통 고등어 큰 거를 {사바} 그러거든요.</p>	이수용 (옥지도)	이수용 (옥지도)	O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체냥기	어획물	종류		남칸사바	<p>명 작은 크기의 고등어.</p>	<p>남칸. {남칸사바}. 이 왜놈 말입니다. 순일본사 람 말인데.</p>	<p>명 작은 크기의 고등어.</p>		<p>남칸. {남칸사바}. 이 왜놈 말입니다. 순일본사 람 말인데.</p>	이수용 (옥지도)	이수용 (옥지도)	O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체냥기	어획물	종류		주우사바	<p>명 중간 크기의 고등어.</p>	<p>중간 좋은 건 {주우사바}, 남칸, 남칸이라 하 는 건 이제 조개한 건.</p>	<p>명 중간 크기의 고등어.</p>		<p>중간 좋은 건 {주우사바}, 남칸, 남칸이라 하 는 건 이제 조개한 건.</p>	이수용 (옥지도)	이수용 (옥지도)	O	X

4 체뉘기 조사어휘(흥기옥)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	상세분류 2	대표어	출입말	발음정보	음차	뜻풀이	용례	기타 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영단어부호	영단어부호	표준국어	
어촌생활진흥	어촌	채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고사바			명 큰 크기의 고등어.	큰 거는 {고사바}.		이수용 (옥지도)				○	X
어촌생활진흥	어촌	채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방어			명 = 방어.	{방어지}.		이수용 (옥지도)				○	○
어촌생활진흥	어촌	채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방에			명 = 방어.	요서는 {방에라고} 합니다.		이수용 (옥지도)				○	X
어촌생활진흥	어촌	채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아도			명 = 방어.	인제 그 방어 방어는 방어가 아니고 여기서는 {아도}, 아도라 그래요.		이수용 (옥지도)				○	X
어촌생활진흥	어촌	채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알아도			명 작은 크기의 방어.	아도 뭐, 그 다음에 큰 거를 아도라 했고, 알아도라 알아도, 작은 걸 {알아도}.		이수용 (옥지도)				○	X
어촌생활진흥	어촌	채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중부리			명 중간 크기의 방어.	큰 거는 인제 그 {중부리}, 대부리 위 고부리 그렇게 불렀어요.		이수용 (옥지도)				○	X
어촌생활진흥	어촌	채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고부리			명 큰 크기의 방어.	{고부리는} 더 큰 거고.		이수용 (옥지도)				○	X
어촌생활진흥	어촌	채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대부리			명 큰 크기의 방어.	큰 거는 인제 그 중부리, {대부리} 위 고부리 그렇게 불렀어요.		이수용 (옥지도)				○	X
어촌생활진흥	어촌	채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삼치			명 = 삼치.	{삼치}, 삼치가 나지요, 삼치가 옛날 요기서 많이 나 갖고 수출도 많이 시켰습니다.		이수용 (옥지도)				○	○
어촌생활진흥	어촌	채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마구리			명 = 삼치.	{마구리}는 커는 말 새기거든요.		이수용 (옥지도)				○	X
어촌생활진흥	어촌	채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가도			명 = 삼치.	우리가 가또란 카는 말도 써는데 삼치를 {가또란} 해가지고 크게 가지 없다고 말하는데 있고		이수용 (옥지도)				○	X
어촌생활진흥	어촌	채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농어			명 = 농어.	{농어는} 요게 더러 잡히지.		이수용 (옥지도)				○	○
어촌생활진흥	어촌	채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까치메이			명 농어 새끼.	{까치메이}, 까치메기.		이수용 (옥지도)				○	X
어촌생활진흥	어촌	채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까치메기			명 농어 새끼.	그 다음에 농어는 농어는 새끼를 {까치메기라} 했어요, 까치메기		이수용 (옥지도)				○	X

4 체류기 조사어휘(흥기육)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	상세분류2	상세분류	상세분류2	대표어	출발어	유래	기타 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영단어부호 사건·용성 표음부호	표음국어 사건·용성 표음부호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명 = 감성동.	{감성동}. 그것은 인해 감시이라고 했지요.	용지도에서는 '감성동'이라는 표준 어휘보다는 '감시', '감식이' '감승어'라 부른다. 또한 '종감시' 이는 세계 감성동을 말하거나, 품에 잠든 것이 없는 감승어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수용 (욕지도)		○	○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명 = 감성동.	{감시어}도 있지. 감시어. 제일 많이 쓰는 게 별 사람들이 감시어라고 합니다.			이수용 (욕지도)		○	○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명 = 감성동.	{감승어}. 감승어.			이수용 (욕지도)		○	○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명 = 감성동.	그래서 인해 감성동이라든가 {감시어라든가}, 혹은 낚을 때는 바닥에다 완전히 가라 앉혀서			이수용 (욕지도)		○	○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명 = 감성동.	작은 크기의 감성동을 이르거나 품에 품어 감시어. {종감시어}.			이수용 (욕지도)		○	○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명 = 감성동.	그랬고, 이제 동 낚시해서 {동}. 동 낚시는 여름 월에 해서 여름철 가을 하죠.			이수용 (욕지도)		○	○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명 = 감성동.	들은 작은 걸 {상사리라} 했어요. 상사리. 들은 작은 걸 상사리라 하고 큰 걸 동아라고 하고. 동 했어요. 동.			이수용 (욕지도)		○	○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명 = 감성동.	{혹동이라고}. 혹은 북 붙은 거는 혹동이고. 혹은 안 낚은 거는 가리이라고			이수용 (욕지도)		○	○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명 = 감성동.	작은 크기의 혹동. 머리에 혹은 자라지 않았	{가리어}. 작은 걸 가리어라 하고.			이수용 (욕지도)		○	○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명 = 감성동.	명 = 전경이	{전경이가} 아지거든요.			이수용 (욕지도)		○	○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명 = 감성동.	명 = 전경이	전경은 있지요. {전경이}.			이수용 (욕지도)		○	○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류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명 = 감성동.	명 = 전경이	{메가리}. 거기 말하자면 아진데. 전경이. 옛날 말로 아지고.			이수용 (욕지도)		○	○

4 체류기 조사어휘(흥기옥)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	상세분류 2	대표어	출입암	발음장모	음차	뜻풀이	유래	기타 정보	출전장모1	출전장모2	영단어부	영단어부	표준국어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널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어획물	어획물	명	= 전경이	전경이가 얼른말로 {아지}.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널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어획물	어획물	명	큰 크기의 전경이.	{오아지는} 큰 아지.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널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어획물	어획물	명	중간 크기의 전경이.	{주아지는} 중간 것. 고아지는 작은 것.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널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어획물	어획물	명	작은 크기의 전경이.	주아지는 중간 것. {고아지는} 작은 것.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널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어획물	어획물	명	= 불락.	{불락이} 많이 잡히고 인해, 오월 유월쯤 되면은 그거예요.			김흥국 (옥지도)					O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널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어획물	어획물	명	= 불락.	{불락어는} 불래이 불래이.			김흥국 (옥지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널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어획물	어획물	명	= 불락.	그래서 이 불락을 여기서서 {불래이라} 했어요.			김흥국 (옥지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널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어획물	어획물	명	= 불락.	{불래이}. 그래서 그 불래이도 그 종류가 그 까만 불래이가 있고 붉은 불래이가 있어요.			김흥국 (옥지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널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어획물	어획물	명	검은 빛의 불락.	불래이. 그래서 그 불래이도 그 종류가 그 {까만 불래이가} 있고 붉은 불래이가 있어요.			김흥국 (옥지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널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어획물	어획물	명	붉은 빛의 불락.	불래이. 그래서 그 불래이도 그 종류가 그 까만 불래이가 있고 {붉은 불래이가} 있어요.			김흥국 (옥지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널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어획물	어획물	명	검은 빛의 불락. = 까만 불래이.	그 까만 거는 {억불래이}. 억불래이 이렇게 했고.			김흥국 (옥지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널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어획물	어획물	명	붉은 빛의 불락. = 붉은 불래이.	{불락 불래이가} 아니고 인해 {불락 불래이}라는 말은 안 쓰고 고마 {열기라고} 했고.			김흥국 (옥지도)					O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채널기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종류	어획물	어획물	명	불락은 잠는 행위를 이르는 말.	그렇게 놓여 낚시하는 건 놓아바리라고 하거든. '놓아바리. 불락바리. 잠지바리. 조기바리. 잠지바리'와 같이 '놓고기 이름+바리' 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흥국 (옥지도)					X

4 체뉴기 조사어휘(흥기옥)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	상세분류 2	대표어	출입장	발음장모	원시	뜻풀이	원래	기타 정보	출신장모1	출신장모2	영단어부호	영단어부호	표준국어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뉴기	고기 잡기	어획물	어획물	기타	기타	농어바리	명	농어를 잡는 행위를 이르는 말.	농어바리	농어바리 뭐 그런 행위를 {농어바리라고} 그래요.			김흥국 (육지도)				○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뉴기	고기 잡기	어획물	어획물	기타	기타	장치바리	명	장치를 잡는 행위를 이르는 말.	장치바리	바리라는 말 {장치바리니} 조기바리니 뭐 콩치바리니 바리라고 어항 그 자체에 부지 쓰는 말이지.			김흥국 (육지도)				○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뉴기	고기 잡기	어획물	어획물	기타	기타	조기바리	명	조기를 잡는 행위를 이르는 말.	조기바리	바리라는 말 {장치바리니} {조기바리니} 뭐 콩치바리니 바리라고 어항 그 자체에 부지 쓰는 말이지.			김흥국 (육지도)				○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뉴기	고기 잡기	어획물	어획물	기타	기타	콩치바리	명	콩치를 잡는 행위를 이르는 말.	콩치바리	바리라는 말 {장치바리니} 조기바리니 뭐 {콩치바리니} 바리라고 어항 그 자체에 부지 쓰는 말이지.			김흥국 (육지도)				○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뉴기	고기 잡기	어획물	어획물	기타	기타	아도바리	명	방어를 잡는 행위를 이르는 말.	아도바리	인제 그 방어 방어는 방어가 아니고 여기서는 아도 아도라 그래요. {아도바리}.			김흥국 (육지도)				○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뉴기	고기 잡기	장소	장소			덕	명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반식하는 바다 밑의 돌기도도룩한 곳.	덕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반식하는 바다 밑의 돌기도도룩한 곳.		고기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체뉴기 어임을 하는 장소가 달라진다. 주로 어촌인 '덕'에 고기가 많이 서식하므로 덕에서 조망이 이뤄진다.	김흥국 (육지도)				○	○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뉴기	고기 잡기	장소	장소			아초	명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반식하는 바다 밑의 돌기도도룩한 곳.	아초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반식하는 바다 밑의 돌기도도룩한 곳.			김흥국 (육지도)				○	○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뉴기	고기 잡기	장소	장소			깊은 덕	명	수심이 깊은 곳에 있는 아초.	깊은 덕	감성들은 배를 째 세워서 인제 그 덕에 얹은 덕. 대체로 좁 (깊은 덕은) 아니고요.			이수용 (육지도)				○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뉴기	고기 잡기	장소	장소			얕은 덕	명	수심이 얕은 곳에 있는 아초.	얕은 덕	감성들은 배를 째 세워서 인제 그 덕에 얹은 덕. 대체로 좁 (얕은 덕은) 아니고요.			이수용 (육지도)				○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뉴기	고기 잡기	장소	장소			모래바닥	명	바닥이 모래로 이뤄진 곳.	모래바닥	덕하고 관계없이. {모래바닥이다}. 요 지역이 모래바닥이다.			이수용 (육지도)				○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뉴기	고기 잡기	장소	장소			모래밭	명	바닥이 모래로 이뤄진 곳.	모래밭	{모래밭}. 그는 바다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것도 한 수심 이십메타 내에 있는 이 내에 있는 모래밭. 뭐 모래밭이나 작밭이라 그래요. 작밭.			이수용 (육지도)				○	○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뉴기	고기 잡기	장소	장소			자갈밭	명	바닥에 자갈로 이뤄진 곳.	자갈밭	{자갈밭이다} 아니면 빨밭이다. 마. 이런 어떤 위치의 아무 곳이나 가서.			이수용 (육지도)				○	○

4 체널기 조사어휘(흥기육)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	상세분류2	대표어	출판명	발음장모	문사	뜻풀이	유래	기타 정보	출판정보1	출판정보2	영단어/영성어/영성어/영성어/영성어	표준국어대사전/표준국어대사전/표준국어대사전/표준국어대사전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누기	고기 잡기	장소				작발		명 바닥에 작은 자갈로 이뤄진 곳.	모래밭, 그는 바다가 굉장하 넓거든요. 그것도 한 수심 이십메다 내에 있는 이 내에 있는 모래밭. 뭐 모래밭이나 {작발이라} 그래요. 작발.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누기	고기 잡기	장소				배위 등		명 배위의 사이를, 체누기 고기 잡기에 좋은 장소로 주로 볼락잡을 때 이용하는 장소고, 인자 그래하고.				이수용 (옥지도)				O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누기	고기 잡기	장소				배 위		명 배의 위, 체누기 고기 잡기에 좋은 장소로 강성동, 활동, 도다리 등을 명받이로 할 때도 이용하는 장소고, 이를 위해서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작업을 한다.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누기	고기 잡기	시기				사리때		명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큰 날.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누기	고기 잡기	시기				양시때		명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큰 날.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누기	고기 잡기	시기				양시		명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큰 날.				이수용 (옥지도)				O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누기	고기 잡기	시기				조금		명 음력 8월, 음력 23일로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작을 때'로 물의 흐름이 느려지는 때.				이수용 (옥지도)				O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누기	고기 잡기	시기				조금때		명 음력 8월, 음력 23일로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작을 때'로 물의 흐름이 느려지는 때.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누기	고기 잡기	시기				조금시		명 음력 8월, 음력 23일로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작을 때'로 물의 흐름이 느려지는 때.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누기	고기 잡기	시기				한조금		명 음력 8월, 음력 23일로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작을 때'로 물의 흐름이 느려지는 때.				이수용 (옥지도)				O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누기	고기 잡기	시기				일두물~두물		명 음력 8월, 음력 23일로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작을 때'로 물의 흐름이 느려지는 때.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록	어촌생활전통 어록	체누기	고기 잡기	방법				차박기		명 해당 어종이 모여 있는 곳에 배를 타고 나가 2-3개의 돛으로 배를 고정시킨 후 낚시줄을 느슨하게 둘라 바다에 닿게 하는 것. 물 밑 바닥에 가라 앉히는 것.				이수용 (옥지도)				X

4 체뉴기 조사어휘(흥기육)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2	상세분류	상세분류2	대표어	활용법	발음장모	문서	뜻풀이	용례	출진장모1	출진장모2	형태변화 (사건, 음성, 의미)	표준국어 사건 등 의미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기 잡기	방법					명발이		명	해당 어종이 모여 있는 곳에 배를 타고 나가 2~3개의 돛으로 배를 고정시킨 후 낚시줄을 느슨하게 돌려 바다에 맡겨 한다. 풀을 가라앉히는 것.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기 잡기	방법					줄블레이		명	블랑은 장은 채뉴기 방식 블랑은 장은 번식으로 블랑은 한 곳에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는데 이를 채보자들은 당기러져 있다고 표현하였다. 그래서 블랑 낚 마리면 낚시바늘을 풀면 다른 낚시도 한꺼번에 미끼를 물어 잡기가 수월하다. 민장미끼를 달아 조그만 낚시대를 움직여주면 블랑이 달려드는 데 이를 '줄블레이'라고 표현한다.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기 잡기	어획물 처리					소금 삶다		구	잡은 고기에 소금을 뿌린다.	그리면 짐에 갖다놓고, 막 그리고 전부 {소금을 삶고} 이렇게 하고 인자.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기 잡기	어획물 처리					찌다		동	잡은 고기를 뜨거운 감에 찌다.	{찌든} 막고 꺾고 먹고 회도 해 먹고 옛날에는 우리 사람을 튀 팔 때도 없었니까.	이수용 (옥지도)				O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기 잡기	어획물 처리					끓다		동	잡은 고기를 끓에 끓다.	찌도 먹고 {꾸도} 먹고 회도 해 먹고 옛날에는 우리 사람을 튀 팔 때도 없었니까.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기 잡기	어획물 처리					회		명	고기나 생선을 날로 잘게 썰어서 먹는 음식.	찌도 먹고 꺾고 먹고 {회도} 해 먹고 옛날에는 우리 사람을 튀 팔 때도 없었니까.	이수용 (옥지도)				O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기 잡기	기타					바께 오다	바께오다	동	잡은 고기와 다른 생필품과 바꾸어 오다.	바꾼다하지 말하자면 고기주고 쌀 {바께오다}. 인제 요래가지고.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기 잡기	기타					설이 줘다		구	바늘 간격이 좁다. 채뉴기에서 바늘 달린 낚시줄을 '설'이라 한다.	그 그물을 우리 보러 보면 {설이 줘다} 좀 더 주라.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기 잡기	기타					고기가 당겨 리져 있다		구	고기가 때로 몰려 있다. 블랑은 한 곳에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는데 이를 채보자들은 '당겨리져 있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래서 블랑 낚 마리면 낚시바늘을 풀면 다른 낚시도 한꺼번에 미끼를 물어 잡기가 수월하다.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기 잡기	기타					바늘이 시달 리다		구	고기 바늘이 여러 이유로 상한다.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고기들이 서로 부딪혀 바늘이 이렇게 잡는 어면도다도 낚시로 잡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바늘이 상하면 상통성이 떨어지는데 이걸함 고기 캐리 부딪혀 바늘이 상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기 잡기	기타					덕이 지다		구	어초가 있다. 황죽의 지행지행은 고기들이 서식하고 좋은 곳을 '어초'라 하는데 남해에는 '덕'이라 하기도 한다. 어저음 어러. 한 어초가 있는 것을 표현한다.		이수용 (옥지도)				X	

4 체뉴기 조사어휘(흥기옥)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	상세분류 2	대표어	출판명	발음장보	문자	뜻풀이	용례	기타 정보	출판정보1	출판정보2	영단어번호 사건·용성 영단어번호	표준국어 사건·용성 영단어번호		
어촌생활진흥 아로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기 잡기	기타	기타	기타	어찌 있다	어찌 있다	구	물속의 지렁이들이 서식하고 풀은 구름이 서식하고 하는 데 남해안에서는 '덕'이라 하고 이처럼 이러한 어초가 있는 거기를 표현한다.	물속의 지렁이들이 서식하고 풀은 구름이 서식하고 하는 데 남해안에서는 '덕'이라 하고 이처럼 이러한 어초가 있는 거기를 표현한다.	물속의 지렁이들이 서식하고 풀은 구름이 서식하고 하는 데 남해안에서는 '덕'이라 하고 이처럼 이러한 어초가 있는 거기를 표현한다.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기 잡기	기타	기타	어초가 있다	어초가 있다	구	고기 서식지가 있다. 물속의 지렁이들이 고기 서식하고 하는 데 남해안에서는 '덕'이라 하고 이처럼 이러한 어초가 있는 거기를 표현한다.	고기 서식지가 있다. 물속의 지렁이들이 고기 서식하고 하는 데 남해안에서는 '덕'이라 하고 이처럼 이러한 어초가 있는 거기를 표현한다.	고기 서식지가 있다. 물속의 지렁이들이 고기 서식하고 하는 데 남해안에서는 '덕'이라 하고 이처럼 이러한 어초가 있는 거기를 표현한다.		이수용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사 지내기	명칭	명칭	고사	고사	고사	명	역운(厄運)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 혹 집안에서 성기는 신(神)에게 음식을 지내 놓고 비는 제사.	역운(厄運)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 혹 집안에서 성기는 신(神)에게 음식을 지내 놓고 비는 제사.	그러서 인해 배에서 막 돼지잡고 이래라고 {고 사한다}고 그러가지고.	김흥국 (옥지도)					O	
어촌생활진흥 아로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사 지내기	명칭	명칭	풍신계	풍신계	명	음력 2월 초하루부터 스무날 사이에 풍신인 영등할머니에게 지내는 제사. 짐짐마다 부 엿이나 뒤통에 제단을 지르고, 북꽂우의 피 해를 면하여 주고 집안 식구에 복을 내려 주기를 한다.	음력 2월 초하루부터 스무날 사이에 풍신인 영등할머니에게 지내는 제사. 짐짐마다 부 엿이나 뒤통에 제단을 지르고, 북꽂우의 피 해를 면하여 주고 집안 식구에 복을 내려 주기를 한다.	음력 2월 초하루부터 스무날 사이에 풍신인 영등할머니에게 지내는 제사. 짐짐마다 부 엿이나 뒤통에 제단을 지르고, 북꽂우의 피 해를 면하여 주고 집안 식구에 복을 내려 주기를 한다.	우리가 {풍신계를} 음력 이 월에 올렸요. 계절 을 막 풀었을 때, 막 이렇게 풀렸요.	김흥국 (옥지도)					O	
어촌생활진흥 아로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사 지내기	명칭	명칭	진수식	진수식	명	새로 만든 배를 처음으로 물에 띄울 때에 하 는 의식.	새로 만든 배를 처음으로 물에 띄울 때에 하 는 의식.	이제 배라는 게, 인해 우리가 여기 {진수식이} 있 아요. 진수식인데 서낭, 서낭하는 거 같아요.		김흥국 (옥지도)						O
어촌생활진흥 아로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사 지내기	행위	행위	고사 하다	고사 하다	동	역운(厄運)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 혹 집안에서 성기는 신(神)에게 음식을 지내 놓고 비는 제사를 지낸다.	역운(厄運)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 혹 집안에서 성기는 신(神)에게 음식을 지내 놓고 비는 제사를 지낸다.	이래라고 {고사} 한다고 그러가지고 인해 그러 놓고 비는 제사를 지내요.		김흥국 (옥지도)					O	
어촌생활진흥 아로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사 지내기	행위	행위	고사 지내다	고사 지내다	동	역운(厄運)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 혹 집안에서 성기는 신(神)에게 음식을 지내 놓고 비는 제사를 지낸다.	역운(厄運)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 혹 집안에서 성기는 신(神)에게 음식을 지내 놓고 비는 제사를 지낸다.	행위가 배에 인해 역간의 {고사 지내는} 수준 을 높고 비는 제사를 지내요.		김흥국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사 지내기	행위	행위	할머니 지내 다	할머니 지내 다	구	풍신인 영등할머니에게 풍꽂우를 피혜를 면 하고 집안 식구를 위한 제사를 지낸다.	풍신인 영등할머니에게 풍꽂우를 피혜를 면 하고 집안 식구를 위한 제사를 지낸다.	{할머니} 이렇게 지낸다.		김흥국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사 지내기	행위	행위	바람 올린다	바람 올린다	구	풍신인 영등할머니에게 풍꽂우를 피혜를 면 하고 집안 식구를 위한 제사를 지낸다.	풍신인 영등할머니에게 풍꽂우를 피혜를 면 하고 집안 식구를 위한 제사를 지낸다.	그 바람을 잡게 우기 위해 거 {올리다} 만 그 자체가 인해 잡게 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김흥국 (옥지도)					X	
어촌생활진흥 아로	어촌생활진흥 아로	체뉴기	고사 지내기	행위	행위	할머니 올라 기다	할머니 올라 기다	구	영등할머니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나서 풍 신인 영등할머니를 잡게우다.	영등할머니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나서 풍 신인 영등할머니를 잡게우다.	이 동네는 {할머니 올라} 그런 말을 해요.		김흥국 (옥지도)						X

4 체뉴기 조사어휘(흥기육)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	상세분류2	상세분류2	대표어	출입장	발음장모	문자	뜻풀이	유래	기타 정보	출신장모1	출신장모2	영단어/사자/용성/영단어/사자/용성	표준국어사진 등
어촌생활	어촌 생활	어촌 어로	체뉴기	고사 지내기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	상세분류2	대표어	출입장	문자	뜻풀이	유래	기타 정보	출신장모1	출신장모2	영단어/사자/용성/영단어/사자/용성	표준국어사진 등
어촌생활	전통 어로	체뉴기	기타	기타	상세분류	상세분류2	대표어	출입장	발음장모	문자	뜻풀이	유래	기타 정보	출신장모1	출신장모2	영단어/사자/용성/영단어/사자/용성	표준국어사진 등	
어촌생활	전통 어로	체뉴기	관용 표현	관용 표현	상세분류	상세분류2	대표어	출입장	발음장모	문자	뜻풀이	유래	기타 정보	출신장모1	출신장모2	영단어/사자/용성/영단어/사자/용성	표준국어사진 등	
어촌생활	전통 어로	체뉴기	관용 표현	관용 표현	상세분류	상세분류2	대표어	출입장	발음장모	문자	뜻풀이	유래	기타 정보	출신장모1	출신장모2	영단어/사자/용성/영단어/사자/용성	표준국어사진 등	
어촌생활	전통 어로	체뉴기	관용 표현	관용 표현	상세분류	상세분류2	대표어	출입장	발음장모	문자	뜻풀이	유래	기타 정보	출신장모1	출신장모2	영단어/사자/용성/영단어/사자/용성	표준국어사진 등	

4 승어들이 조사어휘(흥기옥)

범주	대표류	승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류	올림람	발음정보	음사	뜻풀이	유래	출진정보1	출진정보2	원정보1, 원타정보, 원차 정보	표준국어대사전 등 기타정보
어촌생활·전통어	어촌생활·전통어	승어들이	명칭	부분 명칭	6칙의 배	상세분류2	원표류	올림람	발음정보	음사	뜻풀이	유래	출진정보1	출진정보2	원정보1, 원타정보, 원차 정보	표준국어대사전 등 기타정보
어촌생활·전통어	어촌생활·전통어	승어들이	명칭	부분 명칭	6칙의 배	상세분류2	원표류	올림람	발음정보	음사	뜻풀이	유래	출진정보1	출진정보2	원정보1, 원타정보, 원차 정보	표준국어대사전 등 기타정보
어촌생활·전통어	어촌생활·전통어	승어들이	명칭	부분 명칭	6칙의 배	상세분류2	원표류	올림람	발음정보	음사	뜻풀이	유래	출진정보1	출진정보2	원정보1, 원타정보, 원차 정보	표준국어대사전 등 기타정보
어촌생활·전통어	어촌생활·전통어	승어들이	명칭	부분 명칭	6칙의 배	상세분류2	원표류	올림람	발음정보	음사	뜻풀이	유래	출진정보1	출진정보2	원정보1, 원타정보, 원차 정보	표준국어대사전 등 기타정보
어촌생활·전통어	어촌생활·전통어	승어들이	명칭	부분 명칭	6칙의 배	상세분류2	원표류	올림람	발음정보	음사	뜻풀이	유래	출진정보1	출진정보2	원정보1, 원타정보, 원차 정보	표준국어대사전 등 기타정보
어촌생활·전통어	어촌생활·전통어	승어들이	명칭	부분 명칭	6칙의 배	상세분류2	원표류	올림람	발음정보	음사	뜻풀이	유래	출진정보1	출진정보2	원정보1, 원타정보, 원차 정보	표준국어대사전 등 기타정보
어촌생활·전통어	어촌생활·전통어	승어들이	명칭	부분 명칭	6칙의 배	상세분류2	원표류	올림람	발음정보	음사	뜻풀이	유래	출진정보1	출진정보2	원정보1, 원타정보, 원차 정보	표준국어대사전 등 기타정보
어촌생활·전통어	어촌생활·전통어	승어들이	명칭	부분 명칭	6칙의 배	상세분류2	원표류	올림람	발음정보	음사	뜻풀이	유래	출진정보1	출진정보2	원정보1, 원타정보, 원차 정보	표준국어대사전 등 기타정보
어촌생활·전통어	어촌생활·전통어	승어들이	명칭	부분 명칭	6칙의 배	상세분류2	원표류	올림람	발음정보	음사	뜻풀이	유래	출진정보1	출진정보2	원정보1, 원타정보, 원차 정보	표준국어대사전 등 기타정보
어촌생활·전통어	어촌생활·전통어	승어들이	명칭	부분 명칭	6칙의 배	상세분류2	원표류	올림람	발음정보	음사	뜻풀이	유래	출진정보1	출진정보2	원정보1, 원타정보, 원차 정보	표준국어대사전 등 기타정보

4 승어들이 조사어휘(흥기옥)

범주	대표류	승어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용량량	발음정보	용사	뜻풀이	유래	기타 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형태정보1	형태정보2	표준국어
어촌생활진흥어로	승어들이	명칭	명칭	부분명칭	배부수출	배부수출	원표제어	쫄	발음정보	명사	승어들이 배에 있는 밥성의 생식기를 담은 도구. 승어들이는 조임을 하지 않을 때는 그릇인 어구를 바다에 걸어 놓는다. 그릇에 넣어놓은 어구는 조임을 시작하면 작업용이 되어 배와 연결해 승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승어들이 기라다리는 동인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승어들이 배에 있는 밥성의 생식기를 담은 도구. 승어들이는 조임을 하지 않을 때는 그릇인 어구를 바다에 걸어 놓는다. 그릇에 넣어놓은 어구는 조임을 시작하면 작업용이 되어 배와 연결해 승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승어들이 기라다리는 동인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유래	다른 목적에는 없는 '쫄대'는 남성의 생식기를 담아 길쭉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요즘 들어서 '대'로 그물을 배에 걸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승어가 그물에 들어와 어로장의 짐집지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쫄대를 배는 작업이다.	이은표 (가득도)		표준국어	
어촌생활진흥어로	승어들이	명칭	명칭	부분명칭	배부수출	배부수출	쫄대	쫄대	발음정보	명사	승어들이 배에 있는 밥성의 생식기를 담은 도구. 승어들이는 조임을 하지 않을 때는 그릇인 어구를 바다에 걸어 놓는다. 그릇에 넣어놓은 어구는 조임을 시작하면 작업용이 되어 배와 연결해 승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승어들이 기라다리는 동인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승어들이 배에 있는 밥성의 생식기를 담은 도구. 승어들이는 조임을 하지 않을 때는 그릇인 어구를 바다에 걸어 놓는다. 그릇에 넣어놓은 어구는 조임을 시작하면 작업용이 되어 배와 연결해 승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승어들이 기라다리는 동인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이은표 (가득도)			표준국어	
어촌생활진흥어로	승어들이	명칭	명칭	부분명칭	배부수출	배부수출	거리	거리	발음정보	명사	승어들이 배에 있는 밥성의 생식기를 담은 도구. 승어들이는 조임을 하지 않을 때는 그릇인 어구를 바다에 걸어 놓는다. 그릇에 넣어놓은 어구는 조임을 시작하면 작업용이 되어 배와 연결해 승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승어들이 기라다리는 동인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승어들이 배에 있는 밥성의 생식기를 담은 도구. 승어들이는 조임을 하지 않을 때는 그릇인 어구를 바다에 걸어 놓는다. 그릇에 넣어놓은 어구는 조임을 시작하면 작업용이 되어 배와 연결해 승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승어들이 기라다리는 동인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승어들이 배에 있는 밥성의 생식기를 담은 도구. 승어들이는 조임을 하지 않을 때는 그릇인 어구를 바다에 걸어 놓는다. 그릇에 넣어놓은 어구는 조임을 시작하면 작업용이 되어 배와 연결해 승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승어들이 기라다리는 동인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이은표 (가득도)			표준국어	
어촌생활진흥어로	승어들이	명칭	명칭	부분명칭	배부수출	배부수출	망도	망도	발음정보	명사	배에 줄을 묶는 곳으로 승어들이 배에는 줄이 6척의 배와 연결해 승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승어들이 기라다리는 동인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배에 줄을 묶는 곳으로 승어들이 배에는 줄이 6척의 배와 연결해 승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승어들이 기라다리는 동인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승어들이 배에 있는 밥성의 생식기를 담은 도구. 승어들이는 조임을 하지 않을 때는 그릇인 어구를 바다에 걸어 놓는다. 그릇에 넣어놓은 어구는 조임을 시작하면 작업용이 되어 배와 연결해 승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승어들이 기라다리는 동인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이은표 (가득도)			표준국어	
어촌생활진흥어로	승어들이	명칭	명칭	부분명칭	배부수출	배부수출	노	노	발음정보	명사	줄을 해서 배를 나아갈 때 사용하는 도구. 배에 줄을 묶는 곳으로 승어들이 배에는 줄이 6척의 배와 연결해 승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승어들이 기라다리는 동인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줄을 해서 배를 나아갈 때 사용하는 도구. 배에 줄을 묶는 곳으로 승어들이 배에는 줄이 6척의 배와 연결해 승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승어들이 기라다리는 동인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승어들이 배에 있는 밥성의 생식기를 담은 도구. 승어들이는 조임을 하지 않을 때는 그릇인 어구를 바다에 걸어 놓는다. 그릇에 넣어놓은 어구는 조임을 시작하면 작업용이 되어 배와 연결해 승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승어들이 기라다리는 동인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이은표 (가득도)			표준국어	
어촌생활진흥어로	승어들이	명칭	명칭	부분명칭	배부수출	배부수출	노꾸리	노꾸리	발음정보	명사	목선에 물이 많이 새게 되면 배가 무거워진 다음에 노꾸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물을 빼고 배를 띄우는 것이 노꾸리이다. 승어들이 배에는 줄이 6척의 배와 연결해 승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승어들이 기라다리는 동인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목선에 물이 많이 새게 되면 배가 무거워진 다음에 노꾸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물을 빼고 배를 띄우는 것이 노꾸리이다. 승어들이 배에는 줄이 6척의 배와 연결해 승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승어들이 기라다리는 동인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승어들이 배에 있는 밥성의 생식기를 담은 도구. 승어들이는 조임을 하지 않을 때는 그릇인 어구를 바다에 걸어 놓는다. 그릇에 넣어놓은 어구는 조임을 시작하면 작업용이 되어 배와 연결해 승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승어들이 기라다리는 동인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이은표 (가득도)			표준국어	
어촌생활진흥어로	승어들이	명칭	명칭	부분명칭	기타	기타	망대	망대	발음정보	명사	승어들이의 작업 지시를 하는 어로장은 승어들이 어장이 편히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서 승어들을 기다린다. 망대는 '망+대'로 형성어로 '망'을 보는 대로 사방을 바라 볼 수 있게 만든 곳.	승어들이의 작업 현장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로장은 어로장과 북어포장이 승어들이를 기다릴 것이다. 망대도 승어들이가 서는 망대이다. 망대도 승어들이가 서는 망대이다. 승어들이 배에 있는 밥성의 생식기를 담은 도구. 승어들이는 조임을 하지 않을 때는 그릇인 어구를 바다에 걸어 놓는다. 그릇에 넣어놓은 어구는 조임을 시작하면 작업용이 되어 배와 연결해 승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승어들이 기라다리는 동인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승어들이 배에 있는 밥성의 생식기를 담은 도구. 승어들이는 조임을 하지 않을 때는 그릇인 어구를 바다에 걸어 놓는다. 그릇에 넣어놓은 어구는 조임을 시작하면 작업용이 되어 배와 연결해 승어가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을 조아야 한다. 이처럼 승어들이 기라다리는 동인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이은표 (가득도)			표준국어	

4 승어들이 조사어휘(흥기옥)

범주	대표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	상세분류2	원표제어	용량량	발음정보	용사	뜻풀이	유래	기타 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영단어정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표준국어 사유 등 기타				
어촌생활진흥어로	승어들이	명칭	부분 명칭	기타	기타		승어들이의 작업 지시를 하는 어문장은 승어들이 어장이 훑히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서 승어를 기다린다. 망대는 망+대의 풀자. 승어로 말을 보는 대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곳.	망		승어들이의 작업 지시를 하는 어문장은 승어들이 어장이 훑히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서 승어를 기다린다. 망대는 망+대의 풀자. 승어로 말을 보는 대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곳.	{망에는} 갈 수 있지요. 배를 못 타는 거야.		이은표 (가득도)								
어촌생활진흥어로	승어들이	명칭	부분 명칭	기타	기타		망+배결과 같은 풀.	바		망+배결과 같은 풀.	{바}는 줄을 말하지에.		이은표 (가득도)								
어촌생활진흥어로	승어들이	명칭	부분 명칭	기타	기타		망에 연결된 줄로 망대와 바다에 차져 있는 어구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때 망대와 연결된 줄을 이르는 말.	망배		망에 연결된 줄로 망대와 바다에 차져 있는 어구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때 망대와 연결된 줄을 이르는 말.	망부리나 {망버나} 그거는. 망에서 망이라고 그래 망바 아십니까?	승어장이 작업이 시작되면 부목선과 안목선이 어구의 인구를 죄는데 그때는 멀리 떨어진 망대에서도 힘을 부른다. 그래서 망배에서든 잡아당길 수 있는 줄을 이어 놓았는데 그 줄 이름이 망배, 망부리이다.	이은표 (가득도)								
어촌생활진흥어로	승어들이	명칭	부분 명칭	기타	기타		망에 연결된 줄로 망대와 바다에 차져 있는 어구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때 망대와 연결된 줄을 이르는 말.	망부리		망에 연결된 줄로 망대와 바다에 차져 있는 어구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때 망대와 연결된 줄을 이르는 말.	{망부리나} 망배나 그거는. 망에서 망이라고 그래 망바 아십니까?		이은표 (가득도)								
어촌생활진흥어로	승어들이	명칭	부분 명칭	기타	기타		배의 뒷부분인 이물과 연결된 뒷의 줄.	물림줄		배의 뒷부분인 이물과 연결된 뒷의 줄.	그러면 이물에 있는 이물에 줄로 묶으려는 {물림이고}. 물림줄이란 하고, 뒤 뒤, 거기는 물림이고. {물림줄이라} 하고, 뒤 뒤, 뒤에 물림에서 멍기는 줄은 저 비음이라 하는 거야. 물림에서 멍기는 줄은 저 비음이라 하는 거야.	승어장을 하기 위해서는 승적의 배를 승어를 기다리는 동안 바다에 고정해놓아야 한다. 이때 이물과, 고물에 등을 연결해 배를 정박하는 거는 물림이고. {물림줄이라} 하고, 뒤 뒤, 뒤에 물림에서 멍기는 줄은 저 비음이라 하는 거야. 물림에서 멍기는 줄은 저 비음이라 하는 거야.	이은표 (가득도)								
어촌생활진흥어로	승어들이	명칭	부분 명칭	기타	기타		배의 뒷부분인 이물과 연결된 뒷의 줄.	물림		배의 뒷부분인 이물과 연결된 뒷의 줄.	그러면 이물에 있는 이물에 줄로 묶으려는 {물림이고}. 물림줄이란 하고, 뒤 뒤, 뒤에 물림에서 멍기는 줄은 저 비음이라 하는 거야.		이은표 (가득도)								
어촌생활진흥어로	승어들이	명칭	부분 명칭	기타	기타		배의 뒷부분인 고물에 연결된 뒷의 줄.	비음줄		배의 뒷부분인 고물에 연결된 뒷의 줄.	물림줄 {비음줄} 한 사람이 다 보배야. 그 물림이 이 사뿐때에 가까이 둘라 있는 거야. 물림이 풀어버린단다 아십니까.	승어장을 하기 위해서는 승적의 배를 승어를 기다리는 동안 바다에 고정해놓아야 한다. 이때 이물과, 고물에 등을 연결해 배를 정박하는 거는 물림이고. {물림줄이라} 하고, 뒤 뒤, 뒤에 물림에서 멍기는 줄은 저 비음이라 하는 거야. 물림에서 멍기는 줄은 저 비음이라 하는 거야.	이은표 (가득도)								
어촌생활진흥어로	승어들이	명칭	부분 명칭	기타	기타		배의 뒷부분인 고물에 연결된 뒷의 줄.	비음		배의 뒷부분인 고물에 연결된 뒷의 줄.	그러면 이물에 있는 이물에 줄로 묶으려는 {물림이고}. 물림줄이란 하고, 뒤 뒤, 뒤에 물림에서 멍기는 줄은 저 비음이라 하는 거야.		이은표 (가득도)								
어촌생활진흥어로	승어들이	명칭	부분 명칭	기타	기타		배의 뒷부분인 고물에 연결된 뒷의 줄.	도래		배의 뒷부분인 고물에 연결된 뒷의 줄.	안목선에서는 한 가에 있기 때문에 오세망대의 어로장과 부어로장의 사자는 안목선에 그 이 높을 때서 {도래를} 만들어 가지, 서 소쿠리에 담아서서는 망령이 거기서 멍기가지고 부어가지고 밥 먹고, 또 내라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은표 (가득도)								

4 승어들이 조사어휘(흥기옥)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상세분류	원표제어	용량량	발음정보	용사	뜻풀이	용례	기타 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발음정보1	발음정보2	표준국어
어촌생활·전통 어로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명칭	종사자 명칭					어로장		명	승어들이 조임을 총관장하는 사람.	오래된 승어함이 경형을 갖고 있어 광대에서 내려다 봤을 때 멀리 승어때가 보인다. 승어기가 아무로 들어오면 광대 아래의 배에게 그려진 승어들이 조임을 총관장하는 사람. 할 수도 있고, 지금에 와서 {어로장이라}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이은표 (가독도)		o		표준국어 사용 등	
어촌생활·전통 어로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명칭	종사자 명칭					망장이		명	승어들이 조임을 총관장하는 사람.	{망장이라} 하고, 망장이라 하는 여러 말 이 있어요. 요새는 주로 어로장이라 하지. 부르는 게, 어로장 그러고.	이은표 (가독도)		o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명칭	종사자 명칭					망장이		명	승어들이 조임을 총관장하는 사람.	망장이라 하고, {망장이라} 하는 여러 말 이 있어요. 요새는 주로 어로장이라 하지. 부르는 게, 어로장 그러고.	이은표 (가독도)		o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명칭	종사자 명칭					망수		명	승어들이 조임을 총관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망장이라 할 수도 있고, {망수} 할 수도 있고, 지금에 와서 어로장이라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이은표 (가독도)		o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명칭	종사자 명칭					망진		명	승어들이 조임을 총관장하는 사람.	그게 그래 {망진이라} 하고 옛날에는 망진이.	김관길 (가독도)		o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명칭	종사자 명칭					망이		명	승어들이 조임을 총관장하는 사람.	망진이가 께워, 대방이치요. 고기가 지나가는때도, {망이}가 뭐, 모든 쪽쪽하면 막, 망아갔똥는거지요. 그러니까 망진이가 제, 망 대방.	이은표 (가독도)		o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명칭	종사자 명칭					망반장		명	승어들이 조임을 총관장하는 사람.	신에 올라가면 {망반장이라고} 하는 그, 지도 똥는디.	이은표 (가독도)		o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명칭	종사자 명칭					부어포장		명	어로장 밑에 있는 서열로 어로장의 일을 돕는 사람.	그는 무조건 오늘 내일 가가지고 어로장, 어로장과 함께 망대를 지키기도 하고, 고기가 워야 어로장이 돼지, 무조건 어로장이 되, 는 게 아니거든요.	이은표 (가독도)		o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명칭	종사자 명칭					부망장이		명	어로장 밑에 있는 서열로 어로장의 일을 돕는 사람.	어로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을 인자 {부망장이}, 부망장이.	이은표 (가독도)		o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명칭	종사자 명칭					부망수		명	어로장 밑에 있는 서열로 어로장의 일을 돕는 사람.	{부망수} 아래 나오는 거지요.	이은표 (가독도)		o		x	

4 송어들이 조사어휘(흥기옥)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상세분류	원표제어	용량량	발음정보	음사	뜻풀이	용례	기타 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영단어번호, 영타입번호, 영단어영역, 영단어분류	표준국어대사전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명칭	명칭	흥겨자 명칭				어촌산, 안귀점어, 부귀점어에서 배의 요인에서 왔다. 이물우상이라, 그러니까 배의 무게 때문에 위저한 산란.	이물우상		명 어촌산, 안귀점어, 부귀점어에서 배의 요인에서 왔다. 이물우상이라, 그러니까 배의 무게 때문에 위저한 산란.	이물에서 한다고 {이물우상}, 배 이물에서 한다고, 이물우상이라, 그러니까 배의 무게 때문에 한다고 사옹이거든, 노로 짓고 한다고, 사옹이라 카고.	이은표 (가독도)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송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계절	계절		송어들이 잡업은 음력 1월 보름 경에 시작합니다. 즉, 양력 3월부터 양력 5월 경까지 3개월 정도 작업이 이어진다.	음력 1월 보름		구 송어들이 잡업은 음력 1월 보름 경에 시작합니다. 즉, 양력 3월부터 양력 5월 경까지 3개월 정도 작업이 이어진다.	시기, 전에는 보통밥 먹으면, {음력 일월 보름} 밥 먹으면 바로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가가지고 한 달 정도는 고기 잡음이 없고 못잡고 막 고생만 했거든요.	이은표 (가독도)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송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계절	계절		송어들이 잡업은 음력 1월 보름 경에 시작합니다. 즉, 양력 3월부터 양력 5월 경까지 3개월 정도 작업이 이어진다.	양력 5월		구 송어들이 잡업은 음력 1월 보름 경에 시작합니다. 즉, 양력 3월부터 양력 5월 경까지 3개월 정도 작업이 이어진다.	{5월} 하고.	이은표 (가독도)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송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계절	계절		항해 송어들이 조임을 할 수 있는 기간, 송어들이 잡업은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정도 이뤄진다.	삼개월		구 항해 송어들이 조임을 할 수 있는 기간, 송어들이 잡업은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정도 이뤄진다.	네, 그것은 다른 데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삼개월 {삼개월}, 삼개월, 이게월이면 이개월, 마칠 때까지 막 그 자리에서만, 지금 삼월, 오월 그래요.	이은표 (가독도)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송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물때	물때		송어들이 작업에 적당한 물때로 물살이 빨라지는 때.	다섯물에서 열세물		구 송어들이 작업에 적당한 물때로 물살이 빨라지는 때.	보통 다섯물, {다섯물에서 열 두물 세물}, 물이 조금 가야 조금때는 물이 잘 안 가겠어. 아, 물 조류가 이 쉼을 되던은 이 때는 시에.	송어들이 작업에 적당한 물때는 물살이 조금 빨라지는 때이다. 물살이 느리면 물이 깨끗해 빨라지는 때이고, 고기들이 장애물을 다 알고 피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살이 빨라지는 사리때가 좋은데, 다섯물에서 열세물 정도가 좋다. 물살이 느려지는 사리때를 '시때'라 한다. 물살이 느려지는 조금때인 열세물에서 배를 서이는 송어들이 작업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이은표 (가독도)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송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물때	물때		음력 9일, 음력 24일을 이르는 말.	시때		구 음력 9일, 음력 24일을 이르는 말.	{시때} 되면은 배가 빨리 많이 나고 물이 빨리 내려가거든, 그러가지고 조금때 되면은 물도 안 가고.	김연일 (가독도)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송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물때	물때		무수기에 음력 스무사흘과 초여드레를 이르는 말.	조금때		구 무수기에 음력 스무사흘과 초여드레를 이르는 말.	{시때} 되면은 배가 빨리 많이 나고 물이 빨리 내려가거든, 그러가지고 {조금때} 되면은 물도 안 가고.	이은표 (가독도)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송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물때	물때		송어들이 작업에 적당하지 않은 물때로 물살이 느려지는 때.	열세물에서 배물 사이		구 송어들이 작업에 적당하지 않은 물때로 물살이 느려지는 때.	그러니까 배 {열 두 세물에서 보통 한 다섯물, 배물 사이} 오편은 인자 물 조류가 안 빨라 안 가기 때문에, 물이 안 가기 때문에 물이 너무 얇아지고, 고기가 잡기가 힘들다 하는 겁니다.	이은표 (가독도)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송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바람	바람		동쪽에서 부는 바람.	동풍		구 동쪽에서 부는 바람.	저 동풍이지요. {동풍}.	이은표 (가독도)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송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바람	바람		동쪽에서 부는 바람.	셋바람		구 동쪽에서 부는 바람.	우리는 셋바람, {셋바람}.	셋바람은 동풍의 육지도의 방언형.	이은표 (가독도)							

4 송어들이 조사어휘(흥기옥)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상세분류	원표제어	용량량	발음정보	용사	뜻풀이	유래	기타 정보	출진 정보1	출진 정보2	영단어번호, 영단어번호, 영단어번호, 영단어번호	표준국어대사전
어촌생활	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바람	바람	바람		복동풍		명	복동쪽에서 부는 바람.	그래 복동풍은 {복동풍은} 아침에는 복동풍을 내렸다가 한 열시나 되면 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이은표 (가덕도)			0	0
어촌생활	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바람	바람	바람		노를		명	복동쪽에서 부는 바람.	그러니까 노새, {노를} 논다는 게 노새바람, 하나의 노새라 하는 것은 복동풍이, 복동풍의 역지도 반영됨. 요에 부르기 노새바람 하는 셈이고.	이은표 (가덕도)			0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바람	바람	바람		노새바람		명	복동쪽에서 부는 바람.	예, 아침 일찍 부는 것은 노새, {노새바람}, 열시나 넘어가면 동으로 해가지고 오면 완전히 셋바람.	이은표 (가덕도)			0	0
어촌생활	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바람	바람	바람		복동풍하다		구	복동풍이 불다.	우리는 인자 {복동풍을 한다는} 부르는 거는 그 {노를} 논다. 아침 일찍 노를 논다. 이렇거든요.	이은표 (가덕도)			0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바람	바람	바람		노를 논다		구	복동풍이 불다.	우리는 인자 복동풍을 한다는 부르는 거는 그 {노를} 논다. 아침 일찍 노를 논다. 이렇거든요.	이은표 (가덕도)			0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시간	시간	시간		새벽		명	동아 틀 무렵.	조용하는 시간은 저거는 썬이 없어요. {새벽에} 보통 요새 같으면 다섯 시나 아래 되면 나갈 거 아닙니까?	이은표 (가덕도)			0	0
어촌생활	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시간	시간	시간		다섯 시		명	송어들이 조업을 시작하는 새벽 5시.	조용하는 시간은 저거는 썬이 없어요. 새벽에 보통 요새 같으면 {다섯 시나} 아래 되면 나갈 거 아닙니까?	이은표 (가덕도)			0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시간	시간	시간		밤		명	해가 저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의 동안.	또 한 되면 또 {밤} 시키도 해요.	이은표 (가덕도)			0	0
어촌생활	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시간	시간	시간		조살		명	오후 1월 경 송어들이를 하는 추기에 송어를 잡으러 나가는 시기. 이때는 새벽 5시 전에 조업을 시작한다.	송어들이 하는 시기를 크게 '조살, 중살, 만살'로 나누고 새벽 1월 모음 경인 3월에는 '조살'이라 해서 새벽 세에 나가고 4월 정도 되면 {조살}이 되면 작업 시간이 더 빨라진다. 그리고, 지금 조살에는 조금 늦게 가고, 중살, 가을의 움직임이 더 한층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살이 되면 새벽 4시 정도에는 조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송어들이 작업을 종료하는 '만살' 시간이 5월이 되면 송어들이 양도 점점 줄어들어 한 해의 송어들이를 마감한다.	간관일 (가덕도)		0	x	

4 승어들이 조사어휘(흥기옥)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상세분류3	원표제어	용량량	발음정보	문사	뜻풀이	용례	기타 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발음정보1, 형태정보, 음운 정보	표준국어대사전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승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시간	시간			중상		영양 4월 경 승어들이 하는 중기에 승어를 잡으러 나가는 시기. 이때는 승어들의 몸집이 좀 더 빨라져 새벽 4시 경에 조연한 배시에 나간다.	이 초살 있고, {중살} 있고, 막살이 있는 데, 지름 초살에는 조금 늦게 가고, 중살에 초살이 좀 더 빨라져 새벽 4시 경에 조연한 배시에 나간다.		강관일 (가득도)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승어들이	고기 잡기	시기	시간	시간			막살		양력 5월 경 승어들이 하는 후기에 승어를 잡으러 나가는 시기. 이때는 승어의 수량이 줄어들어 승어들이 조업을 마감하는 시기를 나타낸다.	이 초살 있고, 중살 있고, {막살이} 있는 데, 지름 초살에는 조금 늦게 가고, 중살에 초살이 좀 더 빨라져 새벽 4시 경에 조연한 배시에 나간다.		강관일 (가득도)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승어들이	고기 잡기	위치					막 그 자리		승어가 다니는 위치는 매년 비슷한 곳이며, 중·승어들이 어장을 찾는 곳도 매년 같다. 같은 자리에 그물을 친다.	{막 그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앙에 가도 만약에 어장을 깔아 놓고 있거든.		이은표 (가득도)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승어들이	고기 잡기	위치					면애 아무 것도 없다		승어들이 그물을 치는 자리는 바다에 어초가 없는 평평한 자리여야 한다. 그곳이 찰떡이 저지 고기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 자리만은 이 {면애} 아무 것도 없어요. 깨끗하게, {그물이 안 빠진다}께네.		이은표 (가득도)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시개		승어 어장에 각 배의 자리를 정해두고 바다에 그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한다.	그래 줄로 가지고 인자 밧을 보아 된다는 걸뿐이더. 그게 인자 {시개안} 하는 겁니다.		이은표 (가득도)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시개 막다		승어 어장에 각 배의 자리를 정해두고 바다에 그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한다.	승어 어장 하나 {시개 막는다}. 즉 말해서, 밖 물권에서 배가 잘 수 있는 물을 시개를 만든다. 시 배가 잘 수 있는 물을 시개를 만든다.		이은표 (가득도)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아무 없혀 놓다		승어 어장에 각 배의 자리를 정해두고 바다에 그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한다.	한 이 개월 할 동안 그 자리에 그물은 양정, {시개} 놓다, 시개 막다, 인녕하다. 어구 양정 하, 가서는 정인할, 그개를 {어구로} 빼고, 준비를 해가 다 {양혀} 놓고.		이은표 (가득도)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시개 놓다		승어 어장에 각 배의 자리를 정해두고 바다에 그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한다.	네, {시개부터} 해가 놓고, 요 줄 줄 비스나, {이게 전부} 그 밧을 되가지고 배 고정시키시는 겁니다.		이은표 (가득도)				

4 승어들이 조사어휘(흥기옥)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용량량	발음정보	동사	뜻풀이	용례	기타 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영단어/영타입 영차 영지	표준국어 시용 등 제어법	
어촌생활	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이배이 올린다.	구	그물을 끌어 올리다.	올림줄에 {이배이 올라놓고} 나면, 비등줄은 자동적으로 배가 따라 올라간다기 때문이다.		이은표 (가덕도)				○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망장이 땀기다	구	승어들이 작업이 시작되면 망대에 있는 어도장도 함께 베틀인 망바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그물을 빨리 들어올리게 한다.	{망장이 거기서 땀겨가지고}.		이은표 (가덕도)				○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한참 대차게 놀다	구	그물 올리기 작업의 전반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말로 1번 어간의 그물을 끌어당기는 작업도 4척의 뒷배는 조금 여유가 있다. 어로쟁이 다시 '같이 해라'라는 지시가 내려지므로, 기 전까지는 뒷배들은 작업에 전념하기만 한다는 말이다.	{한참 대차게 노는} 거요.		이은표 (가덕도)				○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뫼배는 설설하다	구	뫼뫼선과 인뫼선은 제외한 나머지 배는 작업에 전진히 가담하다. 어장의 망구를 막기 위해 뫼뫼선과 인뫼선이 먼저 작업을 시작해도 4척의 뒷배는 조금 여유가 있다. 어로쟁이 다시 '같이 해라'라는 지시가 내려지므로, 기 전까지는 뒷배들은 작업에 전진히 가담한다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설설하다', '설설하다'와는 의미 차이가 있다. '설설'은 설하다라는 표현은 명사화, 최선을 다해 하지 않는 모습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표준어 '설렁설렁하다'의 의미와 연관이 된다.	이은표 (가덕도)				○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중간 잡아주다	구	구 그물의 중간을 잡아 들어 준다.	뫼뫼선과 인뫼선이 어구를 인구를 막기 위해 그물을 조여주는 작업을 할 동안 '양장등', '뫼장등' 배는 중간에서 그물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던 뫼뫼선이다. 이런 작업을 '중간 잡아주다'라 부르거나 표현한다.	이은표 (가덕도)					○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들어주다	구	구 그물의 중간을 잡아 들어 준다.	뫼뫼선과 인뫼선이 어구를 인구를 막기 위해 그물을 조여주는 작업을 할 동안 '양장등', '뫼장등' 배는 중간에서 그물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던 뫼뫼선이다. 이런 작업을 '중간 잡아주다'라 부르거나 표현한다.	이은표 (가덕도)					○	
어촌생활	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퍼 올린다	구	그물에 있는 승어를 배에 실는다. 그물을 조여 고기가 도망가지 못 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수확 작업을 한다. 배에 고기를 실는다.	이은표 (가덕도)							○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동두리 하다	구	동두리 그물을 써 고기를 퍼 올린다.	{동두리 하는} 거는 고기를 덩어리씩 주삼는다. 마 한 어떤 때는 사백마리씩 주삼는다.	이은표 (가덕도)						○ x

4 승어들이 조사어휘(흥기옥)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용례	발음정보	조사	뜻풀이	용례	기타 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발진정보1	발진정보2	표준국어대사전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승어들이 고기 잡아 올린다	그물에 잡힌 승어를 배로 잡아 올린다. 저기는 몽땅 고기를 못 올라기 때문에 쪼매이 쪼매이 해서 {잡아 올리는} 게 통두린 하는 거예요.		구				이은표 (가덕도)				○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말뚝이 하나 내 놓는다	계산 도구인 산의 말뚝이를 하나 내린다. 잡은 고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할 때 '산'이라는 도구를 이용한다. 주산할 때를 가지고 만든 고기 셀 때 사용하는 도구로 스무 마리에 주산 할 하나를 내린다.		구				김관일 (가덕도)				○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주산할 내려가다	잡은 고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할 때는 '산'이라는 도구를 이용한다. 주산할 때를 가지고 만든 고기 셀 때 사용하는 도구로 스무 마리에 주산 할 하나를 내린다.		구				김관일 (가덕도)				○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다 버리뿌다	잡은 승어를 바다에 버린다. 잡힌 승어가 너무 많으면 싹고 가기도 힘들고, 승어 가격도 떨어지므로 다시 바다에 버린다.		구				이은표 (가덕도)				○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물에 보내뿌다	잡힌 승어가 너무 많으면 싹고 가기도 힘들고, 승어 가격도 떨어지므로 다시 바다에 버린다.		구				이은표 (가덕도)				○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배 채수하다	승어들이 배를 끌고 항구로 돌아오다. 주로 동력선을 이용해 6척의 목적선을 끈다.		구				이은표 (가덕도)				○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고기 운반하다	잡은 승어를 항구가 가져오도록 이동시키다.		구				이은표 (가덕도)				○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철수하다	작업을 마치고 승어들이 어장에서 항구로 돌아오다.		구				이은표 (가덕도)				○	○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시마이 하다	작업을 마친다. 승어가 많이 움직이는 시기가 지나가면 승어들이 작업을 하여도 고기를 많이 얻을 수 없다. 그래서 5월 말이 되면 한해의 승어들이 작업을 마감한다.		구				김관일 (가덕도)				○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작업 과정				시마이 놓다	작업을 마친다. 승어가 많이 움직이는 시기가 지나가면 승어들이 작업을 하여도 고기를 많이 얻을 수 없다. 그래서 5월 말이 되면 한해의 승어들이 작업을 마감한다.		구				김관일 (가덕도)				○	X

4 승어들이 조사어휘(흥기옥)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용례	뜻풀이	종사	발음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별첨정보1 (별첨정보1, 별첨정보2, 별첨정보3, 별첨정보4, 별첨정보5, 별첨정보6, 별첨정보7, 별첨정보8, 별첨정보9, 별첨정보10)	표준국어대사전
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승어 = 승어.	승어는 {승어}.	명 = 승어.		김관일 (가덕도)			○
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명 작은 크기의 승어.	{모찌}.	명 작은 크기의 승어.		김관일 (가덕도)			○
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명 작은 크기의 승어.	그거는 인자 {모찌}, 깨배난 거, 오커만 한 거는 모찌 하는 기고.	명 작은 크기의 승어.		김관일 (가덕도)			○
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명 중간 크기의 승어.	{중부리}.	명 중간 크기의 승어.		김관일 (가덕도)			○
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명 큰 크기의 승어.	그 인자 승어, 대자 그러면 {대승어}.	명 큰 크기의 승어.		김관일 (가덕도)			○
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명 맑췌 승어.	{맑췌승어는} 보먼은 퐁퐁하고, 수승어는 좀 췌췌한 셈이지.	명 맑췌 승어.		이은표 (가덕도)			○
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명 수승 승어.	승승어는 보먼은 퐁퐁하고, {수승어는} 좀 췌췌한 셈이지.	명 수승 승어.		이은표 (가덕도)			○
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명 = 연어.	{연어도} 한 번씩 뭐 우리 어릴 때 보먼, 감성돔 그것도 한 몇 백 마리 잡은 것도 있어요.	명 = 연어.		이은표 (가덕도)			○
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어획물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명 = 감성돔.	전어도 한 번씩 뭐 우리 어릴 때 보먼 {감성돔} 그것도 한 몇 백 마리 잡은 것도 있어요.	명 = 감성돔.		이은표 (가덕도)			○
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어획물	상태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명 키가 작고 삶이 빠져 몸이 얇으로 퍼진 듯 하다.	승승어와 승승어의 색감새는 조금 다르다. 승승어는 몸통이 조금 퐁퐁한 편이고 승승어는 몸통이 앙승어에 비해 퐁퐁하지 않고 김이김이 더 있는 편이다. 이를 퐁퐁하다, 췌췌하다 라 표현하였다.	명 키가 작고 삶이 빠져 몸이 얇으로 퍼진 듯 하다.	김관일 (가덕도)			○	
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어획물	상태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명 길이에 비해 몸통이 가늘고 길다.	승승어는 보먼은 퐁퐁하고, 수승어는 좀 {췌췌한} 셈이지.	명 길이에 비해 몸통이 가늘고 길다.		김관일 (가덕도)			○
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단위	단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명 짐승이나 물고기를 세는 단위.	그러면 저 주산알로 헤아리보면 오늘 췌 {마리들} 잡았다.	명 짐승이나 물고기를 세는 단위.		이은표 (가덕도)			○
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단위	단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명 승어 20마리를 세는 단위.	스무 마리를 {열} 하거든요.	명 승어 20마리를 세는 단위.		이은표 (가덕도)			○
이촌생활·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단위	단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명 승어 100마리를 세는 단위.	한 동, 한 {동}, 천마리를 한 짐.	명 승어 100마리를 세는 단위.		이은표 (가덕도)			○

4 송어들이 조사어휘(흥기옥)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용량량	발음정보	동사	뜻풀이	용례	기타 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영단어/영타입/영성/영지	표준국어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단위				점	용량량	명	명	한 송어 1000마리를 세는 단위.	한 동. 한 동. 천마리를 한 {점}.		이은표 (가독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도구				산	용량량	명	명	잡은 송어를 세는 도구. 주산 알맹이를 줄에 끼워 만든 도구이다.	그기 우리가 {산이라} 하지. 인자 잡는 산이라 하지	잡은 송어를 세는 도구는 '산. 잡는 산'이라 한다. 이는 주산 알맹이를 줄에 끼워 만든 것으로 송어 스투마리에 주산 알맹이 하나를 내리다.	김관일 (가독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도구				잡는산	용량량	구	구	잡은 송어를 세는 도구. 주산 알맹이를 줄에 끼워 만든 도구이다.	그기 우리가 {산이라} 하지. 인자 잡는 산이라 하지		김관일 (가독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도구				주산알	용량량	명	명	잡은 송어를 세는 도구. 주산 알맹이를 줄에 끼워 만든 도구이다.	{주산알로가} 그 맹글어 냈습니다.		김관일 (가독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도구				어장 꾸미는 도구	용량량	구	구	16척의 송어들이 배의 위치를 그린 도면. 송어들이 어장의 사계를 치는데 중요하다.	어장 꾸미는 경우에는 여기 도면이 있어요. {어장 꾸미는 도면}.	송어들이 어장을 만들 때는 아무나 배의 위치를 정해서 사계를 친다. 사계를 치기 위해 어도장은 일종의 설계도 같은 것을 만드는데 이를 '어장 꾸미는 도면'이라 하고 이를 보고 사계를 치고, 어구가 쫓아지면 보수도 한다.	이은표 (가독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도구				물차	용량량	명	명	물고기를 신선한 상태로 이동시키 때 이용 하는 자.	{물차}. 물차가 오면은 한 물차에 큰 거는 한 천마리씩 실어		이은표 (가독도)				O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금기				개고기 안 먹는다	용량량	구	구	송어들이 조업을 할 때는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않. 여기는 여기는 {개고기는 어찌 안 먹어요}.	송어들이 어업에도 안전하게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금기 사항이 있다. 무엇보다 금기 사항이 없이는 예전에는 이 금기 사항을 아주 엄격히 지켜 조업을 하였지만 요즘은 송어들이 많이 잡든 송어들이 배를 많이 타지 않으려고 해 금기 사항이 많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은표 (가독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금기				침송 잡지 않는다	용량량	구	구	송어들이 조업을 할 때는 침송을 잡지 않는다.	그러니까네 여기는 {침송 같은 거는 절대 잡아서 안 되고}, 그것은 무정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김관일 (가독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금기				어자 배 안 태운다	용량량	구	구	송어들이 조업을 할 때는 어자를 배에 태우지 않는다.	정에는 옛날에는 {어자들이 어찌 안 태운다}요. 그런데 고사지낼 때만은 어자를 싣고 갔거든요.		김관일 (가독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기타				고기가 못쳐오른다	용량량	구	구	송어가 배를 지어 다니는 모습을 표현한 말.	이 {고기가 이 많이 못쳐오면은} 이 붉은 빛을 내요.		김관일 (가독도)				X
어촌생활·전통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기타				붉은 빛을 내다	용량량	구	구	배를 지어다니는 송어는 멀리서 보면 배다에 붉은 빛을 내다.	이 {고기가} 이 많이 못쳐오면은 이 {붉은 빛을 내요}.		김관일 (가독도)				X

4 승어들이 조사어휘(흥기옥)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상세분류3	원표제어	용량량	발음정보	용사	뜻풀이	용례	기타 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영단어/영타입/영성/영지	표준국어
어촌생활	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배를 지어다니는 승어는 멀리서 보면 바다에 붉은 빛을 낸다.	붉은 색이 나다.		구	배를 지어다니는 승어는 멀리서 보면 바다에 붉은 빛을 낸다.	{약간 붉은 색이 나지요}.		김관일 (가득도)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승어때 승어 어장 앞에서 움직인다.	발 앞에 놓다		구	승어때 승어 어장 앞에서 움직인다.	{승어 지 발 앞에 이렇게 놓고 있으면} 중, 기다리고 있는 거고.		김관일 (가득도)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승어들이 어장에 깔아 놓은 그물이 찢어진다.	그물 찢지다		구	승어들이 어장에 깔아 놓은 그물이 찢어진다.	{그물이 안} {짜진다}		이은표 (가득도)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승어들이 어장에 깔아 놓은 그물이 찢어진다.	그물 찢어진다		구	승어들이 어장에 깔아 놓은 그물이 찢어진다.	{짜여진다} {이명어}야, 그러면 올라버리면 뭐 다 빠져 나가니까네.		이은표 (가득도)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승어들이 그물이 찢어지면서 그 구멍으로 고기가 다 빠져나가 버린다.	고기 다 빠지다		구	승어들이 그물이 찢어지면서 그 구멍으로 고기가 다 빠져나가 버린다.	{올라버리면} 뭐 {다 빠져 나가니까네}.		김관일 (가득도)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침이 짙은 승어가 그물을 뒤어 넘어 다시 배대로 나간다.	고기 튀넘어가다		구	침이 짙은 승어가 그물을 뒤어 넘어 다시 배대로 나간다.	{튀넘어가는} 기 아마 한 몇 백 마리 됩니다.		김관일 (가득도)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승어때가 빛을 보면 어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곳으로 나가 버린다.	고기다 빛을 보면 나가떨다		구	승어때가 빛을 보면 어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곳으로 나가 버린다.	{고기가} 빛을 보면 오다가도 나가떨다, {결혼이}.		이은표 (가득도)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승어때는 빛을 보면 다른 곳으로 가 버리므로 승어를 잡는 배는 잠은 색깔을 잘한다	배를 색깔있게 잘한다		구	승어때는 빛을 보면 다른 곳으로 가 버리므로 승어를 잡는 배는 잠은 색깔을 잘한다.	{배들은} 또 새끼에 저래 색깔해져 다) 아닙니까.		이은표 (가득도)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배에 피도가 부딪히며 나는 소리를 표현하는 말.	물소리가 착착 나다		구	배에 피도가 부딪히며 나는 소리를 표현하는 말.	{물소리가} 착착 나다) 아닙니까.		이은표 (가득도)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승어들이 배는 나무를 사용해 만든다. 배에 피도가 닿아 나는 물소리를 줄이기 위해 나무를 사용해 만든 목선들 승어들이 이용한다.	나무 쓰다		구	승어들이 배는 나무를 사용해 만든다. 배에 피도가 닿아 나는 물소리를 줄이기 위해 나무를 사용해 만든 목선들 승어들이 이용한다.		이은표 (가득도)			X	
어촌생활	전통 어로	승어들이	고기 잡기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승어때가 밤에 하얀 빛을 낸다. 승어는 배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여러 대리가 함께 움직이고, 꼬리저느리미를 움직여 멀리서 고기도 꼬리치는 고린 시그리를 내 오면 반짝반짝 빛을 낸다.	반짝반짝 하얀 시그리를 낸다		구	승어때가 밤에 하얀 빛을 낸다. 승어는 배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여러 대리가 함께 움직이고, 꼬리저느리미를 움직여 멀리서 고기도 꼬리치는 고린 시그리를 내 오면 반짝반짝 빛을 낸다.		이은표 (가득도)			X	

4 송어들이 조사어휘(흥기옥)

번호	대표류	종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상세분류	원표제어	용량량	발음정보	용사	뜻풀이	유래	기타 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형태정보1	형태정보2	표준국어대사전		
어촌생활진흥	어로	송어들이	고기 잡기	기타			상세분류 2	원표제어	배막배막 하다	발음정보	용사	송어들이 배에 찬양 받음 나타. 송어는 배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여러 마리가 함께 움직이고, 꼬리지느러미를 움직여 멀리서 보던 반쪽반쪽 빛을 낸다.	배막배막하는 게 보인다고요.		이은표 (가덕도)				○	○	x
어촌생활진흥	어로	송어들이	고기 지나기	명칭					고기	발음정보	명	백운(白雲)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집안에서 섬기는 신(神)에게 음식을 차려 놓고 비는 제사.	오늘은 {고사날은} 아니거든요.		이은표 (가덕도)				○	○	○
어촌생활진흥	어로	송어들이	고기 지나기	명칭				고기	입막이	발음정보	명	백운(白雲)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집안에서 섬기는 신(神)에게 음식을 차려 놓고 비는 제사.	송어들이 조림이 아무 사고 없이 이뤄지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고사를 지낸다. 고사는 지내는 행위를 '입막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역대 고사장들의 입을 막아 불평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 한다.		이은표 (가덕도)				○	○	x
어촌생활진흥	어로	송어들이	고기 지나기	명칭					고기 지나다	발음정보	구	백운(白雲)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집안에서 섬기는 신(神)에게 음식을 차려 놓고 비는 제사를 지낸다.	전부 다 학 밥 떠놓고 그렇니다. {고사 지낼} 때는.		김관일 (가덕도)				○	○	x
어촌생활진흥	어로	송어들이	고기 지나기	대상					역대 어로장	발음정보	명	지금까지 송어들이 어업에서 어로장을 지내고 돌아가신 분들.	어로장 {역대 어로장들} 돌아가신 분들께 많다. 아닙니다까.		김관일 (가덕도)				○	○	x
어촌생활진흥	어로	송어들이	고기 지나기	장소					고사장	발음정보	명	고사를 지내는 장소.	그기 인자 {고사장}, 옛날에는 고사 지내면 제운 밑에 바위 놓아서 지냈는데.		김관일 (가덕도)				○	○	○
어촌생활진흥	어로	송어들이	고기 지나기	장소					바위	발음정보	명	고사를 지내는 장소로 송어들이 어정이 있는 바닷가의 바위.	그기 인자 고사장, 옛날에는 고사 지내면 제일 밑에 {바위} 놓아서 지냈는데.		김관일 (가덕도)				○	○	○
어촌생활진흥	어로	송어들이	고기 지나기	장소					물가	발음정보	명	고사를 지내는 장소로 송어들이 어정이 있는 바닷가.	그기 인자 고사장, 옛날에는 고사 지내면 제일 밑에 바위 {물가서} 지냈는데.		김관일 (가덕도)				○	○	○
어촌생활진흥	어로	송어들이	고기 지나기	시기					인상하는 날	발음정보	구	고사를 지내는 시기로 음력 1월 보름 경 바다에 송어들이 어장을 치는 날.	오늘 {인상했으니}까네). 정문에서 사신, 이 그러니까네. 어로장, 역대 어로장들 돌아가신 분을 꼭 꼭 아입니다까.		김관일 (가덕도)				○	○	x
어촌생활진흥	어로	송어들이	고기 지나기	시기				고기 안 잡히면	고기 안 잡히면	발음정보	구	고사를 지내는 시기로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을 때.	송어들이에서 인제 열어서, {고기가 안 잡힌다든지}.		이은표 (가덕도)				○	○	x
어촌생활진흥	어로	송어들이	고기 지나기	채량상					사월 초	발음정보	명	송어들이 고사를 지내는 시기.	{사월 초음} 되면 고사 지낼 거예요.		이은표 (가덕도)				○	○	x
어촌생활진흥	어로	송어들이	고기 지나기	채량상					신발 한 켤레	발음정보	구	송어들이 고사상에 올리는 물건으로 역대 어로장에게 신발을 한 켤레씩 올린다.	{한 사람에 신발 한 켤레씩} 꼭 놓습니다.		김관일 (가덕도)				○	○	x

4 승어들이 조사어휘(흥기옥)

범주	대표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상세분류3	원표제어	용량량	발음정보	동사	뜻풀이	유래	기타 정보	출진 정보1	출진 정보2	영단어정보 영단어 인지	표준국어 사전 등 제어부	
어촌생활	진동 어로	승어들이	고사 지내기	차림상					승어		명 = 승어.		고기 잡으면 (승어) 막 한 백 마리면 백 마리 가져가고 그거 뭐 판지고.		이은표 (가덕도)			o	
어촌생활	진동 어로	승어들이	고사 지내기	차림상					소주		명 = 소주.		{소주잔을} 아마 부어 놔을 겁니다.		이은표 (가덕도)			o	
어촌생활	진동 어로	승어들이	고사 지내기	차림상					매지		명 = 매지.		보통 {매지} 같은 것도 한 마리 잡고.		이은표 (가덕도)			o	
어촌생활	진동 어로	승어들이	고사 지내기	차림상					밥		명 = 밥.		{밥도} 한 사상에 한 그릇씩 씹 놓고.		이은표 (가덕도)			o	
어촌생활	진동 어로	승어들이	고사 지내기	차림상					남서풍 불라 하면 고기 많이 이뿜린다				승어잡이와 관련된 관용 표현을 보면 고기의 움직임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것. 혹은 날씨를 보고 고기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다. '남서풍'을 위주로 판단하는데, 승어잡이 움직임을 보면, 많은 수 이동하면, 조막간 남서풍이 불 것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남서풍이 불어도 승어떼의 움직임이 늘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날씨도 흐려짐을 알 수 있다.	김관일 (가덕도)			o	x	
어촌생활	진동 어로	승어들이	관용 표현						남서풍 불면 날씨가 흐려진다.			남서풍이 불면 날씨가 흐려진다. 아마 날씨 안 좋을 거다. 예측을.		김관일 (가덕도)				o	x

찾 아 보 기

ㄱ

가늌 보다138
 가또143
 가리이145
 감숭어144
 감시이144
 감시이 맛 봤나152
 감식이144
 개고기 안 먹는다175
 갯지리135
 곁이157
 곁이바163
 경대135
 고기 따다140
 고도리142
 고등어142
 고부리143
 고사 지나다151
 고사 하다151
 고사바142
 고아지145
 공갈미끼135
 관리선157
 까만뿔래기145
 까지메기144
 까지메이144
 꼬두리142
 꿩돌131
 꿩치바리146
 꿩 달다137

ㄴ

나가래 하다140
 나가리 보다140
 나가리 하다140
 뉘대135
 뉘숫대135
 난킨사바142
 날바주다139
 남서풍 불라 하면 고기 많이 이동한다180
 남서풍 불면 날 안 좋다180
 넷째바163
 노꾸리158
 노불165
 노불 논다165
 논마이157
 농어바리146
 늪새165

ㄷ

닷도158
 대부리143
 대숭어172
 닷마136
 닷마새끼136
 덕146
 덕이 있다150
 덕이 지다150
 돌채131
 돔144
 동173
 동두리 하다170

동력선157
 동무133
 들째바162
 뒷배는 설설하다170
 땅밭이140, 148
 땅밭이가 되게 하다140
 뗏마136
 똥감시이144

ㅁ

마구리143
 막살165
 망159
 망대159
 망뚜리159
 망바159
 망반장161
 망수161
 망이161
 망장이161
 망쟁이161
 망전161
 먹빨래이145
 메가리145
 모릿줄131
 모찌172
 모칠172
 모태132
 물거시이135
 물그시이135
 밀밭주다138

ㅂ

바159
 바람 올리다151
 바람 잠 재우다152
 바리146
 밖귀잡이156

밖목선154
 밖장등155
 발 앞에 놀다175
 발동기157
 방어143
 방에143
 배 짜세우다138
 배를 새까맣게 칠하다176
 불락바리146
 봄감시 개도 안 먹는다152
 봉돌131
 봉돌 달다137
 봐라169
 부망수161
 부망쟁이161
 부어로장161
 북동풍 하다165
 붉은 빛을 내다175
 붉은 빨래기145
 붉은 색이 나다175
 비늘이 시달리다150
 비름하다138
 비움160
 비움줄160
 빠딱빠딱 하다176
 빨라구145
 빨락145
 빨래기145
 빨래이145
 빗돌131
 뽕돌131

ㅅ

사개 놓다167
 사개 막다167
 사공161
 사리때147
 사바142

산171, 173
 상바161
 상사리144
 셋바람165
 설130
 설낚기129
 설래끼129
 설래끼꾼132
 설이 좁다149
 셀쫄하다173
 셋째바162
 승어들이153
 승어들이153
 슬래끼129
 슬래끼꾼132
 시그리를 내다176
 시대165
 시마이 놓다166, 172
 시마이 하다166, 172
 시범줄131
 신발179

○

아릿줄131
 아지145
 안귀잡이156
 안목선155
 안장등156
 알야도143
 양시대147
 야도143
 야도바리146
 어로장161
 어장 꾸미는 도면174
 어초146
 어초 찾다138
 어초가 있다150
 어초기름138

여자 배에 안 태운다175
 역대 어로장178
 열173
 열기145
 오동163
 오동바163
 오아지145
 올림160
 올림줄160
 왕시147
 운반선157
 유두리 하다139
 육소장망153
 이물무상163
 인공미끼135
 일본조132
 입냥하다167

ㄸ

작발147
 잡는 산173
 적군133
 전강이145
 전갱이145
 전마선136
 접173
 조기바리146
 좇157
 좇대157
 주우사바142
 주지130
 줄낚시129
 줄모태132
 줄빨래이148
 중부리143, 172
 중살165
 쥬아지145
 진수식151

짐승 잡지 않는다175

大

참치마리146
 채낚기129
 처박기140, 148
 처박기 하다140
 첫째마161
 초살165

ㄱ

텃고기142

ㅍ

풍신제151

ㅎ

하장163
 할맛네 올라 가다152
 할맛네 지내다151
 항문에 대롱 넣다141
 해라169
 해패132
 햇바닥 주서 넣다141
 흑돔145
 흘대 쳐주다139
 흘대지다139
 흘쩍흘쩍 하다139

■ 연구책임자 : 강정희(한남대학교)
■ 공동연구원 : 홍기옥(경북대학교)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4

발행인 민현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쇄일 2012년 9월 26일
발행일 2012년 9월 28일
인쇄 크리홍보(주) (02-737-5377)
